발 간 등 록 번 호
78-8671000-000001-01

咸平

함평교육사

함평교육 우리 모두의 이야기

청년,
애국을 말하다

교육,
사람을 키우다

학교,
역사가 되다

함평교육,
시간을 거슬러
찾아가다

학교의
변화를 보다

함평교육의
오늘을 보다

전국 최초 사립학교
기부채납으로
미래를 만들다

오늘의 함평교육,
언론에서 만나다

咸平

함평교육사

함평교육 우리 모두의 이야기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1. 이 책은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정리되었다.
2. 학교의 명칭은 통합의 과정, 정책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었다. 학교(폐교)의 명칭은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였지만 당시 역사적 상황을 이해해야 할 경우에는 당시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특히 국민학교라는 이름은 일제강점기의 잔재이고, 교육적인 명칭이 아닌 까닭에 1996년 초등학교로 바뀌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학교 설립과정의 기록을 정리하는 경우, 혹은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학교로 표기하였다.

아득한 학창 시절의 기억을 가장 함평다운 역사로

"쪼각난 기억마저도 꿈이든갑다"

할아버지 한 분이 학창 시절을 회상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겐 꿈처럼 아득한 학창 시절의 기억을 함평교육은 가장 함평다운 역사로 기록하였습니다.

마음먹고 남겼던 특별한 날의 기록, 제3의 눈으로 다시 보고 다시 누군가의 기억으로 남겨졌던 찰나, 함평교육이 좋아했던 시간과 행복했던 시간, 그날의 일정이 나열되어있는 메모 등 그 소중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주고자 합니다.

문자로 기록하지 못한 시간 들에 다양한 물음표를 던짐으로써 어렴풋이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민 이야기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묻지 않았다면 평생 알 수 없었을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함평교육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불타버린 향교가 다시 세워지고, 38개의 서원과 사우가 창건·철폐되고, 18여 개의 이상의 서당에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나던 함평교육의 시작은 일제강점기에는 애국적인 신교육운동으로 민족정신을 이어갔습니다. 함평군민들은 학교가 만들어질 때마다 삽과 괭이로 땅을 파며 운동장을 만들었고 1923년 민립대학 설립 운동, 1945년 민립학교(구)학다리중) 건립 등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함평교육은 이렇게 늘 지역과 함께 공유하고 성장해왔습니다. 함평의 역사·문화·환경이 학교 교육 속에 녹아들어 있고,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함평교육공동체는 이 시대의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 글이 되어 '함평교육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기록되기까지 함평교육가족과 함평군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역사로, 과거·현재·미래가 이어져 미래가 과거와 소통할 수 있는 핵심기억으로 남겨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숙**

함평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소통하는 통로가 되길

축사

함평교육의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함평교육사-함평교육, 우리 모두의 이야기〉 발간을 전남교육 모든 가족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저는 교육감이 되기 전 역사 교사였습니다. 때문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많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역사를 가르칠 때, 저는 역사 교사를 운전자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운전자는 백미러를 잘 살피면서 앞을 주시해야 하듯, 역사 교사는 아이들에게 백미러를 통해 비치는 역사를 보여주면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함평교육지원청이 이번에 '함평교육사'를 발간하는 뜻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평교육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미래의 좌표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함일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함평교육은 언제나 민족사의 중심에서 지역민의 애환을 함께 나누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민립학교·민립대학 설립운동, 야학을 활발하게 일으켜 민족정신을 이어왔고, 민족교육과 새교육 운동을 통해 민초들의 계몽과 지역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을 활발하게 일으켜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야 할 전남교육의 모범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의 희망은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았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함평교육사 발간이 밀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함평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소통하는 통로가 되고, 함평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책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박영숙 교육장님을 비롯한 함평교육지원청 교직원, 향토사학자와 함평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함평교육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으로

축사

함평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전반을 정리한 「함평교육사」 발간을 3만 3천여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의 발간이 있기까지 많은 헌신과 열정을 쏟아주신 함평교육지원청 박영숙 교육장님과 교직원 여러분, 지역 향토사학자와 학생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발간되는 이 책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여정에 현명한 길라잡이가 되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 귀감이 되길 기대합니다.

하나는 약하지만 모이면 힘이 세집니다.
물 한 방울은 미약하나 수백년의 물방울은 바위를 뚫습니다.
찰나의 시간, 순간의 기억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충실했던 기록이 오늘 이렇게 귀한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오니, 역사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함평교육사」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교육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에도 방향을 가리키는 북극성처럼 오늘의 함평교육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 앞으로 함평교육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으로 존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함평교육에 대한 우리 군민의 땀과 열정, 그 귀한 발자취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된 이번 「함평교육사」를 통해 지방교육 발전사에 커다란 획을 긋고 지역교육에 대한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가 한층 더 제고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함평교육사」 발간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귀 기관과 함평교육의 앞날에 건승과 발전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함평군수권한대행 부군수 나윤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시대의 변화는 지나간 격량의 역사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동안 함평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선각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얽힌 역경의 결실은 오늘의 교육을 이루었고, 교육 백년지대계의 꿈을 실현하게 된 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교육에 대한 사랑과 정열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함평교육사'는 우리 함평 교육을 위해 폭넓은 식견과 안목을 갖고 헌신하며 봉사해 주신 선배 교육자의 뜻을 이어받아 오늘의 함평 교육이 있기까지 혼신의 열정을 쏟아 부으신 모든 교육자들의 땀을 기리며 살아 숨쉬는 교육의 지침서가 되어 함평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역사는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모든 역사 발전이 그러하듯이, 지역의 교육 역시 어제를 바탕으로 오늘을 경영하며, 오늘을 토대로 내일을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가게 마련입니다.

「함평교육사」가 시사하듯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은 현재의 관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은 과거와 미래와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다원적 사회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대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를 조화롭게 심어주고, 지난날의 흔적과 역사에서 뿌리를 찾아 주체성을 확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내일을 조망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 위에서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고 충실히 실천할 때 우리 교육의 미래는 매우 희망적일 것이며 이는 창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평교육사」편찬사업이 완성되기까지 애써주신 함평지역 향토사학자 및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께 뜨거운 경의를 보내며 이 책이 우리고장 함평의 교육사 정리를 통해 지역의 공동체 의식 형성과 새로운 함평 교육. 백년대계 로드맵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할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의회의장 정철희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함평교육 우리 모두의 이야기

축사

한국민족대백과사전은 교육이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덕적, 인간적인 면을 중시한 칸트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작용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 사는 곳의 사람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금번 함평교육지원청에서 함평교육역사의 탄생에서부터 성장해온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발전의 원동력이 될 제반과정을 수집 정리하여 함평교육사라는 이름으로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며 함평의 문화를 사랑하는 군민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409년 조선 태종 때 함풍현과 모평현이 합쳐지면서 탄생된 함평은 지명의 의미에 걸맞게 호남인 모두가 소망하는 평화로운 고을이었고 호남가 첫고을에 자리한 만큼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의로운 기상으로 일어났던 의향이었음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고을입니다.

이 고을의 수많은 역사 중 교육현장이 담당했던 한 몫을 간추려 함평교육사로 정리한 것은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쾌거라는 점에서 박영숙 교육장을 비롯한 애쓰신 모든 이들의 노고는 군민 모두로부터 박수를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바쳐진 열정의 결실로 탄생된 함평교육사가 함평교육은 물론 전남교육, 나아가 이 나라 교육현장에 크게 보탬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결국 '함평교육-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 탄생된 '함평교육사'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 걸맞는 멋진 탄생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함평교육사의 발간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으로 한 차원 높게 성장해가는 함평교육의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함평교육사의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함평문화원장 김창훈

누구나 한번쯤은 그리워지고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 학창시절의 기억

교육은 백년지계란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그리워지고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 학창시절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함평교육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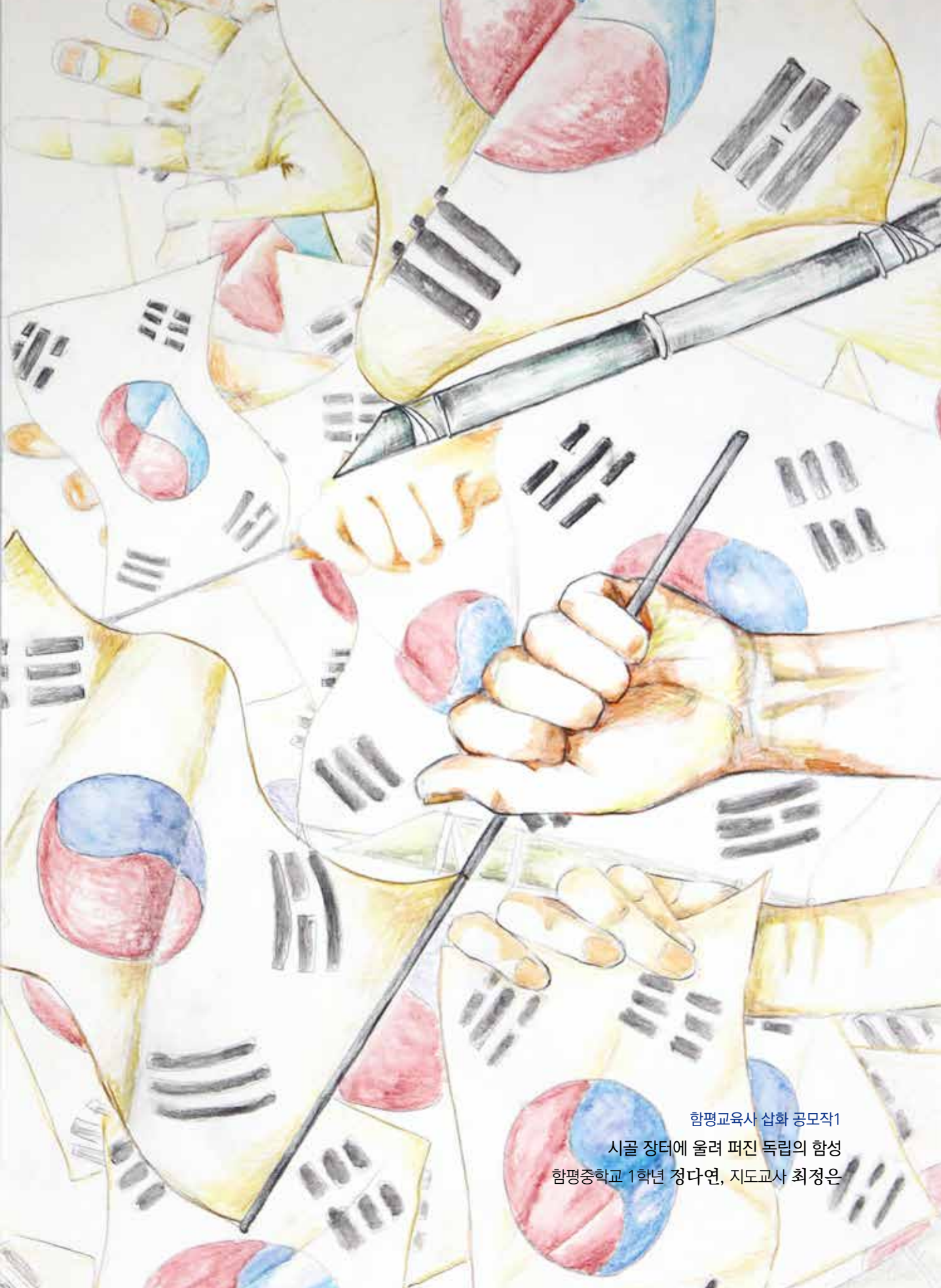
제 1부 함평교육, 이 땅을 딛고 선 청년들을 애국자로 키우다.

제 2부 어제의 함평교육에서 역사를 만나다.

제 3부 함평교육의 오늘을 보며 내일을 끔꾸다.

로 구성되었으며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 함평 교육이 걸어온 길을 시기별로 기록 정리하였습니다. 교육역사의 범용성과 함께 융·복합적 특성을 교육현장에 접목하는 소중한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라남도함평교육참여위원회 위원장 김영인



함평교육사 삽화 공모작1

시골 장터에 울려 퍼진 독립의 함성

함평중학교 1학년 정다연, 지도교사 최정은

CONTENTS

발간사 3

PART
제1부 함평교육, 이 땅을 딛고 선 청년들을 애국자로 키우다

1장 | 청년, 애국을 말하다 14
- 항쟁의 시기, 자치의 현장이 된 향교 14
- 훼철과 복설을 반복했던 기구한 운명의 자산서원 18
- 함평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만세의 외침 30
- 나라를 지키는 힘, 교육 38
- 교장을 끌고 나온 성난 월야 주민들 44
- 민족 통일의 염원을 담은 김구의 함평초등학교 강연 49
- 전쟁의 상처를 담은 학교 55
- 생존권을 지켜 낸 함평 청년의 힘 59

2장 | 교육, 사람을 키우다 62
- 함평초등학교의 고려청자 연구 62
- 한 명의 학생을 위한 작은 음악회 65
- 50년 만에 피어 오른 우정의 등불 68
- 함평골프고등학교는 레슬링 명문학교 70
- 교육과 함께 꽃피운 함평의 문화와 예술 72
- 염소부인과 마을학교 74
- 몸을 세우는 것은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 78
- 함평여고가 없는 함평여고 사거리 85

3장 | 학교, 역사가 되다 89
- 추억이 된 학교 89
-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아이들을 지킨 나무 95
- 학교에서 만난 유물 97
- 학교의 역사는 마을의 역사 99

PART

제2부 어제의 함평교육에서 역사를 만나다

4장 | 함평교육, 시간을 거슬러 찾아가다 108

함평의 시작과 교육 108
최초의 국가교육기관 119
함평 근대교육의 뿌리 131
일제강점기 저항으로 꽃 피운 함평교육 135
해방을 맞이한 함평교육 142
6·25전쟁의 발발과 이념교육의 시작 148
산업화 시기의 함평교육 153
현장 민주화를 꽃피운 함평교육 163
미래를 준비하는 함평교육 173

5장 | 학교의 변화를 보다 178

하얀 손수건을 가슴에 차고 입학하던 날 178
학교 가는 길 181
이제는 볼 수 없는 학교종 184
도시락의 추억 187
운동장, 아이들을 위한 창의 공간 190
변소와 화장실의 차이 196
신나는 운동회 199
꿈을 찾아 떠나는 체험학습 202
마지막 눈물의 졸업식 206
기록으로 보는 함평교육 210

CONTENTS

PART
제3부 함평교육의 오늘을 보며 내일을 꿈꾸다

6장 | 함평교육의 오늘을 보다 216
함평교육지원청 216
함평의 초등학교 현황 223
함평의 중학교 현황 246
함평의 고등학교 현황 252
함평의 특수학교 현황 256
함평의 각종학교 현황 257
함평교육상 수상자 현황 258

7장 | 전국 최초 사립학교 기부채납으로 미래를 만들다 259
함평학다리고등학교 259
함평중학교 261

8장 | 오늘의 함평교육, 언론에서 만나다 263
2011년 263
2012년 269
2013년 274
2014년 278
2015년 283
2016년 286
2017년 290
2018년 295
2019년 302

부록
연혁 312
학교현황 319
폐교현황 321

제1부

함평교육,
이 땅을 딛고 선 청년들을
애국자로 키우다

1장 | 청년, 애국을 말하다
2장 | 교육, 사람을 키우다
3장 | 학교, 역사가 되다

咸平

항쟁의 시기, 자치의 현장이 된 향교

통치이념을 가르쳤던 국가 교육기관, 향교

조선시대에는 유교문화이념을 수용하기 위해 중앙의 성균관과 연계시켜 지방에 향교를 세우게 된다. 전국의 각 군현에 1개소 이상의 향교를 설치하라는 명에 따라 함평에도 향교가 건립되었다. 함평에 세워진 최초의 국가 교육기관인 셈이다.

당초에는 현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 향교는 정유재란 때 소실된다. 불타버린 함평향교는 1599년 초가로 다시 세워졌다. 하지만 자리도 불편하고 규모도 보잘 것 없었다. 1632년(인조 10년) 현 대동면 향교리에 대성전과 명륜당을 완공하여 향교의 규모를 갖추게 된다. 1816년에는 화재가 발생하여 대성전 일부와 명륜당이 불에 타 다시 중수하였고, 현재 건물은 1967년 세워진 것이다.

향교는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그러나 역사의 역설이었을까? 질곡의 역사 속에서 향교는 농민들에게 봉건적 모순을 자각하도록 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권력의 부패에 맞선 농민항쟁

조선 세도정권기 소수 가문의 권력독점과 정치적 파행은 지방행정을 난맥으로 몰아넣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했다. 상품과 화폐경제의 발달은 농민층을 분화시켰고 빈번한 자연재해와 질병은 어려움을 부채질했다. 이 시기 각처에서 일어난 농민 저항의 확산은 그들의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순조가 즉위한 1800년 경상도 안동에서 60여 명의 농민이 관아를 습격한 사건을 비롯해 함경도 단천, 경기도 개성, 강원도 춘천 등지에서 이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1811년(순조 11년) 평안도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었다. 홍경래의 난을 계기로 농민 항쟁은 산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전남지역에서는 무안현감 성수묵이 현민들에게 보복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1862년(철종 13년) 진주농민항쟁을 시발로 3남 지방을 위시한 전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난다. 농민항쟁은 모두 3정의 문란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이때 농민들은 농기구나 죽창을 들고 관청을 습격하여 아전을 죽이고 조세문서를 불지르곤 하였다. 무력에 의한 토벌을 계속 할 수 없었던 조정에서는 유화책을 써서 농민들의 요구조건을 수락하고 말썽을 일으킨 관리나 아전을 파직 유배시켜 민심을 진정시키기도 했다.

계속되는 농민항쟁으로 농민의 사회의식은 더욱 상승했고, 조선의 양반사회 체제를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1862년 농민항쟁은 전국 70여 개 군현에서 발생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모두 38군데서 봉기했는데, 함평도 예외는 아니었다.

봉건적 모순을 자각한 농민들의 저항

함평농민항쟁의 시작은 합법적인 투쟁이었다. 농민들은 등소(等訴: 민원에 관련된 일을 풀기 위하여 민인들이 연명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관청에 올려 하소연하는 일), 격쟁(擊錚: 조선시대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궁궐에 난입하거나 국왕이 거동하는 때를 포착하여 징·꽹과리·북 등을 쳐서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 자신의 사연을 국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행위), 거화(擧火: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려는 사람이 서울 남산 위에서 횃불을 올려 그 뜻을 나타내던 일) 등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나서 전면적 봉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4월 16일, 14개의 향촌민이 죽창과 깃발을 들고 장시(場市)에 모여 궐기한 후 관리와 토호들의 집을 습격하고 쳐 들어가 현감과 이서들을 추방하게 된다. 이후 농민들이 읍의 행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읍내와 동헌을 습격한 향민들과 주도자들은 교원(校院: 향교와 서원)에 둔취(屯聚: 군병을 한곳에 모아서 수비하고 경계하는 일)하면서 25일간 읍의 행정권을 쥐게 된다.

이때 봉기농민들이 근거지로 삼은 곳은 현 동쪽 5리에 위치한 교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의 향교로 추정된다. 이들은 향교를 근거지로 하여 동헌과 각 면을 수시로 순시하였다. 봉

기농민들은 요호(饒戶: 살림이 넉넉한 집)에게 전곡을 조달하여 장기간 둔취에 필요한 자금도 마련했다.

정한순을 비롯한 항쟁지도부가 자주 순찰하였고, 관아의 비리 파악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조정에서 보낸 조사관을 농민들이 시찰하고 감시하였으며 이서들을 지휘하여 조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독촉했다.

5월 10일, 정한순을 비롯한 주동 농민들이 안핵사와 우영장 앞에 스스로 나타나서 직접 '십조앙진' 처결을 소원한 다음 스스로 해산하면서 봉기는 마무리되었다. 이후 조정에서는 함평농민항쟁에 참여했던 농민들에 대한 처벌을 단행하게 된다.

함평농민항쟁은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조정의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진주항쟁 이후 온건한 방법으로 대처하던 조정은 함평항쟁 이후에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처형하기 시작했다.

함평농민항쟁은 합법적으로 시작했고, 스스로 행정을 꾸려갔던 25일 동안 자치역량을 발휘하며 해방구를 만들어 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한다. 이때 향교가 근거지가 되어 농민들의 역사와 함께 했다.

어떻게 향교가 근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향교는 교학적인 기능은 쇠퇴하고 대신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기강을 유지하는 사회 교화의 기능이 더욱 부각된다. 그러다보니 향교가 농민들에게 봉건적 모순을 자각하게 만들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봉건사회의 억압을 받으며 어떠한 사회적, 신분적 모순을 의식 못한 채 살아왔던 농민들이 점차 사회적 모순에 눈을 떴다는 말이기도 하다.





함평향교 외부

함평향교는 현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정유재란 때 소실된다. 1599년 초가로 다시 세워졌다가, 1632년 현재 위치에 다시 지어졌다. 1816년에 화재가 발생하여 대성전 일부와 명륜당이 불에 탔고, 현재 건물은 1967년 세워진 것이다.

咸平

훼철과 복설을 반복했던 기구한 운명의 자산서원

원통합니다. 마치 역적의 집을 파 헤쳐…

서원은 조선시대 지방에서 유학 교육을 통해 지식인을 양성하는 곳으로, 선현을 봉사(奉祀: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심)하는 사묘를 가지고 있었으며 엄격한 학규에 의해 운영되는 특징을 가졌다. 교육과정은 과거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성리학의 교육과 연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함평군 엄다면 제동마을에 위치한 자산서원은 조선 중기 호남 사림을 이끌었던 정개청(鄭介淸)과 참봉을 지낸 그의 동생 정대청(鄭大淸)을 배향하고 있다. 정개청이 1589년 일어난 기축옥사(정여립의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문인들이 스승의 신원운동을 전개하면서 1616년 건립한 서원이다.

자산서원은 이후 계속되는 당쟁으로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이르기까지 무려 5차례 훼철(毁撤: 부수어서 걷어치움)과 복설(復說: 없앴던 것을 다시 설치함)을 되풀이하였다. 1657년(효종 8년) 서인 송준길의 상소에 의해 자산서원이 철폐되자, 1675년 4월, 유학(幼學: 벼슬하지 아니한 유생) 나적(羅積) 등 사림들이 상소를 올리게 된다. 이 상소에는 철폐될 때의 비참함이 그대로 들어난다.

"계해년(1623) 반정 뒤에 서원이 신설되어 관작이 회복됨에 많은 선비들이 용동(聳動)하여 개청이 살던 무안현(현 함평군)에다 사우(祠宇)를 지어 이로써 인조(仁祖)의 성덕을 빛내고 많은 선비들이 경앙(景仰)하는 마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유년(1657) 판서 송준길이 개청이



상신 박순에게 교육을 받고 나가 일찍이 배절의론(排節義論)을 지었다는 등의 무함을 어전에서 계달하고 사우철폐를 청하여 본읍(本邑)이 그 위판(位板)을 불사르고 제기를 부셨으며 재목과 기와는 거두어 마굿간을 만드니 마치 역적의 집을 파 헤쳐 연못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 너무합니다."



자산서원은 1965년 복설허가를 받고, 1987년 자산서원 정화사업 추진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1988년 대규모의 복원공사를 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자산서원에는 1987년 6월 1일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146호로 지정된 정개청 문집 '곤재 우득록(愚得綠) 목판'이 소장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고성정씨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수차례 훼철과 복설을 반복해야 했던 기구한 운명을 가진 자산서원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여립과 기축옥사의 이야기부터 꺼내야 한다.



꽃무릇과 자산서원

자산서원 사무실 계단 옆에 피어있는 꽃무릇. 9월이면 함평 곳곳에서 꽃무릇을 마주할 수 있다.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 정여립

정여립은 전주 출생으로 재주와 학식이 뛰어났으며 촉망받는 선비였다. 서인인 이이(李珥), 성혼(成渾) 가르침을 받으며 학문에 힘썼고, 이이는 여러 차례 그를 천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동인인 이발(李潑) 등과 가까이 지냈고, 동인의 중심인물로 떠올랐다.

이이가 죽은 뒤에 공개적으로 이이와 성혼 등을 비판하여 서인들의 반감을 사서 여러 차례 탄핵을 받았고, 결국 스승을 배반했다는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그의 일생을 바꾸게 만든 계기였고 끝내 보복을 받았다.

그는 고향에 돌아와 살면서도 조정의 여러 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는 "불사이군(不事二君: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은 옳지 못하다"며 "누구를 섬기든 임금이 아니겠는가?"하고 제자들과 동료들에게 말했고, "옛 탕무(湯武: 은나라를 세운 탕왕과 주나라 무왕)처럼 나쁜 임금은 백성의 손으로 갈아 치워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군주제도에 대해 비판할 만큼 시대를 앞서 간 사상가였고, 진보적 지식인이었다.

정여립이 사귄 사람들은 천민, 승려, 선비 등 여러 계층이었다. 지역의 무사들과 노비들을 끌어 모아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했고, 대동계원들과 함께 전라도 도서 지방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589년(선조 22년) 황해감사 한준이 임금만 볼 수 있는 비밀 장계를 올리는데, '정여립이 주도하는 세력이 전라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내용

이 들어 있었다. 당시 조정은 동인들이 세력을 이루고 있었고, 정여립도 동인에 속했다.

장계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질 새도 없이 의금부 도사들이 전라도와 황해도로 내달았다. 정여립은 이 사실을 알고 아들과 공모자인 박연령의 아들을 데리고 진안 죽도로 숨었지만 결국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가 관군을 피해 피신했다가 자결했다고 하지만, 서인의 음모로 살해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호남의 정치지형을 바꾼 기축옥사

그 뒤 1591년까지 정여립과 연루된 수많은 동인 인물들이 희생되는데 이를 기축옥사(己丑獄事), 기축사화(己丑士禍)라고 한다. 서인 세력은 동인 세력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확대하였고, 그 뒤 2년 넘게 서인인 정철(鄭澈)의 주도 아래 수많은 동인의 인물들이 탄압을 받았다.

한편, 기축옥사의 여파로 호남 출신의 관직 등용에 제한이 가해지면서 호남지역 사대부들의 벼슬길이 막히게 되었다.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정치사회계에 존재하는 호남지방에 대한 지역차별 정책의 연원으로 지적되기까지 할 정도다.

또한 기축옥사는 조선시대에 당쟁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동인과 서인의 갈등은 점차 심화된다. 이후 정철의 비호를 받고 있었던 호남사림의 대부분은 학문분야 보다는 문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 면앙정가단과 성산가단을 중심으로 시가 문학 활동을 활발히 벌인다.

이러한 결과, 성리학의 본령인 철학과 예학 등에서 기호사림에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바로 3년 후 닥쳐오는 임진왜란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동인이 다시 정국을 주도하게 되면서 서인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었고, 이는 이황(李滉) 계열의 남인(南人)과 조식(曺植) 계열의 북인(北人)으로 동인이 다시 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광해군 때에 북인인 정인홍(鄭仁弘)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자산서원

함평군 엄다면에 위치한 자산서원은 조선 중기 호남 사림을 이끌었던 정개청(鄭介淸)과 참봉을 지낸 그의 동생 정대청(鄭大淸)을 배향하고 있다. 정개청이 기축옥사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문인들이 건립한 서원이다. 자산서원은 이후 5차례 훼철과 복설을 되풀이하는 기구한 운명을 맞았다.

기축옥사 당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복권을 추진하였으나,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면서 기축옥사는 모반 사건으로 계속해서 남게 되었다.

정여립과 서한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유배당한 정개청

기축옥사를 주도했던 정철과 백유함 등 서인들은 정여립과 친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조리 잡아들였다. 편지를 주고받았거나 혹은 먼 친척이더라도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있으면 예외가 없었다.

여기에 희생된 대표적 인물이 바로 정개청이었다. 정암수 등 10명이 상소를 올려 '정개청은 오랫동안 정여립과 교유하면서 사설(邪說: 그릇되고 간사한 말)에 동화한 자'라고 하고 '일찍이 절의를 배제하는 일설(一說: 하나의 주장이나 학설)을 지어 후생과 소자(小子: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말)를 의혹케 하였는데 그 말에 이르되 그 폐해는 반드시 범법작란(犯法作亂: 법을 어기고 난리나게 하다)을 아울러 일으킬 것'이라고 하였다.

선조는 정암수의 상소가 '간인의 사주에서 나왔다'는 판단으로 의금부에 하옥하여 국문하도록 하였다. 이에 정철 등은 양사를 동원하여 국문의 부당성을 상소하게 하였고 결국 이는 불문에 부쳐지게 되었다.

무안의 유생 배명 등은 정개청의 무고와 원통함을 상소하였으나 결국 정개청은 나주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의 나이 60세 되던 1590년 4월이었다. 투옥된 처음의 이유는 '정개청에게 학문을 배운 나주인 조봉서란 자가 정개청을 따라 정여립의 집에 가서 그 집터를 보아 주었다.'는 무고(誣告: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정여립의 몰수문서 가운데 정개청의 서한이 있음이 밝혀지게 되면서 정철에 의하여 정여립과의 친분이 있음이 주장되고 이것이 수용되었다. 결국 정개청은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를 당하는데 배소에 도착한 지 1달여 만에 고문의 상처로 병을 얻고 1590년 7월 27일 세상을 떠난다.

임진왜란을 예견했던 정개청

정개청의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의백(義佰), 호는 곤재(困齋)이며, 시호는 문청공(文淸公)으로 1529년(중종 24년) 나주에서 태어났다. 1570년경 무안 엄담(淹潭) 윤암(輪岩) (현재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제동-濟洞)에 정착하여 정사를 짓고 후학양성에 전념했다. 곡성현감 등에 부임했으나 그 관직생활은 1년이 되지 못했다.

그는 예학과 역학뿐만이 아니라 역사, 천문, 지리, 의약, 산수(算數), 복서(卜書), 덕공력(德功力)의 기술 등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박순에 의해 왜적을 막을 수 있는 팔도도원수로 추천되기도 하였다.

그의 제자로는 나사침의 아들인 나덕명, 덕준, 덕윤 삼형제와 그의 사위인 정식, 나세찬의 손자인 나덕원, 안응정의 문하였던 안중묵, 최경회의 조카 최홍우, 유몽정의 종질 유양, 윤형정의 아들 윤제 등 나주와 화순, 함평, 보성 등의 유력가문 출신들이었다.

윤선도는 "동방의 진유로서 이황에 버금간다."며 그의 인품과 학식을 평가했다. 당대의 명성은 붕당을 달리한 유희춘, 이이 등에게서도 인정되었다. 유희춘은 "선생의 간절하고 깊은 함양을 마땅히 여기어 후학의 사표(師表: 학식과 덕행이 높아 세상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로 근덕(勤德)하라"며 덕준 등으로 하여금 종사(從師: 문묘나 서원 등에 학덕이 있는 사람의 신주를 모심)케 하였다. 율곡 이이도 덕준 등에 이르기를 "정모(鄭某)는 학행이 독실하여 가히 사람들의 스승이 될 만함으로 모름지기 자주 종유(從遊: 학식이나 덕행이 높은 사람을 좇아 함께 지냄)하라."고 인정하고 격찬할 정도였다.

그는 여타의 사림과 마찬가지로 선학과 노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고, 성리학을 본위로 하면서 철저히 주자를 신봉하지만 천문, 지리 등의 실용학문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는 또한, 임진왜란을 예견하고 있었다. 이율곡이 일본의 침략을 예견하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였듯이 정개청도 1588년에 이미 왜적의 침입이 있을 것이니 이 침입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도이장욕유변(島夷將慾有變)'의 상소를 올린 바 있다. 상소의 내용은 그의 저서인 우득록(愚得錄) 제 3권에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

선조는 당시 영의정이던 박순에게 "왜구들이 침입을 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수가 누구

냐?"고 물었고, 박순은 "지리에 밝고 모든 분야에 조예가 깊은 정개청 같은 사람이 좋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주고받은 사실이 대동야승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4년을 앞서 보는 정개청의 상소도 율곡의 10만 양병설이 묵살된 것처럼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대동야승에는 그가 당대의 대학자였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주역(周易) 소자율여신서(邵子律呂新書)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에 힘씀이 더욱 독실하여 천문, 지리, 의약, 복서(卜書), 산수(算數), 전진(戰陣)의 법과 황왕제패(皇王制霸)의 도덕공력(道德功力)의 술(術)을 연구하지 않음이 없었다.

실지로 본 것이 고명하나 항상 통하지 못한 것처럼 하고 조예가 정묘하고 깊어도 진보하지 못한 것처럼 하고 아름다운 덕이 쌓였으나 스스로 들어내지 아니하며 쉬지 않고 반성하여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우리 동방의 도학이 전하는 유래가 있으나 오현(五賢) 뒤에는 들리는 사람이 없더니 선생이 남쪽에서 우뚝 일어나 개연히 사도로써 자임하여 회제 퇴계 두 선생과 더불어 이론을 세우고 일을 행함에 있어 서로 발명되었으니 어찌 맹자 말씀에 '문왕을 기다리지 않고도 오히려 일어났다'는 호걸이 아닌가. 사암 박상국(박순), 아계 이상국(이산해), 소재 노상국(노수신)이 모두 일대의 명현이었는데 선생의 도덕이 순수하다는 것을 잘 알아 치도(治道)를 논하기도 하고 예문을 가려 풀이하는 등 서신 왕래가 끊이지 않았으며 천거하고 부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

선조께서는 "정개청을 당초에 역적으로 지목해서 국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서애 유선생(유성룡)은 "개청은 호남의 인물 중 제일 이름이 있고 평생에 학술, 행검으로 자임하였는데 우연히 한편의 글로 죽기까지 하였다."라고 하였다.

정개청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인물이었다. 비판적이지만 철저한 주자신봉주의자였고, 학문적 발자취도 컸다. 하지만 그 역시 기축옥사를 피해가진 못했다.



하문교

자산서원 앞을 흐르는 무안천에 놓여진 다리는 하문교라고 불린다. 조선 선조 때 병마사가 제동마을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다리 앞에서 말이 발을 떼지 않자 연유를 알아본즉 정개청 선생을 뵙고 가야 말이 움직인다는 말을 듣고 말에서 내려 정개청 선생을 뵙고 나니 말이 움직여 다리를 건너갔다 하여 하마교라 명하여 졌으나 그 후 와전되어 하문교라 불려지고 있다고 한다.

엎치락뒤치락 파란을 겪는 자산서원의 운명

1591년(선조 24년) 정철이 축출당하고 동인이 집권하면서 정개청의 신원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1616년(광해군 8년) 현 함평군 엄다면 제동마을에 그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자산서원이 세워졌다. 이는 동인 계열의 남북인이 합세하여 이룬 성과였다. 하지만 동인과 서인의 정권 방향에 따라 정개청의 신원운동과 사원철폐는 수차례 되풀이되었다.

서인들에 의한 인조반정이 성공하자 김장생의 상소에 의해 인조 2년 서원이 철폐되었다. 그 뒤 1년 만에 정개청은 다시 복위되고 서원도 복설되었다.

1657년(효종 8년)에 서인의 송준길, 민정중 등의 상소로 자산서원은 또 다시 철폐되었다. 그러나 동인계열의 남인인 윤선도와 허목의 상소로 1677년(숙종 3년)에 복설되었고, 1678년에 '자산(紫山)'이라고 사액된다.

1680년 남인대출척(南人大黜斥)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관찰사 임규의(任奎毅)와 유경서(柳景瑞) 등의 상소에 따라 또 다시 훼철되었다가,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이 다시 집권하자 1689년 또 다시 복설되었다.

갑술옥사로 남인이 다시 쫓겨나고 그 뒤 이만성(李晩成)의 상소에 의하여 1702년 또다시 훼철되었다. 그 후 1752년(영조 28년)에 제동사(濟洞祠)라는 이름으로 중건되었고, 1762년 훼철되었으며, 1789년 다시 복설되었으나 1868년(고종 5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1942년 유림 및 후손들에 의하여 유허단향비(遺墟壇享碑)가 세워졌다.

우연히 한편의 글로 죽음을 맞이한 정개청처럼 자산서원도

우여곡절을 겪는다. 이렇듯 사후에도 엎치락뒤치락 파란을 겪는 정개청과 자산서원의 이모저모가 대동야승의 '기축록' 하권 '속기축록'에 수록되어 있다.

1657년(효종 8년)에 송준길이 사우철폐를 상소하자, 윤선도는 1658년 6월 이의 부당함을 상소한 바 있다. 이 상소에서 윤선도는 정개청의 무고함과 인품을 장문으로 엮고 있다.

개청이 소인들에게 질시를 당하여 혹독히 역사(櫟社)의 화를 입어 기축년 옥사에 무고하게 죽었다가 다행히 설원(雪冤: 억울함을 씻음)함을 입은 지 36년이 되었는데 이제 기축년 보다 배나 심한 모함을 받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개청이 열성조(列聖朝: 역대 임금의 시대를 높여 이르는 말)의 보살핌에 힘입어 초야에서 분발하여 일어나 독실하게 배우고 힘써 행하여 식견이 투철하고 사업을 이루어 세상에서 추앙하는 바 되니 사람의 종장(宗匠: 유교의 경서에 밝고, 글을 잘 짓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여러 재상이 천거하고 임금께서 부르심이 한 두 번이 아니었으니 결코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범상한 사람이 죄 없이 오명을 쓰면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니 미천한 신하가 가슴을 치며 원통히 하매 6월에 서리가 내리고 잔약한 여자가 하늘을 원망하매 3년이 가물었다 하는데 하물며 지극한 행검이 몸에 배어 있어 도(道)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 황천의 원통함을 겨우 씻었다가 후세의 무고함이 더욱 혹독하다면 이 어찌 밝은 세상이라 하겠습니까? 반드시 밝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윤선도의 상소는 개청에게 오명을 다시 쓰게 하려는 행위를 탄식하고 있으며 그 무함(誣陷)이 밝게 밝혀지기를 간원하고 있다.



제자거리

정개청을 사모한 제자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하여 자산서원 입구에 있는 송암, 불암을 제자거리라 부르고 있다.



곤재로

함평여자중학교 앞에서 자산서원을 지나 월선마을에 이르는 길을 정개청의 호를 따서 곤재로라 부르고 있다.

개청이 구원(九原)의 썩은 뼈가 된지 이미 70년이 지났는데 지금 사람으로 누가 혐의하고 누가 원망하겠습니까? 비록 죄를 얽더라도 이로울 바가 없고 원통을 씻더라도 해로울 바 없을 것인데 무함하는 것이 기축년보다 곱절이나 되는 것은 개청은 자취지화(自取之禍: 자기가 자초한 재앙)로 돌리고 정철이 선비 죽였다는 이름을 벗기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

성상께서는 미쇄(微瑣)한 것을 통촉하시고 덕음(德音: 임금의 말씀)을 내리시어 황천(黃泉)에 있는 개청의 원통을 씻고 사방 사람의 공론을 통쾌하게 하시어 국시를 바로잡고 나라의 명백(明白)을 길이 하여 주시면 종사(宗社: 종묘와 사직, '나라'를 이르는 말)의 다행이겠나이다.

실로 장문의 상소였다. 그러나 이 상소는 정원에서 되돌려주고 말아 후대에서야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정개청 시비

서원 관리실에서 서원으로 향하는 곳에 정개청의 시비가 놓여 있다.

詠懷(영회) – 회포를 읊음

1576년 8월 9일 밤에 씀

三椽茅屋一枷書 (삼연모옥일가서)
百歲人生半世餘 (백세인생반세여)
心上經綸賢聖事 (심상경륜현성사)
世間無望冒簪裾 (세간무망모잠거)
오막집 한 시렁에 가득 쌘 책만 읽다가
백년도 한 인생 반이 흘렀네.
마음위에 품은 뜻은 현성의 일 뿐인데
세상사람 귀현(貴顯: 지위가 높고 귀하며 이름이 유명함)함을 바라봄이 없소이다.

咸平

함평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만세의 외침

시골 장터에 울려 퍼진 독립의 함성

1919년 4월 8월 오후 2시, 함평군 해보면 문장 장터 근처에서 수백 명의 군중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월야 출신 김기택, 정용섭, 정재남 등이 태극기를 높이 들고 앞장 서 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벌였고, 장을 보러 나온 수백 명의 군중들이 이들을 뒤 따르며 호응하고 나섰다.

거사를 하루 앞둔 4월 7일 밤, 마을 사람 십 수 명이 태극기를 만들면서 이날의 함성이 시작되었다. 월야면 월계리 석계마을 서당인 낙영재에서 십 수명의 학생들이 김중수 훈장의 지휘 아래 만세시위에 필요한 태극기와 격문을 제작했다. 월계리 덕산마을에서는 죽창을 만들어 당시 5일 시장인 월야 무내미(현 해보면)장 근처로 운반하였다. 거사 당일인 4월 8일 아침에는 만세 운동의 주도자들이 거리거리에 배치되어 주민들에게 취지를 알리고 태극기와 죽창을 나누어 주었다.

오후 2시, 독립만세 소리가 문장 장터에 메아리치고 태극기가 물결쳤다. 이들은 문장리에 있던 일본경찰 문장 주재소와 병참소를 기습했다. 군중의 일부는 함평 쪽으로, 일부는 영광 쪽으로,



일부는 송정리 쪽으로 행진하고 있었다.

긴급히 연락을 받고 영광, 함평, 장성, 나주 등지에서 지원 나온 일본경찰대와 헌병들이 총검으로 대오를 해산시키려 밀어붙였다. 때마침 구밀교 건설공사를 맡고 있던 10여 명의 일본인 잡역부들이 일본경찰과 헌병들과 함께 쇠망치를 휘두르며 시위대오에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거리는 피바다로 변해버렸다.





해보면 금덕리 문장삼일만세탑

문장 4·8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2008년 4월 4일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에 문장 삼일만세기념탑이 세워졌다. 원래 1989년 3월 1일에 건립하였으나 시설이 노후하여 2008년 다시 세웠다.

아울러 장터로 출동한 일본헌병들이 김기택 등을 구타하고 검거하자 여기에 분개한 장효섭, 이윤상 등이 김기택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본경찰과 헌병은 폭력을 행사하였다.

시위를 주동한 이들은 경찰에 붙잡여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다. 대부분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다. 주모자 20명 중 김기택(징역 1년), 이윤상(징역 6월), 정재남(징역 6월), 정용섭(징역 8월)은 실형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15명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이날은 함평군에서 처음으로 폭압적 일제 무단정치에 목숨 걸고 저항하고자 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솟구친 날이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기념탑 안내판에 애국지사들을 기억하기 위한 그림이 붙어있다. 4·8만세운동 애국지사는 이인행, 이윤상, 김기택, 장효섭, 정재남, 정재식, 정용섭, 장영안, 모재명, 김여옥, 이양범, 이상준, 장덕환, 장태중, 이계동, 김용현, 김재곤, 최준달, 모양춘, 민정태, 이인덕, 김원준, 주승환, 윤의병 등 24명이다.

좌절된 함평의 3·1운동

1910년대는 일제의 강압적 무단통치로 인한 암흑기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일제의 무력에 의해 빼앗긴 나라를 다시 무력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한 무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경제를 통한 실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팽배했다. 사립학교와 서당에서까지 청년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애국적인 신교육운동을 벌여 민족의식이 크게 고무되었다.

1919년 일어난 3·1운동은 극소수 친일세력과 친일지주, 매판 자본가를 제외한 전 민족이 참여한 항일독립운동이었다. 국내적으로는 일제의 폭압적 무단정치를 변화시켰고, 국제적으

로는 중국 등 아시아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에 커다란 자극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또 민주공화제 이념이 전면적으로 보급되어 공화제 형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 나아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신사조가 도입되어 새로운 사회·새로운 국가건설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는 기반이 되었다.

지방은 서울의 3·1운동 소식과 독립선언서가 전달되면서 나중에 벌어졌으나, 자동적으로 시위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운동의 주체적 조건이 충분히 성숙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전남지역의 만세운동은 평안도나 경기도처럼 격렬한 운동으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당시 전남은 천도교나 기독교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한말에 벌어진 의병봉기로 인해 유생과 유림층이 궤멸을 면치 못함으로써 광복운동을 주도할 인물이나 조직을 충분히 갖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젊은 청년과 보통학교 학생들이 직접 운동의 주도층으로 나서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함평도 예외는 아니었다.

함평의 3·1운동은 윤백언, 정기연, 이인행 등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들은 고종황제의 인산봉도를 위해 상경해 탑골공원 만세시위운동에 가담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본 관헌에게 붙잡혀 종로경찰서에서 3일간 심한 고문을 받던 중 풀려났다.

이인행과 정기연은 고초를 겪고 풀려나 친구 집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우연히 장성에서 상경한 기산도와 만나게 된다. 이들은 기산도를 따라 인천 월미도로 가서 한남수 등 여러 동지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독립사상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대회 취지문 작성에 참여하게 된다. 이인행은 그 취지서를



독립운동만세발상지 기념비

낙영재에는 1989년 4월 8일 4·8독립운동만세 발상지 기념비가 세워졌다.



낙영재(樂英齋)

〈함평군 월야면 월야석계길 34〉

낙영재는 석천 김중수 선생의 한문 서당으로, 문장 4·8만세운동을 사전 결의하고 만세운동에 필요한 태극기, 격문 등을 제작하였던 역사적인 장소다. 1943년 큰 태풍으로 파손되어 지역주민들이 복원하고자 하였으나, 반일 거점지라 하여 일본경찰의 방해로 복원하지 못하였다. 2005년 4월 7일 낙영재 복원사업이 완료되었고 지금은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로 관리되고 있다.

몸에 품고 함평에서 국민대회를 벌일 책임자가 되어 3월 15일 귀향한다.

귀향한 이인행과 정기연은 조사현, 김용언, 김준령, 모순기, 김준부, 김기성 등과 모임을 갖고 '슬프다 우리 민족들, 4,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어찌하여 왜적 일본에게 국토를 빼앗길 수 있으랴. 우리 힘으로 강토를 찾아보자'라는 국민대회 취지서 전단을 인쇄하고 이를 살포하였다.

함평의 시위운동은 4월 26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4월 17일 김준부, 전기성 두 사람이 군내 유지와 학생들에게 전단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 경찰에 탐지되고, 4월 18일 두 학생이 등교하던 중 연행되어 혹심한 고문을 당한다. 이들은 여러 동지의 희생을 막기 위하여 정인옥, 장학년, 박상수 등 3인 만을 내세우고 다른 주모자들은 토설하지 않았다. 다행히 4월 23일 교장과 담임 교사의 노력으로 방면되었지만, 함평에서의 시위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문장에서 4·8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아쉬움이 컸기에 더 뜨거웠던 3·1운동 1주년

1920년, 3·1운동 1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다시 일어났다. 함평에서도 1주년을 기념하는 만세운동이 크게 일어났는데, 1919년 만세운동이 좌절된 아쉬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사현, 송대호, 정기연 등 일찍부터 독립운동에 뜻을 둔 젊은이들은 1주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 이들은 동지들을 급거 규합하고 3월 19일 함평공립보통학교 기숙사에서 회합을 가졌다.

3월 26일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합의했는데, 이날은 졸업식 날이었다. 이들은 담당을 나누어 준비했다. 일반인은 조사현, 김재문이 맡고 학생들은 김용언, 윤태완, 이행록 등이 맡아 앞장서서 모든 일을 준비했다. 함평읍은 윤치영, 대동면은 김준령, 나산면은 정기연, 다른 면은 모순기, 정영조가 맡기로 했다.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최봉길과 모순기의 집에서 태극기를 만들었는데 송대호, 장정현, 이재주, 윤치선 등이 주축이 되었다. 그들은 태극기를 함속에 넣어 김용언에게 보내어 기숙사에 숨기도록 했다.

마침내 3월 26일이 되었다. 송기호와 정기연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졸업식이 끝난 후 만세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그리고 오후 4시 쯤 이들 학생들을 필두로 청년, 군민들 수백 명이 장터에서 독립만세 함성을 높이 올렸다. 조사현 등이 태극기를 들고 선두에 서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지를 향해 시위행진을 벌여 나갔다. 이 때 많은 군민들이 따라 나와 만세를 함께 불렀으며, 온 시가지는 만세소리로 뒤덮였다.

그러나 일본헌병, 경찰과 충돌했고 평화적 시위대열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쏘아대는 총탄과 휘둘러대는 대검으로 10여 명의 군중이 부상을 입었고, 조사현, 송대호, 정기연 등 20여 명은 연행 구속되었다. 하지만 함성은 멈추지 않았다. 저녁 9시쯤 기산에서는 횃불이 훨훨 타오르며 만세소리가 요동쳤다. 그 만세소리는 다시 이 산 저 산으로 번져 혹은 산마루에서 혹은 들판에서 혹은 마을에서 퍼졌다.

4월 1일에는 학교면 학다리 정거장 앞 광장에서 많은 군중들의 만세시위가 벌어졌고, 4월 2일에는 나산면에서 다수의 면민들이 면사무소 앞에 모여 만세를 불렀다. 뿐만 아니라 3일과 5일 사이에 손불면, 엄다면 등 군내 여러 곳에서 산상봉화와 함께 만세소리가 메아리쳤다.

청년들의 역사로 기억된 함성

1920년 당시 열여덟 살이었던 김재문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는 당시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1920년 3월 26일 전남 함평군 함평공립보통학교의 졸업식날 함평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를 계획·주도하였다. 이곳의 만세시위는 조사현, 송태호, 정기행 등에 의해 계획되었는데, 그들은 3월 26일 보통학교 졸업식을 이용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하고 동지 규합을 분담하는 등



사전준비를 서둘렀다. 그는 3월 19일 보통학교 기숙사를 방문한 조사현 등을 만나 이 계획을 전해 듣고서 동참을 결심하여 윤치영과 함께 함평면 일원의 연락을 맡았다. 그는 동지들과 함께 모순기의 집에서 태극기 수십 매를 만드는 등 준비 작업에 참여하였다. 3월 26일 오후 4시경, 그는 졸업식을 마친 공립보통학교 학생 윤태완, 이행록 등 30여 명의 학생을 인솔하여 장이 열리고 있는 함평 시장으로 행진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장터를 시위 행진하였다. 그러나 출동한 일본 헌병과 경찰의 무력 탄압으로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참가자가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20년 5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1922년 9월부터 1925년 11월까지 함평군 손불면 동암리에 건립된 사설 신정학교 교장으로 재임하며 후학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 군자금을 모금하는 등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19년과 1920년 일어난 독립만세운동 당시 많은 학생과 10대 청년들이 시위운동을 주도하고 참여해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당시 고초를 겪은 김용언(1919년 당시 19세, 학생), 김기택(19세), 정용섭(19세), 송대호(1920년 당시 19세, 학생), 정기연(18세, 학생), 김준령(19세), 김재문(18세), 윤태완(18세, 학생), 이행록(18세, 학생), 김용언(20세, 학생), 정영조(18세, 학생) 등에게 훈장과 표창을 추서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오랫동안 공훈을 인정받지 못한 인물들도 있는데, 대표적 인물이 앞에서 언급된 조사현이다. 조사현은 1920년 3월 26일 함평장터에서 시위만세운동을 벌이다 체포되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 조사현은 대정8년(1919년) 3월 이후 조선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개시하는 소요를 야기한 바 함평 지방에 있어서도 같은 시위운동을 하여 조선 독립의 기운을 촉진하고자 했으나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던바 금년 3월 중 동 운동을 기획할 뜻을 품고 거사를 수행하도록 촉진시켜 대정9년(1920년) 3월 19일 함평공립보통학교 기숙사에 이르러 동 기숙생인 피고 송대호, 정기연, 윤치선, 정영조, 김용언, 김재문 등에게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함평지역만 빠지면 치욕이니 속히 학생들은 규합하여 시위운동을 거사하라고 선동하였고…(후략)'

위 판결문처럼 조사현은 당시 시위 주동자로 지목되어 가장 많은 형량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하지만 조사현과 윤치선(1920년 당시 18세, 학생) 두 사람은 그 공훈을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다.

1930년 격문사건

그날의 함성은 잊혀지지 않았다. 1930년 3월 1일 함평에서는 격문이 살포되는 사건이 일어나서 11명이 검거된다. 이중 7명은 방면되었지만 이현(당시 21세), 이상영(19세), 이열(21세), 김계천(19세)은 목포검사국으로 송치된다. 이후 권용환, 황창규, 이천범 등 3명이, 또 이어 광주고보생 이삼희, 함평공보생 장희술, 함평농잠보교생 이재연 등 3명이 구속되면서 모두 10명이 구속 수감되었다.

당시 학생이었던 이들은 3·1절을 맞이하여 항일 격문을 등사판으로 인쇄하거나 혹은 일일이 펜으로 써서 함평읍내에 살포했다. 이들은 금고 8개월에서 3개월까지를 언도받고 대구복심법원에 항고했으나, 원심대로 선고받았다. 이들의 죄명은 출판법 위반이었다. 이중 광주고보생 이삼희를 제외하고는 함평공립보통학교 학생이었다.



나라를 지키는 힘, 교육

민립대학 설립운동

3·1운동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좌절되었다. 하지만 일제에 의해 침탈당하고 억압당하는 민중의 의식화와 조직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아울러 민족의 역량은 추상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산업을 통해 이룩되며, 이것은 교육자와 자본가의 몫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인적·물적, 그리고 군사적 기반에서 발현되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독립 이후 신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엘리트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절실했지만, 일제의 교육정책과 제도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수많은 빈농의 자식들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마저 수용할 기회조차 제공되지 못했다.

이러한 흐름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민족주의 세력은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펼쳐나갔다. 조선의 물산을 애용함으로써 조선인의 산업을 육성보호하자는 것이며, 조선청년들에게 고등교육을 시켜 민족을 이끌어 갈 젊은 민족지도자로 양성하자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 운동은 민족적 교육과 산업진흥을 위해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식민지 조선이 처한 객관적 현실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있다. 일제는 이러한 온건한 부르조아적 민족주의 운동에 대해서도 용인하지 않았다. 결국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경성제국대학의 창설로 방해를 당해 일단 잠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23년 12월 함평에서도 '민립대학설립기성회' 함평군부가 결성되어 활동을 개시했다. 당시 3·1운동 33인의 한 사람이자 중앙집행위원이던 이갑성 등이 함평에 내려와 강연 한 후, 함평군부가 결성되었다. 이때 집행위원장에 이재혁, 상무위원에 모성환 등 6인, 보관위원에 이재승 등 2인, 감사위원에 이길범 등 3인을 뽑았고 집행위원으로는 이동범 등 84인을 선임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각 면에서도 회원을 모집하여 지부를 두고 모금활동을 위해 각 면에 상무집행위원을 파견하여 선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은 당시 함평청년회가 주도하였다.

함평의 청년운동과 야학

일제강점기 함평의 계몽운동은 청년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20년 7월 7일 창립된 함평청년회는 1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함평리에 양옥회관을 마련하는 등 처음부터 매우 활발하게 움직였다. 함평청년회는 창립된 지 1년 만에 부녀야학을 개설하여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수신(修身), 산술, 습자 등의 과목을 가르쳤다. 당시 수강했던 30여 명의 부녀자들은 대부분 중상류층 읍내 부녀들이었다. 또한 진명학원을 운영하던 함평청년회는 1926년 5월 그 후원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야학은 함평청년회만 개설한 것이 아니고 다른 개인이나 조직도 개설했다. 당시 언론은 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야학개설 사실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1923년 10월 1일부터 함평공립보통학교에서 서상혁 외 2인이 부녀야학 강습소를 열어 갑·을반 60여 명을 15~40세로 모집하여 갑반은 3-4학년, 을반은 1-2학년 과정으로 수신, 산술, 조선어, 한문을 강습하여 지난 30일 갑반 18, 을반 30명이 강습 수료증서를 받았다. (동아일보 1923년 12월 7일자)

해보면 용천사 주지 정응상이 대각리의 노동자를 위해 작년 10월부터 노동야학을 설립하고 강사 송문욱씨를 초청하여 현재 30명이 수강중이다. (동아일보 1925년 2월 2일자)

함평 식지면 나산리에 있는 진명야학원은 약 8년 전에 설치하였던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속 못하고 있다가 안기용, 안종휘, 안현순, 안정순의 노력으로 다시금 금년 6월 중순 경 무산아동들을 모집하여 강학하였는데 지난 7월 2일 경찰이 인가가 없다는 구실로 폐지명령을 하므로서 당국에 여러 가지 교섭을 하였으나 불응하므로 피눈물을 흘리며 해산하였다. (동아일보 1931년 7월 24일자)

당시 야학은 부녀자를 주로 대상으로 했는데, 표면상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 의식교육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을 가르쳤다. 공식적인 공립보통학교나 청년회관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초포리 마을에 설립한 '사설학술강습소'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였다. 하지만 재정문제로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 일제 경찰의 간섭과 탄압 때문에 어려움도 겪었다.

광주학생운동과 독서회

흔히 광주학생운동은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한 데에서 시작된 나주역 충돌사건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의 우연한 계기였을 뿐, 거대한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주체적 역량은 '성진회'나 '독서회중앙본부'와 같은 학생들의 자발적 주체의식의 조직활동을 통해 이미 비축되고 있었다.

성진회는 1926년 11월 3일 광주고보와 광주농업학교 학생이던 왕재일과 장재성 등이 조직했다. 당시 강령은 "일제의 기반에서 한국의 독립을 쟁취한다. 일제의 식민지 노예교육을 절대 반대한다.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요구한다"였다. 성진회 조직 목표는 각급 학교의 각 학년과 반에 독서회를 조직하고 사회운동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1928년 이후 와해 직전까지 이르렀다가, 각급 학교에 독서회가 결성되면서 다시 활기를 띄게 되었다.

함평출신 학생들도 각급 학교의 독서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광주고보 독서회에 가입한 함평출신 김재동은 독서회원 검거 때 체포되어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당했다. 그는 각 학교

의 독서회원 91명과 함께 재판에 회부되어 면소처분을 받았다.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출신 윤재병은 광주고보 4학년 때 독서회원이 되었다가 11월 3일 시위의 주동자가 되어 체포되었다. 그는 시위운동과 관련하여 금고 4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 농업독서회에 가담한 함평출신 학생으로는 노근후와 안종변이 있었다. 노근후는 광주학생운동을 주도하였고, 1929년 당시 2학년이었던 안종변은 독서회원 91명과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비밀결사를 주도하고 조선의 독립을 도모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김철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면서 뜻 있는 많은 인사가 해외로 망명의 길을 택했다. 나라를 빼앗긴 초기에는 독립지사들은 주로 간도와 연해주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근거지를 건설하는 한편, 자금을 모으고 군사를 양성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다. 함평출신 인사들도 해외에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쳤다. 그 대표적 인물이 김철이다.

김철은 1886년 신광면 함정리에서 태어났다. 1908년 영광 광흥중학교를 마친 후 서울법률전문학교, 일본 메이지대학을 졸업하고 1915년 귀국했다. 귀국한 그는 형제들과 상의하여 토지의 일부를 소작인들에게 나누어주고 노속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1917년 상해로 건너간 김철은 1919년 여운형과 함께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여 구국운동의 첫 사업을 벌였다. 김철은 그해 2월 국내로 잠입해 손병희와 3·1운동의 거사를 모의했고 영광으로 내려와 동창 조병모의 집에 은신해 승려로 위장하여 지내면서 지방 유지들의 협력을 얻고 형제들의 토지를 처분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다.

3·1운동 이후에는 상해로 다시 건너가 대한독립임시사무소를 개설하고 임시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임시헌장 10개조를 비롯한 조직 관제 등을 마련하는 한편 의정원 의원 및 각료로 선출될 임정 참여 인물들의 신원 및 소재 파악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교통차장에 임명되어 임시정부 행정실무를 맡았다.



김철선생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원요인

상해임시정부청사 전시실에 있는 국무원 요인 기념사진을 일러스트로 그린 그림. 뒷줄 맨 왼쪽이 김철선생.

1920년 김철은 김구 등과 같이 의용단을 조직했고 독립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1920년 3월 선전위원회가 조직되자 안창호를 도와 선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국내와 해외동포들에게 임시정부 시책을 선전 홍보했고, 1922년 7월에는 시사책진회 회원으로 국민대표회의 소집에 대한 임시의정원, 국민대표회의주비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았다. 1924년 5월에는 임시정부 국무원 회계검사원 검사장에 임명되었다.

1932년 1월 상해 대한교민단의 정치위원으로 선출되고, 같은 해 11월 국무위원에 임명되었다. 1933년 7월 임시의정원 의원에 선임되어 자격심사위원으로 신도의원의 자격을 심사하였다. 1934년 다시 국무위원에 선임되었고 국무원비서장에 선출되어 임시정부의 이동에 따라 각지를 전전하면서 오로지 조국광복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고, 한국독립당의 14인 이

사 중 한 사람으로 활약한 바 있다. 1934년 6월 29일 재발한 급성폐렴의 악화로 항주의 광자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그의 나이 48세였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으며, 1975년 보훈처와 함평군, 영광군은 구봉산 기슭에 승모비를 세워 애국정신을 기리고 있다. 또 함평군은 2003년 그의 생가 터에 '김철 기념관'을 세웠고, 2009년에는 기념관 옆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독립운동 역사관)'을 준공했다.

김철을 비롯해 해외에서 활동한 함평출신 독립운동가는 김덕근, 김석, 문기호, 안후덕, 이도범 등이 있다.

안후덕은 1905년 월야면 예덕리 예동마을에서 태어나 휘문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김철 선생을 만나 임시정부 운영자금을 내고 19세에 김구 선생의 애국단에 가입했다. 군자금 모집 사명을 띠고 일시 귀국하여 전 재산을 저당하고 당시 거금이던 45,000원을 임시정부 운영자금으로 헌납했다. 독립자금을 모금하던 중 체포되어 징역 5년을 선도 받고 복역하다가 출옥했고, 42세의 짧은 생을 마쳤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역사적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함평군 월야면 예동길에 그의 생가가 조성되어 있다.

咸平

교장을 끌고 나온 성난 월야 주민들

월야면민들의 국유림 환수 운동

1928년 5월 26일 오후, 성난 월야면 주민 200여 명이 월야공립보통학교(현재 함평월야중학교 자리)로 향했다. 오후 1시 30분, 주민들은 일본인 교장을 주재소 앞 사거리까지 끌고 나왔고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오후 3시가 되자 함평경찰서장이 십 수 명의 경찰관을 대동하고 월야주재소에 나타났다. 경찰서장은 해산을 명령했으나 주민들은 해산하지 않았다. 분노한 주민들은 400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결국 경찰과 충돌했고, 경찰서장을 인질로 삼는 사태로 발전했다. 경찰은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한편 발포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다. 이 사건은 밤 12시경이 되어서야 겨우 진정됐다. 이로 인해 30여 명이 함평경찰서로 연행되어 혹독한 취조를 받았고 17명이 구속됐다.

이 사건이 바로 월야면 국유림 환수 운동이다. 본래 민유(民有: 국민 개인의 소유)였던 임야가 난데없이 국가 소유로 바뀐 후 그것이 월야보통학교 학교림으로 불하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문제가 된 땅은 월악리 773번지 임야 15정 4반과 556-2번지 임야 4정 6반으로, 함평월야중학교에서 장성방향과 팔열부 방향의 V자형 안토지다.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묘소를 모셔온 임야를 빼앗겼다는 분노를 표출한 것이었다.

이 땅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소나무도 있을 만큼 예로부터 보호금양 되던 금송지역이었다. 아름드리 4~5자 되는 소나무는 물론 2~3자 되는 소나무까지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다.

이곳에는 예로부터 이웃 마을 주민들의 조상 묘소가 들어서기 시작해 이 무렵에는 모두 111기의 분묘가 봉분되어 있었다. 묘적에 오른 분묘가 37기, 묘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주인이 있는 분묘가 70기로서 연고가 없는 분묘는 4기에 불과했다. 이렇듯 이 곳은 적송을 보호하면서 이웃마을 주민들이 대대로 조상의 묘소를 모셔온 유서 깊은 삼림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삼림이 학교림으로 되었을까?

일제의 토지강탈에 동조한 권력기관의 구성원들

월야면 주민들이 서류를 준비하고 비용을 마련하고 있던 1926년 7월 전라남도에서는 도지사가 주재하는 '부윤·군수·도지사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도지사는 '학교림의 설영(設營: 진영을 설치함)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그해 9월 열린 '전라남도공립보통학교 교장회의'에서 도지사는 "우선적으로 국유림을 학교림으로 대부 혹은 양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면서 공립보통학교가 학교림을 설영하고자 할 때는 도 당국이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라남도의 정책에 따라 1925년 10월에 개교한 월야공립보통학교 교장은 이 임야에 눈독을 들이고 학교림으로 삼기위해 업무를 추진했다. 교장은 이 같은 계획을 함평군수에게 전달했다. 군수는 바로 월야면장과 월야보통학교 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이를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때 실제 연고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군수는 1927년 8월 16일 월야보통학교의 '국유림양여신청서'가 접수되자 바로 해당 임야의 연고관계를 조사하여 회부해 줄 것을 교장에게 통첩했다. 교장은 '본 건 임야에는 분묘가 있는 월악리 주민 십 수 명의 연고자가 있어 분묘 주위는 벌채를 금지하고 육림을 하였지만 나머지 임야는 양림(養林)한 사적(事蹟)이 전연 없을 뿐 아니라 다수 연고자는 연고권 취득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때가 1927년 9월이었다. 월야주민들이 불하하려고 나서던 1926년 5월보다 1년 뒤의 일이었다.

동시에 면사무소에서도 임야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올렸으니, 그 내용은 '삼림령 제19조에 의한 소유자의 지적(地籍) 제출 사실이 없고 토지조사령이 규정한 소유권 사정 및 기타 측량 신청도 없었기 때문에 학교림으로 양도하여도 물의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회신에 따라 함평군수는 '함평군학교비' 담당자의 자격으로 같은 해 9월 7일 본 건 임야가 국유지임을 증명하기 위한 국유임야 조사서를 첨부하여 '국유림양여원'을 전라남도 지사에게 제출했다. 여기에서도 군수는 '학교림을 삼아도 소재지 주민들에게는 이해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전라남도는 이 서류를 접수한 후 '임야의 연고관계' 등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는데도 그러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학교림 신청 면적이 학교림 제한면적을 초과하였는데도 그대로 학교림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덧붙여 1927년 12월 13일 조선총독부로 국유림양여원을 신청했다. 이후 1927년 12월 23일과 1928년 1월 24일 학교림으로 확정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함평군삼림조합을 통해 국유림양여를 추진하던 주민들은 1928년 2월 경 이미 해당 임야가 학교림으로 양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들은 관련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당국에 전후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남도청으로 향했다. 그러나 해당 임야는 이미 월야공립보통학교로 양여가 끝나버렸고, 자신들에게는 양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채 다시 돌아와야 했다. 이들은 반환소송을 내기로 하고 주민들이 함께 반환운동을 벌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리를 죽이고 학교림으로 해라

이러던 차에 1928년 5월 22일 측량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측량이 되고 대장이 정리되면 이 땅은 영영 학교림이 된다고 여겼다. 측량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측량이 있던 5월 22일 아침 주민 70~80명이 측량을 막기 위해 나섰다. 측량기사가 세워놓

은 표목을 뽑고 측량용 새끼줄을 빼앗으며 '우리를 죽이고 학교림으로 해라', '조상의 분묘 산을 뺏으려거든 우리 조상에 말하고 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민들의 항의에 측량은 중단되고 5월 26일 다시 측량을 실시하기로 했다.

5월 26일, 주민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임야로 모여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 산에는 수령이 백년이 넘은 소나무도 있고 분묘가 있어 예로부터 보호·금송되고 연고자도 명백한데 면장이 연고자가 없다고 잘못 보고하여 학교림이 되었으니 우리는 면장을 데리고 와서 임야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임야반환의 편에 서약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리고 주민들은 월야면사무소로 몰려갔다. 이때 군중은 100여 명으로 불어났다.

면장을 만난 주민들은 면장의 변명에 분노하여 '분묘 산을 학교림으로 만든 면장은 도둑이다'라고 규탄하며 면장을 끌고 나오려 했고, 면장은 숙직실을 통해 문서창고로 도망갔다. 이 과정에서 면장의 옷이 찢기고 말았는데, 나중에 밝혀진 재판기록에는 이를 '폭행으로 납치하려했다'고 기술되었다.

격분한 군중은 문서창고의 문을 부수고 면장을 끌어 내 손발을 묶고 면사무소 앞집으로 끌고 가서 '임야반환승낙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군중은 어느덧 200여 명에 가까웠으며 일부는 죽창을 들고 있었다. 이때 주재소 순사부장이 나타나서 면장을 주재소로 데리고 가서 보호조치 하는 바람에 반환승낙서의 서명을 받아낼 수 없었다.

이에 군중은 월야공립보통학교로 향했다. 교장에게 문제의 임야는 학교림이 될 수 없음을 알리고 반환승낙서를 받아내고자 했다. 이때가 오후 1시 30분경이었다. 등을 밀치고 따귀를 치며 교장을 주재소 앞 사거리까지 끌고 나왔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주재소에 있는 면장을 데리고 나오려다 경찰과 대치했다.

오후 3시가 되자 함평경찰서장이 자동차 2대로 도 경부 이하 십 수 명의 경찰관을 대동하고 월야주재소에 나타났다. 경찰서장은 주재소 동편 구릉에 올라가 주민들의 해산을 명령했으나 주민들은 해산하려 하지 않았다.

오후 8시경 서장은 면장에게 순사정복을 입혀 변장시키고 자동차로 함평읍내로 빼돌리려 했다. 이에 주민들은 서장의 속임수에 화가 치밀어 주재소로 다시 몰려들어 자동차 앞에 드

러누워 면장 피신을 막아내려 했다. 하지만 면장은 이미 다른 차에 옮겨 타고 함평읍내로 떠나고 없었다.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주민들은 400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그리고 분노한 주민들이 몰려 경찰과 충돌했고, 부상을 당한 경찰이 생겨났다. 이때 주민 박형산이 크게 다쳐 주재소 앞에 쓰러졌는데, 주민들은 그가 죽은 것으로 잘못 알았다. 경찰과의 대치가 이어지고 경찰서장을 인질로 삼는 사태로 발전했다. 이에 경찰은 실탄을 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가 밤 12시가 되어서야 사태는 겨우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국유림 환수 운동은 그렇게 막이 내렸다. 주민들은 저항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슬픔과 분노도 일본의 식민통치권력 앞에서는 아무런 맥을 쓸 수 없었다. 주민들을 더 슬프게 만들었던 것은 행정기관의 태도였다. 동족의 재산, 그것도 가까운 고향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묘소를 모시는 삼림을 이민족의 권력기관에 유리하게 넘겨주는 식민지 권력기구 하부 구성원들의 생리는 월야주민들을 슬프게 했다.

咸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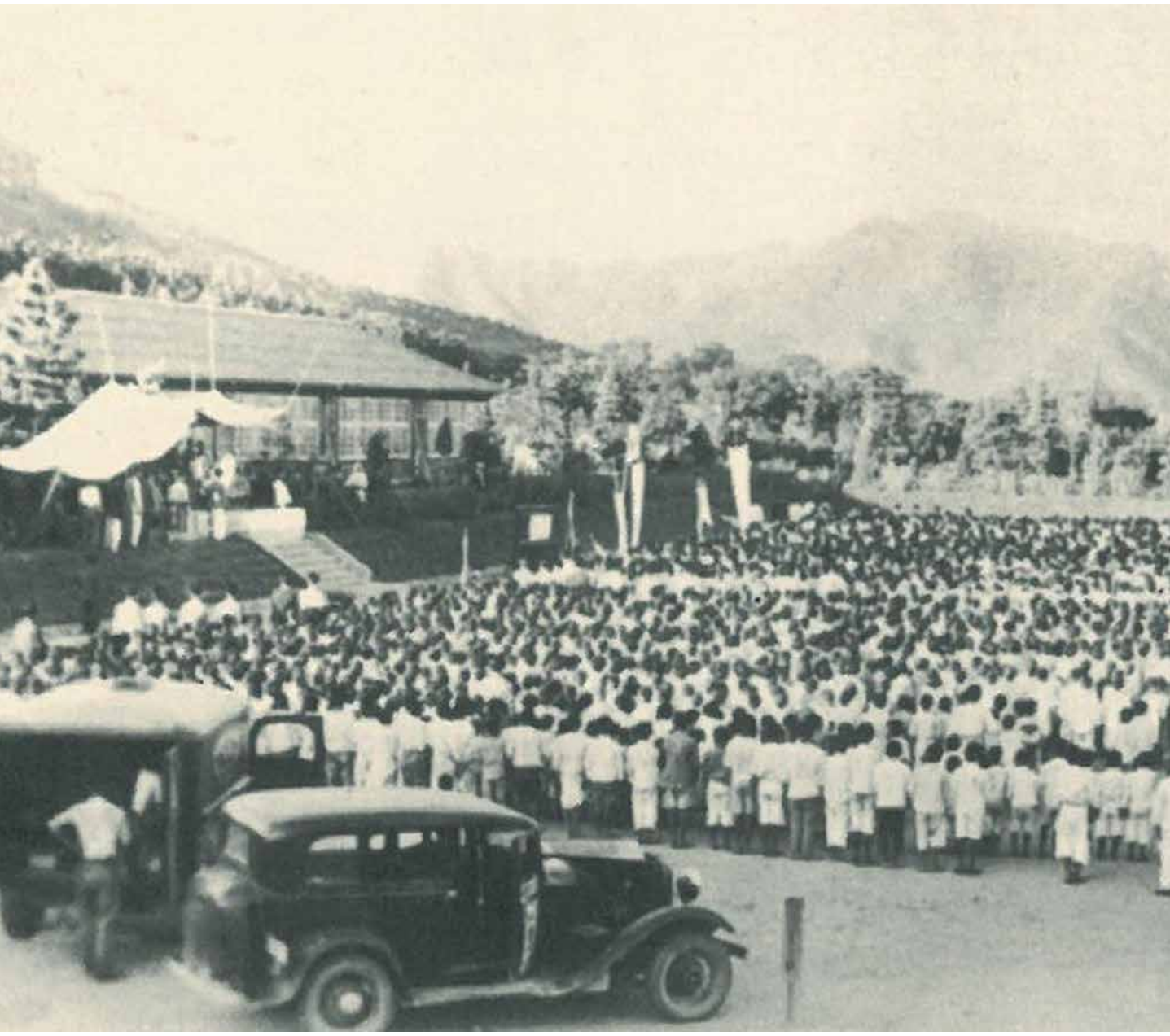
민족 통일의 염원을 담은 김구의
함평초등학교 강연



김구 선생의 남도순방과 함평초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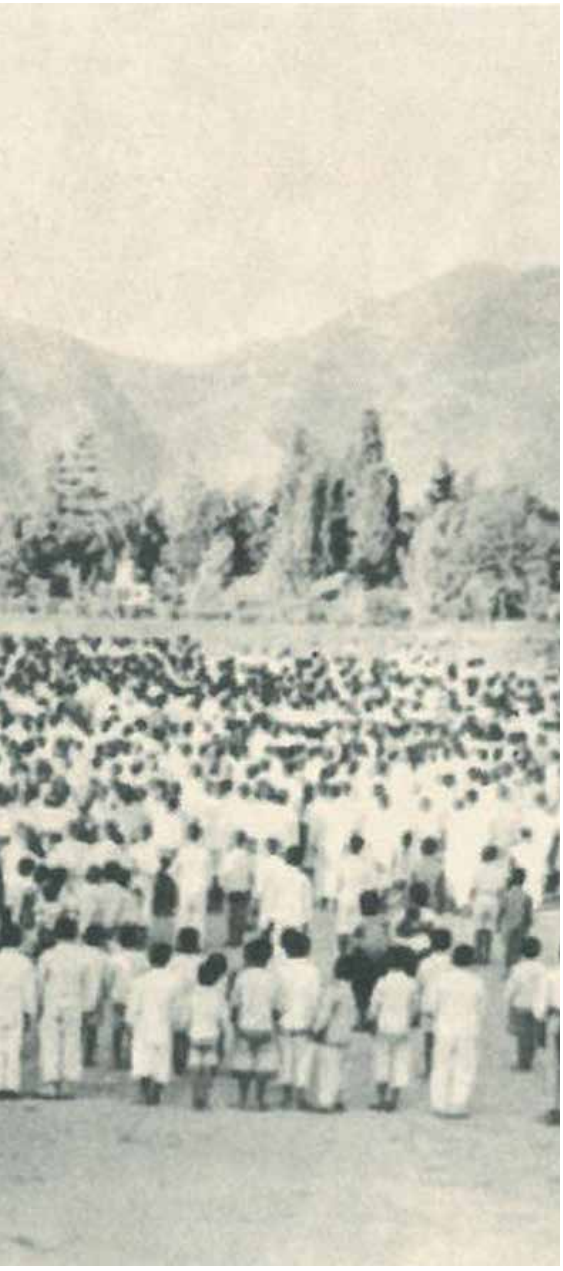
해방이 되고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으로 지나온 자취를 찾아 길을 나선다. 과거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보살펴 주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한 남도순방 여정이었다.

선생은 1946년 9월 24일 광주를 거쳐 나주의 '이진사가'로 일정을 잡았다. 48년 전 숨어 지내던 곳을 찾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이었다. 오래전 피신했던 곳은 나주가



김구 강연회

해방이 되고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이 되어 과거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보살펴 주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한 남도순방 여정에 나선다. 함평을 찾은 김구는 함평 군민들의 열화와 같은 바람으로 함평초등학교 교정에서 강연을 하게 된다.



아니라 함평의 이진사(이동범)집이었는데, 48년이 지난 터라 선생이 혼동했던 것이다.

그렇게 함평을 찾은 김구는 함평군민들의 열화와 같은 바람으로 함평초등학교(당시 함평대화공립국민학교) 교정에서 강연을 하게 된다. 당시 선생이 가는 곳은 환영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는데, 함평도 마찬가지였다.

강연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둥그런 안경에 얼굴이 동글던 백범이 학교 현관에서 나와서, 연단은 없었는데 큰 소나무가 옆에 있던 계단에서 마이크를 설치하고 연설을 하였다. 당시 백범이 옛 감회를 술회하자 청중들이 호응하면서 박수를 쳤다."고 전한다.

시국강연회를 마친 선생은 함평에서 늦은 점심식사를 하게 된다. 그날의 점심은 해동식당 비빔밥이었다.

이후 선생은 이진사(이동범)의 후손과 만났고, 호남여정을 마친 김구는 이동범의 아들 재승과 재혁을 경교장으로 초청했다. 그 뒤 선생의 아들인 김신이 이동범가를 방문하여 2주 정도 머물렀으며, 그 후 김구의 후손과 이동범의 후손들이 상호 간 왕래하는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오고 있다.

감옥을 탈출해 도망자의 길을 택한 김구

선생과 각별했던 이동범가와의 인연은 18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6년 2월 황해도 안악 치하포에서 수상한 일본인을 만난 김구 선생은 그를 국모를 시해한 공범이라 생각하고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칼로 처단하였다. 이 일본인이 쓰치다였다, 김구 선생은 "국모복수의 목적으로 이 왜인을 죽였노라. - 해주 백운방 텃골 김창수"라고 밝힌 포고문을 놓고 돌아왔다. 그때 선생의 나이 21살이었다.

선생은 3개월 후 관헌에게 체포돼 온갖 고문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는다. 사형 집행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인천감옥에 전화 한통화가 울리게 된다. 사형을 중지하라는 고종의 명이었다. 이 전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거리 전화로 기록되어 있다.

사형을 면한 선생은 심사숙고 끝에 탈옥을 결심하고, 1898년 3월 19일 인천감옥에서 탈옥에 성공해 정처 없는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된다.

김구가 호남 잠행(潛行)에 들어 남원의 김형진 집에서 머물다가, 무안(목포)으로 가던 길에 함평의 '이진사가'에 보름 남짓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곳이 바로 이진사 가옥이다. 선생은 육



모정의 계단을 갖춘 규모 있는 토굴에서 낮에 주로 은거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밤에는 본채 7칸 집의 다락방에서 기거하였다고 한다.

육모정은 이동범의 부친인 이계송이 1880년대 초에 지은 정자로 연못 가운데 육각형의 정자를 짓고 지붕을 따로 덮었기에 육모정이라 하였다고 한다. 육모정 밑에는 난리를 대비하여 설치해 둔 비밀 토굴이 있었고, 현재 헐리어 팔려간 7칸 본채에는 몇이 숨어 지낼 수 있는 다락방이 마련되어 있었다. 김구는 낮에는 토굴에서, 밤에는 다락방에서 기거하였으며 이동범의 가족 몇 이외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이진사 가옥 (이재혁 가옥)

인천 감옥을 탈옥한 김구는 호남 잠행(潛行) 길에 함평의 '이진사가'에 보름 남짓 머물렀다. 낮에는 육모정의 토굴에서, 밤에는 본채 7칸 집의 다락방에서 기거하였다고 한다.



육모정

육모정은 이동범의 부친인 이계송이 1880년대 초에 지은 정자로 연못 가운데 육각형의 정자를 짓고 지붕을 따로 덮었기에 육모정이라 하였다고 한다. 육모정 밑에는 난리를 대비하여 설치해 둔 비밀 토굴이 있었다.

비빔밥처럼 모든 것을 합하고 더한 통일의 염원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소재가 바로 비빔밥이다. 함평초등학교에서 시국강연회를 마친 김구 선생은 해동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한다.

비빔밥은 함평의 맛 자랑으로 손꼽히는 대표 음식이다. 미식가들의 말을 빌리면 전국에서 제일이라고 알려진 전주비빔밥보다 함평의 비빔밥이 월등히 맛이 좋다고 한다. 함평비빔밥의 대표적인 맛집으로 해동식당을 꼽는데, 아쉽게도 1970년대 폐업한 까닭에 지금은 그 맛을 볼 수 없다.

지금은 집터도 없지만 함평읍 중앙길을 따라 사거리에서 군청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소공원에 정자가 하나 서 있는데, 그곳이 옛날 해동식당이다. 해동식당은



함평 비빔밥



해동식당 자리

일제 말기부터 70년대까지 60여 년을 이어오다가 없어졌지만 현재 함평비빔밥의 원조라 할 수 있다. 언제부터 영업을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유명한 전주비빔밥의 한 식당 찬모가 해동식당에서 비법을 배워갔다고 할 정도로 맛이 일품이었다.

언제나 직접 농사를 지어 새로 짠 참기름을 쓰며, 무채 썰듯 가냘피 썬 돼지 비곗살, 시큼하면서도 감칠맛 도는 묵은 김치, 검게 탄듯한 민물고기 조림 등을 곁들인 비빔밥의 맛을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식당 주인은 간장을 고를 때도 집집마다 장독대를 찾아 맛을 보고 맛있는 장을 사다가 반찬을 했고, 밥을 지을 때는 꼭 양지머리 삶은 물로 밥물을 했다고 한다. 그런 정성이 있었기에 함평 비빔밥의 원조가 될 수 있었다.

함평에서 시국강연회를 마친 김구 선생은 이곳에서 식사를 하며 “함평비빔밥처럼 정성으로 빚은 특유의 손맛과 모든 것을 합하고 더한 것처럼, 민족통일의 염원까지 담아서 먹어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은 함평오일장과 함평천 사이로 함평천지 한우 비빔밥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맛보는 비빔밥은 비곗살 대신 소고기 육회가 맛을 살리고 있다.

咸平

전쟁의 상처를 담은 학교

보도연맹원들이 구금되었다던 함평여중 강당

학교는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며 뛰어노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간혹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의 현장이 되기도 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학교도 전쟁의 포화를 피해가진 못했고 이념대립의 장이 되기도 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대한민국정부는 보도연맹원들을 사상불순자로 낙인찍어 경찰서 또는 인근 군부대에 소집하여 학살한다. 사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한 관변단체였다.

당시 함평군내 보도연맹은 500~7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가운데 200명 이상이 전쟁발발과 동시에 함평경찰서에 연행되어 구금된다. 함평군사에는 이들이 구금된 장소가 당시 함평여자중학교(현재 함평교육지원청) 강당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이 사건은 1950년에 일어났고, 함평여중은 이 사건이 일어난 5년 뒤인 1955년에야 개교한다. 그럼에도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1955년 함평여중이 개교한 장소가 이곳이었고,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증언이 나오면서 당시 사람들이 이 자리를 함평여중 강당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래 이 자리는 일본인 학교였던 함평남국민학교가 있다가 1949년 폐교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이곳을 함평경찰서에서 사용했다. 그리고 1955년에 함평여중이 개교했고, 현재는 함평교육지원청이 위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연맹원들이 구금

된 장소는 구 함평남국민학교 강당이었고, 이 곳에 함평여자중학교가 세워졌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강당에 소집된 보도연맹원은 222명이었다. 이들은 3차례에 걸쳐 희생을 당하게 된다. 1차는 목포형무소로 이송되어 1950년 7월 13일 목포시 인근바다 선상에서 사살된 후 바다로 던져졌다. 2차는 7월 21일 학교면 죽정리와 고막리 사이 얼음재에서, 3차는 7월 23일 나산면 구산리와 대동면 강운리 사이 넙태에서 집단 희생되었다.

북한군 점령과 피의 숙청

6·25전쟁이 일어나고 29일째 되던 날, 7월 23일 북한군이 함평에 진입하게 된다.

하루 앞선 7월 22일 정읍을 점령한 북한군 6사단은 2대로 나누어 1대는 장성으로 향하고 2대는 고창과 영광을 단숨에 점령해버렸다. 이날 함평은 어수선한 하루였다. 며칠 전부터 영광 쪽으로 향했던 국군의 일부 병력과 경찰들이 거멍다리(현재 함평교)를 건너 남으로 후퇴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10여 명의 경찰이 갑자기 함평초등학교로 밀어닥쳤다. 당시 함평초에 근무하던 나모 교사가 1949년 북에서 집단 침투시킨 간첩의 일원이라는 것이 판명되어 그를 체포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광, 함평, 나주군의 상황을 북에 보고하는 책임자였던 그는 경찰이 학교에 도착할 무렵 이미 피신한 뒤였다.

저녁 8시경, 어둠이 깔리자 남아있던 경찰 일부가 함평을 떠났고 밤 9시경에는 일부 공산당원 약간 명을 처결한 경찰 잔여부대가 후퇴했다. 이어 일제초기에 가설됐던 목조(木造)의 거멍다리가 폭파되었다. 경찰은 여수로 향했다.

7월 23일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걷히기 전 함평읍내에 장갑차와 소총을 휴대한 인민군이 밀어닥쳤다. 오전 10시가 되자 함평초등학교 교정에서는 '인민해방군 환영대회'가 열렸다. 하루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 어제는 경찰이 간첩 혐의를 받는 김모 교사를 체포하기 위해 학교를 급습했는데, 오늘은 이곳에서 인민군 환영대회가 열린 것이다.

함평을 비롯한 전남일원을 장악한 북한군은 인민위원회 건설을 서둘렀고, 이후 3개월 동안 인공통치에 들어가게 된다. 8월로 접어들면서는 밤 9시부터 12시까지 소위 사상학습이 시작되었고, 9월 중순부터 날마다 '노력동원'이 강행됐다. 8월 2일 함평공원에서는 인민재판이라는 피의 숙청이 시작됐다. 당시 3개월 동안 함평군에서는 1,954명이 피살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국군의 숙영지가 된 학교 운동장

국군과 경찰부대가 함평을 수복한 것은 1950년 10월 23일이다.

7월 23일 후퇴했던 함평경찰은 순천을 거쳐 여수로 집결, 부산으로 후퇴했다. 일부는 남부지구 지휘소라는 이름 아래 거문도에 집결했다.

남부지구 경찰부대는 10월 1일 여수에 상륙했고 자기 지역을 향해 떠났다. 목포에 도착한 함평경찰은 10월 19일 열차편으로 학교역으로 향했고, 정오경 함평경찰서에 도착해 별 저항 없이 수복했다. 그러나 이날 진주한 경찰은 15명 가량이어서 야간이면 기습해 올지도 모르는 북한군에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열세였다. 유치장에 감금된 일부 인사와 가족들을 피신케 한 다음 석양 무렵 무안으로 후퇴했다.

그리고 10월 23일 오전 제11사단 제20연대 병력이 내교리 외대화마을 앞의 고두재를 넘어 함평읍에 진주했다. 이어 제2진이 거멍다리 앞을 통과해 영광쪽으로 향했다. 제20연대 제3대대는 함평중학교(현재 함평학다리고등학교 자리) 등에서 숙영하면서 함평지역 토벌작전을 전개했다. 당시 함평중학교와 나산초등학교 등은 국군의 숙영지로 알려져 있다.

빨치산의 최후

1950년 10월 23일 함평이 완전 수복되었고, 이때 후퇴하지 못한 잔류 북한군과 동조자들

은 산으로 피신하게 된다. 당시 용천사에는 빨치산 불갑산지구 사령부가 주둔하게 된다.

군경합동토벌대는 1951년 2월 20일 토벌작전을 시작한다. 완전무장을 한 5백여 명의 유격대는 막강한 화력으로 좁혀 들어오는 국군 앞에서는 죽음뿐이었다. 토벌작전은 이틀 만에 끝났고, 이들의 불갑산 생활은 4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함평소재지로 끌려나온 입산자 500여 명은 함평여자중학교 운동장(함평군사에는 함평여중 운동장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함평여중은 사건이 발생하고 한참이 지난 1955년 개교했다. 이곳은 일본인들이 다니다 1949년 폐교된 함평남국민학교 운동장이었을 것이다.)에 집결됐다. 그리고 이들은 학교면 으름재로 끌려가 모두 사살됐다.

전쟁의 포화는 학교도 비켜가지 않았다. 학교는 수많은 사연들을 간직하게 되었고 상처를 입게 되었다. 또한 당시 이념대립으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젊은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1950년 10월 22일부터 수복작전을 벌이던 국군은 학교면 사거리 율동마을을 수색하여 사상불순자로 몰아 윤재형 등 8명을 야산으로 끌고 가 사살했는데, 윤재형은 14살(1937년생)이었다. 1951년 불갑산 공비토벌 과정에서도 함평읍 진양리 양림마을 주민 28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총살되기도 했다. 희생자 중에는 학생과 교사도 다수 포함되었다.



咸平

생존권을 지켜 낸
함평 청년의 힘



함평 고구마 재배 농민 피해보상 운동

농협이 고구마 수매자금을 지원받아 주류회사에 대출하고는 생산농가에 수매자금으로 지원한 것처럼 장부를 꾸민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함평군 가톨릭농민회원들이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운동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른바 함평 고구마사건이다.

농협중앙회는 1976년산 고구마 수매자금 12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런데 이 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80억 원을 주식회사 보해 등 7개 주류제조회사에게 대출했다. 그리고는 생산농가에 수매자금으로 지원한 것처럼 장부를 꾸민 것이다.

당초 읍면 단위농협은 1976년 3월부터 마을별 순회좌담회를 열어 1976년산 고구마는 농협을 통해 10월까지 계통 출하할 것을 선전했다. 농협 수매가도 15kg들이 1포에 1,317원을 제시했었다. 농민들은 농협의 약속을 믿고 농협이 배포한 수매용 포대에 고구마를 담아 자동차 운송이 용이한 도로변에 야적했다.

그런데 각 단위농협들은 당초 약정한 물량을 제때 수매하지 않고 방치해 버린다. 고구마는 썩어갔고 7,300여 생산 농가는 고구마를 중간상인들에게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포대당 300~800원의 헐값에 팔아야 했고, 또 농협 포대에서 일반 포대로 바꾸면서 포대 수마저 엄청나게 줄었다.

실례로 대동면 백호리에 거주하는 임정택은 400포를 상인들에게 팔았는데, 1포대 당 450원이었고 감량을 40%나 계산했다. 그나마 팔지 못한 고구마는 노변에 야적된 채 썩어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농협과 정부에 대한 농민의 원성이 극도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함평군 가톨릭농민회원들이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운동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청년운동으로 맥을 이어 온 농민봉기

당시 이 같은 현상은 함평군만이 아니라 인근 무안군을 비롯 전남북 전역이 같은 실정이었다. 유독, 함평군 가톨릭농민회원들이 나서서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은 1975년 농협 강제 출자금 거부운동을 벌이며 집적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대표자를 연행하고 농협은 깡패를 동원하여 농민들로부터 자의에 의해 판매하였다는 확인서를 반강제적으로 받기도 했다.

1976년 11월 '함평군 고구마 피해보상 대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시작된 피해보상 운동은 농협이 피해농가에 309만 원을 직접 보상하겠다고 제의해 오면서 1978년 4월 29일 마무리됐다.

'함평 고구마 피해농가 보상운동'은 서슬 퍼렇던 유신독재체제에서 자주적이고 조직적이며 또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이후 함평에서는 농협 민주화운동, 농지세 시정운동, 농축산물 수입 반대운동, 소값 피해운동 등 농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알리는 운동으로 이어져 왔다.

함평의 농민 운동은 1862년(철종 12년) 정한순의 주도하에 수 천 명이 봉기하였던 농민봉기를 기점으로 동학농민운동,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광복 후 농민조합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청년운동의 맥을 이어왔다.

함평의 5·18민주화운동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 광주의 소식이 함평에도 전해졌다. 함평군민들은 광

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식들과 친척들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며칠을 보내야했다. 가끔 광주에서 빠져 나온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광주의 참상을 전해 듣게 되었고, 지역민들의 분노는 커져갔다.

5월 21일 오후 1시경 고속버스와 트럭 등 10여 대에 나누어 탄 광주의 시위대가 함평읍에 도착했다. 그들은 '광주시민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고 외치며 광주의 비극적 실상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주민들은 시위대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읍내를 돌며 시위를 벌이다가 오후에는 시위 차량에 태극기를 꼽은 채 해남, 영광 등지로 빠져나갔다. 일부는 무기고를 털어 무기를 탈취해 오기도 했다. 시위대는 영광으로 통하는 도로와 함평다리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친 상태에서 자체 경비에 들어갔다. 이후 항쟁이 끝나는 27일까지 함평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다.

함평의 청년들은 불의에 저항하는 애국자로 성장해 왔고 지금도 이 땅을 딛고 서 있다.

咸平

함평초등학교의 고려청자 연구



함평초등학교, 제10회 전국과학전람회 대통령상 수상

1964년 함평초등학교는 제10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고려청자 연구'였다.

전국과학전람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문화행사로,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과학전람회인 '우리과학전람회'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1949년부터 개최되었다. 제1회 전국과학전람회는 1949년 10월에 문교부 주최로 경복궁 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그 후 전국과학전람회는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5년 제2회부터 매년 개최

되고 있다. 1964년 제10회부터는 국립과학관에서 주관했으며, 1969년 제15회부터는 소관 부처가 문교부에서 과학기술처로 이관되었다. 이어 1971년 제17회부터는 관련 정부부처, 과학기술 관련 학회 및 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1964년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함평초등학교 과학반은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고려청자가 땅에 묻힌 지 천여 년이 지났어도 그 고유한 조상의 얼을 캐내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극소수다. 이에 우리의 온 뜻을 모아 연구에 착수한 것이다."고 연구 동기를 밝혔다. 이때 교장 선생님은 김창성, 과학반 지도교사는 이현석이었다. 당시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은 이현석 교사의 열정과 노력, 김창성 교장의 지원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큰 힘이 되었다며 지금도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특히 이현석 교사는 교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청자에 푹 빠져 살았다고 할 정도로 청자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당시 또 한명의 조력자는 조기정이었다. 그는 당시 함평초 과학반 조교로 있으면서 고려청자 연구 동아리를 만들어 지도했다. 조기정은 청자도공 기능보유자로 전라남도 제10호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광주광역시 제5호 무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

수상작은 함평에 소재한 도요지 7개소와 전라도 지역의 도요지, 그리고 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도자기를 조사 분석하여 고려청자 재현을 위한 과정을 연구하고 그 내용을 담았다. 수상작에는 '본교 어린이 박물관에 소장된 150종의 도자기는 석기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도자기 발달과정을 살필 수 있게 함과 동시 고려청자 연구에 큰 밑받침을 해주었다.'고 소개되어 있다.

일본에 빼앗긴 우리의 역사들

그렇다면 함평초등학교 박물관에는 어떻게 이런 유물이 보관될 수 있었을까?

함평초등학교에 소장된 유물은 일본사람 야마다(山田萬吉郎)가 함평 인근에서 도굴한 것을 모은 것이라고 전해진다.

야마다가 모은 유물은 주로 고려청자와 분청자 등이었으며 그 양이 수천 점에 이르렀고 특수보관 창고까지 마련했었다고 전해진다. 그 중 중요한 유물은 1945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반출되어 버렸고, 해방이 되자 남은 유물은 다행히 함평초등학교로 옮겨졌는데 그 수가 2천 여 점에 이른다고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유물마저 온전하게 보존되지는 못했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상당수가 유출되었고, 함평군사에 따르면 1964년에는 400여 점이 남아 있었다. 그나마 이러한 유물이 남아있었기에 고려청자 연구가 추진되었고, 제10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함평에서 고려청자 요지가 발견된 시점은 1983년인데, 함평의 고려청자 연구로 전국과학전람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시기는 그보다 훨씬 앞선 1964년이라는 것이다. 청자 요지가 발견되기도 전에 초등학교에서 청자 연구가 시작된 셈이다. 당시 과학전람회 연구의 기반이 되었던 도요지 7곳은 청자 요지가 아니라 조선시대 도요지였다.

함평군사의 기록에 따르면 함평에는 모두 8기의 청자 요지가 있다. 함평의 청자 요지는 1983년 손불면 양재리에서 두 곳이 발견되었고, 1987년 재조사에 나서 이 중 한 곳에서는 고려청자 외에 조선시대 초에 분청자기도 만들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곳 외에도 3 곳을 추가 발견했고, 동암리에서도 청자 요지를 확인했다. 이후에도 동국대학교 박물관과 광주박물관이 3곳을 추가 확인해 모두 8기를 확인했다.

전남에서 고려청자 요지가 발견된 곳은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계율리, 사당리, 칠량면 심흥리,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함평군 손불면 양재리, 동암리, 영광군 염산면 오동리,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등이다.



咸平

한 명의 학생을 위한
작은 음악회

극복하지 못한 편견

지금은 열차가 서지 않는 나주시 고막원역 입구에서 국도 1호선을 따라 함평역 방면으로 향하다 보면 '고막1리 재생마을'이라는 마을 표지석을 만난다.

장미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이 마을은 1960년대 형성되기 시작했다. 군내 각지를 떠돌던 음성 한센병 환자를 정착시켜 재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1967년 10월 15일 보건사회부로부터 재생원이라는 단체가 인가·설립되면서 병이 나은 음성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온 곳이다.

그렇게 마을은 형성되었지만 재생원에 거주하는 주민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골칫거리였다. 당시 인근 초등학교인 학다리동국민학교(1994년 학다리중앙초등학교 통합)에 입학시키려 했으나 학구민과 학부모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병은 다 나았지만 편견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교육청에서는 이 아이들을 위해 1976년 3월 신성분교장을 설립했다.

1982년에는 보조금과 융자를 비롯한 주민 자체부담으로 11동의 가옥이 신축되고 취락 개선사업도 펼쳐졌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들이 많아졌다.





고막1리 마을 표지석

장미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이 마을은 재생원이라는 단체가 설립되면서 병이 나은 음성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온 곳이다.



학다리성당 재생공소

마을 위 언덕에 자리 잡은 학다리성당 재생공소. 재생원에 거주하는 주민 자녀들을 위해 1976년 3월 신성분교를 개설했다. 2003년 3월 1일, 마지막 재학생이 졸업하면서 신성분교장은 폐교되었고, 지금은 학다리성당 재생공소로 사용되고 있다.

한명을 위한 공연

2002년 2월 21일, 학다리중앙초등학교신성분교장에 손님이 찾아왔다. 1990년대 초반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로 이름을 알린 가수 예민(본명 김태업)이었다. 그는 2001년 9월 20일 강원도 영월군 연덕분교를 시작으로 분교음악회를 열고 있었다.

가수 예민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분교음악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에서 아프리카 음악을 공부할 때였어요. 갑자기 '이 음악이 이런 도시에 있고 싶어 할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생명력이 있다는 깨달음이었죠. 제 노래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간 것이 분교 음악회예요."

그렇게 시작한 그의 예순 네 번째 공연이 2002년 신성분교장에서 열렸다. 당시 신성분교장에는 전교생이 1명뿐이었다. 선생님도 1명이었다. 5학년 남자아이 한 명과 마주앉아 그는 노래를 들려주고 악기 연주도 가르쳤다. 함께 따라 나선 스태프가 5~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관중이었지만 최고의 무대였다.

그렇게 아름다운 공연이 막을 내리고, 이듬해 2003년 3월 1일, 마지막 남은 1명의 재학생이 졸업하면서 신성분교장은 폐교되었다. 지금은 학다리성당 재생공소로 사용되고 있다. 학다리동국민학교는 이보다 먼저 1994년 폐교되었다.

고막원천과 똑다리

재생마을에서 학다리동국민학교가 있었던 복천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산길을 따라 언덕을 넘어야 한다.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길이다.

아니면 산을 돌아 고막원천을 따라 가는 방법도 있다. 차로 2~3분 남짓 달리면 고막원천을 지나게 되는데, 이곳에는 2003년 보물 제1372호로 지정된 함평 고막천 석교가 있다. 고막원천을 동서로 가르는 이 다리는 일명 '똑다리' 또는 '떡다리'라고 불린다. 목조가구식을 석조형태로 바꾼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돌다리다. 전설에 의하면 고려 원종 14년에 무안 승달산에 있는 법천사의 도승 고막대사가 도술로 이 다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마치 나무를 베어내듯 자유롭게 돌을 자르고 짜 맞춘 솜씨가 돋보이는 이 다리는 물이 잘 넘치는 고막원천의 물살을 7백 년 동안이나 버틸 정도로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보수를 하면서 엉성하게 조립하여 본래의 품격을 잃었다.

1910년대만 해도 이곳에는 쌀 100석을 실을 수 있는 배가 드나들었을 정도로 번성했다고 한다. 다리 언덕에는 아직도 4개의 빗돌이 남아 있어 그때의 영화를 짐작케 한다.

2001년도 보수공사 시 바닥기초 나무말뚝 탄소연대 측정결과 최소한 고려말 조선초로 판단되어 지금까지 민간지역에서 축조 연대가 밝혀진 가장 오래된 돌다리로 증명되었다.



재생마을 산길

재생원에 거주하는 주민 자녀들은 이 산길만 넘어서면 학다리동국민학교에 갈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구민과 학부모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걸어서 10분이면 넘어가는 이 고개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높았다.



고막천 똑다리

보물 제1372호로 지정된 함평 고막천 석교. 일명 '똑다리' 또는 '떡다리'라고 불리는 이 다리는 무안 승달산에 있는 법천사의 도승 고막대사가 도술로 만들었다고 한다. 마치 나무를 베어내듯 자유롭게 돌을 자르고 짜 맞춘 솜씨가 돋보이는 이 다리는 7백 년 동안이나 버틸 정도로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咸平

50년 만에 피어 오른
우정의 등불



우정의 등불 비

우정의 등불 비

함평초등학교 동산에 서 있는 '우정의 등불' 비. 이 비는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고 목숨을 잃은 이종남 군을 기리는 비다. 이야기는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6년 5월 27일, 당시 함평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던 이종남과 박○○ 등은 리별대항 체육대회가 끝난 후 대경보로 함께 물놀이를 갔다. 물놀이를 하던 중 박○○ 군이 깊은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이종남은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두 친구는 물속에서 한참을 허우적댔고 박○○는 겨우 물 밖으로 빠져 나왔다. 그런데 그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 들었던 친구 이종남 군은 숨지고 말았다.

안타깝고 비통한 소식이 학교에 전해졌다. 그러나 안타까움으로 묻어 버리기엔 너무나 아쉬운 우정이었다. 당시 함평초등학교 학생들은 친구의 우정을 기억하기 위해 뜻을 모아 비를 건립하기로 했다. 이 소식은 전라남도 내의 다른 학교에도 전해졌고 많은 학교에서 뜻을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함평초등학교 동산

에 이종남 군을 기억하는 '우정의 등불' 비가 세워졌다.

그리고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초등학생이었던 어린 꼬마들이 30대 초반의 성인으로 성장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고춘석과 전교어린이회장이었던 김창훈은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우정장학회를 설립하고 사비를 털어가며 지역 후진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다시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사업을 일으킨 고춘석은 지난 2012년 무안군과 함평군 일부학교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마침내 첫 장학금을 수여했다. 30여년 전 다짐했던 약속을 지켜낸 순간이었다. 20년, 그리고 또 다시 30년, 50여 년을 마음속에 간직했던 친구와의 우정은 후배들에 대한 사랑으로 되살아났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정의 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비석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19년 4월부터 학교 내의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자료를 조사했는데, 이 비가 일본식 충혼비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정의 등불' 비는 끝이 뾰족한 일본 충혼비 양식을 띠고 있는데, 이 모양은 일본군 전사자를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로 받아들여진다.

비석이 세워진 시기는 해방 후 20년이 훌쩍 지난 때였지만 이 모양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었던 것이다. 일제 잔재청산과 기억해야 할 우정 사이에서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咸平

함평골프고등학교는
레슬링 명문학교



대한민국 골프를 선도하는 함평골프고등학교

함평골프고등학교는 2007년 졸업생인 신지애 선수를 비롯해, 이미향, 전인지 등 대한민국 골프를 선도하는 유망주들을 배출해 내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골프 명문학교로 자리잡고 있다. 2018년에는 6명, 2019년에는 4명의 재학생이 프로선수로 선발되기도 했다.

함평골프고등학교는 1929년 농잠실수학교로 개교했다. 1951년 함평농업중고등학교로 1991년에는 함평실업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후 1994년 함평중과 통합되었다가 1996년 다시 분리되었고, 2002년 함평골프고등학교가 만들어졌다. 2002년 이름을 바꾼 함평골프고등학교는 2001년 농업계열에서 골프분야 특성화고로, 2015년 골프교육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로 지정됐다.

레슬링의 고장 함평

그런데 함평골프고등학교 전신인 함평농업중·고등학교는 사실 레슬링으로 먼저 이름을 알린 레슬링 명문학교였다.

함평에 레슬링이 보급된 것은 1977년부터다. 당시 함평농업중고 체육교사로 부임한 윤정부가 중등부 18명, 고등부 20명으로 레슬링부를 창설했는데, 창단 4개월째부터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여 함평을 레슬링의 고장으로 만들었다.

1980년에는 함평출신 국가대표들이 태능선수촌에 입촌하게 되는데, 무려 7명이었다. 이중 김원기가 1984년 LA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함평의 이름을 알리게 된다. 이후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김영남이 금메달,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김종신이 은메달을 따는 등 함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레슬링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지금도 함평중학교에서는 레슬링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함평중학교는 제47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수상했고, 2019년 제48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수상했다.

한편, 함평은 축구와도 재미난 인연이 있다. 해방이 되면서 함평에는 축구 붐이 불게 되는데, 1946년 김석구, 김익주, 김용무 등이 팀을 결성하게 된다. 그리고 1947년 제1회 호남축구대회를 유치하게 되는데 장소는 함평초등학교였다. 이를 계기로 함평에서는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이어가게 된다.



함평중학교 레슬링 훈련장 및 생활관 개관식

지금도 함평중학교에서는 레슬링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11월 27일 함평중학교 레슬링 훈련장 및 생활관 개관식이 열렸다.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단체전 1위

함평중학교는 2012년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단체전 1위를 차지했다.

咸平

교육과 함께 꽃피운 함평의 문화와 예술

교사들이 주축이 된 함평군 미술협회

함평골프고등학교가 함평의 체육을 이끌었다면, 함평의 미술 교사들은 함평 지역 미술 발전에 힘을 보탰다고 할 수 있다. 1972년 함평군 미술협회가 결성되었는데, 함평군 미술협회는 다른 지역과 달리 관내 초·중·고 미술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다. 협회에서는 1년에 1차례씩 군내 학생들의 미술대회를 주최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배양하는 한편 회원 연수회도 가졌다.

1976년까지 활동을 했으며 역대 회장은 1대 박병희, 2대 강성식, 3대 임창곤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에 해체되었다. 그 대신에 당시 함평군교육청이 군내에 재직하던 교사들의 지도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개인의 취향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함평군 교원 미술 전시회를 마련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활동은 미약해졌으나, 이 무렵 열의를 보인 회원 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자란 제자들은 이후 미술계로 많이 진출하여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문학의 고장 함평

함평은 문학과 예술분야에서 유수한 인물들을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도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모두 다룰 수는 없기에 문학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 몇 명만 소개하려 한다.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인물은 당연히 정개청이지만, 그의 이야기는 자산서원 편에서 자세히 다루

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던 몇 사람의 이야기만 간략하게 소개한다.

1950년대를 전후해 등단한 대표적 시인으로는 이수복 시인을 꼽을 수 있다. 1924년 함평읍에서 태어난 그는 서정주의 추천으로 1950년대 중엽에 시인으로 등단했다. 1968년 유일한 시집 『봄비』를 펴내 서정성 짙은 시풍을 보여주었다. 수피아여고를 시작으로, 숭일고, 순천고, 전남고, 주암고 등에서 교편을 잡던 중 1986년 작고했다. 광주 사직공원에 그의 시비가 세워져 있고, 2003년 함평읍 천변공원에도 교과서에 실려 있던 「봄비」를 새긴 시비와 함께 조형물도 건립되었다.

1970년대를 넘어서면서 대표적인 저항시인 2명이 이름을 알리게 된다. 양성우 시인은 1943년 학교면에서 태어나 학다리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를 졸업했다. 1975년 광주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중이었는데, 박정희 군사독재를 비판한 「겨울공화국」을 낭독하여 파면되었다. 그의 시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은 노래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1988년 평화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였다가 1997년 한나라당에 입당하였다.

필명 박노해로 이름을 알린 박기평은 1957년 함평읍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여수로 이사 갔고 15세 때 상경하여 선린상고를 나왔다. 노동현장에서 일하면서 창작과 사회운동을 겸해왔다. 1984년에 출간한 첫 시집 『노동의 새벽』은 금서 조치에도 불구하고 100만 부 가까이 발간되었다. 이 시집은 노동자의 목소리가 되었고, 젊은 대학생들을 노동현장으로 뛰어들게 하면서 한국 사회와 문단을 충격으로 뒤흔들었다.

한편 현재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함평출신 소설가로 정유정이 있다. 정유정은 2007년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로 세계청소년문학상을 거머쥐며 처음 이름을 알렸다. 이후 발표하는 작품마다 화제를 낳으며 베스트셀러 작가로 발돋움했다. 그의 작품 「7년의 밤」은 장동건이 출연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咸平

염소부인과 마을학교





염소김부인창중학실적비

함평학다리고체육관 옆에 세워진 염소김부인창중학실적비.

염소부인

학교가 만들어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뜻과 정성이 모였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주민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돈이 없으면 삽과 괭이로 땅을 파며 운동장을 만드는 수고를 하기도 했다. 지금 학생들이 다니는 많은 학교들이 주민들의 땀과 노력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어느 한 사람의 땀과 정성이 소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함평의 교육기부 이야기를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염소부인이다. 여기서 염소는 동물 이름이 아니라 영광군 백수읍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그녀는 공립농잠실수학교(함평중학교, 함평골프고등학교), 손불초등학교를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28년 동아일보에 소개된 그녀의 사연은 이렇다. 염소부인의 이름은 김육일. 17세에 영광군 백수읍에 사는 이영학에게 시집을 갔는데 3년 만에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되어 빈손으로 친정인 함평으로 돌아왔다. 친정으로 돌아온 그녀는 한푼 두푼

모아 재산을 늘려갔다. 그러던 중에 손불초등학교가 인가는 받았으나 학교 운영비가 없어 개교를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논 12마지기를 사서 기증했다.

그녀는 또 1929년에는 현재 함평학다리고등학교 자리에 학교를 지어 아이들을 교육시켜 달라며 11마지기 땅을 기증했다. 그 곳에는 공립농잠실수학교(함평중학교, 함평골프고등학교)가 세워졌다. 명절에는 쌀밥 구경하기 힘든 900여 가구에 쌀을 2되 씩 나눠주기도 했고, 170여 명의 주민세를 대납해 주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함평의 유지들은 1936년 그녀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산공원에 '김여사염소시혜불망비'를 세웠다. 또한 1948년 현 함평학다리고등학교 체육관 옆에는 '염소김부인창중학실적비'가 세워졌다. 비에는 당시의 상황이 적혀있는데 "부인은 한 고을의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을 자신의 책무로 삼고는 모은 재산을 모두 함평 고을에 기부하여 농중학교 창립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마침내 꿈이 이루어져서 온 고을 자녀들이 중학교육에 의탁할 수 있게 되었다. 부인께서 한 고을 자녀들에게 베푼 것이 이와 같이 원대하니 그 자녀들이 받은 책무 또한 원대하지 않겠는가?"라는 대목이 나온다.

그녀를 기억하는 또 하나의 비는 손불면 죽장리 장동에 1980년 세워진 '정부인김해김씨염소지묘' 비문이다. 본인이 직접 썼던 글을 새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서러움 속에서도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녀, 하지만 쓸쓸히 생을 마무리해야 했던 그녀의 애잔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나는 홀아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 이 네 부류 중의 불쌍한 사람이니 탄식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함평군 내에 거주하는 김씨는 본관이 김해로, 이씨에게 시집갔는데 운명이 불행하여 이른 나이에 짝을 잃었다. 또 혈육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겨우 쇠잔한 목숨을 보존하여 육순에 이르렀는데 제사 지낼 친족이나 대를 이을 자식도 없으니 통탄과 한스러움이 더욱 지극하다. 다만 죽은 뒤의 일을 생각해 보면 또한 혼이 골짜기에 뒹구는 일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묘 자리를 정하고 미리 예물을 갖추어 무덤을 예비하여 놓으니 나중에 이 글을 보는 자 누가 슬퍼하지 않겠는가."

인재를 키우는 마을

어려웠던 시절, 학생들에게는 월사금을 납부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었고 월사금을 납부하지 못해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거나 자퇴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학교가 있어도 학교의 문턱은 너무 높았다. 형편이 좋아졌다고 하나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데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교육비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는 물론 동문과 함평 지역민들은 오랫동안 힘을 모아왔다.

함평군에서는 지난 1993년 인재양성기금을 모으기 시작해 50억 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했으며, 1995년부터 현재까지 3,500여 명에게 23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함편 함평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장학재단은 현재 모두 6곳으로 1994년 설립된 학다리중고등학교총동문장학재단, 1997년 설립된 재단법인 나산장학회, 2003년 설립된 재단법인 월우장학회, 2008년 설립된 재단법인 재림장학재단, 2010년 설립된 사단법인 신광장학회, 2012년 설립된 재단법인 귀흥장학재단 등이다. 뿐만 아니라 마을단위에서도 장학회나 육영회를 만들어 아이들을 격려하기도 하는데 엄다면 성천리 와촌의 삼양장학회, 학교면 복천리 두동의 두동육영회 등이 대표적이다.

학교 동문들이 기금을 모아 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함평학다리고 동문들은 재정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위해 3억 원의 기금을 모아 지난 2007년 재단에 기부하기도 했다. 이후 전국 각지 2만여 명의 동문들이 6억 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해마다 1억 5천만 원의 학력향상 제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제는 마을학교

아이를 함께 키워가는 노력들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함평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을교육공동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가 학생교육에 참여

하고 학생들이 공동체적 삶의 체험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체득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배움과 삶이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사회공동체다.

이러한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학교로 자리를 잡았다. 함평마을학교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방과후 활동이나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등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지닌 마을의 주인으로 성장시키고자 배움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를 말한다. 2019년 현재 함평에서는 모두 6개의 마을학교가 저마다의 독특한 프로그램은 운영하며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

'해봄'은 해보면 마을탐사대 외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꿈자람'은 주민과 함께 악기 배우기 외 5개 프로그램, '덕여촌'은 자서전 만들기 외 4개 프로그램, '한나리'는 국화활용 생산-유통-진로 연계 마을협동조합 만들기, '꿈오라기'는 마을지도 만들기와 영화동아리 운영, '함평천지'는 학교놀이문화 연계 전래놀이 보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함평교육지원청은 2019년 마을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마을학교별 중점사업을 육성하고, 마을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했다. 또한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교학부모회와 연계한 마을학교 강사 기초 과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면단위별 지역교육협의회, 마을자원 박람회 및 마을교육공동체 컨퍼런스 등을 개최했다. 2020년에는 마을학교를 1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咸平

몸을 세우는 것은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



입신양명의 바람을 담은 사모산

많은 사람들은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출세하여 부모의 이름을 널리 알린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하지만 출세 지향적 풍토에 대한 불편함, 지나친 경쟁에 대한 우려, '출세'라는 어감이 주는 거부감 때문인지 어떤 사람들은 '몸을 세운다는 것은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고 애써 강조하기도 한다.

해석이야 어찌 하던 입신양명은 우리 선조들에게 중요한 덕목이었음에 분명하다. 그리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과거급제'였고 글공부를 게을리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되었다. 인재양성을 위해 국가가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사학이 번성했던 것도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조들의 입신양명에 대한 바람은 그토록 간절했던 것일까? 그러한 바람을 담은 지명도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신광면 월암리 연천 마을에는 해발 279.6m의 사모산(紗帽山)이 있다. 산 모양이 사모를 쓴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사모산이라고 했다는 말도 있고, 이 마을에 사는 경주 이씨들이 가문에서 과거 급제자가 나오면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산 정상에 사모를 씌운 기를 걸었는데 이를 유래로 했다는 말도 있다. 마을에서는 이 산의 정기를 받아 대대로 인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전설도 내려온다.

과거급제의 소망을 담은 찬샘

과거급제의 소망을 담은 전설이 깃든 명소도 있다. 월야면 양정리 양지 마을로 가면 해발 150m의 석화산(石花山)을 마주한다. 이 산의 동남쪽에는 약샘으로 이름난 '찬샘'이 있다. 여름에는 몸을 담글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워 붙여진 이름인 듯하다. 반대로 겨울에는 손에 따스함을 느낄 정도로 물이 따뜻해 주위에 자욱이 김이 서린다. 수량도 풍부해 극심한 가뭄에도 양이 줄지 않았다고 한다. 이 샘이 유명해진 것은 과거보러 가는 사람들이 이 샘에서 발을 씻고 가면 합격한다는 전설 때문으로, 선비들이 많이 찾았던 곳으로 전해진다. 찬물이 솟아나는 샘을 한자로 표현하면 '한천(寒泉)'이 적절한 표현인데, 사람들이 '찬'을 '참'으로 잘못 이해해서 지금은 '진천(眞泉)'으로 쓰고 있다. 또한 이 샘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땀띠 등을 치료하기도 했다. 1996년에는 참샘골 약수터를 개발 운영했다.

자만심에 대한 경계

나산면은 과거급제자가 많이 나온 곳으로 꼽히는데, 그런 연유인지 마을사람들에게 지나친 자부심을 경계하기 바라는 전설도 내려온다. 현재의 나산면은 1932년 행정구역 개편 때 평릉면과 식지면을 합해 만든 면이다. 이때 면소재지도 삼축리로 옮겼지만 그전의 면소재지는 이곳에서 내를 건너 1km지점의 나산리였다.

전통 있는 마을답게 마을에 정각이 있고 연못이 있으며 연못 둑에는 수 백년 된 고목 20여 그루가 있다. 삼축서 나산천을 건너 마을로 접어드는 논 가운데 10m 간격으로 5~6평 가량 되는 섬 3개가 있다. 섬이라기보다 큰 무덤 같지만 이곳에 소나무가 3~4그루씩 서 있고 주민들은 이곳을 동섬이라 부른다.

마을사람들에 의하면 옛날 이 마을에서 과거 급제자가 많이 나와 그때마다 솔대 대신 동섬 하나씩을 만들어 과거급제자를 낸 동리의 명예를 과시했다 한다. 한 때는 그 수가 7개에 달했으나 경지 정리를 하면서 4개가 없어지고 지금은 3개가 남아있다.

옛날 과거에 급제하면 어사화를 쓰고 피리 부는 광대인 솔창을 앞세우고 금의환향했으며, 마을에 도착하면 솔대를 세워놓고 영고를 울리며 축하회를 열었다. 그러나 나산면은 입목대신 자그마한 섬을 만들어 이곳을 중심으로 축하회를 열었다니 특이한 풍속이다. 이러한 지나친 자부심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마을 가운데 있는 이인정 곁에 위치한 탕건바위에는 전설이 전해온다.

이인정은 3칸의 정자로 개수한 바 있는데, 개수 당시 상량문에 '이 정각은 1670년에 지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한다. 정자 곁에는 1천 4백 평 짜리 연못이 있고 그 둑에는 수 백년 된 물버들, 느티나무, 팽나무 등 20여 그루가 서 있다. 이 연못은 정각의 풍자를 돋우는데 큰 구실을 하고 있지만 마을 뒷산이 옥녀봉이라 불리웠기 때문에 옥녀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전한다. 정각 곁 느티나무는 당산목으로 섬김을 받아 소머리를 놓고 제사했으나 지금 이 풍습은 끊기고 나무마저 한쪽만 남았다. 정각 북쪽 3m 지점에 높이 2m, 폭 3m 가량의 바위가 있는데 사람들은 '탕건바위'라 부른다. 탕건바위에 얽힌 전설은 이렇다.

마을에 한 스님이 들렀는데, 양반 위세가 지나치게 심하고 사람을 박대하므로 그 버릇을 잡

아 줄 심산으로 정각 밑에 이르러 "동네의 좋은 우물자리가 있는데 냇물을 길러 먹다니 이상하다."는 말을 흘렸다. 이 말을 들은 정각 위의 사람들은 솔깃한 얘기라 중을 불러 우물자리가 어디냐고 물었다. 중은 저 연못가 10m 밖에 서 있는 버드나무를 뽑아내면 그 자리에서 물이 솟을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반신반의 하면서도 사람들은 중이 말한 대로 버드나무를 베어내고 그 뿌리를 캐내자 물이 콸콸 솟아 연못으로 흐르며 물고기 2마리가 노니는 게 아닌가, 사람들은 환성을 지르며 이 중을 접대하고 "보아하니 귀승의 안목이 높은 듯하니, 마을이 더욱 번성할 비책을 일러달라."고 간청했다.

중은 이인정에 올라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각 바로 밑에 있는 바위를 한참 살핀 뒤 "저 바위를 깨뜨리면 이 마을에 더 큰 인물이 나올 것이요."라고 말했다. 동네 사람들은 중의 얘기가 그럴 듯싶었기에 청년들을 시켜 바위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일을 거의 마칠 무렵 바위를 깨뜨리던 청년이 피를 토하고 급사했다. 사람들이 놀라 중을 찾으니 중은 이미 동네를 빠져나간 뒤였다. 이 일이 있은 뒤로 나산에서는 큰 인물이 나질 않았다. 사람들은 중이 마을 사람들의 교만함과 박대를 보복하려고 탕건바위를 깨뜨리게 했고 이 때문에 동네에서는 큰 인물의 맥이 끊기고 말았다고 전한다.

동섬

나산면 삼축에서 나산천을 건너 마을로 접어드는 논 가운데 10m 간격으로 5~6평 가량 되는 섬 3개가 있다. 섬이라기보다 큰 무덤 같지만 이곳에 소나무가 3~4그루씩 서 있고 주민들은 이곳을 동섬이라 부른다. 옛날 이 마을에서 과거 급제자가 많이 나와 그때마다 솔대 대신 동섬 하나씩을 만들어 과거급제자를 낸 동리의 명예를 과시했다 한다. 한 때는 그 수가 7개에 달했으나 경지 정리를 하면서 4개가 없어지고 지금은 3개가 남아있다.





가정신앙

자식의 입신양명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가정신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조왕신을 모시는 것이다. 조왕은 불씨 및 부엌과 음식 등을 관장하는 부엌의 부뚜막신을 말하는데, 매일같이 부뚜막에 물을 떠놓고 자식이 잘 되길 기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때 식구 수 대로 숟가락으로 쌀을 떠서 놓기도 하는데 이를 가리켜 '좀들이 쌀'이라고 한다. 입식부엌으로 개조 되면서 부뚜막이 없어지자 지금은 조왕을 위하는 가정을 찾기 어려워졌다. 나산면의 한 제보자는 아들의 학업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세수를 하여 몸을 깨끗이 하고 부뚜막에 물을 떠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아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손을 한 후 밥을 먹었다고 한다.

함평출신 과거급제자

그렇다면 함평출신 급제자는 누가 있을까?

고려는 958년(광종 9년)부터 과거제도를 실시해 인재를 등용하기 시작했다. 제술과(製述科), 명경과(明經科), 잡과(雜科), 승과(僧科)로 구분되었는데, 그 중 제술과와 명경과를 중시해서 양대업이라 부르기도 했다. 제술과는 유교사상에 입각한 여러 가지 글을 짓는 시험이었고, 명경과는 유교경전을 해석하는 시험이었다. 잡과는 여러 분야의 기술관들을 등용하기 위한 시험이었고, 승과는 승려들에게 승계를 주기 위해 실시했다. 1390년(공양왕 2년)에 무과를 설치했으나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성종 때는 중앙에 국자감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학교를 두어 경전의 교육과 보급에 힘썼다. 또한 사학이 융성하여 유교경전을 가르쳤다. 특히 후백제인들이 과거제도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았던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새로운 제도에 따라 등용되는 것을 희망했던 이유에서 인 듯하다.

고려시대에는 모두 29명의 급제자가 있는 것으로 함평군사에 기록되어 있다. 함평노씨(咸平魯氏), 함평이씨(咸平李氏), 함평모씨(咸平牟氏)가 각각 7명으로 함평이 본관인 성씨가 주종을 이룬다. 그리고 인동장씨(仁同張氏), 이천서씨(利川徐氏)가 각 3명, 파평윤씨(坡平尹氏)와 진주정씨(晉州鄭氏)가 1명씩으로 모두 29명이다.

성종은 지방향리들의 자제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쏟았는데, 향리 자제들을 과거로 등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자는 부호장(副戶長) 이상의 자녀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함평지역 내의 호족은 함평노씨와 함평이씨, 함평모씨 등 급제자를 배출한 성씨들이 주축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과거는 소과, 문과, 무과, 잡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은 누구나 응시 가능했으나 현실에서는 신분에 따라 응시 과목이 제한되었다.

조선의 과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식년시와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되는 증광시 등 다양한 특별 시험이 있었다. 고려시대에 시행되었던 승과는 폐지되었는데 조선의 불교 억압 정책과 관련이 있다. 반대로 고려와는 달리 무과가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문과의 소과는 생원과 진사의 자격을 얻는 시험으로, 여기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었다. 함평군사에 따르면 소과의 경우 선조 때까지의 생원과 진사가 전국적으로 각각 4,712인과 4,430인이었는데 함평의 입격자 수는 각각 26인과 54인이었다. 광해군 이후 과거제가 폐지될 때까지의 함평인은 85인으로 모두 165명을 배출했다.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생원과 진사였지만 실제로는 일반 유생인 유학에게도 자격이 주어졌다. 식년시 167회를 비롯해 정시 206회와 별시 180회 등 모두 848차례에 걸쳐 1만 5,137명을 선발하는데 함평에서는 126명이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무과도 정기시험인 식년시와 부정기시험인 별시가 있었다. 무과에는 문과의 생원·진사시 같은 예비시험은 없었다. 식년무과에서는 28인의 정원을 제대로 지켰으나 별시무과의 경우는 항상 많이 뽑았다. 세조 6년 9월의 별시무과에서는 3,000여 명의 응시자 중 1,813명을 급제시켰다. 그해 10월에는 황해도와 평안도의 응시자를 모아 평양 별시무과를 시행하여 100명을 더 뽑기도 했다. 함평군사는 함평출신 무과급제자가 모두 259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咸平

함평여고가 없는
함평여고 사거리

함평여고는 어디에

포털사이트에서 지도를 검색하거나 차량 네비게이션으로 안내를 받아 함평읍에 진입하면 '함평여고 사거리'를 지나게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함평여고는 없고 함평여중만이 자리하고 있다. 또 '골프고 앞'을 지나가도 함평골프고는 보이지 않고 함평학다리고가 자리하고 있다. 함평골프고는 함평읍 '골프고 앞'이 아니라 차량으로 5분 남짓 이동해야 하는 학교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적정규모학교 재배치사업에 따른 결과다. 원래 함평여고와 함평여중은 동일 교지에 있었으나 함평여고가 함평학다리고로 통합되면서 그 자리에는 함평여중만이 남아있다. 또



함평학다리고와 함평골프고가 학교 부지를 맞바꾸면서 '골프고 앞'에는 함평학다리고가 자리하게 된 것이다. 또 함평골프고와 동일 교지에 있었던 함평중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학교를 옮겼다.

전국 최초 사립학교 기부채납

함평의 적정규모학교 재배치사업은 농어촌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미래의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가족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논의가 시작되었던 2012년 당시 초·중·고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로 학교는 소규모화 되었고, 열악한 교육환경에 따라 교육경쟁력이 약화되어 인근지역 거점고로 지속적인 학생 유출이 예상되고 있었다. 또한 함평중과 함평골프고, 함평여중과 함평여고, 학다리중과 학다리고, 나산중과 나산고가 동일 교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웠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불가피 했으나 큰 걸림돌이 있었다. 우선 통·폐합 대상학교 동문과 지역주민의 반대는 뻔한 일이었다.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논의 대상이 된 학다리중·고와 나산중·고가 사립학교라는 점이었다. 사립학교 법인을 해산할 경우 법인재산이 교육청에 귀속되기 때문에 사립학교 법인에서 결정하기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

어려운 난관이 예상되었지만 2012년 7월 10일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함평교육발전계획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그해 11월 29일 학다리중·고(이사장 양한모)가 재단 해산과 공립화를 통해 공립 거점고와 적정규모 중학교 육성 계획에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2월 3일에는 나산중·고(이사장 김동균)도 함께 할 의사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사립학교 기부채납에 따른 재배치사업의 기반이 마련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2013년 2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동문과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졌다. 해당 지역을 순회 방문하면서 주민들에게 적정규모학교 육성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동문과 지역주민의 의견과 요구사항은 최대한 수용하기로 하고 지자체,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동문과

지역주민을 설득시켰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적정규모학교 재배치사업이 시작되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투표를 실시했는데, 학부모와 지역민의 반대로 신광중학교는 적정규모 중학교 육성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재배치사업에 따라 함평중학교와 학다리중학교, 나산중학교가 통합하여 2017년 9월 함평읍 영수교 인근에 함평중학교가 새롭게 개교했다. 2018년 3월 기존 나산중학교 부지에는 나산실용예술중학교가 개교했다.

2018년 3월 함평여고와 학다리고, 나산고가 통합하여 함평학다리고등학교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함평학다리고와 함평골프고는 부지를 맞바꾸었다. 함평학다리고는 함평골프고 부지로, 함평골프고는 학다리중·고 부지로 이설하여 개교했다.

적정규모학교 재배치 사업으로 경쟁력 강화

적정규모학교 재배치 사업이 완료되면서 농어촌학교 교육경쟁력 강화로 미래의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재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재배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작은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지역 주민들의 분열과 갈등도 있었다.

당시 함평교육지원청의 적극적 대처와 주민들의 이해로 갈등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학습여건을 갖춘 적정규모의 학교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폐교가 되어 관리되지 않고 부실하게 남아있는 학교는 단 한군데도 없다. 이제 남은 숙제는 단 하나다. 이제 이곳에서 함평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함평학다리고등학교

현재 함평학다리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함평골프고등학교와 함평중학교가 있던 자리다. 2018년 3월 함평여고와 학다리고, 나산고가 통합하여 함평학다리고등학교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함평학다리고는 이곳으로 이설하여 개교했다.



함평중학교

함평중학교와 학다리중학교, 나산중학교가 통합하여 2017년 9월 함평읍 영수교 인근에 함평중학교가 새롭게 개교했다.

학교, 역사가 되다 3장

咸平 추억이 된 학교

내가 다녔던 학교는 물 속 어딘가

어렸을 때 그렇게 커 보이던 운동장이건만, 성인이 되어 보면 이리도 작아 보일까? 운동장은 작아 보여도 학교는 커다란 추억으로 다가오고, 교문 앞 고목은 그대로 우리를 반겨준다. 학교는 이제 추억이 되어 버렸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많은 학교가 폐교되었고 지금은 다른 시설로 이용되거나 때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미활용 된 학교를 보면 씁쓸한 마음이 앞서지만 그나마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제는 물속에 잠겨 영영 찾아 갈 수 없는 학교도 있다.

바로 한골초등학교다. 함평읍을 생활권으로 하는 지역 중에서 가장 오지의 산골을 꼽으라 하면 은행정, 분매동, 수현, 수암, 호암 마을을 꼽았다.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전기는 물론 문화적 혜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고, 지게와 손수레, 소달구지, 그리고 마을에 한 두 대 있는 자전거가 운송수단이자 교통수단이었다. 하지만 이 마을은 1982년 목포 상수원 대동댐이 완공되면서 지금은 물에 잠겼다.

땅 이름에 선견지명이 있었을까? 수암(水岩)은 물 속 바위가 되었고, 수현(水峴)마을은 물 속 고개가 되었다. 은행정은 함평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었다고 한다. 바로 이곳에 한골초등학교가 있었다.

한골초등학교는 마을 입구에 있었다. 산골 오지 마을에서 학교 운동장은 가장 넓은 평지 공



고향을 그리는 마음의 기념비

오지의 산골 마을로 꼽히던 은행정, 분매동, 수현, 수암, 호암 마을은 1982년 목포 상수원 대동댐이 완공되면서 물에 잠겼다. 댐 곁에는 '고향을 그리는 마음의 기념비'가 세워져있다.



저기 어딘가에
내가 다녔던 학교가

땅 이름에 선견지명이 있었을까? 수암(水岩)은 물속 바위가 되었고, 수현(水峴)마을은 물속 고개가 되었다. 은행정은 함평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었다고 한다. 바로 이곳에 한골초등학교가 있었다. 지금은 물 속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간이었고 유일한 놀이 시설이 있었던 곳이다. 달리기와 씨름을 할 수 있었고, 구슬치기, 딱지치기, 오징어 놀이, 사방치기, 땅따먹기, 굴렁쇠 굴리기, 고무줄 놀이, 자치기를 하며 놀았다. 철봉에서는 턱걸이도 할 수 있었다. 여름철 해질 녘에는 학교 운동장에 박쥐가 날아다녔다. 아이들은 박쥐를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고, 운이 없는 박쥐들은 아이들 손에 잡혀 관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 한골초등학교가 1982년 폐교되었고, 지금은 물 속 어디쯤엔가 있을 것이다.

학교를 접어 돌아 마을로 진입하면 수령이 500년은 족히 넘었을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었다. 마을의 당산나무였고, 은행나무 아래에는 연자방아가 있었다. 은행나무는 오랜 세월을 버텨왔다. 심지어 두 번의 벼락을 맞고도 생존했다고 하는데, 벼락 맞은 나무의 중앙에는 큰 구멍이 생겨 어린이들에게는 놀이터와 쉼터로서 기능도 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버텨온 은행나무도 지금은 잠이 들어버렸다.

후세 사람들이 이곳 물속에 잠겨버린 마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일부나마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는 댐 곁에 세워진 '고향을 그리는 마음의 기념비' 뿐이다.

꽃무릇이 반겨주는 해보서초등학교

9월, 해보면을 들어서면 길가에서 쉽게 마주하는 꽃이 꽃무릇이다. 함평 곳곳에서 꽃무릇을 만날 수 있지만, 유독 해보서초등학교와 용천사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된다. 1940년 4월 1



한골초등학교 8회 졸업사진

일 개교한 해보서초등학교는 1994년 3월 1일 폐교했고, 그 자리에는 이미 다른 시설이 들어서 있다.

해보서초등학교 인근 마을을 '가정'이라고 하는데 마을 형국이 도끼자루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마을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이때는 마을이 없었던 것 같다. 마을 서쪽 베틀과 같이 생겼다하여 베틀바우라 부르는 바위가 있는데 베실을 넣는 북은 폐교된 해보서초등학교라고 전한다.

마을에서 마주하는 꽃무릇은 9월 중순경부터 꽃대가 올라와 꽃이 피기 시작하며 10월 초순까지 이어진다. 가을에 꽃이 지면 바로 잎이 싹이 터서 나오고, 보리싹처럼 새파랗게 무성한 잎으로 겨울을 난다. 이른 봄 짙푸른 녹색의 싱싱한 꽃무릇 잎도 큰 구경거리다. 용천사를 비롯해 절 주변에서 꽃무릇을 많이 보게 되는데, 단청이나 탱화에 바르면 좀이 잘 슬지 않는 효과가 있어서라고 한다.



구) 해보서초등학교

1940년 오두간이학교로 출발한 해보서초등학교는 1991년 해보초등학교오두분교장이 되었다가 1994년 3월 1일 폐교되었다. 이후 청소년 수련시설이 들어섰다가 현재는 다른 시설이 되어 있다.



용천사 가는 길에 만난 꽃무릇

9월, 함평 어디에서나 꽃무릇을 쉽게 마주한다. 하지만 유독 해보서초등학교와 용천사 주변에서 만나게 된다.



문화공간으로 남은 이문초등학교

이문초등학교는 1997년 폐교되었고, 2004년 매각되어 체험학습장과 갤러리, 조각공원 등이 조성된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꽃무릇과 상사화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상사화는 꽃무릇보다 꽃대가 더 굵고 꽃이 더 크며 색깔도 다르다. 꽃은 연분홍색이며, 가을에 잎이 나와서 월동을 하는 꽃무릇과 달리 봄에 넓고 두툼한 잎이 돋아난다. 6~7월에 잎이 마르고 난 후 7~8월에 꽃이 핀다. 이처럼 잎이 돋아나는 시기와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를 그리워한다'고 하여 상사화라 부르고 있다.

학교의 갈등도 기억으로만 남아

나산면 이문리에 있는 사정마을은 오수산 최하단에 위치해 있다. 기름진 평야와 들이 툭 트여 한눈에 들어오고 장성 태청산에서 흐르는 맑은 시내가 이 평야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이 시내에는 천렵꾼들의 군침을 삼키는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논다.

이 마을에 소재한 이문초등학교 터에는 이문간이학교가 있었고 증산사 강당자리에는 오산학교라고 하는 사립학교가 있었는데 항상 서로 간에 반목과 질시가 심했었다. 간이학교는 일제가 정식으로 인가한 학교이고 오산학원은 겉으로는 일제에 순응하면서도 민족정신이 투철한 민족교육의 선구자인 김금남의 설립 이념을 받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갈등도 기억으로만 남았다.

이문초교 터에는 함평생활유물전시관이 건립되어 지난 2007년에 개관했다. 생활유물전시관은 박현순씨가 선조들의 숨결과 손때가 묻은 농기구 등 각종 유물과 생활도구를 30여

년간 수집한 것을 함평군에서 매입 전시관을 조성하고 2007년에 개관했다. 현재는 체험학습장과 갤러리, 조각공원 등이 조성되어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엄다중학교 설립자의 동상이 엄다초등학교 정문에

엄다초등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오른편에 서 있는 동상 하나가 눈에 띈다. 이 동상은 엄다중학교 설립자인 김만 여사와 학산 천보배 선생의 동상이다.

천보배 선생은 1903년 1월 10일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배우는 것만이 사람 된 길이라 여겨 일본에 건너가 고학을 하고 귀국했다. 이후 김만 여사와 함께 육영사업과 사회사업을 펼쳤고, 1971년 4월 24일 엄다중학교를 설립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동상인데 엄다중학교 설립자의 동상이 왜 엄다초등학교에 세워졌을까?

본래 이 동상은 엄다면민들이 1979년 엄다중학교에 세웠다. 하지만 2002년 엄다중학교가 폐교되면서 학교는 물론 동상 또한 관리되지 않아 동상의 훼손이 심각해졌다. 폐교된 학교에 동상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안타까워 한 후손들이 지난 2006년 새롭게 제작해 이곳에 세운 것이다.



엄다초 정문에 세워진 엄다중 설립자 동상



함평학생의 집

1941년 개교한 월송국민학교는 폐교 이후 함평학생의 집으로 운영되었다.

함평 학생의 집

칠성산 아래에 위치한 대동면 월송리 동암 마을은 마을 주위에 크고 작은 고인돌이 있어 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41년 월송국민학교가 세워졌다가 1991년 향교국민학교동암분교장으로 격하되었다. 1992년 향교국민학교(현재 대동향교초등학교)로 통폐합되었고, 이후 함평학생의집으로 운영되었다. 이곳에서 반공교육과 이념교육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이승복 동상의 흔적을 발견했다.

咸平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아이들을 지킨 나무

500년을 뿌리박고 학생들을 맞아준 함평초 느티나무

등굣길 풍경도 많이 바뀌었다. 요즘 초등학교 정문에서는 교장선생님이 등교하는 학생들과 한 명 한 명 손바닥을 마주치며 반갑게 맞이하는 풍경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학교가 생길 때부터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학생들을 맞이해 준 무언가가 있다. 바로 학교 앞 나무다.

함평초등학교 정문 옆에 뿌리를 박고 500년 이상을 버텨온 느티나무, 교문을 들어선 학생들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나무다.

함평초 느티나무는 1982년 12월 3일 군나무로 지정 되었다. 수령은 550년 이상으로 추측하고 있고, 나무의 높이는 10m, 둘레는 5.5m이다. 수관을 이루는 10개의 나뭇가지가 원뿔형으로 많은 면적에 녹음을 제공하는 이 나무는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등 나라에 큰 난리가 있을 때 울었다는 전설이 있다. 학교에서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느티나무 축제를 열고 있다.



함평초 느티나무

보호수로 지정된 함평초 느티나무는 높이 10m, 둘레 5.5m로 수관을 이루는 10개의 나뭇가지가 원뿔형으로 많은 면적에 녹음을 제공한다.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등 나라에 큰 난리가 있을 때 울었다는 전설이 있다.



함평군 대동면 향교숲

대동향교초등학교 앞에는 느티나무와 팽나무, 개서어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심어진 지 약 380여 년 된 것으로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바람막이 숲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제16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공존상을 수상했다.



꽃무릇과 대동향교초

커다란 고목 아래 꽃대를 올린 꽃무릇 뒤로 대동향교초가 보인다.

고목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숲길을 따라

향교리는 함평향교가 자리하고 있다하여 불리게 된 지명이다. 자연마을 단위인 상교, 동교, 중교, 남교, 사교, 명교 등도 모두 향교와 관련하여 붙여지게 된 마을 이름들이다. 조선 인조 때에 함평이씨 이양휴가 향교 뒷산에 올라가 국지사와 함께 집터를 물색하는데 국지사가 현재의 향교 명륜당 자리가 중신이 나올 터라 하여 이곳에 함평읍 내교리에 있던 향교를 옮겨 짓고 명륜당 우측 북쪽 바위가 많은 곳에 집을 지었으나 재앙이 있어 지금의 중교 마을에 천막을 치고 살게 되어 마을이 형성되었다.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113호인 함평향교가 있고, 대동향교초등학교가 있다.

대동향교초등학교 앞에는 느티나무와 팽나무, 개서어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108호로 지정된 이 나무들은 심어진 지 약 380여 년 된 것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명륜당 남쪽에 있는 수산봉은 예전에 화산봉이라고 불렸는데, 그 마을에 자꾸 재앙이 나타나고 불이 나는 까닭에 풍수지리학적으로 화산이라고 하였다. 그 화산 기를 막기 위해 마을에 줄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이 숲의 유래라고 전해진다. 또 한편에서는 주변이 넓은 벌판이고 서해바다와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등, 환경적 여건으로 볼 때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바람막이 숲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는 팽나무, 느티나무, 개서어나무, 푸조나무, 회화나무, 개잎갈나무 등이 있다. 이곳은 지난 2016년 '제16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공존상을 수상했다.

咸平

학교에서 만난 유물

학교에서 만난 고인돌

하천과 평야가 잘 발달된 함평군에는 전역에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다. 일부는 파손되거나 매몰되어 확인할 수 없지만, 아직도 다수의 고인돌이 잘 보전되어 있다.

학교에서도 고인돌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함평읍 기산초등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좌측에 고인돌(지석묘)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원래는 5기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하나만 남아있다. 상석의 형태는 방형에 가깝고 장축은 북동-남서방향이다. 상석의 크기는 장축 190cm, 단축 180cm, 두께 90cm이다.

함평군사에 따르면, 지금은 폐교된 대동면 향교초등학교동암분교장 운동장 서편에 12기의 고인돌이 있다. 고인돌군은 동-서로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으나 주변을 정리하면서 상석 대부분이 이동된 것으로 보이며, 지금은 2기의 고인돌이 실측 가능하다. 상석 형태는 정방형에 가깝고 장축은 1호가 동-서방향, 2호가 남-북방향이다. 1호 고인돌 상석의 크기는 장축 290cm, 단축 224cm, 두께 85cm이며, 2호는 장축 280cm, 단축 264cm, 두께 85cm이다.

나산면 나산초등학교 옆에도 고인돌이 있는데, 1994년 11월



기산초등학교 고인돌

기산초등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좌측에 고인돌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원래는 5기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하나만 남아있다.

처음 조사된 이 고인돌은 나산초등학교 교문 서쪽 50m의 도로변 밭에 도로와 맞물려 있었다. 당시 토사가 고인돌 하부에 쌓여 고인돌의 유무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상석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장축은 남-북 방향이다. 장축 230cm, 단축 150cm였으며 두께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덤 유물

학교 인근에서는 무덤 유물도 발견된다. 함평영화학교 남쪽 구릉에 진양리 화동 고분군이 있다. 2001년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30호로 지정되었다. 고분은 산기슭의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해발 86m의 야산이 완경사를 이루며 남쪽으로 내려오는 곳으로 동쪽으로는 함평천 주변에 형성된 평지가 조망되고 서쪽으로는 서해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성 산지가 바라다 보이는 곳이다. 2기의 고분이 동서로 2~3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나란하게 있는데 학교 운동장이 조성되면서 분구 끝자락 일부가 훼손되었다. 1호분은 동쪽에 있는 대형고분인데 분구의 남쪽과 남동쪽 끝자락에 민묘가 조성되어 있다. 분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20m 내외, 높이 3.3m 내외이다. 2호분은 서쪽에 있는 소형고분으로 분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12~13m이다.

함평영화학교가 있는 마을은 빛나는 곳이라 하여 '화표정(華表亭)'이라 불렀다 하나 그후 화표정을 사투리로 '해피재이'로 발음을 쓰는 등 정확한 표준음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지금처럼 '화동(華洞)으로 마을 이름을 고쳐 불렀다.

나산면 구산 마을은 삼구동 앞산이 거북이 세 마리가 나란히 엎드린 것 같다 해서 구산(龜山)이라 했는데 일제강점기부터 구산(九山)으로 바꿔 쓰고 있다. 1963년 나산서초등학교가 개교했으나, 학생 수가 감소하여 1995년 폐교했다. 폐교된 나산서초등학교 뒷산에는 규모를 알 수 없는 고분 1기가 있다.

咸平

학교의 역사는 마을의 역사

학교자리는 명당 터

대부분의 학교는 양지바른 좋은 터에 자리 잡고 있다. 학교를 세울 때 그만큼 터를 중요시했던 까닭이고, 그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함평군에서 마을 터가 좋기로 첫째간다 하여 1대화 2모평이라는 말이 있다. 대화는 함평에서 최고의 터라는 얘기다. 함평향교가 애초에 대화에 세워진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을 것이다. 이 마을은 큰 새우 모양을 띄고 있어 예부터 마을 어귀에 못(池)을 팠다. 새우는 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해방 후 마을 광장을 넓히기 위해 이 못을 메웠는데, 그 해부터 마을이 기울기 시작하여 폐촌으로 치달았다 한다. 마을회의에서 새우가 물이 없어 살지 못하는 격이라며 옛 못을 다시 파냈고, 그 후 다시 마을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의 이름인 대화(大化)가 아닌 대하(大蝦)가 본래 마을 이름이라고들 한다. 지금은 연못을 메워버렸다.

함평초등학교와 함평학다리고등학교를 사이에 두고 대화와 접해있는 곳이 신기(新基)마을로 일명 '새터'라고도 부르는 마을이다. 정유재란 때 왜적이 침입해 현재 임씨들의 선산 자리에 있던 함평향교가 불타고 이 마을도 초토화되었다. 그 후 마을이 새로 형성되어 산직리라 부르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는 신기(申基)로 바꿔 표기했고, 지금은 신기(新基)라고 부른다.

학교면 복천리 장동은 부자(富者), 장자(壯者)가 끊이지 않는다 하여 '장자울' 또는 '장자동'

으로 불리다 지금은 '장동(壯洞)'이라고 부르고 있다. 함평노씨 가문은 물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는 곳에서 살아야 번성한다는 말에 따라 장동마을에 터를 잡은 것으로 전해오며 실제로 많은 인물들을 배출했다. 이 곳에 학다리동초등학교가 세워졌는데 1994년 폐교되었다.

손불면 대전리 저전마을 옆 나주임씨 선산을 풍산등이라 하는데 쥐혈이라서 자손이 번창하는 곳으로 보는 곳이다. 바로 밑에 초등학교와 교회가 생겨 사람이 많이 드나들었다. 학교 운동장 주변을 진(陳)밭 등이라 불렀는데 한국전쟁 이후 지서가 생겨 군경이 진을 치더라는 일화가 있다. 한국전쟁 때 임시 학교로 사용되었던 월파정은 80년대에 철거되었다.

가세가 비대하면 나라에 큰 화근이 될 수도

마을의 터가 좋다하여 언제나 흥했던 것은 아니다. 때로는 명당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극을 맞이한 경우도 있는데, 나산면 유촌마을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나산면 원선리 유촌마을 앞에는 고인돌이 23기가 있고 마을 안길이나 농토에 백제 토기편이 수없이 널려있다. 이로 보아 선사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문헌에 따르면 세종 때 김해김씨 김맹리라는 인물이 이곳에 낙향하여 속세를 멀리하고 산수를 사랑하며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이 마을이 형성된 것은 김맹리의 입향시기라고 추측하고 있다.

명당이라는 앵소산이 마을을 안고 있고 천주봉에서 흘러내린 원선천이 마을 앞을 지나 구산천에 흐르는 모습을 보노라면 이 마을이 명당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에 아름드리 버드나무 5그루가 있었던 곳이라서 마을 이름을 '유촌(柳村)'이라고 했다 하나 지금은 고목이 된지 오래다. 명당으로 손꼽히는 앵소산과 김맹리에 얽힌 전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마을에 살고 있는 김해김씨의 파조는 목경이요, 입향조인 맹리는 세종 때 인물인데 이곳에 낙향하여 속세를 멀리하고 산수를 사랑하며 살았다. 그의 5대손인 망헌 김광립은 인조 때 나주목사로 부임 중 이괄의 난을 맞아 도원수 장만의 휘하에서 공을 세웠으므로 진무공신에 올

랐다. 그의 아들 속은 부산진 수군절제사를 지냈으며, 속의 아들 7형제가 모두 현달하여 무과에 급제하자 광해군이 국지관을 불러 현지를 답사하여 가문의 내력과 지세를 알아보게 하였다.

국지관이 현지에 임하여 내사한 결과 앵소산은 명당으로 계속 인재가 속출하고 가세가 비대하여 언젠가는 나라에 큰 화근이 될 징후가 엿보인다고 광해군에게 무고하였다. 이에 성미가 급한 광해군은 곧바로 앵소산의 선산을 파헤치고 지금의 쌍령재산혈을 끊고, 백양동으로 내려 뻗은 산맥을 절단하여 맹리의 비석을 쓰러뜨려 없애라고 명령하였다. 지엄한 왕명으로 모든 산혈을 끊고 비석을 쓰러뜨리자 부녀자들까지 이에 항거하다가 유혈이 낭자하여 피가 사흘 동안 흘렀고, 그 후 맹리의 후손들은 벼슬한 사람이 없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마을의 운명을 함께 한 학교

마을이 있으면 학교가 있고, 학교가 있는 곳에 마을이 있었다. 학교는 마을의 번영과 쇄락을 함께했다. 함평손불중학교가 위치한 손불면 대전리 소재는 1933년 월천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바닷가 상류가 완전 육지로 된 지역이다. 1920년 면사무소와 더불어 각 기관이 들어서고 상가가 형성되어 손불면의 중심지 구실을 하기 시작했다. 함평손불중학교가 설립된 후 번창하고 있는 마을이다.

학교면 사거리 경화동은 처음에 '잡각동'이라 불러오다가 서울이 될 거라고 하여 마을 이름을 경화동(京化洞, 1789년 호구총수지명)이라 하였다 한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마을 우측의 구릉이 천동무학(千童舞學)의 터라고 하는데 영창초등학교가 여기에 설립되었다가 학생수 감소로 폐교되었다.

월야면 월야리 평촌은 월악면 평촌리였는데 1914년 군·면폐합에 따라 월야면 월야리가 되었다. 몇 호에 불과했던 마을이 한국전쟁 전까지 월야면 소재지였던 까닭에 면사무소, 함평경찰서 월야주재소, 월야보통공립학교가 있어 번창했다. 하지만 소재지가 전하로 옮겨간데

다 함평월야중학교가 세워지면서 28호가 떠났고, 함평월야고등학교(현재 전남보건고등학교)가 세워지면서 8호가 떠나는 등 마을이 줄어들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시장을 옮긴 곳이 있는데, 신광면 사천마을의 이야기다. 앞 냇가에 모래가 많다 하여 사천(沙川)이라 불린 마을이다. 마을의 모양이 새가 저녁에 둥지를 찾아 날아드는 형국이므로 마을 앞에서 숲이 있어야 하는데, 숲이 형성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크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5일 장이 있었으나 아이들 교육상 좋지 않다하여 어른들의 반대로 신광소재지로 옮겼다고 전해진다.

손불면 산남리 대성동은 손불남초등학교가 있었던 곳이다. 간척공사가 완료된 후 간척공사 시 쓰던 한밭집(식당)으로 한 가정이 이사 온 후 차차 호구 수가 늘어 마을이 형성되어 갔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마을 앞을 지나는 스님이 주민에게 이 마을은 앞으로 크게 될 것이라 하여 대성(大成)이라는 마을 명을 지어준 후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한다. 마을 옆에 손불남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가 학생 수 감소로 1999년 폐교되었다.

호랑이가 집을 비운 사이 불에 탄 학교

마을과 학교의 운명을 때로는 터와 관련지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손불면 월천리 월산마을의 전설이 대표적이다. 옛날 노승봉의 도승(道僧: 도를 깨친 승려)이 복호산 밑의 저 마을은 반달 형국이라며 월산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뒷산은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형국이라서 복호산(伏虎山)이라 부르며, 모효자의 시묘생활 중에는 호랑이가 감싸주었고, 무지개빛이 하늘로 이어졌다는 일화도 있다. 산 밑에 위치한 손불서초등학교는 한국전쟁 중 소각을 당하는 참변을 겪는데, 호랑이가 외출하고 없었기 때문에 이런 참변을 당했다고 주민들은 전하고 있다.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제를 지내는 곳도 있다. 해보면 주현은 마을 주위가 호수며 현재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떠 있는 배의 형국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매년 정월 보름에 당산제를 지내는데 수령 400년이 넘는 소나무를 할아버지 당산,

현재 함평해보중학교가 있는 천재등의 고목을 할머니 당산이라 부르며 제를 모셨으나 지금은 할아버지 당산에만 석양에 줄감기를 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올린다. 함평해보중학교가 위치한 백토는 개촌 역사가 오래인데도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주현과 합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백토라는 지명은 마을 뒤편 천재등에서 하얀색의 고령토가 나오기 때문에 붙여졌다. 천재등은 함평해보중학교가 있는 등성이로 배의 화물창고다. 또 '사제등'이라고도 부르는데 학교가 서고 보니 '사제등(師弟嶝)'과 맞아 떨어지는 지명이라고 한다.

터가 좋아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했다고 전해지는 마을도 있다. 나산면 송암리 송암은 마을 건너편에 거대한 바위가 있고 입구에 몇 아름 되는 소나무가 있어 불린 이름이다. 옛날에 영산신씨가 풍수지리설이 의해 비록 산촌이지만 석학명사가 많이 나올 것이라 해서 마을 뒷산을 문필봉(文筆峯)이라 했다하는데 실제로 옛날부터 석학명사가 많이 나고 있다고 한다.

손불면 죽장리 담골은 발봉산과 계동산, 호두산, 우무산 등이 담장처럼 에워싸고 있다. 이 마을은 500년 이래 30여 년 전까지 서당이 끊이지 않았고, 명의(名醫)가 끊이지 않아 인근 지역에서 스승을 찾아 학도들이 모여들었다.

함께 인재를 키우는 마을

터가 좋아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한 것일까, 아니면 아이들을 인재로 키워야 한다는 마음이 모아져 훌륭한 인재를 키워낸 것일까. 오래 전부터 인재를 키우기 위해 마음을 모아 노력한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

학교면 석정리 흥룡마을은 좌우측 산과 마을 뒤쪽의 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 마을 입구에서 보면 용(龍)이 도라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마을이 흥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마을 명을 '흥룡(興龍)'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는 흥룡이라는 지명이 없고 동림이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어 당시에는 동림마을로 부른 것 같다.



동호정
학교면 홍룡마을에 있는 정자로, 인동 장씨 장덕진(張德軫)이 1929년 후학 양성을 위해 강학소로 건립한 곳이다. 돌담으로 둘러친 곳에 적목련, 동백 등 정원수들이 빼곡히 심어져 있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허술하기 그지없다.

이 마을에는 인동 장씨 장덕진(張德軫)이 1929년 후학양성을 위해 강학소로 건립한 동호정(東湖亭)이 있다. 돌담으로 둘러친 곳에 적목련, 동백 등 정원수들이 빼곡히 심어져 있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허술하기 그지없다.

정자 현판 글씨는 구한말의 문신이자 명필인 석촌 윤용구가 쓴 것으로 보아 이 정자의 처음 건립된 이후 여러 차례 보수한 것으로 여겨지며 현판은 윤용구의 인생 말년에 쓰여진 것이다.

정자 내부에는 1924년 갑자년 봄에 위정척사운동과 의병투쟁을 주도한 인물 중의 한사람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후석 오준선, 덕은 송병관의 동호정기 2개의 기문이 있다. 석전 이병수의 동호정상량문이 현액되어 있으나 글씨는 알아보기 힘들다. 또 장덕진의 원운과 19세의 나이로 진사시에 합격했던 수정 권익상이 지은 시판이 전하고 있다.

정자규모는 정면 3칸에 측면 2칸으로 내실이 3칸으로 전면 쪽마루 형태이나 가운데 내실 공간을 대청마루로 되어 있어 회합의 장소로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출처〉 : http://hankukmail.com/newshome/detail.php?number=19988&thread=21r03r06r01〉

엄다면 성천리 와촌은 마을 뒤를 칠성봉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주봉인 천자봉 밑에 용바위

가 있어 처음에는 '용암(龍岩)'이라고 하였다. 이후 이곳에서 토기와를 만들게 되어 남쪽은 용암, 북쪽은 와촌(瓦村)이라고 불러오다가 와촌으로 통일하여 부르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1986년 삼양장학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마을 출신 중고등학교 학생 중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선발하여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었다.

학교면 복천리 두동은 고막원천이 흐르고 백룡산이 지척에 보인다. 4개의 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 그 안이 마치 곡식을 되는 말(斗)과 같다 하여 마을 이름을 두지동(斗之洞) 두서(斗西)라 하다가 두동(斗洞)으로 불리게 되었다. 두동의 서쪽 산기슭에 육영재동각이 위치하고 있는데, 태신(泰臣)이 육영재(育英齋)라는 명칭을 붙여 후진양성을 위해 건립하여 문중에서 관리하며 많은 후학을 길러냈다. 이 마을에서는 1940년을 전후하여 20명이 서당계(書堂契)를 만들었는데, 후에 두동육영회(斗洞育英會)로 발전하였다.

이렇듯 마을이 힘을 합쳐 아이들을 키웠던 노력들이 모여 지금의 마을학교를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제2부

어제의 함평교육에서 역사를 만나다

4장 | 함평교육, 시간을 거슬러 찾아가다
5장 | 학교의 변화를 보다



함평의 시작과 교육

상록수

"저……금 밖에 앉은 아그들은 오늘부터 공부를……시킬 수 못허게 됐구만!" 하였다. 청천의 벼락은 무심한 아그들의 머리 우그로 떨어졌다. 깜빡깜빡하고 선상님을 쳐다보던 수없는 눈들은 모두 꽈리맹키로 똥그래졌다.

"으째요? 선상님, 워째 글을 안 갈쳐 주신당가요?"

그중에 대그빡이 좀 굵은 아그가, 발딱 일어나며 질문을 한다.

영신은 순순히 타이르대끼 '집이 쪼깐해서 80명 밖에는 더 갈칠 수가 없게 되브렀다는 것과, 올가을에 새 집을 지으면 꼭 잊어블지 않고, 한사람도 빼 놓지 않고 불러주마'고 빌다시피 하였다.

"그라믄 여태까지 요롷고 좁은 데서 어찌케 갈쳐주셨당가요?"

이번엔 솔찬히 목소리가 굵은 머슴아의 질문이 들어왔다. 영신은 화살에나 맞은 대끼 가슴 한복판이 뜨끔하였다. 그 말대답을 못허고, 머리가 핑 내둘려서 이마를 짚고 섰는디 금 밖에 앉아있던 아그들은 하나 둘 앙근 채 엉금엉금 기어서, 혹은 살금살금 들러붙어 금 안으로 밀려들어 오다가

"선상님! 선상님!"

하고 연거푸 부르더니, 와르르 교단 우게까지 뛰어오른다.

영신은 50여 명이나 되는 아그들에게 에워싸였다.

"선상님!"

"선상님!"

"지는 진작 왔어라."

"벤소에 갔다가 쩨까 늦게 왔는디요."

"선상님, 내일부턴 일찍 오께라. 선생님보다 일찍 오께라."

"선상님, 저 쪼깐 보쇼, 저 쪼깐 보랑께요! 시방부터는 아침두 안 먹구 올랑께, 가라고 그라지 마쇼. 네! 네!"

아그들은 엎드러지며 고꾸라지며 앞을 다투어 교단 우그로 올라와서, 등을 밀려 넘어지는 아이에, 발등을 밟히고 우는 아이에, 가뜩이나 머리가 휭한 영신은 정신이 아찔아찔해서 교탁 모소리를 잡고 포도시 서 있다. 지 몸뚱아리로 버티고 선 것이 아니라 아그들헌테 포위를 당해서 쓰러지려는 몸이 억지로 떠받들려 있는 것이다.

"선상님!"

"선상님!"

아그들의 짠한 부르짖음은 귀가 따갑도록 그치지 않는다. 그래도 영신은 눈을 내려감고,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 뿐……

"내려들 가그라!"

"싸게싸게 내려들 가랑께!"

"말 안 들으믄 모두 내쫓아분다."

하면서 영신을 도와주는 청년들이, 아그들을 끌어 내리고 교편을 들고 을러메건만, 그래도 아그들은 울며불며 영신의 몸에 가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죽어라고

떨어지지를 않는다.

영신의 저고리는 수세미가 되고, 치맛주름까지 주르르 뜯어졌다. 어떤 가시나는 다리에 가 깍지를 끼고 엎드려서 꼼짝을 못하게 한다.

영신은 뜯어진 치마폭을 휩싸쥐고 그제사

"놔라 놔! 아그들아, 쩌짝으로 좀 가 있으랑께. 아따, 숨 막혀서 죽겄다야!"

하고 몸을 뒤틀며 손과 발에 매어달린 아그들을 가만히 뿌리쳤다. 아그들은 한번 떨어졌다가도, 혹시나 지가 빠질까 하고 다시 징허니 달라붙는다.

이 광경을 본 교회의 직원들이 들어와서 강제로 금 밖에 앙거있던 아그들을 예배당 밖으로 내몰았다.

머시마 가시나 할 것 없이, 어머니의 젖을 억지로 떨어진 것처럼, 눈이 벌개지도록 홀짝홀짝 움시로 또는 흑흑 흐느낌서 쫓겨나갔다.

장로는 대머리를 번득이며 쫓아나가서, 예배당 바깥문을 걸고 빗장까지 질렀다. 아그들이 소동을 쳐 시끄라서 골치도 아프거니와, 순사의 명령을 듣지 않다가는 교회 책임자인 자기 발등에 불똥이 튈까 솔찬히 겁이 났던 것이다.

아그들 등 뒤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영신은 깨물었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영신은 그 눈물을 아그들한테 보이지 않을라고 소매로 얼굴을 개리고 돌아섰다. 한참이나 진정을 하고 나서는, 지기들깐에도 동무들을 내쫓고 공부를 하게 된 것이 껄쩍지근 해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앙거있는 나머지 여든 명을 정돈시켜 놓고 차마 내키지 않은 걸음걸이로 칠판 앞으로 갔다.

그는 새로운 과정을 가르칠 경황이 없어서

"오늘은 우리 복습이나 하자이."

하고 교과서로 쓰는《농민독본》을 펴 들었다. 아그들은 글자 모으는 법을 배운 것을 독본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핵교로 오너라."

"배워사 무슨 일이든지 한다."

하고 풀이 죽은 목소리로 외기를 시작한다.

영신은 그 히말테기 없는 아그들의 목소리가 듣기 싫은데,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고 이가 빠진 듯이 띄엄띄엄 벌려 앉은 교실 한 꾸석지가 훤한 것을 보지 않을라고 유리창 밖으로 눈을 돌렸다.

창밖을 내다보던 영신은 다시금 콧마루가 시큰해졌다. 예배당을 에두른 야트막한 담에는 쫓겨나간 아그들이 대그빡만 내밀고 조옥 매달려서 담 안을 내다보고 있지 않은가. 고목이 된 뽕나무가지에 닥지닥지 열린 것은 영락없는 사람의 열매다. 그중에도 키가 째깐한 가시나들은 나무에도 기어오르지를 못하고, 땅 바닥에 가 주저앉아서 홀짝 거리고 울기만 한다.

영신은 창문을 확 열어젖혔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칠판을 떼어 담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창 앞턱에다가 버티어 놓고 아래와 같이 커다랗게 썼다.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배우고야 무슨 일이든지 한다."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일부를 전라도 방언을 사용해 재구성했다. 만약 상록수가 전라도를 공간적 배경으로 했다면 이런 방언들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물론 요즘 학생들은 예전에 비해 방언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표준어를 중요시하고 방언을 터부시하는 교육의 영향도 있었다. 또한 급속도로 발전된 대중매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과거 지역차별로 인해 전라도 방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방언을 사용하는 것을 꺼렸던 분위기도 한 몫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방언은 우리의 말이다. 학교에서도 수많은 방언들이 사용되었다. 특히 아이들 놀이에 사용되는 말들은 동네마다 다른 경우도 있었다. 마치 화투판의 규칙이 다르듯이.

아이들이 타는 그네를 함평지역에서는 '군지'라 했다. 공기놀이는 '독줏어묵기', 소꿉놀이는 '바끔사리', 자치기는 '때콩' 혹은 '때공'이라고 했다. 굴렁쇠는 '동태'라 하는 곳도 있었고 굴렁쇠 굴리는 것을 '궁글린다'고 표현했다. 팽이는 '팽도리' 또는 '뺑도리'라고 했다. 건물이나 사람의 몸과 관련된 방언들을 보면, 화장실을 '벤소' 혹은 '치깐'이라고 했다. 무릎은 '물팍', 발가락은 '발꾸락'이라 했고, 주머니는 '개앗조마니' 혹은 '개아침'이라고 했다. 거스름돈은 '낭거지', 가엽다고 표현할 때는 '짠하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사용되었던 수많은 방언을 모아보는 일도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 같다.

과거를 정리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제 함평의 교육사를 시기별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편, 상록수에는 일제강점기 학교가 세워지는 과정과 그것을 방해하는 일제의 모습도 담겨져 있다. 그 이야기는 '일제강점기의 교육'편에 기술되어 있다. 혹시나 앞서 각색한 부분이 「상록수」를 본의 아니게 훼손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에 원문을 함께 싣는다. 상록수는 충청도 시골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왜요? 선생님, 왜 글을 안 가르쳐 주신대요?"



"저……금 밖에 앉은 아이들은 오늘부터 공부를……시킬 수가 없게 됐어요!"

하였다. 청천의 벼락은 무심한 어린이들의 머리 위에 떨어졌다. 깜빡깜빡하고 선생을 쳐다보던 수없는 눈들은 모두 꽈리처럼 똥그래졌다.

"왜요? 선생님, 왜 글을 안 가르쳐 주신대요?"

그중에 머리가 좀 굵은 아이가, 발딱 일어나며 질문을 한다.

영신은 순순히 타이르듯이 '집이 좁아서 80명밖에는 더 가르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과, 올가을에 새 집을 지으면 꼭 잊어버리지 않고, 한사람도 빼어 놓지 않고 불러주마'고 빌다시피 하였다.

"그럼 입때꺼정은 이 좁은 데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시유?"

이번엔 제법 목소리가 팬 남학생의 질문이 들어왔다. 영신은 화살에나 맞은 듯이 가슴 한복판이 뜨끔하였다. 그 말대답을 못하고, 머리가 핑 내둘려서 이마를 짚고 섰는데 금 밖에 앉았던 아이들은 하나 둘 앉은 채 엉금엉금 기어서, 혹은 살금살금 문치면서 금 안으로 밀려들어 오다가

"선생님! 선생님!"

하고 연거푸 부르더니, 와르르 교단 위까지 뛰어오른다.

영신은 50여 명이나 되는 아이들에게 에워싸였다.

"선생님!"

"선생님!"

"전 벌써 왔어요."

"뒷간에 갔다가 쪼금 늦게 왔는데요."

"선생님, 내일버텀 일쯕 오께요. 선생님버덤두 일쯕 오께요."

"선생님, 저 좀 보세요, 절 좀 보세요! 인전 아침두 안 먹구 오께, 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네! 네!"

아이들은 엎드러지며 고꾸라지며 앞을 다투어 교단 위로 올라와서, 등을 밀려 넘어지는 아이에, 발등을 밟히고 우는 아이에, 가뜩이나 머리가 횡한 영신은 정신이 아찔아찔해서 강도상 모서리를 잡고 간신히 서 있다. 제 몸뚱이로 버티고 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쓰러지려는 몸이 억지로 떠받들려 있는 것이다.

"선생님!"

"선생님!"

아이들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은 귀가 따갑도록 그치지 않는다. 그래도 영신은 눈을 내려감고,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 뿐……

"내려들 가!"

"어서 내려들 가거라!"

"말 안 들으면 모두 내쫓을 테다."

하면서 영신을 도와주는 청년들이, 아이들을 끌어 내리고 교편을 들고 을러메건만, 그래도 아이들은 울며불며 영신의 몸에 가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죽기를 기 쓰고 떨어지지를 않는다.

영신의 저고리는 수세미가 되고, 치맛주름까지 주르르 뜯어졌다. 어떤 계집애는 다리에 가 깍지를 끼고 엎드려서 꼼짝을 못하게 한다.

영신은 뜯어진 치마폭을 휩싸쥐고 그제야

"놔라 놔! 애들아, 저리들 좀 가 있어. 온, 숨이 막혀서 죽겠구나!"

하고 몸을 뒤틀며 손과 발에 매어달린 아이들을 가만히 뿌리쳤다. 아이들은 한번 떨어졌다가도, 혹시나 제가 빠질까 하고 다시 극성스레 달라붙는다.

이 광경을 본 교회의 직원들이 들어와서 강제로 금 밖에 앉았던 아이들을 예배당 밖으로 내몰았다.

사내아이 계집아이 할 것 없이, 어머니의 젖을 억지로 떨어진 것처럼, 눈이 빨개

지도록 홀짝홀짝 울면서 또는 흑흑 흐느끼면서 쫓겨나갔다.

장로는 대머리를 번득이며 쫓아나가서, 예배당 바깥문을 걸고 빗장까지 질렀다. 아이들이 소동을 해서 시끄러워 골치도 아프거니와, 순사의 명령을 듣지 않다가는 교회의 책임자인 자기의 발등에 불똥이 튈까 보아 적잖이 겁이 났던 것이다.

아이들의 등 뒤에서 이 정경을 바라보던 영신은 깨물었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영신은 그 눈물을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소매로 얼굴을 가리며 돌아섰다. 한참이나 진정을 하고 나서는, 저희들깐에도 동무들을 내쫓고 공부를 하게 된 것이 미안쩍은 듯이 머리를 떨어뜨리고 앉은 나머지 여든 명을 정돈시켜 놓고 차마 내키지 않은 걸음걸이로 칠판 앞으로 갔다.

그는 새로운 과정을 가르칠 경황이 없어서

"오늘은 우리 복습이나 하지."

하고 교과서로 쓰는《농민독본》을 펴 들었다. 아이들은 글자 모으는 법을 배운 것을 독본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배우고야 무슨 일이든지 한다."

하고 풀이 죽은 목소리로 외기를 시작한다.

영신은 그 생기 없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듣기 싫은데,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고 이가 빠진 듯이 띄엄띄엄 벌려 앉은 교실 한 귀퉁이가 훤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유리창 밖으로 눈을 돌렸다.

창밖을 내다보던 영신은 다시금 콧마루가 시큰해졌다. 예배당을 에두른 야트막한 담에는 쫓겨나간 아이들이 머리만 내밀고 조옥 매달려서 담 안을 넘겨다보고 있지 않은가. 고목이 된 뽕나무가지에 닥지닥지 열린 것은 틀림없는 사람의 열매다. 그중에도 키가 작은 계집애들은 나무에도 기어오르지를 못하고, 땅 바닥에 가

주저앉아서 홀짝 거리고 울기만 한다.

영신은 창문을 말끔 열어젖혔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칠판을 떼어 담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창 앞턱에다가 버티어 놓고 아래와 같이 커다랗게 썼다.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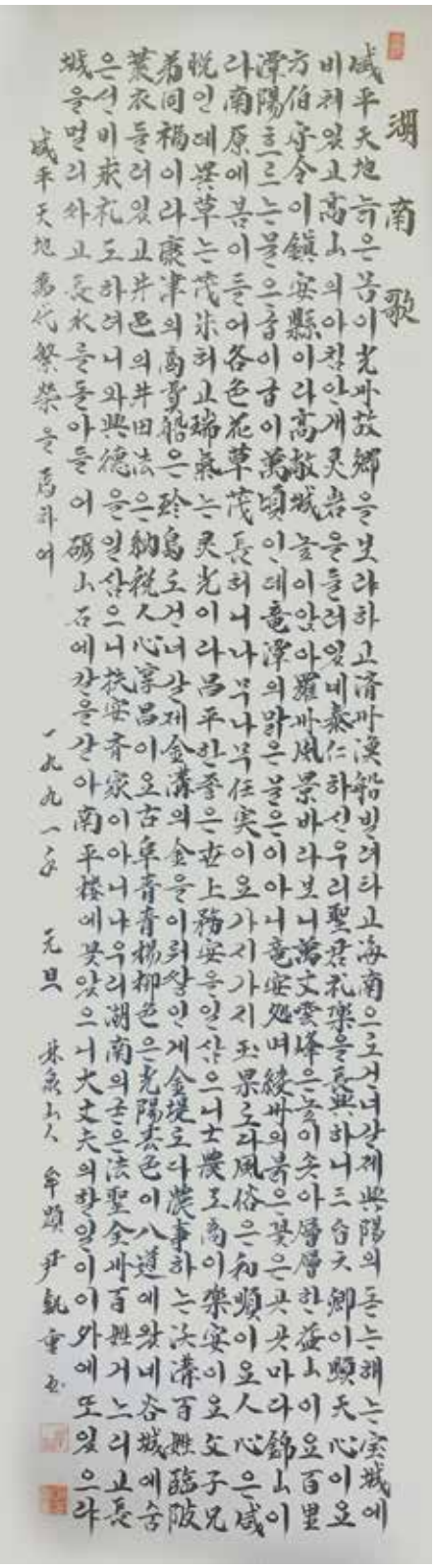
"배우고야 무슨 일이든지 한다."

함평천지

호남의 50여 개 고을을 엮어 노래한 '호남가'의 시작 대목에 함평천지가 등장한다. 호남가는 조선시대 문인인 이서구(李書九, 1754~1825년)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중들의 노래로 불리어 오다가 한말과 일제치하에는 고향을 그리는 노래로 애창되어 왔다고 한다.

호남가는 "함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하고, 제주 어선을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 제~"로 시작하는데, 그 의미는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평화(咸平)롭게 살아가는 좋은 세상(天地)에 최고 어른(늙은 몸이)이 광명한 고향(光州)을 보려하고 온 백성을 구제(濟州)하는 큰 배(漁船)를 빌려 타고 남쪽지방(海南)으로 건너갈 제~"로 풀이할 수 있다. 마을 이름을 엮어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 낸 노래이고, 일종의 언어유희라 할 수도 있다. 여기서 함평천지의 뜻을 알 수 있는데, 함평천지는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좋은 세상"이라는 뜻이다.

함평(咸平)이라는 지명은 함풍의 '함' 모평의 '평' 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조선이 개국한 지 18년이 된 1409년 태종은 고려의 구습을 혁파하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착수한다. 이때 영광군 령이었던 함풍현(咸豐縣)과 모평현(牟平縣)을 통합하고



영광군 속현이었던 해제현(海際縣)과 임치현(臨淄縣) 그리고 나주군 소속이었던 영풍향(永豐鄕), 다경부곡(多慶部曲)을 병합하여 함평현(咸平縣)으로 재편했다. 동시에 종6품의 현감을 임명해 국왕이 직접 통치하는 현령관급(懸鈴官級)으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505년 후인 1914년 현의 명칭이 군으로 바뀌면서 함평군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함평은 또한 예로부터 의향으로 불리고 있다. 항일 의병장으로서 왜군과의 격전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려 국민들의 울분을 달래주는 등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한 공로로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은 남일 심수택 장군을 비롯해, 구한말 정미의병을 대표하는 형제의병장인 김태원과 김율은 함평에서 성장했다. 김태원 의병장은 1908년 1월 동생 김율과 함께 동복 무동산에서 일본의 요시다 기병부대 150명과 접전, 요시다의 목을 베는 전공을 올리기도 했다. 김태원 의병장이 이끈 의병부대는 주재소를 습격하고 일본군 토벌대와 40여 차례 전투를 벌이는 등 일본군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신출귀몰했다고 한다. 그는 1908년 어등산 전투에서 전사했다.

함평군의 마스코트는 전통적인 농촌생활의 상징이면서 함평군 특산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소를 의인화하였다. 군화는 춘란(황화소심)이다. 춘란은 4군자의 하나로서 식물분류학상 난과 식물로 봄을 알리는 꽃으로 일명 '보춘화'라고도 한다. 군목은 은행나무로 줄기가 튼튼하고 빛깔 고움이 함평군민의 강인성과 청렴결백을 상징해 준다.

함평군은 멸종위기의 겨울철새인 천연기념물 제200호 먹황새를 군조, 호랑나비를 군나비로, 뱀장어를 군어로 지정했다.



최초의 국가교육기관

함평 최초의 국가교육기관, 함평향교

19세기 후반까지 조선은 오랜 전통을 지닌 교육제도를 유지해 왔는데,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이른바 관학 위주로 시작되었다. 서울에는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인 성균관과 중등교육기관인 4학이 있었다.

지방에는 향교를 설립하여 국가에서 지원하였다. 조선이 건국되고 유교를 국시로 정한 왕조와 사대부는 유교문화 이념을 수용하기 위해 중앙의 성균관과 연계시켜 지방에 향교를 세웠다. 다시 말해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인 유학을 보급하고 유교적 소양을 지닌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 지방에 세운 조선의 국립 교육기관이 바로 향교다. 조선 중기 이후 점차 사학도 설립되었는데, 서원과 서당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교육기관은 갑오개혁까지 계속되었다.

향교에는 양반과 서인의 자제 중 16세 이상이 되면 입학할 수 있었는데, 초기에는 주로 양반의 자제들이었다. 조선 후기로 내려올수록 평민층의 자제가 증가하였다. 이들의 교육 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었으나 대체로 40세까지도 교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향교의 정원은 고을의 크기에 따라 달랐는데, 부와 목은 90명, 도호부는 70명, 군은 50명, 현은 30명이었다. 교관도 고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큰 고을에는 문과 출신의 종6품 교수, 작은 고을에는 생원진사 출신인 종9품의 훈도를 파견했다.

전국의 각 군현에 1개소 이상의 향교를 설치하라는 태조의 명에 따라 함평에도 향교가 건립되었다. 함평향교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전적·노비 등을 지급받아 교관 1인이 정원 30명의

교생(校生)을 가르쳤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당초에는 현내에서 서쪽으로 2리, 현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함평군사에는 외대화 마을 동쪽 산에 향교의 잔해로 보이는 주초석과 기와편들이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향교는 정유재란 때 소실된다.

임진왜란 때는 직접적인 왜적의 피해가 없었던 함평이 정유재란 때는 일본군이 먼저 호남을 유린하면서 피해가 심각했다. 의병 노경덕의 행장에는 "왜적의 손에 의해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 부근에 있던 함평의 향교가 불타고 노복들이 모두 도주해 버리자 자비로 제향을 받들며 자기 집 노복들을 교직으로 삼았다."며 왜적이 방화를 자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불타버린 향교는 1599년 초가로 다시 세워졌다. 하지만 자리도 불편하고 규모도 보잘 것 없었다. 1625년(인조 3년) 현감 박정청이 현 동쪽 고산 아래를 십정지지(十井之地)라하여 중건하려 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여진족의 침략(정묘호란)으로 이루지 못했다.

1631년(인조 9년) 현감 박일성이 함평의 유림과 협의하여 이듬해인 1632년에 예조(禮曹)에 보고하고 대성전과 명륜당을 완공하여 향교의 규모를 갖추는데, 오늘의 대동면 향교리 590번지이다. 1816년에는 화재가 발생하여 대성전 일부와 명륜당이 불에 타 다시 중수하였고, 현재 건물은 1967년 세워진 것이다.

대성전은 정면과 측면 각 3칸의 맞배집이며, 뒤편의 향사제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집이다. 대성전에는 5성(五聖), 송조4현(宋朝四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단층 팔작집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향교의 위치가 평지일 경우에는 전묘후학(前墓後學)의 배치형식을, 경사지일 경우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함평향교는 문묘(文廟)인 대성전을 앞쪽에 배치하여 전묘후학의 예를 따르고 있다. 전남에서는 나주와 영광, 함평향교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3칸의 맞배지붕으로 된 대성전과 명륜당, 동재(東齋), 서재(西齋), 전사고(典祀庫), 양사재(養士齋), 고사(庫舍), 내삼문(內三門), 외삼문(外三門) 등이 있다.

향교를 세워 유교를 보급하고 인재를 양성하려했던 조선의 계획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

힌다. 주군현의 학교에 각각 토지를 내려 향교의 운영에 충당하려 했으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먼 곳에 있는 생도의 숙식에 드는 비용도 적지 않았고, 교관 확보도 어려웠다. 조선의 지배계급이었던 양반들에게는 벼슬자리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문과급제자나 생원진사에게 교관은 한직으로 여겨져 기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시대 교육의 맹점은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과거를 보는 수단 내지는 단계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대부의 자제들은 7, 8세가 되면 사설 서당에 들어가 천자문 등 기초와 습자를 배웠고, 15, 16세가 되면 서울은 사학(四學), 지방은 향교에 들어가 소과를 준비했다. 소과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진학해 대과에 응시하고 급제하면 관직을 얻는 것이었다. 물론 향교를 거치지 않아도 소과에 응시할 수 있었고, 성균관에서 수학하지 않아도 대과에 응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체계적인 연계 계통은 아니다.

함평향교도 몇 차례 우여곡절을 겪는다. 1643년 인근 장성의 유생 김형복, 김형우 형제가 유안(儒案: 성균관이나 향교, 서원 등에 있던 유생의 이름을 적던 장부)이 불에 타버리게 하는 사건을 저지르게 된다. 이들은 향교 이건 때 핵심인물이었던 정지현과 통문을 주고받는데, 이것은 전라도 일대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게 된다. 1662년에는 이황의 위패가 유출되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1816년에는 화재가 발생하여 대성전 일부와 명륜당이 불에 타버린다.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향교의 교육적 기능은 없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양사재



오일정

어지고 봄과 가을에 석전(釋奠)을 봉행(奉行)하며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을 하고 있다.

함평향교에 남아있는 양사재

사마란 생원과 진사를 일컫는 말이다. 대개의 경우 생원과 진사에 합격하면 서울의 성균관에 입학하여 문과시험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성균관에 가지 않고 귀향한 생원과 진사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교육장소가 바로 사마재였다. 따라서 사마재는 지방의 성균관이라 할 수 있으며, 향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사마재는 모든 고을에서 건립된 것은 아니었다. 생원과 진사의 배출 정도에 따라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별도의 건물 없이 향교를 빌러 사마재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마재는 향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함평은 향교 대성전 서북쪽에 사마재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조선후기 각 군현의 교육기관으로 양사재가 등장하였다. 양사재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나지만 양사(養士: 선비를 양성함)와 흥학(興學)을 목적으로 건립된 일종의 교육기관이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양사재는 거의 모든 군현에 설치되는데, 수령과 양반 사족들이 서로 합심하여 설치한 경우가 많았다. 민과 관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재원을 모았는데, 양사재의 주된 목적을 향교의 교육기능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그런

때문인지 양사재는 향교 내부에, 혹은 그 인근에 설립되었다. 양사재는 엄격히 말하면 관학은 아니었지만 관학에 준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고, 양사재는 향교와는 별도의 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하지만 양사재는 침체를 면하지 못하다가 19세기 말에 이르러 근대학교 설립으로 이어졌다. 양사재의 재원도 근대학교의 경제기반으로 흡수되었다. 학교 부지로 활용되거나 양사재의 건물도 없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함평에는 현재 양사재 건물이 남아있다.

함평향교 대성전 서북쪽에 사마재가 있었고 또한 양사재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양사재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그 임원에는 훈장 1인, 장의 2인, 색장 2인이 있었으며, 학도 등의 명부인 사마안(司馬案,) 거접안(居接案) 등과 재임안(齋任案)이 남아있다.

조선의 사립 교육기관 서원·사우

16세기 후반부터는 서원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서원은 고려말 조선초에 존재하던 서재의 전통을 잇는 것이었다. 서재의 성격이 단순히 유자의 안거강학(安居講學: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지내며 학문을 갈고 닦음)의 장소였다면, 서원은 안거강학의 기능뿐만 아니라 선현을 봉사하는 사묘(祀廟)를 가지고 있었으며 엄격한 학규에 의해 운영되는 특징을 가졌다. 함평을 대표하는 서원으로는 자산서원이 있다.

자산서원의 이야기는 「훼철과 복설을 반복했던 기구한 운명의 자산서원」편에 소개되어있다.

서원은 17세기 중반 이후 역할이 커지게 된다. 이 시기는 붕당정치가 성리학적 이념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명분과 의리 중심으로 전환되어 향촌사림의 여론이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때였다. 예컨대 유림의 집단 상소는 향교와 서원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한 동성촌락(同姓村落)의 발달과 함께 집단 내부의 상호결속과 사회적 지위 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서원은 족적기반의 중심기구로 그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켜 나갔다. 서원은 명조(名祖), 현조(顯祖)의 제향을 통한 사회적 지위 유지, 문중자제의 교육과 교화를 통해 문



기산초등학교

기산사(구 유애사)는 현재 기산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다. 광해군의 인목대비 폐출을 지지하는 이 지역 선비들의 상소를 막았던 당시 함평현감 동호 박정원을 제향하는 사우로 1705년(숙종31년)에 건립하였던 유적이었으나 현재는 옛터만 남아 전한다. 기산초등학교에는 사우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중 내 윤리질서의 유지 등을 도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院), 사(祠)는 종래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가 크게 축소되었고, 사현(祀賢)의 기능만이 강조되면서 문중의 사회적 경제적 이해를 대변하는 도구가 되었다.

원래 서원은 선현의 봉사와 자제교육의 뜻으로 설립된 것이었지만 전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면세 면역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 피역자들이 몰려들었으며, 지방 농민을 괴롭히고 지방 행정에 압력을 가하기까지 하는 등 그 피해가 막심했다. 대원군은 1868년 지방 양민들의 세력기반이 되었던 서원을 대폭 정리하여 전국에 47개소의 서원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폐했다.

조선시기부터 현재까지 함평지역에 존재했던 서원과 사우는 모두 38개소였다. 서원과 사우가 철폐되기 시작한 1863년 이전에 세워진 서원과 사우는 28개소로 전남의 시·군 중에서 가장 많았다. 함평에서는 사원철폐령 이전에 모양사, 매당사, 분충사, 달덕사, 분매사, 월계사, 동암사, 화전사, 양림사, 효동사, 산정사 등이 폐철되었다. 사원철폐령에 따라 폐철된 사우는 자양서원, 유애사, 수산사, 월산사, 임천사, 나산사, 월호사, 초포사, 성산사, 지산사, 선호서원, 매곡사, 고양사, 송암사 등이 있다. 자산서원(제동사)을 비롯해 증산사, 사산사, 원모사, 오산사, 백야사는 1868년 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가 이후 복설되었다. 표산사, 덕천사, 수벽사, 사매사, 충의사, 상곡사, 삼일사, 송계사, 해강사, 선호사 등은 철폐령 이후 창건되었다.

현 기산초등학교는 과거 기산사(舊 유애사)가 세워졌던 자리다. 기산사는 광해군의 인목대비 폐출을 지지하는 이 지역 선

비들의 상소를 막았던 함평현감 동호 박정원을 제향하는 사우로 1705년(숙종 31년)에 건립하였던 유적이었으나 현재는 옛터만 남아 전한다. 이같이 기산사가 창건되는 것은 박정원이 죽은 지 80년이 되던 해에 그의 충의가 조정에 알려져 대사간으로 증직(贈職: 죽은 뒤에 품계와 벼슬을 주거나 높여 주던 일)된 것과 때를 같이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산초등학교에는 사우에 대한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나산면 우치리 계동마을에는 자양서원이 있었다. 마을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예전에 계수나무가 많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계동(桂洞)'이라고 불리었던 것 같다. 주자와 함께 우암 송시열을 제향했다는 자양서원이 1726년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68년 대원군 때 훼철되고 현재는 터마져 논이 되었다. 이 마을 어귀에는 높이 1m의 조그마한 비석이 하나 있는데, 서원 입구에 세워진 하마비를 이곳으로 옮겨 온 것이다.

마을 곳곳에 세워진 기초교육의 요람, 서당

서당은 흔히 글방, 서재, 서방, 책방 등이라 불리는 민간 교육기관으로 기원을 고구려의 경당에서 찾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서당은 천자문 등 한문의 기초와 유교사회의 기초 예절 등을 배우는 향촌 사회 교화의 중심지로서 조선시대 대표적 초등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서당은 대부분 소규모로 설립되었는데, 조선후기에 이르면 문중이나 마을에서 자제들의 교육을 위하여 인근의 학자를 훈장으로 초빙하여 얼마간의 급료를 주고 의식을 해결해 주면서 마을의 자제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또한 부유한 집안에서 오로지 자기 집안의 자제교육을 위하여 개설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 서당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지만 그 흔적은 이 마을 저 마을 곳곳에 남아있다.

대동면 서호리 호정마을. 마을의 형국이 범이 앉아 있는 형이며 꼬리를 정자나무 밑에 맺고 있다 하여 마을 이름을 지금 호정(虎亭)으로 쓰고 있으나 이는 마을의 정자나무인 느티나무

가 노거수로 자리한 이후의 속설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 이 마을의 입향조인 최수강의 파보인 경주 최씨 학주공파의 보첨에 보면 선산의 위치를 호정(虎頂) 안산 또는 후록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호정(虎頂)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1789년 호구총수 지명은 호정(好亭)으로 되어있고, 1912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지명은 호정(虎丁)으로 되어 있다.

이 마을에는 최윤이 세운 강학소인 우우당이 있다. 정(亭)이 사대부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경치 좋은 곳에 지은 건물이라면, 당(堂)은 여러 사람이 모여 학문도 강론하고 행사를 의논하는 집이다. 1943년 중수 후 서당으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경주 최씨 문중제각(祭閣)으로 쓰고 있다. 우우당 뒷산 아래 자락에 줄나무 형태로 팽나무 7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수령은 약 40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대동초등학교서호분교장이 폐교된 곳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들어섰다.

나산면 송암리 양지마을의 옛날 지명은 덕림(德林)이다. 산중이라 햇볕이 일찍 지는 것이 보통이나 이 마을은 볕이 오랫동안 지지 않아 마을 이름을 양지(陽地)라 했다 한다. 옛날 글방이 한 군데 있었는데 이 자리에 밭을 일구면 수재가 많이 나온다 해서 서당밭이라 부르는 곳이 있다.

대동면 용성리 정창은 원래 정창(定昌)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는 정창(丁倉)으로 표기되어 있어 당시 국가의 창고가 있었지 않나 여겨진다. 1912년 행정구역 개편 때부터 일인들에 의해 정창(正昌)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 마을에 향교와 같이 교육을 담당하는 큰 서당이 있었는데, 그 서당 자리가 이건주의 집터였다고 한다.

손불면 동암리 동백마을은 동백나무가 많아서 이름 지어졌고, 속칭 통골이라 부른다.
마을 앞 계속 주변에 5백여 년 된 느티나무와 팽나무가 우거져있고 70여 년 전까지 백양서당(白楊精舍)이 있었다.

손불면 동암리 벽초동은 마을 앞의 우마산(牛馬山)이 와우(臥牛) 형국이라 하여 푸른 풀이 있어야 한다고 마을 뒷산의 마구청, 구수골 등의 지명과 함께 풍수객이 붙여준 이름이라 전한다. 정준의 서당인 월명정사(月明精舍)를 비롯한 여러 서당이 최근까지 존재했다고 한다.



손불면 양재리 모량은 장재동 '배들이 들' 아랫마을로 1930년대 월천저수지가 생기기 전까지는 갯가의 마을로 '모린개'라 하였다. 모씨가 입촌한 후 한문으로 표기할 때에 어진 것을 숭상하자는 뜻에서 모량(慕良)이라 한 듯하다. 이 마을에는 풍천서당을 이어 운천서당이 열렸는데, 최근까지도 방학 중에 서당이 열렸다고 한다.

엄다면 삼정리 벽유정 마을 뒷산 정상은 무안군과 함평군의 경계가 된다. 마을에 맑은 물이 흐르는 개천이 있어 벽류(碧流)라 했다는 설이 있고 마을 앞 개천에 버드나무가 줄지어 서있어 벽류(碧柳)라 했을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1789년 호구총수지명에는 벽류동(碧流洞)과 벽류정(碧柳亭)으로 부르는 두 마을로 나누어 적혀 있다. 이 마을에는 서당골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옛날에 서당이 있었다고 하여 서당골이라 명하여졌으나 현재 서당 자취는 없다.

엄다면 학야리 야리마을 앞에 300년 된 멀구슬나무가 이 마을의 역사를 말해준다.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어 들 가운데 마을을 형성하니 인근마을 주민들이 들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들말'이라 부른 것을 야리(野里)라고 한문으로 표기한 것이다. 옛날 서당이 있던 곳을 서당터라 부르는데, 본촌의 서북쪽에 위치하며 위로는 대천동, 아래로는 숲 밖, 토교를 연결하는 마을의 사실상 중심구역으로 수많은 선비와 인재를 배출시켰다.

월야면 월계리 덕산은 원래 서당이 많은 곳이라 해서 '서당골'이라 했으며 월야면이 신설되기 전에는 대야면 덕산리였다. 덕산이라 부르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전래되어 오는 이야기는 없다.

학교면 곡창리 서당매는 무명촌이었으나 옛날에 한 선비가 열심히 글을 가르치던 매화꽃이 울창한 서당이 조그마한 산에 있었다고 해서 마을 이름을 '서당메(書堂山)'라고 하였다 한다.

학교면 사거리 율동은 밤나무가 마을 어귀에 있었기 때문에 '율동(栗洞)'이라고 하였다 한다.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밤나무가 고목이 되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없다. 율동은 낙천동과 율동 두 개 마을을 말하는데 낙천동에는 함평현감이 부임할 때 꼭 들렀다 가는 이름난 서당이 있었다고 전하나 서당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학교면 석정리 원석정. 이 마을에는 백제 때의 사찰로 추정되는 금석사 터가 있다. 빗살무늬 기와가 땅속에 파묻혀 있는 곳으로 절터는 600여 평 남짓하고 축대의 높이는 6m, 길이는 50m의 언덕위에 자리 잡고 있다. 수군이 주둔하고 있다가 진격하곤 했던 곳인데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소실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금석사의 주변 골짜기를 서당동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 절의 강당에 주변에 학동들을 모아 불경을 외우게도 하고 스님이 직접 무료로 글을 가르쳤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학교면 석정리 동림마을. 옛날에 어떤 도사가 영산강 줄기에 위치한 석관정에 나타나 사방을 둘러보고 현재의 이 마을을 향하여 발길을 옮겼다. 도착하여 하는 말이 "석관정에서 본 바와 같이 동쪽의 나무와 터가 나무랄 데 없이 좋은 곳이로구나."하며 '동림(東林)'이란 글자를 새겨 놓은 후 배를 타고 사라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도사가 새겨놓은 글자가 마을 이름이 되었는데 석관정에서 보아 동쪽에 위치한 나무가 많은 마을이라는 뜻에서 마을명을 동림이라 하였다 한다. 마을 오른쪽 뒤편의 동흥저수지 골짜기에 서당이 있었다하여 서당골이라고 부르고 있다.

조선시대의 시험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시험을 보았을까? 또 합격증은 어떤 모양일까? 그때 교육 관련 문서들을 살펴본다.

초시(初試)부터 대과(大科)에 이르는 동안에 과거 응시자나 혹은 백일장에 참가한 유생이 제출한 답안지를 시권(試券)이라 한다. 이 답안지는 관(官)에서 지급하지 않고 과거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마련했다. 따라서 종이의 규격과 질이 다양하다. 과거시험 응시자는 답안지의 오른쪽 상단 혹은 하단에 성명, 본관, 나이, 거주지, 4조(부, 조, 증조, 외조)의 신분 등 그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뒤 3~4번 접어서 봉하고 그 왼쪽에 출제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고시관과 채점관이 제출된 답안지에 번호를 일일이 매기고 응시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오른쪽 부분을 절단한 후 채점은 붉은 글씨로 중요 부분을 점검하고 낙점(落點: 채점결과)하게 되어 있다. 평가 순위, 즉 차상(次上) 차하(次下)가 결정되면 봉해진 이름을 뜯어 합격자를 방(榜)을 붙여 공고하였고, 이 과지는 후에 응시자에게 돌려주었다.

홍패(紅牌)는 대과에 합격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일종의 합격증서로서 흔히 급제교지(及第敎旨)라고도 한다. 이 문서에 기록된 내용은 급제시기와 급제자의 성명, 성적등급 등이었고, 재질로는 붉은 종이(紅唐紙: 중국제 붉은 종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한지에 기록했다. 문과는 갑과(甲科) 3인, 을과(乙科) 7인, 병과(丙科) 23인을 뽑았다. 이러한 홍패는 한 개





인의 이력과 출신을 증빙하는 자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첩지(帖紙: 별도로 첨부되는 문서)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소과, 잡과, 이과 등에 합격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합격증은 백패(白牌)인데, 홍패와 같이 흔히 급제교지라고도 하는데 주로 백색용지를 사용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합격시기, 성명, 출신과(생원, 진사, 잡과), 성적등급 등이다. 이 문서 또한 해당 인물의 이력과 경력을 증빙하는 문서로 활용된다.

과거합격자의 명단은 방목(榜目)이라고 한다. 문과의 대과 합격자 명단을 국조방목(國朝榜目)이라 하고, 소과 합격자 명단은 사마방목(司馬榜目)이라 한다. 현전하는 방목은 합격자에게 별책으로 나누어 준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문집의 부록으로 첨부된 경우도 있다. 합격자 명단은 대부분 각 지역의 읍지(邑誌)나 군지류(郡誌類)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과거에 급제한 인물들의 명단을 별도로 〈문과선생안〉이나 〈사마재안〉 등으로 만들어 향교 등 교육기관에 관련 자료로 보존한 경우도 있다. 이 문서는 시기별, 지역별 합격자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강단자(考講單子), 고과단자(考課單子)는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이다. 고강이란 학생들에게 경서의 한 대목을 제시하고 그 전후의 내용을 암송하고 해석하도록 하여 그 성취도를 평가하는 제도에서 비롯된 문서이다.

咸平

함평 근대교육의 뿌리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위한 조선의 근대교육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한다. 개화사상이 서울의 관료와 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퍼져 있었고, 개화사상가들은 서양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시급히 신학문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화사상가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개항이후 일본을 방문한 수신사 김기수와 김홍집은 귀국 후 고종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일본의 근대학교를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1881년 조사시찰단의 수행원으로 참여한 유길준, 윤치호 등은 일본의 근대학교인 경응의숙과 동인사에 각각 입학함으로써 최초의 일본유학생이 되었다.

국내에 근대교육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 1882년 지석영의 상소가 그것이다.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일본으로 망명한 박영효 역시 고종에게 올린 「건백서」에서 소중학교의 설립과 의무교육의 실시, 그리고 근대학문을 가르칠 것을 주장하였다.

더욱이 1880년대 조선은 구미 여러 나라와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외국어의 습득이 절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883년 영어를 가르치는 동문학을 설립하였고, 개항장인 함남 원산에서도 같은 시기에 원산학사를 설립하여 근대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조선 정부는 서양의 문화와 제도를 배울 수 있는 본격적인 근대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육영공원이 그것인데, 원래는 미국을 방문한 보빙사 민영익이 1884년 설립을 추진했

으나 갑신정변으로 인해 다소 늦어진 1886년 8월에 문을 열었다. 이처럼 1880년대 조선 정부의 공교육 정책은 개화파 관료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한편, 개신교 선교사들은 신학문을 가르칠 학교 설립에 주목하였다. 물론 이들의 목적은 개신교를 전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를 설립하려 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신학문을 접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학교가 배재학당과 이화학당 등이다.

1880년대 근대 교육은 정부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에 의거하여 추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1894년 갑오개혁 이전까지는 구학 위주의 과거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 과거시험으로 선발된 관리들은 개항 이후 유입된 각종 문물과 제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 선발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조선 정부는 갑오개혁을 추진했는데, 이는 그만큼 근대화의 추진이 절박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1894년 음력 6월 갑오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군국기무처를 설치했고, 군국기무처에서는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정부 기구로서 학무아문을 설치하였다. 비로소 정부의 주도 아래 체계적인 근대교육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함평 최초의 근대교육 기관, 지남학교

우리나라 근대교육은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발포된 이른바 '교육입국조서'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고종은 이 조서에서 교육이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므로, 학교를 세워 덕양(德養,) 체양(體養,) 지양(智養을) 교육의 세 가지 강령으로 제시하고 개명한 지식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나라를 중흥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왕실의 안전과 나라의 부강이 백성의 신교육에 달려있음을 강조하였다.

근대교육을 위해 유학생을 파견하였고, 선교사들은 이화학당, 배재학당 등을 개교하였으며 정부는 육영공원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1895년 7월 칙령 제 145호 소학교령 시행, 1899년 3월 이후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의학교 관제가 차례로 공포되었다.

전남지역 최초의 근대학교는 소학교령에 의거하여 1896년에 설립된 광주공립심상소학교였다. 같은 시기에 영광과 순천에서도 공립심상소학교가 설립되었다. 현재 전남 행정구역 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학교는 영광초등학교이다. 개신교 선교사들도 선교를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하였다. 목포의 영흥학교와 정명여학교가 최초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함평의 최초 근대학교는 1906년 설립된 지남학교다. 지남학교는 1911년 함평공립보통학교, 1938년 함평북공립심상소학교, 1941년 함평북공립국민학교, 1941년 함평대화공립국민학교, 1948년 함평공립국민학교, 1950년 함평국민학교, 1996년 함평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교육구국운동을 위한 사립학교

일제가 대한제국의 교육을 식민지 교육체제로 전환하려 하자, 뜻있는 인사들은 교육구국운동 차원에서 학교 설립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교육구국론에 의거하여 수많은 사립학교들이 설립되었다.

1890년 후반에 이르러 독립협회에서는 「독립신문」을 통해 여러 차례 근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황성신문」에서는 국력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언론에서 학교설립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선각자들에 의한 학교 설립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교육구국운동은 언론기관 및 사회계몽 단체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근대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학교의 설립, 애국적인 교과서의 편찬, 남녀평등 의무교육, 그리고 실업 및 상무교육에 힘썼다.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가 급증하자, 통감부에서는 친일정권을 동원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와 탄압에 나섰다. 1908년 8월 사립학교령과 학회령을 잇달아 공포하고, 1909년 2월에는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을 제정하여 사립학교 탄압을 주도하였다.

전문 17조의 사립학교령은 사립학교의 설립을 허가제로 하고, 학부가 사립학교의 폐교 권한을 갖는 것이 골자였다. 이러한 작업은 학부참여관으로 임명된 일본인 시데하라(幣原)에 의해 주도되었다.

1910년 7월 현재 전국의 관공립학교는 155개였지만, 사립학교는 무려 2,082개였다. 당시 황해도를 포함한 관서 지역에 1,035개 학교가 집중되어 있었던 것에 반해, 호남에는 겨우 115개 학교뿐이었다.

호남에 사립학교 설립이 적었던 이유를 당시 의병항쟁에서 찾기도 한다. 한말 의병항쟁은 단연 전라도가 주도했다. 1908년 전라도 의병은 일본 군경과의 교전회수 및 교전 의병 수에서 전국대비 각각 25%와 24.7%를, 1909년에는 각각 47.2%와 60%나 차지하였다. 당시 호남 지역은 즉각적인 무력투쟁인 의병항쟁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전남은 1909년 교전회수 및 교전 의병 수에서 전국대비 31.5%와 45.5%를 차지한다. 이런 이유에서 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구국운동이 저조했을 것이라는 분석하기도 한다.

전남지역에서 민간 주도의 신교육운동은 1900년을 전후하여 시작되었다. 목포의 일신학교나 흥진학교가 가장 일찍 개교하였다. 창평의 영학숙, 창흥의숙, 구례의 호양학교 등이 이 시기 설립된 학교로 주목된다.

함평은 신교육운동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어렵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6일자 기사의 내용이다. 기사에는 “함평군 신광면 송계 광신학교는 경비가 군출하여 폐교의 처지에 이르렀더니, 이 마을에 거주하는 이진규씨가 재정을 전담하여 영원유지하기로 결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사에 근거해보면 1910년 현재 함평에는 광신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함평의 광신학교는 1901년 설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저항으로 꽃 피운 함평교육

일제 침략으로 좌절된 신교육

19세기 말 신교육 사조를 받아들여 교육사적인 대전환기를 맞아 변화와 개혁을 시도했지만 일제의 침략으로 절망과 침체 속에서 암흑기를 맞이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열은 대단했고, 민족의 독립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일제의 학교 정책은 대한제국기 민간에서 형성된 교육적 제도와 시설, 기능과 인력을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국권회복을 꾀하려던 교육구국운동을 억압할 목적으로 1908년 사립학교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식민지교육정책의 기본은 통제와 차별이었다. 일제는 1911년 조선교육령을 공포했다. 시세와 민도를 내세워 조선인의 교육연한을 짧게 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게 하였다. 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일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다니는 학교를 구분하여 학제를 다르게 적용했다. 조선인에 대한 교육 차별은 더욱 노골화하였다.

1920년 광주고등보통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전남에는 고등보통학교가 아예 없었다. 1938년 제 3차 조선교육령을 적용하면서 황국신민화 교육을 한층 강화하였다. 겉으로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분을 없애고 '공학'을 이룬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더욱 철저한 민족차별교육, 민족정신 말살교육을 강요하였다. 일본어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하게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목포의 영흥학교, 정명여학교, 순천 매산학교 등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폐교의 운명을 맞았다.

그리고 1941년에는 다시 국민학교령을 공포하여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를 통해 황국신민의 육성이란 교육목표를 내세우며 군사훈련과 노동력 동원을 더욱 강화했다. '국민'이란 곧 천황의 충성스런 '신민(臣民)'이란 뜻이었다.

이와 같이 몰교육적 명칭인 국민학교는 사실 해방과 동시에 초등학교로 바꾸어야 했다. 일본에서도 1947년 4월 새롭게 의무교육제도를 발족하면서 국민학교를 소학교로 개칭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한참 후인 1996년 3월 1일에야 초등학교로 개칭 할 수 있었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

1910년대 일제의 학교 정책은 대한제국기 민간에서 형성된 교육적 제도와 시설, 기능과 인력을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한 군에 보통학교 한두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인가를 받지 못했고 서당과 같은 비공식적 교육기관으로 전락했다.

1911년 발포한 제1차 조선교육령은 일본인 교육기관과 조선인 교육기관 및 교육이념과 내용을 완전히 구분했다. 일본인들이 다니는 소학교는 6년제였지만, 조선인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 수업 연한은 4년이었다. 또한 1920년 광주고등보통학교가 설립될 때 까지 전남에는 고등보통학교조차 없었다.

당시 일제통치하에서 조선인들은 문명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조선인들에게만 적용한 '조선태형령' 등이 전형적인 예로,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형벌은 문명인인 일본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조선인에게만 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을 바꾸게 된 계기는 3·1운동이었다. 3·1운동은 조선총독부는 물론이고 일본 제국 수뇌부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이미 일본 정계에서는 무단통치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른바 문화정치라는 이름으로 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강압일변도의 식민통치에서 전환하여 식민지에서 일제에 협력하는 집단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일본 제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관철하고 조선인들의 민족적 성

장을 봉쇄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었다.

일제는 우선 단축했던 학제를 연장했다. 1920년 조선교육령을 일부 개정하여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고등보통학교에 수업 연한 2년 이내의 보습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고등보통학교나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등 중등 교육기관은 여전히 간이 교육기관으로 남아있었다. 조선교육령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1922년이었고, 이를 제 2차 조선교육령이라 한다.

일제는 또한 학교 개교를 서두르게 된다. 1919년 일제는 4개년 계획으로 이른바 3면 1교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계획은 1918년 12월에 수립되었던 것으로 3·1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원래 1919년부터 1926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매년 100개 학교 이상을 늘리도록 잡혀있었던 것을, 1920년 1월 4개년으로 단축하여 1922년까지 완성하기로 결정했다.

1922년까지 3면 1교가 달성된 이후 일제는 더 이상 학교 증설을 억제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1925년 교육예산 투입을 오히려 줄였으니 지방 교육비 보조를 감축해야 했다. 이렇게 줄어든 만큼 조선인들이 학교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이 시기에 늘어난 취학률은 조선인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건설에 나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시기 조선인들 사이에 교육열이 확산되면서 보통학교 입학 경쟁이 치열해졌고, 취학률도 상승했다. 전남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집중적으로 설립되었고, 함평도 마찬가지였다. 1920년 나산공립보통학교(현 나산초등학교), 1921년 계천공립보통학교(현 신광초등학교), 1923년 학교공립보통학교(현 학다리중앙초등학교), 1925년 월야공립보통학교(현 월야초등학교), 1926년 엄다공립보통학교(현 엄다초등학교), 1927년 손불공립보통학교(현 손불초등학교)가 개교했다. 1925년 함평공립보통학교 부설 기산학교가 분리 개교하는데 짧은 역사를 남기고 1928년 폐교된다.

조선총독부는 1928년에야 '일반 국민 교육 보급 진흥에 관한 제1차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1929년부터 1936년까지 한 면에 보통학교 한 학교씩을 건설하겠다는 정책이었고 흔히 '1면 1교제'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설립 기금의 대부분

은 조선인들의 기부금으로 충당되었다. 1면 1교제가 제시되면서 보통학교 설립운동이 맹렬이 전개되었다. 1930년 이후에는 조선 민중의 교육열에 힘입어 교육의 대중화시대를 열어가고 있었다. 함평에서도 이 시기에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다. 다만 이 시기의 많은 학교들이 현재는 폐교되었다.

1929년 함평공립농잠실수학교(현재 함평중학교와 함평골프고등학교로 분리), 1930년 해보공립보통학교(현 해보초등학교)가 개교했고, 1941년 손불국민학교 부설 월천간이학교가 개교하여 현재 손불서초등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1932년 함평공립보통학교 부설 용성간이학교(대동북초등학교), 1933년 월야공립보통학교 부설 대야간이학교(월야북초등학교), 1934년 학교공립보통학교 금곡간이학교(학교북초등학교), 1934년 이문간이학교(이문초등학교), 1936년 함평공립보통학교 부설 성남간이학교(성남초등학교), 1937년 백년사립학원(함평서초등학교), 1938년 금송간이학교(학교남초등학교), 1939년 신광공립보통학교(신광서초등학교), 1940년 오두간이학교(해보서초등학교), 1941년 월송공립초등학교(향교초등학교동암분교장), 1941년 월송공립국민학교(월송초등학교)가 개교하지만 현재는 모두 폐교되었다.

이 시기 학교의 증가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1911년 발포된 '공립보통학교비용령'에서처럼 학교 설립에 조선인의 부담을 강제함으로써 설립 자체를 어렵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설립에 대한 조선인의 교육열은 뜨거웠다. 대부분 지역사회 전체가 나누어 부담하였다.

중학교 이상의 교육은 여전히 조선인에게 어려웠다. 일제는 1도 1고보로 설립을 제한하였다. 중등학교들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입학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입시지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입시 열기가 뜨거웠다. 또 비싼 학비 때문에 중등학교 학생이 된다는 것은 꽤 부유한 계층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1943년까지 전남의 조선인 중학생 수는 1,600명을 겨우 넘은 수준이었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학교에서 싹 튼 민족 운동

1937년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총독부는 경제적 자원과 물자, 인력을 총동원했다. 민족운동에 대한 억압을 최고도로 강화했고, 사회전방을 극도로 감시·통제하게 되었다. 이른바 전시체제가 되었는데,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는 황민화 정책과 물자의 수탈, 강제동원이 실시되었다.

강제연행과 자원수탈로 농촌의 노동력과 생산재가 턱없이 부족해진 상황에서도 일제는 쌀 증산정책을 강행했고, 아동과 학생의 노동력도 강제로 동원했다. 또한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강제 저축과 막대한 조세부담을 강요했다. 1938년부터 마을과 직장단위에서 저축 장려운동을 전개했는데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구 함평중학교 구령대

일제의 교육행정은 학교 내에서 권위적인 위계질서를 만들었다. 이후 이러한 권위적 위계질서는 학교 내 반공교육과 군사훈련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학교운동장의 구령대도 권위적인 위계질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지금은 많은 학교에서 구령대가 사라졌다.

1938년 일제는 성별, 계층별로 근로보국대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노동봉사를 통해 국가 관념을 함양하고 희생봉공하며 국민의식을 철저히 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일제는 총독부 학무국에 학교근로보국대 지도총본부를 두고 각 도 학무과에 지도본부를 두도록 했다.

학교별로 교장을 대장으로 하는 근로보국대를 만들되 20명씩 한 개 대를 만들고, 3대에 교직원 한 명씩 배치했다. 학교근로보국대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을 단체로 일정 지역에 머무르게 하면서 도로공사, 사방공사, 황무지 개간, 수로공사 등 공사에 동원하여 '근육노동의 신성함'을 체험하게 했다. 소학교나 간이학교의 교실에서 단체로 숙식을 같이 하며 하루에 6시간씩 노동을 하게 했다. 나머지 시간에는 하과, 자습, 오락, 좌선을 하도록 했지만, 이런 식의 단체 생활이 그렇듯 군대식 규율 속에 진행되는 강제 노동이었다. 1944년 이후에는 생산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학생들을 아예 근로현장에 직접 동원했다.

이전부터도 전문학교나 공립 중등학교에서 교련이 실시되었지만 1939년부터는 전국의 중등학교에서 학교교련이 실시되었고 매우 월요일마다 교련조회를 했다. 학생들에 대한 통제도 나날이 강화되었다. 1939년 각 도 학무과장과 시학들이 모여 '전시 학생생활 규범'을 만들었는데, 이에 따라 여학생들도 긴 양말을 못 신게 하고 냉수마찰을 실시하는 등 군인으로서 체력단련에 내몰았다. 방학중에도 학생들을 근로보국대에 내보내는 한편 해양 훈련이니 등반 훈련이니 하는 군사 훈련으로 내몰았다.

이런 양상은 1941년 국민학교령이 발포되어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더욱 강해졌다. 교과과정에서도 황국신민의 연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연성은 '근로를 통해 국가에 봉사할 황국근로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기도 했다. 1942년 10월 1일 '조선청년특별연성령'을 공포, 청년특별연성소를 개설하여 징병대상 청년 전체가 황국청년으로 연성의 대상이 됐다. 청년특별연성소는 대부분 국민학교에 세웠고, 교사들이 교육을 다수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일제의 교육행정은 사실상 교육사찰을 위한 기구였다. 1930년대 말 일제는 각 지역별로 촘촘한 교육행정망을 구축하였다. 학교 운영의 전권은 교장에게 있었다. 따라서 보통학교 안에서는 일본인 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가 확고했다. 일본인 교장의 폭력, 차별적 태도, 불성실 등은 자주 말썽을 일으켰고, 교사-학생 간에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교사-학생 관계가 총독부 권력-조선민중의 관계를 투영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동맹휴학 등을 통해 저항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렇듯 일제는 학교를 수탈의 지배의 도구로 삼으려 했지만, 학생과 교사 그리고 졸업생들은 저항의 근거지로 만들었다. 일제에 저항하는 청년학생들의 민족운동은 오늘날의 민주화운동까지 이어지고 있다. 함평에서는 4·8문장만세운동을 시작으로, 3·1운동 1주년 시위, 1930년 격문사건, 민립대학 설립운동, 청년운동과 야학 등 민족운동이 뜨겁게 일어났다. 함평에서 일어난 청년학생들의 민족운동은 1부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咸平

해방을 맞이한 함평교육

학교의 정상적 운영과 식민지 교육의 청산

광복 이후 가장 시급한 교육의 과제는 휴교상태에 있는 각급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었고, 일제 식민지 교육의 청산과 민주국가 건설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교육의 재건이었다. 즉 신민 대신 민주시민의 양성이 학교교육의 목표였다.

1945년 11월 미군정청은 조선교육심의회를 발족하였다. 교육이념을 다룬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우리의 교육이념은 민주주의에 기초를 두고 민족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홍익인간의 이념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은 우리나라 교육법에 나타난 교육이념의 시초인 셈이다.

그런데 미군정은 돌연 1946년 3월 30일 학교의 교원들과 학생들 및 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학교에 대한 폐쇄령을 발표하였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선각자들에 의해 민중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던 전문학교와 학원 등 다양한 사설교육기관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 조치였다.

표면적으로는 학교 시설 등의 문제로 무허가 학교를 폐쇄한다는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군정에 반대하고 민족주의 힘을 키우는 사설교육기관을 정리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미군정은 교사의 재교육에도 열중하였다. 남한 내 자생하는 좌익세력들로부터 한국의 공산화를 방지하려는 기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어찌 보면 미국의 국익이 우선이었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미국식 교육방법과 이론이 도입된 시기이기도 했다.

교육정책의 체제 개편과 아울러 교육과정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새교육 운동이다. 미군정청 학무국은 1946년 9월 12일 '신교육연구협회'를 창설하면서 새교육 운동을 전개하였다. "새교육이란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개혁운동이었다"고 정의하였다.

해방을 맞이해 휴교 중이던 국민학교는 9월 24일, 중학교는 10월 1일 재개되었다. 하지만 일본인 교원이 물러감에 따라 현존한 교육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교과목조차 없었던 국어, 국사 담당 교원의 태부족이었다. 또한, 한국인 교원들도 모두가 일제강점기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이었기에 새로운 교육을 시행하기에 부적합하였다. 따라서 민주교육 이념을 보급하기 위해 교사의 재교육에 주력하였고, 강습회, 하계학교, 하계대학을 개설하였다.

1946년 2월 미군정 당국은 의무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교원의 자격 및 신분 및 임용기준을 명시한 '교원신분 임용규정'을 만들어 교원 면허제를 시행하였다. 교원자격규정은 1948년 5월에 제정되어 최초로 초·중등교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였다.

이 시기에는 교수 용어의 한국어 사용을 강조했다. 또한 종래의 차별적인 성격을 가졌던 복선형 학제에서 단선형 학제로 개혁했고, 성인 교육을 통한 문맹퇴치 정책의 일환으로 공민학교를 설치했다. 해방 당시의 문맹률은 78%였다.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 '홍익인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주요 문제는 교육제도를 정립하는 일이었다. 7월 17일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의 헌법은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였으며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과 초등교육 무상주의 원칙을 밝혔다. 그리고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새 교육제도는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새롭게 수정하게 되어, 1949년 9월에 성안되어 10월

제5회 정기국회에 상정되고,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민주국가의 교육기본법으로 교육법이 공포되었다.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법적으로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50년대 전후 한국 교육의 기본방향으로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실천으로 거듭나 향후 오랫동안 한국교육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 홍익인간 이념을 통해 단군자손, 단일민족이란 정체성이 형성되는 출발이 되었다.

또 일제의 잔재인 황국사상을 조속히 불식시키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과편찬사업 및 보급에 역점을 기울였다. 학제는 6.3.3.4년제를 근간으로 하는 단선형 학제를 채택하였다. 일제강점기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하는 복선형 학제를 부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민주적 학제로의 개편이었다.

사립학교와 공민학교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교육 발전의 중심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해방 이후 국가는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국민의 교육기회를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학은 외국의 사례와 달리 사학 설립자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든 관계없이 국민의 공교육 기회를 확충하는데 그 사회적 의의를 두고 출발하였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사학과 국가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정부에서는 사학은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존재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사학의 특수성 보다는 일반성,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국가의 공기로서 역할이 강조되어 온 것이다.

정부수립 이후 1949년 12월 교육법이 제정될 당시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심의법 안에는 사립학교의 교원을 임명할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었으나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감독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당시 학교제도는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 부수적인 존재로서 취급되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부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관여나 통제를 할만한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학교다. 1946년 5월에 「공민학교 설치 요령」에 의해 법제화되면서 제도상 정규교육기관으로 인정되었다. 공민학교에는 소년과, 성년과, 보수과를 두었으며, 지방에 따라 필요한 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민학교의 설치 및 운영은 육영사업에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제한 없이 인가를 허용하였다. 공민학교는 1950~1960년대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빈곤, 전란 등이 겹쳐 생활이 어렵던 때에 교육기회를 잃었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고등공민학교는 국민학교나 공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에게 중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이다. 그러나 고등공민학교는 대부분 사립으로서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 정부는 고등공민학교 진흥책으로 사립 고등공민학교 가운데 비교적 입지조건이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한 학교를 선정하여 공립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교사 봉급의 반액을 국가가 보조하였다.

함평에서는 1952년 광인고등공민학교, 1960년 손불고등공민학교(현 함평손불중학교), 1961년 나산고등공민학교(나산중학교), 1967년 엄다재건고등공민학교(엄다중학교) 등이 개교했다.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의 의무교육화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쇠퇴했으나 문맹을 없애고 공민으로서 자질을 얻게 하여 민주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컸다.

해방정국과 학생운동

해방정국에서 좌우익의 정치적 주도권 다툼에서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처음 대두된 문

제는 신탁통치였다. 신탁통치문제가 대두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이 앞서 신탁통치를 일제의 식민통치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언론에서는 모스크바협정을 3천만 한민족에 대한 '사형선고문'이라면서 반탁투쟁에 불을 붙였다. 모스크바협정이 국내에 정확히 알려지기도 전에 반탁투쟁이 전개된 것이다.

당시 신탁통치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 광주제일고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3월 1일 전남 광주에서 거행된 기미독립선언 기념대회장에서 일어난 광주제일중학교 교직원의 반탁 학생 구타 사건을 동족상쟁의 불상사라기보담 조국 광복의 파괴적 행위로 아니 볼 수 없다. 즉 그 진상은 순진한 학생들이 신탁반대의 슬로건 밑에 태극기를 들고 시가행진을 한 것을 본 광주제일고등학교 교원들이 학생들을 불법 인치 후 "너놈들은 지지하라는 신탁을 반대하는 놈이 어디 있느냐. 너놈들은 그저 둘 수 없다"하고 무수히 구타하여 중경상사를 내인 것인데 이 불법무도한 반역자의 행동에 대하여 광주시민은 격분하여 그들에게 문책하였으며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남 경찰부 '엠피'에서는 즉시 폭행한 교원들을 전부 취조하였다.

동아일보의 1946년 3월 10일자 기사 내용이다. 하지만 이 보도는 당시 반탁을 주도했던 동아일보의 악의적 보도였다. 이날 행사는 3·1절 기념행사였다. 이날 대회는 일체의 정치적인 구호나 슬로건 없이 치르기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경축 시가행진을 벌이는 과정에서 '전국반탁학생총연맹 광주시지부' 소속 학생인 장충식 등이 '신탁통치 결사반대' 구호를 외쳤다. 당시 학교 훈육이었던 김오중 선생과 교감 박준옥 선생 등이 장충식, 이은택 등의 행동을 제지하였고, 학생들이 불응하자 몇 차례 뺨을 때렸다. 그러나 바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장홍구 등의 독촉 청년단원과 차영후 등 '반탁학련' 학생들이 몰려와 선생님들을 구타한 사건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악의적으로 보도했으며, 경찰도 무분별한 난동을 피운 학생들은 방관하고 오히려 선생님들만 경찰서로 연행하였다.

이후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만 결정되면서, 단선단정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격렬하게 일어났다. 본격적인 5·10 총선거 반대투쟁은 4월의 남북한연석회의가 끝나고 5월에 접어들

면서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공동 동맹휴학 등으로 투쟁에 참여했다. 함평농림중학교에서는 5월 6일 학생들의 동요가 있었다.

식민잔재 청산과 교육 내실화

전남의 교육 중점사업은 1945년 해방 직후에는 해방에 따른 자주 국가로서의 식민지 잔재 청산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민정신의 고취에 모아졌다. 1946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행정적인 측면, 특히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1947년에는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미군정기 전남의 초등학교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낙도와 산간벽지에 설립이 두드려졌다. 신안군의 경우 3년간 13개 학교가 설립되어 전남에서 가장 많았다. 여수시는 11개 학교가 설립되었지만, 담양군의 3년간 단 하나의 학교도 증설되지 않았다.

이 시기 함평에서는 1945년 학교초급중학교(학다리중학교)가 설립된다. 향교국민학교(현 대동향교초등학교)는 해방직전인 1945년 6월 1일 설립인가가 나고 해방 이후인 9월 1일 개교했다. 1946년 학다리서공립학교(학다리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가 2008년 학다리중앙초등학교로 통합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초등교육은 국민의 기본교육으로 자리잡았다.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에 시행되었다.

咸平

6·25전쟁의 발발과 이념교육의 시작



용암분교장 이승복 동상

반공교육을 중심으로 한 국민정신교육의 시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학교 교육은 잠정 중단되었다. 1951년 1월 부산시청으로 임시청사를 옮긴 문교부는 같은 해 2월 26일 자로 '전시하 교육특별조치 요강'을 제정 발표하고 전쟁으로 중단된 학교수업을 재개하였다.

이 요강의 주요 내용은 ①피난 학생들의 취학 독려 ②가교실 및 피난 특설학교 설치 ③38이북에서 피난해 온 학생들의 수용 ④대도시 중심의 피난학교 설치 ⑤전시 연합대학의 설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반공교육과 방일 교육이 강조되었다. 반공교육이 방일교육과 함께 강조되었던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사실 학교에서의 반공교육은 6·25 전쟁 이전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부터 강조되었다.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사에서 독립을 위한 민족주의가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며 따라서 반공적 일민주의가 민주주의의 유일한 토대라고 강조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은 '민족주의=반공주의'라는 등식과 함께 반공적 국가주의를 기존의 민주

주의 담론과 접합시키려 노력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수립 두 달 만인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제14연대에서 제주도 4·3사건의 진압작전 출동을 거부한 일부 군인에 의해 봉기가 발발하였다. 이 여순사건 이후로 이승만 정권은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고, 반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승만 정권은 여순사건에 학생들이 가담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학원 내 사상 통일'이라는 문제에 파고들었다. 교육계에서도 내적 정비로 교원에 대한 숙청이 있었으며, 학교와 학생의 반공투쟁을 위한 조직구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당시 전남도 학무당국은 국민학교 교직원 61명을 파면했고, 봉기가 확산되었던 지역에서 교원 숙청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여순사건에 가담한 학생이 280명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학무국의 발표와 달리 여순사건 가담자 대부분은 훈방 등의 조치로 풀려났다. 그런데도 여순사건으로 전남지역의 학생은 큰 상처를 입었다. 이른바 빨갱이로 매도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여수여자중학교 송욱 교장은 '여수 반란 총지휘자'로 몰려 처형되었다. 사실 송욱 교장은 무관하였으나, 정부가 민간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것이다.

교직원과 학생 숙청에 뒤이은 교육계의 가장 큰 반공대책은 중학생 이상의 학생들이 군사, 제식 훈련을 받게 한 학도호국단의 결성이었다. 문교부와 국방부는 '시국수습 대책과 공산주의 세력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1949년 4월 22일 학도호국단 결성식을 가졌다. 학도호국단은 대통령-문교부-학장·교장 계통으로 명령 체계가 이루어지는 조직이었다. 이렇듯 상하 위계질서에 의해 통제 가능한 체제는 교장-교원, 교원-학생, 학생-학생 사이의 감시체제로 확대되었다. 학도호국단은 '조국을 보호하는 민족의 전위부대'이며 이승만 정권이 전국의 학교와 학생에게 반공주의를 주입하려는 전달 벨트였다. 학도호국단을 통해 군사훈련과 반공교육이 시행되었고, 학생들은 각종 권제 반공궐기대회와 징병제 축하대회, 이승만 대통령 탄생 경축식 등에 동원되었다.

당시에도 학교교육의 군사교육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다. 특히 직접적인 교육

대상이었던 학생들은 각 학교 배속장교들이 일제강점기의 배속장교제도를 연상시키는 강제적 혹은 폭력적인 군사훈련 위주의 교육에 저항하기도 하였다. 배속장교들의 지나친 구타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광주사범학교에서는 학생이 배속장교를 살해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그럼에도 학도호국단의 단체훈련은 학원 내에서 좌익계열의 책동을 분쇄하는 애국적 반공주의로 정당화되었다.

6·25전쟁 이후 반공교육은 더욱 강화되었다. 1954년 장학방침을 보면 '반공사상'이 명시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여, 1955년 장학방침의 일순위는 "반공사상을 투철히 기르고 민주도의 생활을 확립시킴으로써 통일 독립의 선봉이 되게 한다"는 것이었다. 전시 및 전후 장학방침은 '민주도의 교육'속에서 반공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반공교육은 교과를 초월하여 이루어졌다. 도의교과 이외에도 국어, 사회(생활) 등 타 교과에서도 폭넓게 이루어졌다. 1950년대 반공교육에서는 교과서를 통한 주입 이외에 전쟁의 체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한 글짓기, 표어, 웅변, 포스터대회 등의 실천 활동이 강조되었다. 실천 활동과 아동문학 등을 통해 아동들이 간접적으로 전쟁을 체험하고 반공의 규율을 내면화하며 북한을 끊임없이 적대화하는 담론이 확산되었던 것이다.

1950년대 규율적 반공교육은 식민유산의 형식을 반공주의로 변형시키고 민주, 민족 담론을 반공 담론으로 연계시켜 이것을 국가적 담론으로 그리고 일상의 규율로 고착시킨 과정이었다. 이러한 규율적 반공교육은 1960년대 군사정권에 의해 강화되고 체계화되었다.

전쟁직후에는 반공교육을 중시하다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재건 교육이 더 중요시 되면서 점차 도의교육과 과학, 기술교육을 강화하였다. 과학기술교육, 국산품 애용, 문맹 퇴치를 위한 한글교육 등이 이루어졌다.

1950년대는 어느 때보다 '국민정신교육'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당시 사회적 상황과 교육 여건의 맥락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종전의 수신과를 대신하여 도의과목이 설치되었고, 다른 하나는 행사 중심 교육활동을 통한 국민정신교육 활동이었다. 국민정신교육의 일환으로 각종 웅변대회, 글쓰기 대회, 표어· 포스터 대회 등 특별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

전쟁 중에 개교한 함평월야중학교

전남에서는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역사적 사회적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전라남도 국민학교 교육과정 기준안'을 작성·활용하였다. 1950년대 전라남도의 주요 장학방침들을 간추려 보면, ① 국민사상의 통일로써 반공교육을 강화하였고, ② 민주 생활의 확립과 정서순화를 위해 도의교육을 진작시켰으며, ③ 과학·기술을 생활화하고 생산을 증산하기 위해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역점을 두었다. ④ 몸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보건 위생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때 시청각교육도 크게 부상하였다. 1954년 광주 지역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녹음기나 사진기, 그리고 수집된 회화자료들이 시청각 교육에 활동되고 있었다. 1969년부터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시청각 실험학교와 시범학교를 운영하였다.

학급 자체적으로 경비를 만들어 당시 유행했던 동인지나 시집과 같은 문예지를 발간하거나 음악 관련된 활동이 매우 많았으며, 시화전을 개최하여 우리고장 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기도 하였다.

1950년대에 함평에서 가장 먼저 개교한 학교는 함평월야중학교다. 1953년 4월 개교했는데, 6·25휴전협정이 7월 27일에 조인된 점을 감안하면 함평월야중은 전쟁 중에 개교한 학교인 셈이다. 또 1955년 함평여자중학교가 개교했다. 1952년 광인고등공민학교, 1956년 엄다남국민학교, 1957년 학다리동국민학교가 개교했는데 지금은 폐교되었다.





영사기와 영사기 필름
학교에서 사용하던 영사기와 영사기 필름.

학제개편과 의무교육의 실시

19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이 수립되고 초대 문교부장관에 안호상이 부임하였다. 중간에 6·25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이 시기는 미군정하에 수립되었던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기초로 교육이념과 편제를 확립한 시기였다.

우선 1951년의 교육법을 제정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기간교육제도의 틀이 되고 있는 6-3-3-4년제의 단선형 학제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1959년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완성하게 된다.

전쟁 중이던 1951년 7월 31일 중학교 입학 시험인 제1회 국가연합고시가 실시되며, 교육자치제가 구상된다. 중등 및 고등교육의 확충 계획이 수립되고 사범학교와 사범대학이 설립되며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된다.

한편으로는 오랜 식민지 지배 속에서 민주주의 교육이념과 제도를 제대로 실행할 능력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국민들의 교육열과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교육 기관이나 재정적 뒷받침이 크게 부족 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교육의 부조리가 만연하였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교육정책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 시기 교육정책은 미군정기간 동안 수립된 계획을 계승한 것으로 교육의 외형적 틀은 미국적인 형태를 취했으나 교육조직을 운영하는 행정인력들은 일제 관료경험이 있어서 일제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수립 초기에 교육의 구조와 내용 면에서 외세에 대한 의존은 결국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토양 위에서 생성된 한국적 교육의 정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咸平

산업화 시기의 함평교육

교육의 확대와 취학률 증가

1960~70년대는 급격한 산업화의 시기였다. 1962년 239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총생산은 1971년 437달러로 늘었고, 이 기간 동안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9.7%였다. 다시 1979년에는 1인당 국민총생산은 1,640달러로 급증했다. 1960년 28.0%였던 도시 인구 비중은 1979년 54.3%가 되어 농촌 인구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반면 농림어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2년 36.6%에서 1981년 15.8%로 줄었고, 줄어든 자리를 광공업과 사회간접자본, 기타 서비스산업들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1972~76년 경제성장률은 평균 9.7%였고 1977~81년 사이는 불황이 겹쳤음에도 5.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농림어업의 성장률은 -0.6%였다.

2, 3차 산업이 성장하고 도시화가 진행되자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많은 기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규칙과 준법정신 등 노동의 사회적 규율에 익숙한 노동자 집단이 더욱 많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2년 의무교육 시설확충 제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고, 이 기간 각급 학교에 112억 917만 원을 투입하는데, 그 중 79.7%인 90억 원을 초등학교 설립과 교실 증축에 투입한다.

1959년 초등학교 취학률은 96.4%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이 일반화되었고 교육열은 더욱 가열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1955년부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베이

비 붐'이 불면서 1950년대 말에는 한 해 동안 8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함평의 인구도 이 시기에 급증한다. 1950년대 후반 10만명을 돌파한 함평의 인구는 1965년 141,845명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성장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 세대들이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초까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이후 계속 상급학교로 진학했다.

1960년대 후반까지는 전남도 어느 정도 의무교육을 감당할 만한 숫자의 학교가 설립되었다지만, 당시 콩나물 교실을 면할 수 없었고 도시 지역에서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2부제 수업을 실시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2부제 수업은 일제강점기부터 발생한 문제였다. 학다리중앙초등학교의 경우 개교당시 교실 3칸을 신축했는데, 1칸은 교무실로 2칸은 1~2학년 교실로 사용하였다. 이후 1년에 1개 반씩 증가되었기 때문에 1928년까지 교무실을 제외하고 6개 교실이 필요했지만 교실 2칸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업을 했다. 1938년에 교실 3칸을 신축하고 나서야 교실 난이 해소가 되었다. 이후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교실 부족난은 해가 갈수록 가중되었고, 1965년이 되어서야 교실난은 완전히 해소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1942년부터 2부제 수업이 시작되었다. 3~4학년들이 오전 12시까지 수업을 마치면 1~2학년 학생들은 그 교실에서 오후 1시부터 수업을 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오후반 학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오후반 학생들은 집에서 중식을 겸하여 술참거리(10시~11시)로 조금 먹고서, 책보를 허리에 동여매고, 여름에는 게다(일본 사람들이 신는 나막신)를 신고 오솔길을 걸어 재를 넘어 신작로를 따라 학교에 이르게 된다. 이때 학교에서는 학교 운동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13시 수업이 시작될 때까지 학교주변에서 기다리면서 놀았던 것이다.

여름에는 학교 앞 광목간 도로변 가로수 버드나무 그늘 밑에서 땅을 쓸고 반 친구들과 돌 줍기 놀이를 하였고 여학생들은 오자미(콩주머니) 놀이와 고무줄넘기를 하였다. 그 당시 광목간 도로는 비포장도로로 년 2회에 춘추에 걸쳐 리별로 도로구간을 담당하여 울력으로 사리부설한 상태에서 치도를 하였다. 그 때 자동차 왕래는 계속해서 다닌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다녔기에 우리 학생들이 도로변에 놀고 있어도 교통에 지장이 없었을 뿐 더러 교통사고도 없었다. 자동차가 지

나가면 먼지가 일기도 했으나 계속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건강에는 지장은 없었다.

언젠가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잘잘못을 판별하지 못하는 1학년 학생이 자동차에 돌을 던진 일이 있었다. 그 때 자동차가 멈추고 경종을 주기 위하여 그 학생을 강제로 승차시켜 사거리까지 갔다가 하차시킨 일도 있었다. 그 후부터는 차에 전혀 돌을 던지는 일이 없었고, 승합차가 오면 모두들 무서워서 학교 운동장으로 피해버리기도 하였다.

2부 수업 중 가장 힘들었던 때는 가을과 겨울철이었다. 그때에는 구두와 고무신을 신을 수가 없어서 짚신과 와라지, 게다, 나막신을 신었다. 게다와 나막신은 미끄러워 신고 다니기가 어려웠고, 가장 편한 것이 짚으로 만든 와라지였다. 이 와라지 신은 눈으로 얼었던 길이 녹으면 와라지에 물이 스며들어오고, 또 흙탕길인 경우 흙이 신에 붙어 올라와 신을 수가 없었고, 와라지 뒤에서 뛰어오른 흙탕물이 허벅다리까지 올라와 하의를 다 버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옷의 버림도 컸지만 그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발이 흙탕물에 적시어 발가락이 시리고 발등이 부어오르기까지 하였으나 그렇다고 교실에 들어가도 춥기는 마찬가지였다. 교실에 난로가 있어도 솔방울로 불을 피우기 때문에 화력이 약해져 교실의 공기는 냉냉하고 차갑기만 했다.

이렇게 2부 수업을 마치고 오후 4시경에 집에 도착하면 우선 배가 고파서 어머님이 사기그릇에(놋그릇은 공출로 없음) 담아 이불 속에 넣어둔 밥을 꺼내어 먹기도 하고, 밥이 없을 때는 고구마를 식사대용으로 먹기도 하였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저녁은 잘 먹지 못하게 되고 그저 많은 물만 먹게 되어 위장병이 생기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교실은 부족했다. 오랫동안 2부제 수업이 이어지기도 했고, 추운 교실은 여전했다. 사회질서가 문란해진 틈을 타서 학교에서 유리를 훔쳐가는 일도 발생했다. 학생들은 추운 겨울에 창문을 책보로 가리고 수업하기도 했다. 1960년대 교실도 늘어나고 학교가 생기면서 2부제 수업은 점차 사라졌다.

이 시기 함평에서도 많은 학교가 신설되었다. 1960년 손불고등공민학교(현 함평손불중학교), 1968년 기산국민학교(현 기산초등학교)가 개교했다. 1961년 나산고등공민학교(나산중학교), 1962년 손불국민학교용암분교장(손불동초등학교), 1963년 함평국민학교영풍분교장(함평북초등학교), 1963년 대동국민학교연암분교장(한골초등학교), 1963년 나산서국민학

교, 1964년 신광국민학교함정분교장(신광북초등학교), 1967년 대동국민학교대광분교장(대광초등학교), 1967년 나산국민학교송암분교장(나산동초등학교), 1967년 엄다재건고등공민학교(엄다중학교), 1968년 손불국민학교석산분교장(손불남초등학교), 1968년 나산국민학교초포분교장(나산북초등학교), 1969년 나산북국민학교, 1969년 해보국민학교중앙분교장(해보중앙초등학교)가 이 시기에 세워졌으나 지금은 학생 수가 줄어 폐교되었다.

1971년에는 함평신광중학교와 함평해보중학교가 개교했다. 1970년 영창국민학교가 학다리초에서 분립되었고, 1971년 월야북국민학교광동분교장(광동초등학교), 1971년 월야국민학교월야남분교장(월야남초등학교), 1972년 함평서국민학교석성분교장(석성초등학교), 1976년 학다리동국민학교신성분교장이 세워졌으나 지금은 폐교되었다.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심화현상

이 시기 본격화된 공업화 정책의 영향으로 이촌향도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었고 전남의 경우 1970년대부터는 절대 인구 자체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1965년 최고 정점을 찍었던 함평군의 인구는 이후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1980년에는 10만이 무너진다. 청장년층의 도시 이동은 자녀 학생 인구 감소를 동반했다. 1970년대 이후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든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 도시학교는 비대해 지고 농촌 학교는 영세해졌다.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도시 학교의 비대화와 농촌학교의 영세화라는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이 시기 주목해야 할 것은, 도농간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960~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도농 간 학력 격차는 1980년대에 더욱 심화되었고, 학년과 학교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졌다.

1968년에는 중학교 무시험이 실시되었고, 1970년대에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곧 광주와 목포 등지로 확산된 고교평준화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입시경쟁 해소,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고교간 학력격차 해소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일부에서는 하향평준화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고, 학생들의 대도시 집중으로 도시와 농촌의 학력격차를 부추겼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업학교의 진흥

5·16군사정변 이후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자원의 확보를 당면과제로 설정하였고, 실업교육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실업교육의 목표는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완수에 소요되는 기술계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산업개발과 생산기술 향상을 위하여 실업계학교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기술계 인적자원의 필요량 및 가용량을 추정하고 실업교육의 진흥을 보장하는 법적 조처로 '실업교육진흥법'의 제정을 서둘렀다. 경제개발을 통한 빈곤의 타파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의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과제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술 기능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실업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1967년부터 1971년까지의 실업교육의 육성정책으로 과학기술교육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최초로 산업별 인력수급 계획에 의한 인력양성 정책을 시행하여 하였으나 이 계획은 재정 확보에 실패하여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전남의 경우, 1964년 1월 도 단위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산대회

실업교육이 중요시 되던 시대적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수학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1980년대 접어들면서 주산 교육 붐이 불었다. 주산학원이 많이 늘어났고 대회도 개최되었다. 1985년 제2회 함평군주산경기대회에서 대동향교초등학교는 단체 1위를 차지했다.



동력경운기 주행 실습

1960년대부터 전남은 '농업전남'을 지향하였고, 실업교육을 강화하였다. 1980년대 이후 학벌사회가 되면서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었지만 여전히 실업교육은 고등교육의 중요한 축이었다. 1980년대 함평골프고등학교(당시 함평농업고등학교)에서 동력경운기 주행 실습을 하고 있다.

초대 박형열 교육감은 전남교육의 중점 육성을 실업교육에 두었다. 3대 성동준 교육감은 과학기술교육과 체력증진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기경진대회를 창안하여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우수학생에게 메달과 장학금을 수여한 점은 타 도에서 볼 수 없는 전남교육의 독창성을 잘 나타낸 것이었다.

1964년 2월에는 '국민학교 향토학교 운영 요령'이라는 소책자를 발행, 이러한 향토학교 운동은 급기야 생산활동을 위주로 하는 자활학교 운동으로 발전하여 1960년대 전남교육을 꽃피우게 하였다.

이 시기 전남에서는 '농업전남'을 지향하였고, 공업, 상업, 수산업 등 실업교육을 활성화하였다. "교육이야말로 인간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약속해 주며 가난에서 번영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가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라는 말에 그런 지향이 잘 나타나 있다.

1970년대 교육에서 가장 두드러진 제도의 개혁은 고급 인력 수요의 급증에 부응하기 위한 '실업교육체제'의 개편이었다. 공고의 강력한 육성책을 세웠고,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영농 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산업교육의 현대화를 촉진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제3차 경제개발계획으로 농어촌 경제의 발전에 역점을 둠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다. 새마을운동은 1960년대의 향토학교운동과 산학협동교육, '온 마을 운동'과 맥락을 같이하였다.

이 시기 함평에서는 1967년 함평여자상업고등학교가 개교했다가 1975년 3월 상업계열을 폐지하고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하며 함평여자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었고, 2018년 함평학다리고등학교로 통합되었다. 1973년에는 함평월야종합고등학교(현 전남보건고등학교)가 개교했다.

반공교육의 강화

1960년대에 민족중흥의 깃발 아래 경제적 개발, 개혁 및 안정이 중요한 과제였다면, 1970년대는 통일, 자유경제, 자주국방, 조국근대화의 완수 등이 강조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반공이데올로기와 호국 안보교육의 강화로 나타났다.

반공교육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무렵부터 실시되었고, 한국전쟁과 함께 강조되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교육과정 내에서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군사정변으로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부터였다. 군사정권이 내건 '혁명공약'의 제1조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조하겠다"고 했고, 제5조는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고 규정했다.

1963년부터 시행된 제2차 교과과정에서 문교부는 5·16 군사정변 당시의 이른바 혁명공약을 반영해 반공 및 국방 교육의 철저를 주요 교육 목표로 내세우고 이것을 교육과정에 반영했다.





반공교육과 군사교육

1969년부터 고등학교에서 교련과목을 두고 군사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반공은 군사문화와 직접 결합하여 학교생활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는 80년대에도 이어졌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행군을 하였다. 학교 정문에 적힌 멸공 방첩 등의 구호는 흔한 풍경이었다. 사진은 함평골프고등학교(당시 함평농업고등학교)의 자매부대 일일 입영훈련과 행군 장면 사진이다.

정규 교과목으로 「반공·도덕」을 개설하고 시수를 늘렸으며, 도덕과목과는 별도로 반공교육 교재를 만들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고등학교 사회과 과목에서도 반공교육을 위한 내용이 편성되도록 했다. 하지만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교육부가 1967년 7월 19일 "입시 준비 교육에 치중하는 경향으로 반공·도덕 교육이 소홀이 된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전환점이 된 것은 1968년이었다. 그해 1월 발생한 북한의 청와대 습격과 그 후 일련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은 물론, 일반인들의 정서 속에서도 공산주의와 북한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은 확산되었다. 1969년부터 고등학교에서 교련과목을 두고 군사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반공은 군사문화와 직접 결합하여 학교 생활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다.

1968년 정부는 새로운 국민 교육의 목표를 제시했다. 어느 새 교과서에서도 찾기 힘들어졌지만, 1970년대 이후 학교를 다녔던 학생이라면 반드시 외워야 했던 '국민교육헌장'이다. 박정희 정부는 늘 반공교육을 강조했지만 1968년은 세계적 변화의 시기였고, 집권의 헌법적 정당성이 시험받는 시기이기도 했다. 정부는 좀 더 세련되고 이념화된 형태로 집권의 정당성을 체계화하고, 바람직한 국민상을 제시해야 했다. 국민교육의 기본 방침을 헌장으로 만들고 이를 낭독하고 암기하게 한다는 발상은 여기에서 나왔다.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에 따라 '반공' 목소리가 절정에 달했다. 이날부터 한국사회는 반공궐기대회의 홍수에 빠져들었다. 베트남을 탈출한 난민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었

고, 비극, 패망, 최후, 철수, 탈출, 난민 등의 단어들이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반공이데올로기는 교육은 물론 국가통치의 기본 바탕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부작용도 낳았다.

각 학교의 조회는 '애국조회'로 바뀌었고, 반공포스터와 표어 대회가 개최되었다. 단체영화는 대부분 반공영화였다. 애니메이션에서 간첩과 공산당은 항상 붉은색의 악마였고, 김일성 부자는 탐욕스러운 돼지였다. 반공애니메이션의 대명사 「똘이장군」의 이미지는 전 국민에게 주입되었다. 학교에는 이승복 동상이 세워졌다. 학교의 반공궐기대회나 심지어 운동회 마지막도 김일성 화형식으로 끝났다. 이를 보며 학생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이런 식의 체질화된 증오는 조건 반사처럼 정형화되었다.

이 시기 교사들은 수업시간에는 반공교육,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한국적 민주주의, 국민교육헌장 교육 등에 내몰렸고,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자 그 선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강요당했다. 초·중·고교를 막론하고 교사들은 노골적인 체제옹호 선전에 동원되었다. 이런 동원을 학교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로 하여금 학부형들을 직접 대면하고 정권을 위해 선전하도록 요구했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동원되는 경우는 역시 선거였다. 삼선개헌을 준비하던 박정희 정부는 1967년 총선 전에 전국의 공사립고등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 교장, 교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개발계획의 성과를 소개하는 대규모 세미나에 참석을 권유해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승복 동상의 흔적

1941년 개교한 월송초등학교는 폐교 이후 함평학생의집으로 운영되었다. 이곳에서 이승복 동상의 흔적을 발견했다. 전국 초등학교 운동장에 자리 잡고 학생들에게 반공 이념을 주입하는 표상으로 활용되었던 이승복 동상은 없고 받침대만 남아있다. 지난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북한을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면서부터 반공이념의 표상이었던 이승복 동상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전국웅변대회 우승 기념

1969년 4월 18일 학다리고 학생들이 전국웅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창의성을 가로막는 유신의 흔적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1960년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으나, 집권이 단기간이었으므로 문교정책만 정했을 뿐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는 못했다.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교육계에 변화를 시도했다. 대표적인 것이 1968년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 도입과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였다. 학제에 있어서도 변화를 시도했는데, 수업연한 5년제의 실업고등전문학교가 창설되었다가 곧 폐지되고, 2년제의 교육대학 설립, 2년제의 사범대학제 폐지, 4년제 사범대학 설립, 2년제의 전문학교 제도 신설, 대학원 수업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방안으로 방송통신대학이 설립됐다.

입시제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대입 국가자격고시제(62~63년), 대학별 단독시험제(64~68년), 대학입학 예비고사·본고사 병행제(69~80년),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69년부터) 등이 실시되면 변화했다.

국사는 중·고등학교에서 국정교과서가 채택되었고, 반공과 도덕을 중심으로 한 국민윤리 교육이 강화되었다. 이후 국사와 국민윤리는 모든 공공시험에서 필수과목이 되었다.유신체제의 등장과 함께 이데올로기 교육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사고방식과 행동에서 획일성이 강조되었다. 그러한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현장 민주화를 꽃피운 함평교육

학교 통폐합의 빛과 그림자

1980~90년대 전남지역의 학교들은 두 가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우선 사회적으로는 이농에 따른 농촌공동화의 영향을 직접 받기 시작했으며, 행정적으로 1986년 광주광역시가 분리되면서 전남 지역의 교육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농촌지역의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1990년까지 도시 지역 인구는 연평균 4.7%씩 증가하여 4.6배 증가한 반면 농촌지역의 인구는 연평균 2.7%씩 감소했다. 그 결과 1990년 한국의 총 인구는 1960년보다 1.7배 증가하였지만 농촌인구는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런 영향 때문에 1980년대 말 전국 초등학교 학급 가운데 10.4%가 57명 이상의 과밀학급이며 과밀학급의 69.8%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었던 반면, 전남 지역은 과밀학급이 한 곳도 없었다.

1972년부터 1991년까지 전국 공립학교 학생 수의 변화는 29% 감소했지만 전남지역만을 놓고 볼 때 68%의 감소에 달하며, 이를 전남 도서지역으로 국한시켜 본다면 무려 75%의 감소를 보였다. 특히 농가의 취학연령 인구 중 13세 이하 인구는 1970년에 비해 1993년에는 85.1% 감소하게 된다.

전남의 초등학교 수는 1970년대 이래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학교의 규모는 계속 영세화 되었고, 1980년대가 되면 학생 수가 줄면서 본교가 분교로 격하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함평에서는 1986년 엄다남국민학교가 엄다국민학교영흥분교장으로 격하되는 것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다수의 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된다. 1987년 신광북국민학교가 신광국민학교함정분교장으로, 1989년 철성국민학교가 월송국민학교금곡분교장으로, 나산동국민학교가 나산국민학교송암분교장으로 격하된다. 1991년에는 신광서국민학교가 신광국민학교동정분교장으로, 월송국민학교가 향교국민학교동암분교장으로, 해보서국민학교가 해보국민학교오두분교장으로 격하되고, 1992년 학다리동국민학교가 학다리중앙국민학교복천분교장으로, 1993년 나산서국민학교가 나산국민학교구산분교장으로 격하된다. 1994년에는 손불동국민학교가 손불국민학교용암분교장으로, 월야남국민학교가 월야국민학교양정분교장으로, 광동국민학교가 월야국민학교광동분교장으로 격하되고, 1997년 학교남초등학교가 학다리초등학교금송분교장으로, 1998년 대광초등학교가 대동초등학교대신분교장으로, 2000년 함평서초등학교가 함평초등학교장년분교장으로 격하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학교가 지금은 폐교되고 없다는 것이다.

1986년 광주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면서 각급 학교 학생 수의 감소 폭은 더욱 커졌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던 고등학교 학생 수마저 감소로 돌아섰다. 여기에 1982년 추진되기 시작한 학교 통폐합 조치가 1990년대 들어 더욱 강화되어 본교는 물론 분교장까지 폐교되면서 초등학교 수의 감소도 본격화 되었다. 함평에서도 이 시기 많은 학교가 폐교된다.

1982년 한골초등학교가 처음으로 폐교되었는데, 이는 수몰로 인한 것이었다. 1988년 신광초등학교함정분교장이 폐교된데 이어 2009년 까지 다수의 학교가 통폐합되었다. 1992년 엄다초등학교영흥분교장과 대동초등학교서호분교장, 1993년 향교초등학교동암분교장, 1994년 학다리중앙초등학교복천분교장과 해보초등학교오두분교장이 폐교된다. 1995년에는 나산초등학교구산분교장, 나산북초등학교, 나산초등학교송암분교장, 신광초등학교동정분교장이 폐교되고, 1996년에는 이문초등학교, 월야초등학교광동분교장, 월야초등학교양정분교장, 향교초등학교금곡분교장, 1997년에는 해보중앙초등학교와 함평북초등학교가 폐교된다. 1999년 대동초등학교, 석성초등학교, 손불남초등학교, 월야북초등학교, 2000년 학다리초등학교금송분교장, 2002년 성남초등학교, 2003년 학다리중앙초등학교신성분교장, 엄

다중학교, 2004년 함평초등학교장년분교장, 2005년 손불초등학교용암분교장, 2008년 학다리초등학교, 2008년 대동향교초등학교대신분교장, 2009년 영창초등학교가 폐교되었다. 이후 적정규모학교 재배치사업에 따라 2016년 나산고등학교, 2017년 나산중학교와 학다리중학교, 2018년 함평여자고등학교가 폐교되었다.

초등학교의 폐교는 1980년대 들어 교육부가 소규모 초등학교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교육부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는 복식수업 진행으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고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육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제기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교육부는 1982년부터 통폐합을 추진하였다. 학교통폐합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교육재정 효율화라는 명분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함평에서도 1992년부터 본격적인 통폐합이 진행됐다.

학교 통폐합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일어났다. 먼저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학교를 폐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이 정도의 경비는 소규모 학교의 학생과 농촌 지역사회를 위해 투자가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학교 폐교의 원인이 이농이지만, 현존하는 학교를 없애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과 문화적인 손실 의식을 주어 이농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보통 이농의 원인 중 교육적인 이유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의 젊은층의 경우 이농의 원인으로 교육문제를 꼽는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했다.

교육 민주화와 학다리고 교사들의 교장 선출

1980년 5월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신군부의 쿠데타에 맞선 대규모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5·18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정신은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 계속 이어졌다. 무엇보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지역 보다 높았다.

교사들의 교육민주화에 대한 열망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학교 교육을 통한 국가의 학생 통제가 지속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 정권은 1981년 초등학교 교과서를 전면 개편하면서, 국민정신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종래 사회, 도덕 등 특수교과목에 국한돼 있던 국민정신교육 관련 내용을 전 교과목의 내용 속에 삽입시켰다. 이러한 교육 통제가 1980년대 내내 지속되면서 교사들의 교육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쉽게 분출되기 어려웠지만, 대신 그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과 교육민주화를 통한 참교육에 대한 열망을 계속 커져갔다.

제5공화국 헌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한창 커져가던 1986년 5월 10일 드디어 교사들이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광주, 전남의 교사들이 앞장섰다. 특히 광주 전남의 교사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광주 YMCA 교사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었다. 이후에도 '교육민주화선언'은 계속 이어졌다. 전남과 광주에서 1986년 5월 10일, 6월 21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교육민주화 결의대회를 열고 심야학습 철폐 등에 관한 결의문에 서명한 교사는 62개 중고교 197명이었다. 이에 7월 2일 전라남도교육위원회는 교육민주화 실천 결의문에 서명한 교사들의 명단을 소속학교 교장에게 통보, 학교장이 이들 교사들과 충분한 대화를 갖도록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6월항쟁이 일어났다. 6월항쟁 이후 '평교사회'가 잇따라 결성되어 교육현장의 갖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학교운영에 대한 평교사들의 영향력을 높였다. 이 같은 평교사회 결성추세는 1987년 9월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가 결성된 이후 확산되기 시작했다. 전국교사협의회 소속 해직교사 150여명은 1988년 1월 31일 명동성당 입구에서 '교권수호결의대회'를 가진 후 연좌 침묵시위를 벌였다.

전국교사협의회는 5월 14일 전국 10개 지역에서 일제히 '전국교직원노조발기인대회 및 준비위원회 결성대회'를 강행했다. 그리고 정부의 원천봉쇄 방침에도 불구하고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대회가 개최되었다. 오랜 시간 잠복했던 교원단체 운동이 마침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의 결성으로 나타났고 전남은 어느 지역보다 교육민주화의 욕구가 높았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전교조 운

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지역이 전남이었다.

1989년 7월 9일 전교조 집회에서 다수의 교사들이 연행되었다. 전남 광주 지부의 경우 소속교사 3백여 명이 전교조 집회에 참석했다가 풀려나지 못해 이 지역 30여 개 학교가 정상수업을 하지 못했다. 학생들의 반발도 거세졌다. 나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1천 5백여 명이 기말고사를 거부한 채 연행교사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2천여 명이 오전 수업을 거부하며 운동장에 모여 비상총학생회를 열고 구속교사 석방과 교사징계 철회 등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수업을 거부키로 했다.

한편 전교조 전남지부는 산하 조합원 2,868명의 명단을 중앙일간지에 광고로 게재했다. '민족과 역사 앞에 떳떳한 교사로 서겠습니다'라는 제하의 광고였다. 7월 중순을 넘기면서 학생들의 농성과 전교조 시위는 더욱 거세졌다. 방학 중이던 8월에도 각 지역에서 시위는 계속 이어졌다.

이처럼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전교조 운동에서 가장 적극적이 지역이 전남이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자치제가 시행되던 첫 해부터 3명의 교육위원을 배출해 교육개혁 세력의 제도권 진출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학교현장의 민주화만 보더라도 교장 교감이 마음대로 독선을 부리지 못했던 곳이 바로 전남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다리고등학교에서 평교사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교장을 직접 선출한 일이었다. 1988년 8월 26일 학다리고교는 오후 5시 평교사 46명이 모여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장자격이 있는 자격자 15명을 발표 한 후 곧바로 직접 비밀투표에 들어가 42표를 얻은 김안달 교감을 교장 후보로 확정하였다. 학다리중학교도 이날 오후 4시 교장자격자 추천을 받아 단독 추천된 모정신 교사에 대한 신임을 물은 결과 21명 전원이 찬성, 그를 교장후보로 뽑았다. 교사들은 27일 '학교발전과 자율적 교육풍토 정립을 위해' 직전 교장을 조속히 선임해 줄 것 등 3개 항의 건의문과 함께 교장후보자를 재단이사회에 통보했다.

교육자치의 새로운 출발

민주화운동기를 지난 지금 돌아보면, 교육자치가 왜 필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된다. 교육이 정권의 선전, 또는 위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있다. 이 조항이 교육자치의 근거가 된다. 교육자치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마련해 실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제도이다.

교육자치는 8·15광복 이후 미군정 하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1949년 12월 31일 새로 제정된 교육법에 따라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사회의 혼란과 한국전쟁으로 실시가 지연되다가 1952년 교육법 시행령 제정 및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비로소 시·군단위의 교육자치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10여 년간 계속되던 교육자치제는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한때 중단되었으나, 다시 1년 만에 부활하였다.

그 후 우여곡절을 겪다가 1991년 3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시·도교육청이 개설되어 현재로 이어지는 시·도 단위 광역교육자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전라남도교육위원회가 1991년 9월 3일 전국 15개 시·도교육위원회와 함께 일제히 개원하면서 교육자치가 새로이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기초의원 재적 과반수의 득표자 2인을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하여 도의회에 전달하면 도의회에서는 1군에서 1인의 교육위원을 최종 선출했다. 1991년에 선출한 임기 4년의 1대 교육위원으로 함평에서는 박인숙이 선출되었다.

1993년에는 초대 전라남도의 민선교육감이 선출되었다. 10월 7일 교육위원회에서는 제11대 전라남도교육감이자 초대 민선 교육감으로 오영대 교육감을 선출했다.

1995년에 선출한 임기 3년의 2대 교육위원에는 김영진이 선출되었다. 1998년부터는 선출규정이 바뀌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간접선거에 의해 교육위원을 선출하였다. 2006년 함평군 출신의 나승옥이 제5대 교육위원에 당선되었고, 2009년 나승옥 교육위원의 사퇴로 그

직을 승계하여 김목이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교육의원을 선출하였고 나승옥이 당선되었다. 이후 교육의원 제도는 사라지고 전라남도의회내에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되었고, 2010년 6월 2일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되면서 대한민국 교육자치 역사에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교육정책의 변화

취학률의 대폭적인 상승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서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히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학벌 학력 위주의 사회구조와 관행이 깊어지고,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실업교육은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함평에서는 1984년 나산고등학교와 함평고등학교가 개교했다.

1990년대 정부의 교육시책은 종전의 통치적 이데올로기와는 달리 국제사회를 대비한 교육의 강화로 지금까지의 국민정신교육과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다. 민주화로 인한 교육시책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1980년대까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국민정신교육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약화되었고, 전인교육이 근본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반면,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1994년 군 단위에서 시작하여 200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물론 중학교 진학률은 1993년경에 이미 99%에 달해 있었다. 1967년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도서지역에서도 초등교육이 보편화하고 인근 중학교 설립이 늘어나 1980년대에 이르면 신안이나 완도에서도 90% 이상이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한편, 1985년에는 특수학교인 함평영화학교가 신설되었다.

전남에서는 1990년대 소규모학교 증가, 통폐합 등 침체된 농어촌 교육활성화에 주력하였

다. 전남교육청은 “전남의 사활은 농어촌 정주기반 구축에 달려있고 정주기반 구축은 교육여건 조성에 달려있다”는 신념으로 농어촌교육 활성화 시책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강력히 추진해 왔다. 농어촌교육 활성화 계획의 추진 목적은 교육환경 개선이며 더 나아가 교육으로 농어촌을 재건시켜 보자고 하는 교육입촌이었다.

정권이 바뀌면 변하는 교육정책

정권의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전두환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7·30교육개혁조치’ 를 단행했다. 과외금지를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를 꾀하는 등 교육체제 정비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다. 주요정책으로 과열된 대학입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대학입학 본고사를 폐지하고, 고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대학입학 학력고사를 실시했고 내신제를 병행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두발 및 교복자율화였다. 교육세를 신설하고 유아교육법 및 사회교육법 등의 입법을 통해 평생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5공화국 말기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교육개혁심의회」를 설치하여 교육자치제, 교원임용 제도 개선, 대학입시제도, 교과서 제도,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실업교육 등 교육문제 현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안을 구상 발표했다. 이 시기의 교육정책은 단편적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나 전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정권 차원에서 하달된 것일 뿐 교육활동을 주도하는 현장교원과 유리된 채 교육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종결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제5공화국 당시에 물의를 빚어 왔던 반공 안보교육에 바탕을 둔 이데올로기 교육에 대한 변화가 왔고, 과외수업 금지 정책이 해제되었으며 교복자율화 정책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졌다. 또한 대학원 졸업생 등의 병역 특례에 관한 조치법 개정과 지방자치제에 따른 교육자치법이 개정되었다. 제6공화국의 문교시책은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의 추진과

자주적·도덕적·창조적 인간육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전두환 정부처럼 극단적인 정책의 변화는 없었지만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의 쟁점들이 정책적으로 검토되었다. 정책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교육자치제, 교원노조의 허용여부, 교장임기제, 교과서 정책 등 주요 현상들이 문교부장관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전 정부에서 구상된 교육 개혁안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즉 투쟁적인 시대 분위기 속에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이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무기력한 정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대통령직속 교육정책자문회의를 통해 21세기를 대비한 교육발전의 기본구상과 개혁방향을 교육의 각 부문별로 제시하였고 그러한 구상과 방향이 김영삼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 토대가 되었다.

김영삼 정부시절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을 필두로 이후 3차례에 걸쳐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방안은 교육재정 GNP 5% 확보, 다양한 선택기회 제공과 다양한 전형자료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과외와 학원수강 허용, 보충·자율학습의 폐지, 고교 군사훈련의 폐지, 해직교사의 복직 조치, 대학별 본고사 실시 (특차모집 실시), 평생 학습사회 구축,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인성·창의성 위주 교육 등이었다.

김영삼 정부의 다양한 교육개정 방안들은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 정책적으로 실행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은 새로운 방식의 교육개혁 추진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었지만, 경제논리에 따라 교육통치구조를 인위적으로 재편하고 시장 원리를 교육영역에 도입함으로써 현장교원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수많은 정책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문제는 교육개혁안의 완결을 담보하지 못한 채 미해결 과제로 남겨졌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개발과 법령 제개정까지 이루어진 주요 내용들은 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교원 정년 단축, 보충수업 폐지와 방과후 활동 활성화, 학교 체벌 금지, 교과





교복자율화

1982학년도와 1984학년도의 함평신광중학교 졸업사진.

연구 모임 지원, 연수·연구 학점제 도입 등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교육개혁은 그동안 다양하게 논의되었던 교육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과 단순 경쟁적 대학 입시제도로 인한 초·중등학교의 비교육적 행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다. 또한, 교육부, 교육청, 대학교, 산하기관의 기구 축소와 인력 감축을 감히 시도하여 행정 비용의 절감과 업무 효율성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하지만 과감한 교육개혁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교육개혁은 걸었던 기대에 비하면 너무 미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50년만의 정권 교체를 이룩한 정부이며, 대통령이 직접 교육개혁의 완성을 공언하였으며, 교육부 장관도 개혁성향의 인사를 기용하였기 때문에 기대가 더 컸었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은 큰 틀의 변화를 가져왔다.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했지만 수시로 변하는 교육정책은 걸림돌이 되었다.

咸平

미래를 준비하는 함평교육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21세기에 즈음하여 국가 경영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에 기반을 둠으로써 각국은 학생 개인의 전인적 가치 실현보다는 국가 경쟁력을 실제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능력 특히 창의력 개발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우리 교육의 지표를 지식교육에서 창의성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관점으로 설정한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교육현장은 급변하게 되었다. 대안학교, 특성화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등장하게 되고 수행평가의 도입, 대학입시의 변화, 봉사활동 및 체험활동의 도입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지향은 교육부의 제7차 교육과정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2000년 이후는 이른바 제7차 교육과정기에 해당한다. 2000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적용되기 시작한 제7차 교육과정이 2002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되었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린 교육 사회, 평생학습 사회'의 건설을 비전으로 삼았다.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해 ①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②획일적인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③규제와 통제 중심 교육 운영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운영으로 ④획일적 균일주의 교육에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으로 ⑤흑판과 분필 중심의 전통적 교육에서 교육의 정보화를 통한 21세기형 열린교육으로 ⑥질 낮은 교육에서 평가를 통한 질 높

은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대에 이르면서 교육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전인교육이라는 개인적 차원보다는 국가 인력관리 차원의 전망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교육부도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였다. 인적자원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에 주력하게 되었다.

전라남도교육청 또한 교육을 국가 전략의 맥락에서 인재 육성 전략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범주 안에서 2000년대의 교육지표를 표방하였다. 지역화, 지식기반 사회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보화 역량의 강화, 교육현장의 피폐화에 대한 대책 중 하나인 대안학교 등 새로운 시도들도 나타났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사회는 지식기반사회의 진전,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가속화, 세계화 및 개방화 현상이 더욱 확대 될 것이다. 이제 우리 교육은 다양화, 정보화, 참여민주화, 지역화 등을 키워드로 하는 미래사회에 적응하고 나아가 이를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방향은 창의 인성교육, 지율성과 책무성의 조화, 정체성 있는 교육, 현장중심 교육 등이다.

2018년 나산실용예술중학교가 함평에 새롭게 개교한 것은 특별히 의미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18년에 대안학교인 월광기독학교가 새롭게 개교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지식기반 사회에 살고 있다"는 말이 어느덧 과거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교육에 의해 좌우되며,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창의적인 인재양성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시기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은 교육 정책의 변화가 주로 정권 교체 시기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21세기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도 분권과 자율, 참여를 내세우면서 교육의 공공성과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예고했다. 노무현 정부는 5년 간, 초·중등교육에서는 '교육의 평등성 강화', 고등교육에서는 '국가의 직간접적 통제에 다른 경쟁체제 유도'를 교육정책 기조로 유지해왔다. 반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골자는 교육의 자율, 경쟁, 다양성으로 대변된다. 핵심정책으로는 영어공교육 강화와 영어몰입교육,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학입시 자율화, 대학운영 자율화, 국제중학교 설립 등이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들이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의 교육정책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졌다. 일관성 없는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졌다.

그래도 주민직선 교육자치가 시행되면서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정책의 수립,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 주민직선 교육자치는 21세기 대한민국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였다.

'교육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교육감. 그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를 둘러싼 말도 많았다. 2004년 총선이 끝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난 후 정치관련 언론 기사의 한 대목이다.

한나라당이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도입을 뼈대로 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을 17대 국회에서 추진하려 한다는 점은 매우 눈에 띄는 대목이다. 김순미 위원은 "교육감·교육위원 간선제의 폐단과 비리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열린우리당이 주민직선제 도입에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교육감주민직선제는 그동안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운동 단체에서도 간간히 제기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한복 위원은 "주민직선제 원칙에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완전 직선제 도입으로 또 하나의 지방선거가 생긴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이므로 선거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는 선에서그쳐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은 투표율이 20%를 넘기기 어려우며, 이를 통해 선출된 당선자들의 대표성을 인정받기도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한나라당이 당 정체성과도 어울리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다분히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의혹을 나타냈고, 한나라당 쪽은"개혁입법 추진을 야당이 선점하는 것에 대한 반감일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여당인 열린우리당보다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주민직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언론의 한 부분을 보자.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6·4지방선거 이후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논란이 뜨거워 지고 있다. 여권은 "폐해가 꾸준했다"며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운 상태. 그러나 "선거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니 교육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행태"라는 야당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큰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현행 교육감 선거의 위헌 소송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주 의장은 △과도한 선거비용 및 지난 직선교육감 등의 비리 △견제 받지 않는 막강한 인사권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 등을 폐해로 지적했다.

…

꾸준히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해 온 여당과 달리 야당은 "유지"라는 기본 입장을 재차 밝힌다. 선거라면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일뿐 폐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에서다. 한 교문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직선제가 정당과 정치 지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은 있으나 그것은 선거 제도의 문제일 뿐 보완할 수 있는 요소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자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은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고, 야당은 여전히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여와 야가 바뀌었는데, 같은 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이는 교육감 선출에서 원칙보다는 현재 자신의 당에 유리한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교육감 직선제의 유지 여부는 교

육자치제의 존폐와 정치 민주주의와 궤를 같이 한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교육,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립도 우리 교육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다.



하얀 손수건을 가슴에 차고 입학하던 날

3월 2일 손불서초등학교 하늘 위로 11가지 빛깔의 연이 날아올랐다. 정대성 교장이 신입생 6명과 유치원 새내기 5명에게 직접 만들어 준 선물이다. 모두 11명의 새내기들이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입학식 날, 학생들의 꿈은 학교 운동장을 무지갯빛으로 수놓았다. 무지개학교인 손불서초의 꿈을 담았다.

2015년 손불서초등학교의 입학식 풍경이다. 딱딱한 행사 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축하하는 자리였다.

신입생들에게 통장을 선물한 학교도 있었다. 특수학교인 함평영화학교의 2011년 입학식 장면이다.

함평영화학교는 2011년 3월 3일 오전 11시부터 정양관에서 각급 기관·단체장과 학부모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입학식에는 교장선생님의 입학 허가 선언, 그리고 재학생과 교직원들은 축하 박수로 신입생을 환영했다. 교감선생님의 2011학년도 학사운영계획 안내는 학부모님들에게 일 년 동안 자녀들이 배우는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입학식 행사가 끝난 후 교무실에선 학부모 총회가 이루어졌다. 한편 상상추모공원장학재단의 후원을 받아 신입생들에게 1인 1통장을 선물하였다. 이를 통해 신입생 전원에게 통장을 지급함으로써 근검절약의 의미와 필요성을 옳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생활태도를 길러 저축하는 생활을 습관화 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했다.

입학식 풍경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일제강점기 보통학교의 입학식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3월초 입학기가 다가오면, 마을 반장들은 면의 지시에 따라 신입학생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고 조사한 명부를 면에 제출했다. 그러면 면에서는 명단을 취합해 학교로 보냈다. 학교에서는 예비 면접과 구술시험을 실시했는데, 신체적 결함여부와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때 질문은 "몇 살이냐, 어디에서 사느냐, 아버지 이름은 누구냐, 그리고 학교는 다닐 수 있겠느냐" 등이었다. 우리말을 사용할 때는 우리말로 질문을 하였지만, 나중에는 일본어로 물어보았기 때문에 미리 일본어는 어느 정도 공부해두어야 답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사전 면접시험이 끝나면 합격 겸 입학 통지서가 발송되었다. 교실이 부족하기 전까지는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모두 입학 시켰다. 하지만 교실난이 부족하면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입학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는 학교거리가 멀고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양호하지 못해만 9세부터 10세가 되어야 입학을 했다. 보통 3월 25일을 전후하여 졸업생을 내어 보내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입학식을 했다.

농사일로 부모들이 참석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신입생들은 동네 형이나 상급학생들을 따라 입학식에 참여했다. 입학식에서는 일장기에 대한 경례, 묵념, 일본국가 제창, 봉안전 참배, 황성요배, 황국신민맹서 제창, 대일본제국 만세 등으로 식을 거행했다. 훈화가 끝나면 담임선생은 학생들을 인솔하고 교실





손불서초 입학식

에 들어가 공부할 책을 나누어 주었다. 그나마 1944년 신입생부터는 책이 없어서 나누어주지도 못했다는 기록이 있다.

해방이후 의무교육 시행과 더불어 많은 학교가 증설 되면서 학교 통학거리는 많이 단축되었다. 취학 연령도 점차 낮아져 만 6세부터 7세까지 시험 없이 모두 입학을 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신입생들의 복장은 일제강점기와 비슷했다. 어머니가 손수 길쌈하여 짠 베로 물을 들여 양복을 해 입었다. 함평장에 가서 고무신을 사다 신었고, 모자는 없어서 쓰지 못하였다.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은 1960년대부터 조금씩 바뀌었다. 1970년대부터는 가슴에 명찰과 하얀 손수건을 차고 입학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손수건은 콧물을 닦기 위한 것이었다.

입학날도 시대에 따라 변했다. 학다리중앙초등학교의 경우 일제강점기 입학식은 4월 1일이었다. 해방 이후 1951년까지는 6월 또는 7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1952년부터 1962년까지는 다시 4월 1일에 입학식을 했다. 1963년부터는 3월 1일부터 입학식을 갖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입학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애국가 제창, 교장선생님의 입학 허가, 신입생과 재학생의 인사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각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을 자기 교실로 안내하고, 학교생활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었다.



함평교육사 삽화 공모작2
함평영화학교에서의 첫 입학식
함평영화학교 2학년 **황민희**
지도교사 **김균**

咸平

학교 가는 길

도시락은 항상 가방 제일 아래쪽에 넣었다. 김칫국물이 흘러도 책에는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야간자율학습을 해야 하는 1970~80년대 고등학생들의 가방엔 도시락이 2개, 자습서와 참고서까지 하면 실로 한 짐이었다. 지금이야 학교에 사물함이 있어 필요한 책을 놓고 다니지만 2000년대가 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야 만 했다.

등굣길 모습은 어떠했을까? 일제강점기 초등학생들은 책과 공책, 필통을 책보로 돌돌 말아 허리에 둘러메고 학교에 갔다. 작업도구로 낫과 괭이를 가지고 학교에 가는 때도 있었으며 퇴비증산 할 때는 집에서 풀을 베어 책보와 같이 메고 학교에 가던 때가 허다했었다.

복장은 양복과 한복을 입고 다녔으나, 1938년 우리말을 폐지하고 1940년 창씨개명을 한 이후부터는 한복은 전혀 입지 못하게 하여 양복만을 입어야 했다. 양복은 어머니들이 손수 길쌈하여 짠 베로 겨울에는 검정물을 들여 검정양복으로 만들어 입었고, 여름에는 흰 양복으로 입었다. 모자는 검정 모자를 썼다. 학생들은 먼 거리를 걸어 학교에 갔다. 학교 정문에서는



1960년대 도시의 분식집



1960년대 소 달구지 타고 학교 가는 길

주임 교사가 학생들의 복장을 점검했고, 교문에서는 줄을 맞추어 교실로 향했다.

1960~70년대 초등학교가 많이 생기면서 통학 거리는 비교적 가까워졌다. 또 신광중학교와 해보중학교, 나산중학교 등 중·고등학교가 새롭게 생기고 마을과 통하는 새로운 도로들이 생기면서 버스로 등교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생겨났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학교가 통폐합 되면서 이제는 통학차량을 이용해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정문의 등교지도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요즘엔 교장선생님이 정문에서 학생들이 맞이하기도 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한다.

하굣길은 등굣길에 비해 느슨하고 차분한 길이다. 학생들은 수업을 마치고 청소를 하면 종례가 이어진다. 학교의 모든 일과를 마친 아이들은 운동장 한편에 가방을 놓고 늦은 시간까지 운동장에서 놀고 나서야 집에 가곤 했다. 지금은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학교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학원차를 이용해 학원에 간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생들에게는 등하굣길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부터 1960~70년대 하굣길은 전혀 달랐다. 집에 빨리 가서 부모님 농사일을 돕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했다. 한편으로는 점심을 굶고 집에 가는 배고프고 허기진 길이기도 했다. 학교 옆 점방에는 약간의 학용품과 눈깔사탕과 같은 먹을거리가 있었다. 도시의 분식집과는 달리 먹을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나마 여유 있게 먹을 형편이 되지 않았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하굣길의 모습도 달랐는데 포근한 봄철의 하굣길은 꽃이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여전히 배고픈 길이었다. 그래도 봄철은 길바닥이 말라서 짚신을 신고 걷기에 좋은 계절이었고, 즐거운 놀이를 하기도 좋았다.

여름철은 무덥기도 하고 비 오는 날도 많아서 오랫동안 걸어야 하는 등하굣길은 힘들었다. 신을 벗고 맨발로 학교를 걸어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래도 마을 샘에서 쪽박으로 물을 떠서 마시고 저수지나 개울에서 목욕하는 재미도 있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꼼짝없이 비를 맞아야 했는데 젖은 옷이야 말려서 다음날 학교에 입고 갈 수가 있었지만 책이 문제였다. 방바닥에 펼쳐서 말리기도 하고 책 위에 수건을 깔고 다리미로 말리기도 했다.

가을철의 하굣길은 부지런해야 했다. 부모들은 밤낮없이 농사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

생들은 집에 가서 할 일들이 정해져 있었다. 풀을 베어 소죽을 쒀야 했고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다.

겨울철은 추워서 빨리 달려가는 길이었다. 그래도 가끔은 저수지 얼음판에서 미끄럼도 타고 눈사람도 만들면서 친구들과 놀다 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고무신을 신고 눈이 쌓인 재를 오르거나 내려갈 때에는 미끄러워 너무나 힘든 길이었다. 운동화가 보편화되면서 조금씩 이런 불편함은 사라졌다.

咸平

이제는 볼 수 없는 학교종



함평교육사 삽화 공모작3

그 많던 학교 종은 어디로 갔을까?

함평중학교 3학년 **이윤희**, 지도교사 **최정은**

'땡땡땡'

수업을 마치는 종소리가 울리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아이들은 운동장으로 뛰쳐나왔다.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아이들은 쉬는 시간을 즐기기 위해 운동장에서 신나는 놀이를 했다. 학교종소리 만큼 반갑고 경쾌한 소리가 또 있을까?

오랜 추억을 만들어 주었던 학교종은 학교 현관이나 교무실 창밖 등에 매달려 있었고 담당 선생님이 줄을 이용해 '땡땡땡' 소리를 울렸다. 지금은 차임벨이 종소리의 추억을 대신하고 있다.

학교가 생기기 전, 조선시대 성균관에서는 어떻게 시간을 알렸을까? 성균관에서는 북으로 시간을 알렸다. 성균관의 유생들은 북소리가 한 번 울리면 기상했고, 두 번 울리면 의관을 갖춰 입었다. 그리고 세 번 울리면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한다.

학교종은 보통학교가 생기면서 보편화되었다. 당시 학교에 종을 기증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1937년 4월 1일 함평읍의 정순득씨가 성남초등학교에 중형 종을 기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1981년 12월 1일 월야면의 김상기씨가 월야남초등학교양정분교장에 종을 기증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학교의 종은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했다.

과거 보통학교에 울리기 시작한 종소리는 수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시계가 없었고 시계를 볼 줄도 몰랐다. 학교의 종소리는 마을 주민들에게 등교시간은 물론, 하루가 조금씩 지나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도 했다.

물론 이런 종소리가 언제나 반가웠던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기에 종소리는 식민지 교육을 시작하는 신호음이기도 했다. 학다리중앙초등학교 80년사의 한 대목이다.

"1937년 1월 13일 부임하여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일까지 모교교장으로 8년 7개월을 재직한 바 있는 上村敬一 교장도 조회는 조선인 학생을 일본 황국신민화를 위한 정신교육의 시간이라 하여 조회의 비중을 크게 생각하여 빠짐없이 실시하였다. 이에 우리학생들은 조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른 시간에 이미 학교에 도착해 교실에서 책을 펴놓고 예습과 복습을 하는가 하면 또 일부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본 교사 중간 통로에 매달려 있는 학교 종을 땡땡땡 치게 되면 종소리와 함께,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뛰어나와 반





함평신광중학교와 대동향교초등학교의 종

함평신광중학교의 종은 1971년 강진중학교 김기영 교장이 기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별 키순서로 작은 학생은 앞에, 큰 학생은 뒤에 2열종대로 열을 지어 서게 된다. 학년별 순서는 학교 연단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1학년 1반부터 차례로 6학년까지 전후좌우로 줄을 맞추어 서게 된다. 이렇게 열을 다 서게 되면 교장과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 나와 담임선생은 자기반 앞에 서게 되고 교장은 연단 옆에 서게 된다."

학교종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로 시작하는 동요 '학교종'이다. 이 동요는 전형적인 일본 장단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일제의 문화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동요는 해방 이후 발표되어 우리 교과서에 수록되었고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동요임에는 틀림없다.

종소리는 반가웠고 사람 사는 맛이 있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소리와 학교를 마치는 소리는 특별히 반가웠을 것이다. 수업이 시작할 때 '땡땡땡' 종소리가 울렸는데, 아이들이 노는데 정신이 팔려 듣지 못하면 선생님은 더 빨리 '땡땡땡땡땡' 소리를 울렸다. 그래도 안 되면 큰 소리로 아이들을 불러 교실에 들어가도록 했다. 종소리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였다.

아마도 누군가는 종치는 것을 깜빡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차임벨은 정해진 시간에 잊지 않고 울린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없는 공휴일에도 벨소리는 정해진 시간에 울린다. 학교종은 80년대를 지나면서 점차 학교에서 사라졌고, 이제는 사진으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또 우리는 학교 수업시간에 몰래 빠져나오는 것을 '땡땡이'라고 한다. 땡땡이는 국어사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눈을 피하여 게으름을 피우는 짓, 또는 그런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땡땡이'라는 말이 학교종소리에서 기원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咸平

도시락의 추억



겨울철 난로에 데워 먹던 양은 도시락보다 맛있는 식사가 어디있을까? 1970~80년대 학교를 다니던 중·고등학생들에게 절대 잊지 못하는 추억 하나가 점심시간이다.

맛있는 반찬도 없었다. 계란 프라이와 소시지는 최고의 반찬이었다. 라면봉지에 쌓아 온 구운 김도 맛있는 반찬이었다. 가끔은 커다란 양푼에 친구들의 도시락을 모두 넣고 고추장과 참기름에 비벼 먹기도 했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도시락을 다 먹어치우고 점심때는 군것질 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80년대가 넘어서면서 보온도시락이 등장했고 따뜻한 국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 마냥 신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즐거운 시간에도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배고픈 친구들이 있었다.

지금은 함평의 모든 학교에선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도시락은 까마득한 추억이 되었다. 덕분에 점심시간에 굶어야 하는 친구들은 더 이상 없다.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6·25전쟁이 끝나고 1953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아동의 구호를 위한 외국 기관의 원조에 의한 것이었다. 1972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20년간 실시되었는데 주로 빵 급식이었다. 1973년 원조가 중단되면서 정부와 학부모 부담 하에 급식이 실시되었고, 농어촌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의 생산활동을 통한 자활급식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기도 했다.

1981년<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제정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급식은 1993년부터 크게 확대되어 1998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함평에서도 이 무렵 급식실이 조성되며 급식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학다리중앙초등학교는 1995년

10월, 함평초등학교는 1997년 3월 급식실이 만들어졌다.

중·고등학교 급식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확대되었고, 2003년을 기점으로 초·중·고 학교 급식이 전면 실시되었다. 전남에서는 2011년부터 읍면단위 초중학생 무상급식이 실시되었고, 2015년부터 읍면단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 되면서 함평에서는 현재 모든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대 점심시간은 분위기가 달랐다. 어쩌면 학교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학다리중앙초등학교 80년사에는 당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50년대까지는 너무나도 가난한 시절이었기에 선생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괴로운 시간이었고, 우리 학생들은 배고프기 그지없는 시간이었다. 반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50%정도는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한 채 결식하는 학생이었고, 10%는 고구마, 개떡, 주먹밥을 가지고 와서 도시락 대용으로 시장요기만 하였고 그 외 40%는 도시락을 지참하였다. 이때의 도시락이라는 것도 순 보리밥과 잡곡밥이 전부이고, 개중에는 쌀 절반 보리절반 반식기 밥이었다. 이때 선생님은 자신만 도시락을 드는 괴로움에 결식아동들에게 미안하여 학급 학생들과 같이 도시락을 먹지 못하고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교무실에서 가만히 점심을 먹어야 했다.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한 학생들은 12시종이 울리면 책을 덮어 두고 교실 밖으로 나가 우물에서 물 한 모금 먹고 나무 밑에서 기다리다가 시작종이 치면 들어와 공부를 하였다.

일제강점기 학생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점심뿐만이 아니었다. 무상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월사금을 납부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었다. 당시 월사금을 납부하지 못해 자퇴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학다리중앙초등학교 기록에 따르면 1927년 전교생 392명 중 월사금 미납으로 퇴학처분 당한 학생은 47명이나 되었다. 그렇다보니 당시 월사금은 눈물의 월사금이었다. 월사금이 3개월 이상 미납되면 정든 학교를 떠나야 했고, 그것을 보아야 하는 친구들과 선생님의 마음 또한 편치 않았다. 어떤 선생님은 자신의 월급에서 월사금을 대납하여 주고 6학년을 졸업시켜 주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월사금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학다리중앙초등학교 60년사에는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월사금의 준비는 함평장에 가서 쌀과 깨, 고추 그리고 어머님이 배를 짜서 만든 포목을 팔아서 장만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런데 몇 집을 제외하고는 우선 먹고 살 곡식마저도 없는데 곡식을 팔아 월사금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어머님이 짠 베로 가족들의 옷을 만들어 입고 자급자족하고 나면 팔 포목이 없어서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오직 월사금의 준비는 달걀과 돼지 등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달걀을 팔아서 월사금을 만들 욕심으로 반찬으로 하여 먹지도 아니하였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약초를 심어서 팔거나 가마니를 짜서 팔아 월사금을 준비하였고, 이것도 불가능할 시에는 머슴살이하여서 월사금을 납부하였다.



현재 함평의 모든 학교에선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도시락은 까마득한 추억이 되었다.

咸平

운동장, 아이들을 위한 창의 공간



1985년 영화학교 전경

학교운동장은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 공간이다. 지금은 많은 학교 운동장에 파란 잔디가 깔려있고, 각종 놀이시설들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해먹에서 책을 읽는 풍경도 볼 수 있고, 가끔은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기도 한다.

예전 운동장은 어땠을까?

일제강점기 운동장은 대부분 주민들의 기부와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학다리중앙초등학교 운동장은 1923년 진주정씨 문중 대표와 학교후원회가 기부하여 조성되었다. 개교 당시 주민들이 공동작업(울력)을 해서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기계가 없어서 삽과 괭이로 땅을 파고 흙을 지게로 등짐하면서 만들었다. 학생들도 일손을 거들어야 했고, 운동장 울타리로 측백나무를 심었다.

운동장 주위로 철봉대와 씨름판도 있었고 축구대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지 못했다. 아침 조회를 하고 운동회나 하는 정도로 이용되었다. 1936년 전쟁지원체제로 교육이 전환되면서 학생들의 체력 연마를 위한 운동장이 아니라 퇴비작업장이 되었고, 군사훈련장이 되었다. 1944년부터는 운동장 절반이 콩밭으로 사용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1960~70년대에도 운동장 부지 확보를 위해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962년 주민들이 함평북초등학교에 운동장 부지를 기부했고, 1976년에는 학다리초등학교 금송분교장에 운동장 확장을 위해 주민들이 부지를 기부했다. 1980년에도 성남초등학교에 운동장 부지 확장을 위한 기부가 있었다. 체육시설과 놀이시설 기부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철봉이었다. 1957년 대동향교초등학교에 자모회에서 철봉을 기부했고, 1968년 학다리중앙초등학교와 나산초등학교송암분교장에 철봉을 기부한 주민이 있었다.

당시 운동장의 모습은 비슷했다. 1985년 함평영화학교 전경사진을 보면 흙바닥 운동장 한편에 미끄럼틀과 시소 등 몇 가지 놀이시설이 놓여 있다. 학교 운동장은 대부분 이런 모습이었다. 형편이 조금 좋은 학교 운동장은 양쪽에 축구 골대가 놓여있고, 한편에 씨름장이 있거나 농구골대가 있었다. 철봉과 평균대 등 체육기구가 있었고, 초등학교에는 놀이 시설도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이었다.

이후 체육관이 들어서면서 농구골대 등은 운동장에서 보기 힘들어졌다. 많은 학교 운동장에 잔디가 깔렸고 놀이 시설은 안전한 소재로 바뀌었다.

이제 운동장은 아이들을 위한 창의적 놀이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운동장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가 새로운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 손불서초등학교가 어떻게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되었는지, 기사 하나를 소개한다.

운동장을 아이들 공간으로

놀이는 아이들의 권리이다. 즐겁게 노는 아이는 창의성이 발달한다.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은 녹록치 않다. 운동장엔 미끄럼틀, 정글짐, 철봉, 그네가 있고 주민들을 위한 운동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다양한 놀이 시설은 없다. 다행스럽게도 그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편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휴대폰 게임에만 몰두한다며 아이들 세대를 탓한다. 운동장에서 놀지 않는

아이들, 휴대폰 게임만 즐기는 아이들…. 어떻게 재미있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아이들은 몸이 흔들리는 놀이를 좋아한다.

등교시간이나 중간 놀이시간, 점심시간 우리 학교 아이들이 분주해진다. 하나 있는 그네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그네는 특히 저학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다. 가끔 저학년 아이들은 고학년 아이들에게 그네를 빼앗겨 시무룩해 하곤 한다.

손불서초에는 운동장과 나란히 있는 동산 같은 곳이 있다. 운동장과 같은 높이에 농구 코트 크기의 동산이다. 이곳에는 향나무, 단풍나무 등 몇 종류의 나무들이 심어져있다. 동산 경계 부분에는 듬성듬성 울긋불긋한 꽃들이 심어져 있어 휴식 공간으로 제격이다. 이런 조그마한 동산에 흔들의자를 설치했다. 아이들이 하나, 둘 모이더니 제법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어 흔들의자를 타고 논다. 1학년 어린이 정도의 체격이라면 3명 정도가 앉으면 적당한데 너도나도 올라타고 서너 명이 밀어주고 있다. 부서질까 애타는 줄 모르고 아이들은 신나게 흔들의자를 밀어댄다.

아이들이 흔들의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때 쯤, 해먹을 설치했다. 그늘도 있고 그네와 같아서 아이들이 좋아한다. 아이들은 해먹을 180도 이상 과도하게 흔들고, 360도 회전하고, 1인용인데 2~3명이 올라타고 마구 흔들며대며 즐거워한다. 멀리서 바라보면 킹콩이 숲을 걸을 때 그 진동으로 주변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몇 그루의 나무가 휘청거린다.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을 가리지 않고 해먹에 누워 휴대폰으로 음악을 즐기거나 게임을 하는 아이들도 많다. 아이들이 추가 설치를 요구해 지금은 3개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은 타는 놀이를 좋아한다.

손불서초 운동장은 모래운동장이지만 잔디 운동장보다 좋다. 아이들이 모래 놀이를 즐기기 때문이다. 운동장 가장자리는 우레탄 트랙이 설비되어 있다. 트랙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 끝에 전동휠, 전동퀵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를 구입했다.(수동 보드는 우레

탄과의 마찰 때문에 움직임이 힘겹다). 모두 1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29명 규모의 학교에서 운영하기엔 적당한 수량이다. 이것 때문에 교실에 갇혀 휴대폰 게임만 하던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동휠, 전동퀵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는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기구다. 아이들은 자치활동을 통해 사용 규정을 정했다. 안전모 쓰기, 한 방향으로 주행하기, 사용 후 충전해 놓기 등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다.

운동장 한 켠에 두 발 자전거 10대와 세 발 자전거 6대를 두었다. 초기엔 분실 우려 때문에 하교 후엔 창고로 옮겨 보관했다. 그러나 이동 관리에 대한 불편함, 분실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운동장에 상시 개방해 놓았다. 학교 근처에 사는 몇 명의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기위해 아침 일찍 등교하곤 한다. 학부모님은 자전거를 타기위해 학교에 빨리 가야한다고 재촉하는 자녀들의 말을 들으며 흐뭇해하신다. 자전거 10대가 줄지어 트랙을 주행하는 모습을 보면 장관이다. 즐거움이 달리는 것 같다.

유치원생을 위해 구입한 세 발 자전거가 있다. 유치원생 보다 초등학생, 그것도 고학년 아이들이 즐겨 탄다. 작은 자전거에 큼직한 몸을 올려놓고 불편하게 페달을 밟는 게 재미있나 보다. 세 발 자전거로 경주까지 한다. 그래서 세 발 자전거가 빠르게 망가져 간다.











아이들은 치고, 차고, 던지는 놀이를 좋아한다.

운동장에는 여러 개의 축구공이 있다. 처음에는 1~2개의 공이었는데 3개를 추가 구입하고 아이들도 개인 축구공들을 가져와

서 축구공이 많아졌다.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개인기와 슈팅을 즐긴다. 아침이면 교장인 내가 골키퍼를 하며 아이들의 슈팅 볼을 막아낸다. 축구공이 여러 개여서 아이들은 쉼 없이 슈팅을 날린다. 가끔 사인이 맞지 않아 여러 개의 공이 동시에 날아오는 경우도 있다.

학교 구령대는 이제 사용 빈도가 적은 곳이 되었다. 빈 공간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곳에 간이 농구대, 헬스 사이클, 곡선 모양의 의자를 설치했다. 생각대로였다.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이곳으로 옮겨졌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아이, 슛을 날리는 아이, 공이 잘 들어가지 않아 농구 골대에 직접 넣는 아이, 농구대 주변을 에워싼 아이들….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농구 활동으로 웃음꽃을 피우고 우의를 다지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만들어 간다.

그러나 헬스 사이클은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타는 듯 하더니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휴일에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을 위해 그대로 놓아두고 있다.

넓지도 좁지도 않는 본관 로비, 중앙에 자리 잡은 커다란 거울과 어른 키 높이의 시계, 좌우 벽면에는 트로피와 발간 책자를 넣어둔 가구들이 있었다. 이것들을 모두 치워버렸다. 지금 그 곳에는 에어하키가 놓여 있다. 모든 아이들이 이곳에 모여 에어하키를 즐긴다.

'틱 틱' 쉬는 시간이거나 아이들이 오고 갈 때면 아이들이 게임을 즐기는 소리가 들린다. 역시나 에어하키도 고학년들이 먼저 차지한다. 저학년 이아들은 눈치만 보며 쭈뼛쭈뼛 넘겨본다.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으니 우울한 표정에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또한 게임 규칙이 생겼다. 자치활동을 통해 정해진 것 같지는 않은 데 어느새 룰이 생긴 것이다. 두 사람이 10점 경기를 하던 것을 1점 경기로 바꾸었다. 진 사람은 기다리던 선수와 바로 교체된다. 그래서 선수 교체 회전률이 좋다.

아이들은 밀폐된 공간을 좋아한다.

아이들은 주변의 시선이 닿지 않는 밀폐된 공간을 좋아한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그 곳에서 게임을 즐기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냥 혼자 있거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한다. 얼마 전, 가족 캠프를 위해 텐트 2개를 샘플로 우선 구입했다. 견본으로 운동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그대로

두었다. 아이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다. 이 친구 저 친구 하나, 둘 텐트 안으로 들어가 쉬거나 휴대폰으로 음악과 영상을 보며 여유를 즐긴다. 텐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여서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텐트 위로 캐노피를 설치하고 텐트 옆에는 평상을 놓아두었다. 아이들이 즐겁게 놀기를 기대한다. 학교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학교 행사가 있는 것으로 오해한다. 운동장에 설치해 놓은 텐트는 아이들이 무의미하게 지나칠 때까지 당분간 그대로 두려고 한다.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운동장 둘러보면 아이들의 놀거리가 많다. 아이들의 삶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다. 원반던지기, 원반날리기, 줄넘기, 훌라후프 등이다. 하나의 놀이가 싫증나면 다른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여름에는 운동장 한 켠에 키다란 물풀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달여간 운영하는데 주로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 여름나기 행사로 물총놀이, 물풍선놀이도 즐긴다.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고 시원하게 재미있게 보내길 바랄 뿐이다.

학교의 주인은 아이들이다. 학교를 아이들의 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삶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교직원 모두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한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교직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咸平

변소와 화장실의 차이



2018 전남교육 사진공모전 동상 수상작

요즘 학생들에게 변소라는 용어는 익숙하지 않다. 용변을 보는 시설 외에도 세면대 등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화장실이라는 말이 자연스럽다. 언제부터 학교화장실은 이런 모습을 갖추었을까?

예전에는 소위 푸세식(?) 변소였고, 변소에 얽힌 추억도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채변봉투 일 것이다.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대변검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구충제를 나누어 주었다. 대변검사를 위해 채변봉투를 주었는데, 깜빡하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러면 학교 변소에서 채변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 이미 변소에 다녀 온 아이들이 채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채변을 했을 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또 변소 청소 당번은 언제나 사고치는 아이들의 몫이었다. 학생들이 가장 하기 싫은 게 당연히 변소 청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었다. 1970년대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1980~9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었다. 기록에는 1973년 처음으로 함평중학교에 수세식 화장실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남아있다. 1983년 대동초등학교

에 수세식 화장실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학교에 수세식 화장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990년대까지 수세식 화장실 공사가 이어졌다.

변소를 만들기 위한 기증도 있었는데, 1967년에는 마을주민이 함평북초등학교에 변소 부지를 기증했고 1999년에는 학다리초등학교에 좌변기 시설을 기증한 주민도 있었다.

일제강점기 시대 변소와 관련한 일화도 있다. 당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선생님은 공부할 교실과, 물을 먹을 우물, 대소변을 볼 변소를 일본말로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이 3가지 말을 학생들이 빨리 외우도록 자주 반복하여 가르쳤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선생님은 당장 활용하여야 할 변소에 신경을 써서 학생들에게 일본말로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실수로 옷에다 변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해방 이후 신입생들은 나이가 훨씬 어려졌지만 옷에다 실수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일제강점기 일학년들이 옷에다 변을 보는 이유는 학교에서 한국말을 쓰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일학년 학생들은 수업시간 중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도, 선생님에게 손을 들고 변소에 다녀오겠다는 일본말을 제대로 구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똥보, 오줌보로 낙인 되어 반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당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한편, 많은 학교가 세워지던 당시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학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많은 학교에 우물이 있었다. 주민들은 학생들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흙을 파서 샘을 만들었다. 장비라고 해봐야 삽과 곡괭이가 전부였다. 한참을 파내려가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멘트로 만든 원형 구조물(당시 사람들은 일본어로 '로깡'이라 불렀다)을 통째로 세워서 집어넣고 돌로 바닥을 다진다. 샘이 무너지지 않도록 바닥은 시멘트를 발랐고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양철 지붕도 만들었다. 학다리중앙초등학교 우물과 관련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샘물은 아주 청정하였고 물맛도 좋았다. 그러기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놀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실 때에는 물맛이 꿀맛 같아 꿀떡꿀떡 사정없이 많이 마셨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배탈 나는 학생은 없었다. 여기에 물 수량도 좋아 6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일시에 마실 수도 있는 흡족한 양이었다.

그러나 1944년 8월 경 일본관동군의 소속인 1964부대가 미군이 제주와 남해에 상륙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방어할 목적으로 모교에 주둔하였다. 샘 하나에 학생과 군인이 혼용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거기에다 수량이 흡족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샘을 운동장 정문 서편 울타리 변에 파서 사용하다가, 8·15 광복이 되면서 폐정하고 매립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유년시절 매일 마시고 성장하였던 잊을 수 없는 이 우물도 1971년 8월 15일 현대화 시설에 밀려 전기모터 장치와 더불어 간이 상수도 시설로 콘크리트로 덮여 개조되었다.

咸平

신나는 운동회



학교 운동회는 예나 지금이나 마을 축제가 된다. 일제강점기에는 하나의 면에 하나의 학교가 있었던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학교에는 모든 마을의 아이들이 있었다. 자연스레 초등학교의 운동회는 면단위 축제가 되었다. 부모들도 이날만큼은 품앗이 일도 미루고 운동회에 참석했다.

학생들은 운동회 날 좋은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수업이 끝나면 운동경기 연습에 상당한 시간을 쏟았다. 운동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머리에 홍군, 백군 띠를 두르고 응원연습도 했다. 학교도 새롭게 단장한다. 교문은 개선문처럼 치장하고 만국기가 운동장을 가로질렀다.

운동회 날에는 지역의 유지들이 초대되어 함께 자리를 했다. 부모님은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해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를 했다. 학교에는 상인들도 몰려들어 엿과 눈깔사탕도 팔았다. 본부석 앞에 성적판이 놓이게 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성적을 기록한다. 학생들은 기차박수 등을 치며 열띤 응원을 펼친다.

육상, 공굴리기, 큰 모자 쓰고 사다리 끼어오기, 바구니 터뜨리기, 바구니에 공주머니 넣기, 과자 따먹고 달리기, 이인 삼각경기, 뜀틀, 줄다리기, 장애물 넘어 달리기, 마스게임, 장대 눕히기, 기마전 등의 경기가 이어졌다. 종목에 따라서는 상품이 주어지기도 했는데 공책과 연필 등 학용품이 대부분이었다. 경기 중에 무용과 지신밟기, 검도 시범, 도수체조 등이 선보기이도 했다.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열렸다. 이어 달리기, 마을별 줄다리기, 기관장 친선경주 등이 있었다. 어머니들은 물동이 이고 달리기를 했고, 아버지들은 볏가마니 지고 달리기를 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였던 탓에 이런 축제도 언제나 마지막은 씁쓸했다. 당시를 이렇게 기억하기도 한다.

일제 때에는 대개 홍군은 일본, 백군은 미군으로 관념상 구분하였기에 언제든지 홍군이 승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폐회식은 교무주임께서 연단에 올라가 운동회를 마친다는 선언과 함께 대일본제국 천황폐하만세 3창을 부르고 끝난다. 각각 헤어져 기다리고 있던 어머님과 누나 등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학교에 따라 조금은 달랐겠지만 1944년에는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운동회는 생략되었다. 1945년 해방이 되던 해에도 운동회는 열리지 않았다가, 1946년 다시 운동회가 열렸다.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또 다시 중단되었다가 1954년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1946년의 운동회는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면서 열린 첫 운동회였다.

운동회장에는 태극기가 휘날렸고, 만국기가 운동장의 하늘을 수놓았다. 홍군 백군으로 나누었던 것을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운동 종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공산당 타도 게임이 등장했고, 60년대부터 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후 가을에 열리던 운동회가 봄에 열리기도 했고, 경기종목과 행사도 다양해졌다. 이색적이고 화려한 입장식을 준비하기도 했고, 색다른 응원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늦게 운동회를 개최해 마을 축제를 열기도 한다. 대동향교초등학교의 별빛 운동회를 소개한 기사의 내용이다. 경기 종목도 예전과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다.

대동향교초등학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주민, 학부모와 함께 하는 별빛 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동회는 학교 운동회의 지역축제화를 위해 면민과 함께하는 운동회로 개최되어 지역 사회의 큰 호응을 일으켰다. 밤하늘 별빛을 보며 깨끗하게 조성된 잔디 운동장과 어둠을 밝혀주는 조명등 아래에서 펼쳐진 별빛 운동회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는 학생들의 축제로 개인별 달리기, 마당놀이 한마당, 잔디썰매 등이 진행됐다. 2부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락밴드와 밸리댄스, 지역난타단 등의 공연과 흥겨운 탈춤 마당, 신나는 리듬체조 등이 펼쳐졌다. 이어진 줄다리기, 큰공굴리기, 경품 추첨 등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만남의 장, 축제의 장이 되었다.



대동향교초 별빛 운동회







함평여중 70~80년대와
2015년 운동회

咸平

꿈을 찾아 떠나는
체험학습





함평월야중 체험학습

요즘 학생들은 진로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행사는 소풍과 운동회, 수학여행이 전부였다. 특별한 경우 학생회 임원들의 수련회 정도가 있었다.

수학여행은 일정도 대부분 비슷했다. 80년대 고등학교 수학여행은 대부분 경주와 강원도였다. 수학여행 날에는 학교 앞에 관광버스가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중학교는 2박 3일, 고등학교는 3박 4일의 수학여행 일정을 잡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000년대가 되면서 수학여행지가 제주도와 수도권 테마파크로 바뀌었다.

예전 체험학습은 어떠했을까? 일제강점기에는 소풍을 원족이라 하였다. 당시 소풍과 체험은 주로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나, 명승고적지, 사찰, 그리고 현대문물을 빨리 접한 목포와 광주 등으로 갔었다. 소풍은 봄가을 2차례 정도였는데, 학생들은 학생복에 모자를 쓰고 도시락과 떡, 고구마, 감 등을 챙겨서 일본 군가를 부르며 갔다.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모두가 모여 각자의 소풍지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기차로 광주, 목포를 향하거나

불갑사와 용천사 등 먼 길을 갈 때에는 학교에서 모이지 않고, 담임 교사의 책임 하에 역이나 기타 장소에서 모이기도 했다. 이런 날에도 아침조회는 이어졌다. 일제강점기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멀리 소풍할 기회는 거의 없었고, 광주나 목포 등 대도시 구경을 한 번도 못한 채 졸업하는 학생도 있었다.

해방 이후에는 학교주변을 떠나 기차, 버스 등을 이용해 조금 먼 곳으로 가기도 했다. 고막원 돌다리 등 함평군 내의 경승지나 유적지를 살펴보기도 했다. 조금 멀리 이동하게 되면 소쇄원과 식영정, 1929년 학생독립운동탑과 광주일고, 해남 대둔산, 영광 불갑사, 장성 백양사, 정읍 내장사, 목포 고하도와 유달산, 완도 장보고 유적지, 여수 오동도 등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수학여행은 1박2일 또는 2박3일의 일정으로 부여와 경주, 서울의 고궁 등을 찾았다. 80년대 이후는 경승지, 유적지 등을 왕래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개설되어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전국을 상대로 수학여행도 하였다.

요즘은 소규모 체험학습을 많이 하고 있다. 학생들 스스로 목적지를 결정하고 체험 계획도 세운다. 함평월야중학교의 체험학습을 소개한 기사 내용이다.

꿈을 찾아 떠난 착한 여행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생산되면서 가장 부자나라에서 소비하는 커피. 커피 농장에서는 노동력 착취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과 환경파괴를 막고,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생한 무역의 형태가 이른바 공정무역(fair trade)이다.

여행에도 착한여행, 공정여행(fair travel)이 있다. 즐기기만 하는 여행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문명파괴를 막고, 현지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탄소배출과 같은 환경문제를 고민하며, 현지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여행이다.

함평월야중학교 전교생과 교직원 70명은 지난 10일 공정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대전의 원도심인 대흥동.







함평여중 70~80년대와
2015년 수학여행



함평농업중고등학교
(현 함평골프고)

'공정여행을 찾아서! 행복한 미래설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여행은 진로탐색과 문화예술체험의 시간을 갖고 학생들의 꿈과 직업의 세계를 찾아보는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옛 충남도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옛 충남도청은 한국전쟁 당시 임시 중앙청과 전방지휘사령부로 활용됐던 곳이다. 지난 2012년까지 충남도청사로 활용됐고, 80여 년 동안 외형에 큰 변화가 없어 일제강점기 당시의 건축양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다룬 영화 '변호인' 등 영화 촬영지로도 사랑을 받는 곳이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일행은 본격적으로 공정여행을 시작했다. 한손에는 여행 지도가 들렸다. 이날 여행은 골목투어와 공방체험으로 이루어졌다.

대전의 원도심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또한 예술인들이 만든 공방과 갤러리를 골목 골목에서 마주할 수 있었고,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아기자기한 골목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일행은 대흥동의 상징 벽화인 'T셔츠 벽화'와 골목골목에 그려진 200여개의 '틈새그림'을 감상하면서 대흥동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죽어가는 주차공간을 갤러리 겸 작업실로 활용한 'Parking 갤러리'가 일행의 시선을 잡았다.

아시아요리와 다문화식당인 'I'm Asia'(이맛이아)는 손쉽게 아시아 각국의 음식을 접하면서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착한 소비 공간이었다. 이주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자립을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었다.

학생들은 또한 자신의 적성에 따라 3팀으로 나누어 도자기공방

과 가죽공방, 천연양초공방을 체험하고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KT&G 상상마당 논산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에서는 영화 예고편 제작, 음반 녹음, 바리스타체험 등 3팀으로 나누어 체험활동이 이루어졌다.

체험을 마친 2학년 한○○ 학생은 "골목 골목에 숨어있는 앙증맞은 카페와 가게 등 상상공작소를 보면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내다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고, 3학년 김○○ 학생은 "돌아오는 길에 60년 전통의 착한 빵집 이야기, 대흥동성당에서 40년 넘게 종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책임의식과 건전한 직업관을 본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했다.

3학년 심○○ 학생은 "녹음장비와 과정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래와 함께 녹음하면서 진짜 가수가 된 것처럼 신기하고 긴장도 됐지만 다양한 진로탐색의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咸平

마지막 눈물의 졸업식

2017년 1월 10일. 함평 나산중학교에서 열린 54회 졸업식.

동문들은 학교를 떠나는 17명의 졸업생을 묵묵히 지켜봤다. 더 크고 넓은 세계를 향해 힘차게 출발하는 학생들을 축하하는 기쁨도 잠시. 더 이상 후배들을 맞이할 수 없다는 진한 아쉬움이 밀려왔다. 이날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나산중학교의 졸업장을 받는 학생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나산중학교는 9월 학교 문을 닫고 추억으로 남게 됐다.

학부모와 지역민들은 조용히 졸업식장을 지키며 학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식전 행사로 축하 연주음악이 울려 퍼졌고, 학교생활을 담은 영상이 소개되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비단 묏 줄기 넓은 벌 안고~" 교가를 함께 부르며 마지막 졸업생들을 떠나보냈다.

동문인 김원식 교사는 "나산중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만들었던 인재의 요람이다"면서 "언제나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했던 설립자의 뜻을 기억하고 세계를 품으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서인규 교장은 회고사를 읽어 내려갔고, 동문과 학부모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서 교장은 "매년 학생들을 졸업시키지만 이번 졸업식은 감회가 새롭다. 텃밭에서 삼백초, 어성초, 돼지감자 가꾸기 뿐 아니라 아이들을 더 가까이에서 알아가고 각자의 재능을 발견해주며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산중의 이름이 역사 속에 남듯이 54회 졸업생도 저에게 특별하게 기억될 것"이라며 "먼 훗날 자랑스런 나산인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대들의 모습을 응원할 것이다"고 졸업생을 격려했다.

나산중은 함평지역 3개 학교(나산중, 학다리중, 함평중)가 통합하면서 오는 9월 문을 닫는다. 나산중은 1961년 개교해 올해 졸업생 17명을 포함해 지난 54년 간 모두 6,11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사립학교였던 나산중은 인근 학교와 통합을 결정하면서 지난 2014년 공립으로 전환했다. 현재 나산중 부지에는 서부 특성화중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나산중학교의 마지막 졸업식 풍경이다. 졸업식장은 언제나 눈물바다가 된다. 정든 학교를 떠나야하고 친구들과 이별하기가 아쉬워서 졸업가가 끝나기도 전에 울음바다가 된다. 선생님들도 헤어짐이 아쉬워서 제자들을 배웅한다. 이러한 졸업식 풍경도 시대에 따라 많이 변화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졸업식도 암울했다. 일장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했고, 일본 국가를 불러야 했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학다리중앙초등학교의 졸업식 풍경이다.

일제강점기의 졸업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24일~25일에 거행되었다. 졸업식은 옥내 행사로 거행되었다. 그러나 모교는 강당이 없었다. 교장관사 동편 6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 3칸을 터 버리고 책상과 의자를 복도에 옮겨 놓고 학예회, 졸업식장을 비롯하여 실내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강당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던 것이다.

졸업식장 준비는 졸업식 전날까지 교내 외의 청소를 비롯한 식장 준비를 완료하였다. 졸업식장에는 '○○년 3.25 ○○회 졸업 학교동공립초등학교'라는 백지에 쓴 현수막과 식순을 게첩하고 만국기도 달아 한결 경축 분위기를 높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꾸며진 졸업식장에서 내외귀빈은 옆줄의 일반 의자에, 졸업생은 앞줄 의자에 앉고, 재학생(1~5학년)은 뒷줄에 서서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6학년 담임 선생님의 사회로 먼저 일장기에 대한 경례와 일본 국가를 제창하고 나서 다시 학교



나산중학교 마지막 졸업식

교장 관사 앞에 세워진 봉안전(봉안전은 학교나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일왕 부부의 사진을 놓고 참배를 하도록 강요했던 곳이다.)을 향하여 천조대신 일본국조에게 절을 하고 또 동경을 향하여 황성요배를 끝으로 국민의례를 마치고 곧 이어서 사회자가 졸업생에 대한 경과보고에 이어 교장께서 시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시상은 우수상과 개근상과 공로상이 있었는데 우수상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1~3등을 한 학생에게 개근상은 1~6학년 동안 개근 또는 정근한 학생에게 공로상은 학교의 명예 선양과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고 동시에 졸업장과 전날 촬영한 졸업사진을 나누어 주었다. 상장 수여가 끝난 후에는 교장의 졸업 사가 있었다. 졸업 사는 간단하면서도 내용은 충실하였고, 학생들 앞날의 발전을 기원하는 내용이었다.

해방 이후 졸업식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해방의 기쁨이 졸업식장에도 전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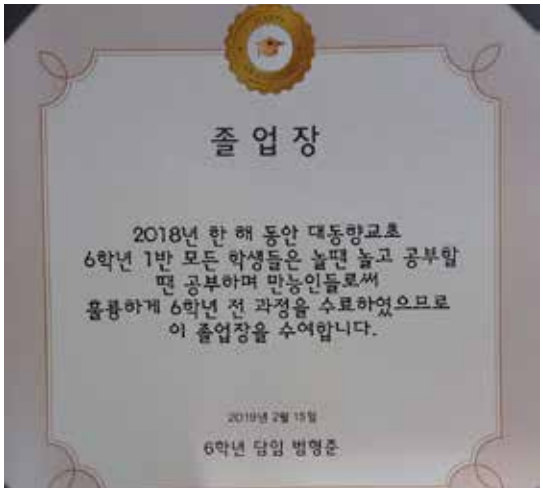
졸업식은 국민의례부터 시작되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애국가 제창 등이었다. 1970년대가 되면서 국민교육헌장낭독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어 교감 선생님의 학사보고, 교장 선생님의 졸업장 및 상장 수여와 졸업사, 내외귀빈의 축사, 재학생 대표 송사, 졸업생 대표의 답사, 졸업의 노래, 교가 제창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졸업식 풍경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초등학교 졸업식이 유독 아쉬웠던 것은 중학교 진학을 위해 타지로 떠나면서 친구들과 헤어져야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많은 친구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했던 터라, 중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의 미안한 마음도 섞여있었다. 1960~70년대 면 단위에도 중학교가 생기고 진학률도 늘어나면서, 초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은 비교적 줄어들었지만 초등학교 졸업식은 여전히 아쉬움이 가득했다.

1990~2000년대가 되면서 졸업식 풍경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졸업식장에서 졸업생 각자의 꿈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고, 졸업 앨범이 DVD로 제작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생겨난 변화였다. 이 무렵부터는 나홀로 졸업생이 등장하기도 했다. 1983년 한 해에 268명이 졸업했던 해보초등학교오두분교장의 1994년 졸업생은 단 2명이었다.



손불서초 DVD 졸업장



대동향교초 이색적인 졸업장

咸平

기록으로 보는 함평교육

가장 오랫동안 학교에 기증된 물건

기증의 방법이 달랐고, 힘을 모은 형편이 달랐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 지금의 함평교육을 만들었다. 물론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는 부분도 많을 것이다. 함평의 각 학교에 기증한 사람들의 흔적은 1923년부터 기록되어 있다. 처음 학교가 세워지고 기록이 남겨질 무렵 사람들은 주로 땅을 기증했다. 학교를 짓거나 운동장을 넓힐 때, 때로는 화장실 부지를 기증하기도 했다. 1970년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땅을 기증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가장 오랜 시간동안 꾸준히 기증된 품목은 무엇일까? 바로 교문이다.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교문 기증은 1927년 함평초등학교 교문이다. 마지막 교문기증도 1994년 함평초등학교 교문이다. 교문은 주로 학부모들과 졸업생들이 뜻을 모아 기증했다. 다음으로 기증물품으로 오랫동안 이어졌던 것은 시계였다. 1937년 성남초등학교에 괘종시계를 기증한 기록부터 1998년 전남보건고에 기증한 기록이 남아있다.

기증품은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상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학교에는 동상기부가 늘어난다. 이순신, 세종대왕, 유관순 동상뿐만 아니라 이승복과 반공동상이 기증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 동상을 기증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책을 기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시계와 캐비닛, 풍금, 놀이기구와 체육시설, 거울 등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은 꾸준하게 기증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커튼과 컴퓨터 중 어느 것이 학교에 먼저 기증되었을까? 1990년대 들어와 커튼

을 기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커튼 기증은 1994년 엄다초등학교였다. 졸업생과 교직원들이 급식실, 체육관, 방송실에 커튼을 기증했다. 컴퓨터는 이보다 늦게 기증되었을 것 같지만, 최초의 컴퓨터 기증은 1989년 학다리중앙초등학교로 오히려 커튼 기증보다 시기가 빨랐다. 적어도 함평에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그렇다.

최초의 풍금 기증은 1938년 성남초등학교였고, 최초의 컬러 TV 기증은 1983년 나산초등학교였다.

최초로 전화기가 설치된 학교

함평지역 학교 최초의 전화기는 언제 어디에 설치되었을까?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함평초등학교는 1966년 4월 15일 수동식 전화기를 설치했다. 함평초등학교장년분교장(함평서초등학교)도 같은 날 설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68년까지 함평과 학교우체국에만 전화 교환대가 설치되었으며, 1966년 함평의 전화가입자 수가 235명이었던 것을 보면 함평초등학교에는 빠른 시기에 전화가 설치되었다.

1971년에 손불, 나산, 해보, 월야우체국에 전화 교환대가 설치되어 모두 6개국이 되었다. 1974년에 신광우체국, 1975년에 엄다우체국, 1978년 7월 14일에 함평우체국 주포분국의 간이 자동 교환대가 업무를 개시했다. 1982년에 대동우체국 자석식 교환업무가 함평 자동국으로 통합되었으며, 1976년 함평우체국에 전신 전화분실이 신축되고 자석식 전화가 자동식 전화로 바뀌었다. 1983년에 한국통신공사 함평전신전화국이 개국하여 우체국에서 취급하던 전화 업무를 인계 받았고, 1984년에 장거리 자동전화가 확장 개통되었다.

학교에 전화가 생기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급한 안건은 전화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일단 공문 전달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그러나 전화로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공문만 전달됐다. 팩스가 보급되고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공문의 내용이 복잡해졌다.

처음 전기를 설치한 학교

함평군에 전기가 처음 가설된 것은 1918년으로, 남선합동전기주식회사 함평출장소가 세워지면서 학교면 학교리와 사거리, 함평읍 기각리 내교리 함평리 등이 전기 혜택을 보았다. 이후 나산면 나산리와 삼축리가 고막원선에서 인입하여 전기가 가설되었다. 전기는 1960년대까지도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나산면, 대동면의 5개 읍면에만 시설이 있었으며, 1968년 말 당시 전체 가구 가운데 수용가가 2,834가구로 12.5%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언제부터 전기를 사용했을까?

학다리중앙초등학교는 1967년 3월 1일 전기가 들어왔다. 이 전기 시설은 기증을 받아 마련되었다. 성남초등학교는 1971년 전기가 설치되었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 발전기를 설치한 학교도 있었는데, 월야초등학교는 1965년 9월 16일 발전기가 설치되었다.

가장 많은 졸업생과 가장 적은 졸업생

한 해에 가장 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와 가장 적은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는 어디일까? 함평중학교는 1981년 542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한 해에 가장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다. 함평초등학교는 1960년 504명이 졸업했고, 함평여자중학교는 1985년과 1986년 460명이 졸업했다. 학다리고등학교는 1984년 441명이 졸업했다.

가장 적은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는 학다리중앙초등학교신성분교장으로 2003년 1명의 학생이 졸업했다. 이 밖에도 많은 학교들이 통폐합 되기 전 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다리중앙초등학교신성분교장에서 가장 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때는 언제 몇 명이었을까? 1996년 2명의 학생이 졸업했다.

교목으로 가장 사랑받은 나무와 꽃

함평에서 교목으로 가장 사랑받은 향나무다. 통폐합된 학교를 포함하여 모두 18개 학교에서 향나무를 교목으로 정했다. 소나무를 교목으로 선택한 학교는 16학교다. 교화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꽃은 장미다. 모두 14학교가 장미를 교화로 정했고, 13학교가 국화를 교화로 정했다. 교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은 단연 녹색(초록 포함)이다. 41개 학교가 녹색을 교색으로 사용했다.

함평 최초의 유치원과 특수학급

함평 최초의 근대교육기관은 함평초등학교의 전신인 지남학교다. 그렇다면 함평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병설유치원은 어디일까? 1981년 많은 유치원들이 첫 원생을 받았는데, 대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1980년 3월 1일 문을 열었다. 한편 특수학급이 처음 개설된 학교는 1976년 개설된 나산초등학교다.

제3부

함평교육의 오늘을 보며 내일을 꿈꾸다

6장 | 함평교육의 오늘을 보다

7장 | 전국 최초 사립학교 기부채납으로 미래를 만들다

8장 | 오늘의 함평교육, 언론에서 만나다

6장 함평교육의 오늘을 보다

함평교육지원청

함평교육지원청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64

함평교육지원청은 1952년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현재 군민회관 건너편인 함평리 149번지에 처음 터를 잡았다. 1962년 교육자치제가 폐지되었다가 1964년 부활되면서 현재 함평군청 2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각리 775-1번지 대지를 구입하고 청사 96평을 신축했다. 이후 1967년 함평여중 부지 131평을 양수받고, 1971년 기각리 892번지를 취득한 후 청사를 신축해 2019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2020년에는 새로운 청사(전남 함평군 함평읍 영수길 273-17)로 자리를 옮겨 함평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2019년 현재 함평교육지원청이 위치한 마을은 신기산이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호구가 늘어나자 기산에서 떨어져 나왔다 하여 신기산으로 부르게 된 마을이다. 함평교육지원청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1930년대 일본인들의 학교인 함평남소학교가 있었던 곳이다. 뒤편은 뽕나무 밭이었고, 근처에 띄엄띄엄 집이 몇 호 있을 뿐이었다. 이곳은 한국전쟁 직후 함평경찰서로 쓰였고, 뒤에 함평여자중학교로 쓰였다가 함평교육지원청이 자리잡게 되었다.

〈연혁〉

1952. 6. 4. 함평군 교육구청 발족(법률 제86호)

1964. 1. 1. 함평군교육청 발족

- 2과 구성(관리과, 학무과)

1964. 5. 6. 초대 교육장 박말갑 부임

- 함평손불중학교 설립

1967. 10. 4. 제2대 교육장 변재영 부임

- 대광국민학교 설립

1968. 10. 21. 제3대 교육장 박상진 부임

- 기산국민학교, 해보중앙국민학교, 손불남국민학교 설립

1969. 10. 7. 제4대 교육장 윤하중 부임
- 영창국민학교, 함평신광중학교, 함평해보중학교 설립, 월야국민학교광동분교장 설립

1973. 7. 8. 제5대 교육장 전병곤 부임
- 2과(학무과, 관리과), 6계(초등계, 중등계, 사회체육계, 관리계, 경리계, 시설계) 직제 구성
- 석성국민학교 설립

1973. 9. 1. 제6대 교육장 이재완 부임
- 월야국민학교양정분교장 설립

1979. 9. 17. 제7대 교육장 최춘배 부임
- 관리과에 서무담당 신설 (2과 7담당)

1980. 9. 1. 제8대 교육장 박종무 부임

1984. 3. 1. 제9대 교육장 최종기 부임
- 본교 4교 분교장 격하

1986. 9. 1. 제10대 교육장 이성도 부임
- 본교 4교 분교장 격하

1988. 2. 29. 함평공공도서관 설립

1990. 3. 1. 제11대 교육장 윤우중 부임
- 본교 4교 분교장 격하, 분교장 2교 폐지
- '전라남도함평교육청'으로 명칭 변경(1991. 3. 26.)

1993. 3. 1. 제12대 교육장 윤병주 부임
- 본교 3교 분교장 격하, 분교장 3교 폐지
- 동·하계 과학영재교실 운영(1993. 7. 25.)

1994. 9. 1. 제13대 교육장 최태정 부임
- 관사 2동 아파트 매입, 본교 1교 분교장 격하 및 1교 폐지, 분교장 3교 폐지
- 학생의 집 건립(1995. 3. 1.)

1996. 3. 1. 제14대 교육장 강운기 부임
-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

1998. 3. 1. 제15대 교육장 임규태 부임

1999. 9. 1. 제16대 교육장 박갑석 부임
- 본교 3교 통합(대동초등학교,석성초등학교,월야북교초등학교)
  · 대동초등학교가 향교초등학교로 통합(향교초등학교에서 대동향교초등학교로 교명 변경(2006.03.01))
  · 석성초등학교가 함평초등학교로 통합
  · 월야북초등학교가 월야초등학교로 통합
- 2000년 지역교육청평가 전 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2001. 3. 1. 제17대 교육장 정동술 부임

- 함평군 상설과학영재교실 운영(2001. 3. 10.)

2002. 1. 10. 제18대 교육장 문홍태 부임

- 초등학교 통폐합(성남초가 함평초로 통합)(2002. 3. 1.)

2003. 3. 1. 제19대 교육장 신춘자 부임

- 학다리중앙초등학교신성분교장 폐지, 엄다중학교 폐지(사립)

2004. 3. 1. 제20대 교육장 윤이중 부임

2005. 9. 1. 제21대 교육장 임복희 부임

2006. 9. 1. 제22대 교육장 이재윤 부임

- 함평군 과학영재교실을 전라남도함평영재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2007. 9. 5.)

2008. 3. 1. 제23대 교육장 김광호 부임

- 대동향교초등학교대신분교장 폐지, 학다리초등학교 폐지(2009. 3. 1.)
- 영창초등학교 폐지(2009. 9. 1.)

2010. 3. 1. 제24대 교육장 노양섭 부임

- 조직개편: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2010. 9. 1.)
  · 2과 8담당 구성
  · 2과(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 8담당(교수학습지원, 교원능력 개발, 인재육성지원, 체육청소년지원, 행정지원, 재정지원, 교육협력, 시설)
- Wee센터 개소 (2011.)
- 2011. 시범무지개학교 운영 (함평신광중)
- 2011. 자율무지개학교 지정 (손불초, 손불서초, 월야초, 함평해보중, 함평고)

2012. 3. 1. 제25대 교육장 김승호 부임

-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2012. 3.)
- 학생의 집 폐교(2014. 2. 28.)
- 함평지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 출범(2013. 2.)

2014. 3. 1. 제26대 교육장 노형석 부임

- 2014년 청렴활동 최우수기관 선정
- 2014, 2015년 교육지원청 평가 우수기관 선정
- 2015년 영재교육기관 우수기관 선정
- 함평 나飛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협약 및 선포식 (2015. 4. 8.)
- 공·사립학교 통폐합을 통한 농어촌 거점형 중·고등학교 모델창출 계획 교육부 중앙투융자 결과 '적정' 통보

- 나산중학교 공립학교 전환(2014. 3. 1.)
- 나산고등학교 폐교(2016. 2. 29.)

2016. 3. 1. 제27대 교육장 강대영 부임

- 2016. 제14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손불서초등학교, 함평손불중학교)
- 2016. 전라남도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함평초, 손불초, 학다리중앙초, 해보초)
- 2016년 교육지원청 평가 우수기관 선정
-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외부청렴도) 1위
- 2016년 전국 위(Wee)센터 평가(우수평가)
- 2016년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은메달1, 동메달1)
- 학다리중학교, 학다리고등학교 공립학교 전환(2017. 3. 1.)
- 2017. 제15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우수학교 선정(학다리중앙초등학교, 손불초등학교)
- 2017년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금메달1, 은메달1, 동메달1)
- 통합함평중학교 개교(함평중, 나산중, 학다리중 통합)(2017. 9. 1.)
- 2017년 청렴활동 인센티브제 기관 평가 1위

2018. 3. 1. 제28대 교육장 박영숙 부임

- 함평학다리고 개교(학다리고, 함평여고, 나산고 통합)(2018. 3. 1.)
- 나산실용예술중학교 개교(2018. 3. 11.)
- 제47회 전국소년체전(레슬링 그레꼬로만형, 함평중 레슬링부, 금2, 동1)(2018. 5. 29.)
- 제7회 전라남도중학생토론대회 동상 수상(함평신광중)
- 2018년도 효율적 지방교육재정 운영 우수기관 선정
- 2018년도 청렴활동 인센티브제 기관 평가 2위
- 함평교육지원청-함평군청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한 MOU체결(2018. 12. 12.)
- 마을학교 5개교 출범(해봄, 꿈자람터, 덕여촌, 한나리, 꿈오라기)(2019. 1. 23.)
- 2과 8팀(팀명 변경, 2019. 3. 1.)
  · 2과(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 8팀(교수학습팀, 교원능력개발팀, 체육청소년팀, 학교혁신팀, 행정팀, 교육재정팀, 교육협력팀, 시설팀)
- 전라남도함평교육참여위원회 출범(당연직 2명, 위촉직 28명)(2019. 5. 1.)
- 전국소년체육대회 레슬링 그레고로만형(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2019. 5. 25.)
- 제48회 전국소년체전(레슬링 그레꼬로만형, 함평중 레슬링부, 금1, 은1, 동2) (2019. 5. 28.)
- (공·사립 통합) 함평학다리고등학교 이설 및 교명 변경 기념식(2019. 7. 18.)
- 2019년도 전국 공공기관 기록관리 기관평가 "가"등급(98.2점)

〈역대 교육장〉

초대 박말갑	1964. 5. 6. ~ 1967. 10. 3.
2대 변재영	1967. 10. 4. ~ 1968. 10. 20.
3대 박상진	1968. 10. 21. ~ 1969. 10. 6.
4대 윤하중	1969. 10. 7. ~ 1973. 7. 7.
5대 전병곤	1973. 7. 8. ~ 1973. 8. 31.
6대 이재완	1973. 9. 1. ~ 1979. 9. 16.
7대 최춘배	1979. 9. 17. ~ 1980. 8. 31.
8대 박종무	1980. 9. 1. ~ 1984. 2. 29.
9대 최종기	1984. 3. 1. ~ 1986. 8. 31.
10대 이성도	1986. 9. 1. ~ 1990. 2. 28.
11대 윤우중	1990. 3. 1. ~ 1993. 2. 28.
12대 윤병주	1993. 3. 1. ~ 1994. 8. 31.
13대 최태정	1994. 9. 1. ~ 1996. 2. 29.
14대 강운기	1996. 3. 1. ~ 1998. 2. 28.
15대 임규태	1998. 3. 1. ~ 1999. 8. 31.
16대 박갑석	1999. 9. 1. ~ 2001. 2. 28.
17대 정동술	2001. 3. 1. ~ 2002. 1. 9.
18대 문홍태	2002. 1. 10. ~ 2003. 2. 28.
19대 신춘자	2003. 3. 1. ~ 2004. 2. 29.
20대 윤이중	2004. 3. 1. ~ 2005. 8. 31.
21대 임복희	2005. 9. 1. ~ 2006. 8. 31.
22대 이재윤	2006. 9. 1. ~ 2008. 2. 29.
23대 김광호	2008. 3. 1. ~ 2010. 2. 28.
24대 노양섭	2010. 3. 1. ~ 2012. 2. 29.
25대 김승호	2012. 3. 1. ~ 2014. 2. 28.
26대 노형석	2014. 3. 1. ~ 2016. 2. 29.
27대 강대영	2016. 3. 1. ~ 2018. 2. 28.
28대 박영숙	2018. 3. 1. ~ 현재

지역사회 현황

· 행정구역: 1읍 8면 272리　인구: 33,339명　면적: 392㎢(전남의 3.2%)

· 산업구조: 1차산업 60%, 2차산업 10%, 3차산업 30%

· 지역특성: 친환경 생태체험 문화 관광지, 함평나비축제, 대한민국국향대전, 함평천지 한우, 민족자주성이 강한 의와 예의 고장, 맛·멋·인정이 훈훈한 고장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현황

· 연혁: 1964. 1. 1. 본군 교육청 설립

· 기구: 2과

구분 / 기관명	특정직								일반직								연구직
	총계	소계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상담교사	특수교사	소계	5급	6급	7급	8급	사무운영	시설관리	운전	기록연구
					초등	중등											
교육지원청	37	12	1	1	3	3	2	2	26	1	4	9	6	4	1	1	1
공공도서관	5								5		1	2	1		1		
계	44	12	1	1	3	3	2	2	31	1	5	11	7	4	2	1	1

· 공공도서관: 보유장서 66,500권, 비도서자료 7,256점

· 사회교육기관: 학원 17, 교습소 2, 개인과외교습소 6, 공공법인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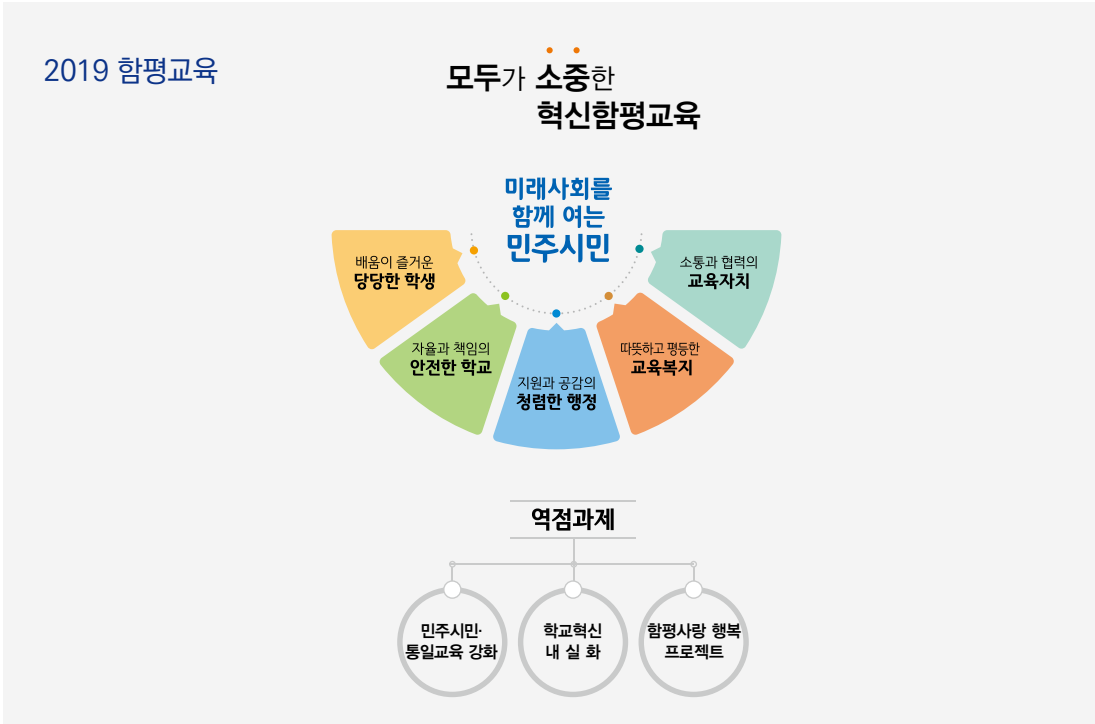
학교별 현황

2019. 3. 1. 현재

학교급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	지방공무원
유치원	11	12	95	12	겸임
초등학교	11	84	994	137	52
중학교	7	37	554	97	21
고등학교	4(1)	48(12)	992(267)	10	17
특수학교	1(1)	18(18)	94(94)	36	9
각종학교	1(1)	6(6)	104(104)	15	3
계	35(3)	205(36)	2,829(465)	308	102

※ ( )는 사립학교로 본수에 포함.

고등학교: 4교(일반 2교, 특성화 2교) / 특수학교: 1교(함평영화학교) / 각종학교: 1교(월광기독학교)



함평공공도서관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신기산길 46-12

함평공공도서관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와 교육의 평등한 향유와 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3층 건물로 820.1㎡에 260개의 좌석을 갖추고 있으며, 2019년 현재 66,500권의 도서와 7,256개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연혁〉

1987. 3. 20. 건립추진위원회 결성
1987. 9. 21. 부지확보
1987. 11. 30. 함평공공도서관 착공
1988. 4. 11. 함평공공도서관 준공
1988. 7. 11. 함평공공도서관 개관
2003. 6. 30. 문화강좌실 및 디지털자료실 준공
2003. 7. 28. 문화강좌실 및 디지털자료실 증축
2004. 2. 17. 디지털자료실 개실
2012. 2. 23. 한국도서관상 수상(한국도서관협회)
2012. 3. 27. 3층 어린이자료실 증축 개실

함평의 초등학교 현황

함평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함평읍 내대화길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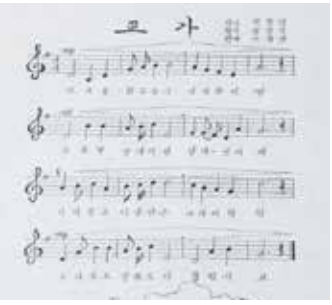
대동면 향교리의 양사제와 기산리(현 기각리) 기산서원에서 양반자제들을 모아 1906년(광무10년) 1월 현재 함평경찰서 앞의 객사에서 함평 지남학교를 열고 학생들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지남학교는 함평군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이었다. 학생들이 1908년(융희 2년) 1월 봉기를 일으키자 폐교되었다가, 1910년 6월 사립 함평보통학교로 개칭하여 재차 개교했다. 대한제국 학부의 인가를 받아 1911년 11월 3일 함평공립보통학교로 개교했다. 1회부터 10회까지는 4년제였고, 11회부터는 6년제였다. 1911년 함평공립보통학교가 세워졌던 자리는 한때 영산강농지개량조합 함평지소로 쓰였다.

1946년 김구 선생이 함평을 찾았을 때 군민들의 열화와 같은 바람으로 함평초등학교 교정에서 강연을 했다. 1964년에는 '고려청자 연구'로 제10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학교 정문 옆의 느티나무는 수령이 55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측되며, 현재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연혁〉

1906. 1. 1. 지남학교 개교
1908. 1.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다 폐교
1910. 6. 1. 사립함평보통학교로 개칭하여 인가
1911. 11. 3. 함평공립보통학교로 개교
1938. 3. 1. 함평북공립심상소학교로 교명 개칭
1941. 4. 1. 함평북공립국민학교로 교명 개칭
1941. 11. 1. 함평대화공립국민학교로 교명 개칭
1948. 3. 1. 함평공립국민학교로 교명 개칭
1950. 4. 1. 함평국민학교 개칭
1995. 3. 6. 함평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1996. 3. 1. 함평초등학교로 개칭
2012. 2. 17. 제100회 졸업(총 15,475명 졸업)
2018. 9. 1. 제31대 교장 정병헌 부임
2019. 2. 15. 제107회 졸업(총 16,027명 졸업)





통폐합 – 함평초등학교장년분교장 (함평서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함평읍 장년길 40

〈학적관리학교〉 함평초등학교

〈연혁〉

1937. 백년 사립학원 설치

1942. 4. 1. 함평대화공립초등학교장년분교장 설립인가

1946. 4. 1. 함평서공립국민학교로 승격인가

1946. 9. 1. 함평서공립국민학교 개교

1996. 3. 1. 함평서초등학교로 교명변경

2000. 3. 1. 함평초등학교장년분교장으로 격하, 개편

2004. 3. 1. 함평초등학교에 통폐합





통폐합 – 함평북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913

2008년 개봉한 영화 「4요일」의 촬영장소로 활용되기도 했다. 영화는 인터넷 자살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살'을 위해 폐교에서 만나면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학적관리학교〉 함평초등학교

〈연혁〉

1962. 12. 31. 함평국민학교 영풍분교 설치인가

1963. 12. 3. 함평국민학교 영풍분교 개교

1964. 3. 2. 함평북국민학교 인가

1981. 3. 10. 함평북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설립

1996. 3. 1. 함평북초등학교로 교명 개명

1997. 2. 21 제32회 졸업식 (남4명, 여3명 누계 2081명)

1997. 3. 1. 함평초등학교에 통폐합

통폐합 – 성남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함평읍 성남리 215

〈학적관리학교〉 함평초등학교

〈연혁〉

1936. 4. 1. 함평공립보통학교 부설 성남간이학교로 개교

1938. 3. 1. 총독령 제24호 규정에 의거 함평공립심상소학교성남간이학교로 개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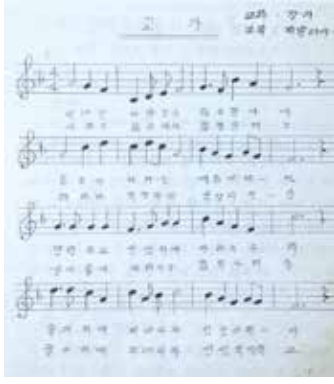
1941. 3. 30. 총독령 90호에 의거 성남공립국민학교로 개칭

1945. 4. 1. 성남국민학교로 개칭

1996. 3. 1. 성남초등학교로 교명 개명

2002. 3. 2. 함평초등학교에 통폐합

통폐합 – 석성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200-19

〈학적관리학교〉 함평초등학교

〈연혁〉

1971. 6. 5. 함평서국민학교 석성분교 설립인가

1972. 3. 1. 함평서국민학교 석성분교 개설

1979. 3. 3. 석성국민학교로 독립개교

1984. 3. 1. 84학년도 1학년 입학, 7학급 편성

1984. 6. 12. 석성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개교

1998. 3. 2. 학생 수 감소로 4학급 편성

1996. 3. 1. 석성초등학교로 교명 개명

1999. 2. 19. 제20회 졸업식(누계 559명)

1999. 9. 1. 함평초등학교에 통폐합





1968년 당시 학교와 제2회 졸업식

1968년 기산초등학교가 개교할 무렵 주변엔 온통 초가집이었다.

기산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63

1968년 3월 1일 설립인가를 얻어 함평초등학교부터 분리되어 11월 5일 개교했다. 분리 당시 13학급을 편성했다. 북동쪽은 대동면과 접해 있고 남서쪽으로 함평읍 내교리에 접하고 있다. 서쪽에는 기산봉과 동쪽에는 영수천이 흐르고 있어 함평의 명소인 기산 영수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기산초등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좌측에 고인돌(지석묘)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기산초등학교는 과거 기산사(舊 유애사)가 세워졌던 자리로 알려져 있다. 기산사는 광해군의 인목대비 폐출을 지지하는 이 지역 선비들의 상소를 막았던 함평현감 동호 박정원을 제향하는 사우로 1705년(숙종 31년)에 건립하였던 유적이었으나 현재는 유허만 남아 전한다. 기산초등학교에는 사우에 대한 아무런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연혁〉

1968. 11. 5. 기산국민학교 개교
1996. 3. 1. 기산초등학교로 개칭
1997. 3. 10. 기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2019. 2. 15. 제50회 졸업(2명, 졸업생 총수 2,886명)
2019. 9. 1. 제18대 교장 서종기 부임



1986년 학사보고

손불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손불면 손불중앙길 121

학교가 위치한 마을은 저전(楮田: 닥나무를 심은 밭) 혹은 수문리라고 부른다. 마을 옆 나주임씨 선산을 풍산이라 하는데 쥐혈이라서 자손이 번창한다는 일화가 있다. 1927년 개교한 손불초등학교는 2016년 전라남도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2017년에는 제15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연혁〉

1926. 10. 1. 손불공립보통학교 인가
1927. 4. 25. 손불공립보통학교 개교

1938. 4. 1. 손불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
1945. 손불국민학교
1981. 1. 16. 병설유치원 개원
1996. 3. 1. 손불초등학교로 개칭
2018. 9. 1. 제28대 교장 김철성 부임
2019. 2. 14. 제89회 졸업식(누계 : 6007명)

통폐합 – 손불남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손불면 남교길 11
〈학적관리학교〉 손불초등학교
〈연혁〉
1967. 9. 1. 손불국민학교 석산분교 인가
1968. 9. 18. 손불국민학교 석산분교 개교
1969. 9. 8. 손불남국민학교 인가
1996. 3. 1. 손불남초등학교로 교명 개명
1999. 3. 1. 손불초등학교로 통폐합

통폐합 – 손불초등학교용암분교장 (손불동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손불면 죽암리 709번지

1962년 도로가 개설됨과 동시에 마을 동쪽 300m 지점, 도로변 달걀봉 중턱에 용암 김남국이 그 아들 영식 영진 영희의 힘을 빌어 용암분교장을 유치하였고, 1963년 손불동초등학교로 승격되었다. 한때는 5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하다가 1994년 9월 1일자로 손불초등학교 용암분교로 편입되었고,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1996년 3월 1일자로 손불초등학교용암분교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유지되었다. 2005년 3월 1일 손불초등학교에 통폐합되었다. 교정 앞에는 마을주민들이 설립유공자를 위해 세운 '용암 김남국 흥학비'가 서있다.



〈학적관리학교〉 손불초등학교

〈연혁〉

1962. 손불국민학교 용암분교 인가
1963. 6. 30. 손불동국민학교 인가
1963. 10. 10. 손불동국민학교 개교
1984. 6. 11. 병설유치원 개원
1988. 1. 1. 도서벽지형 급식학교 인가
1994. 9. 1. 손불국민학교 용암분교로 격하 편입
1996. 3. 1. 손불초등학교용암분교장으로 명칭 변경
2005. 3. 1. 손불초등학교로 통폐합


학교 전경

손불서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손불면 양재길 15

1941년 손불국민학교 부설 월천간이학교로 개교했다. 학교가 있는 마을은 월산이라고 부른다. 옛날 도를 깨친 승려가 마을이 반달 모양이라 월산이라 이름 지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마을 뒷산은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형국이라서 복호산(伏虎山)이라 부른다. 6·25 전쟁 중 학교가 소각을 당하는 참변을 겪었는데, 주민들은 호랑이가 외출하고 없었기에 이런 참변을 당했다고 한다. 2016년에는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선정되었다.

〈연혁〉

1941. 5. 12. 손불국민학교 부설 간이학교 개교
1943. 손불서소학교
1945. 9. 28. 손불서국민학교 개교
1996. 3. 1. 손불서초등학교로 개명
2013. 9. 1. 제22대 교장 정대성 부임
2014. 1. 8. 전라남도교육청 지정 무지개학교(4년간)
2016. 12. 9. 제14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우수학교 선정
2017. 9. 1. 제23대 교장 김영섭 부임
2019. 2. 15. 제70회 졸업 (총 4,194명)
2019. 3. 4. 2019학년도 1학년 입학 남2명, 여3명 계5명

신광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신광면 신광중앙길118

함평초등학교와 나산초등학교에 이어 함평에서는 세 번째로 세워진 학교다. 학교가 위치한 가야마을은 1789년 호구 총수 지명에도 나오는데 유래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런데 가야라는 마을 이름은 외지 사람에게는 생소하고 '사납장'이란 이름이 더 친근감을 준다. 성시를 이루어 흥청거리던 유명한 '사납장'은 폐장된 지 오래다.



1962년 졸업사진

〈연혁〉

1921. 10. 25. 계천공립보통학교 개교
1941. 4. 1. 신광공립국민학교로 개칭
1981. 3. 1. 신광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1996. 3. 1. 신광초등학교로 개칭
1998. 4. 1. 신광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발족
2018. 3. 1. 제34대 교장 장융기 부임
2019. 2. 15. 제94회 졸업(총 졸업생수 7,178명)

통폐합 – 신광초등학교함정분교장 (신광북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일강로 935-5
〈학적관리학교〉 신광초등학교
〈연혁〉

1964. 10. 10. 신광국민학교 함정분교 개설
1970. 3. 1. 신광북국민학교로 승격
1987. 3. 1. 신광국민학교 함정분교로 격하
1988. 3. 1. 신광국민학교로 통폐합

통폐합 – 신광초등학교동정분교장 (신광서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군유로 442

〈학적관리학교〉 신광초등학교

〈연혁〉

1939. 6. 1. 신광공립보통학교 부설 간이학교로 개소

1945. 8. 15. 신광서국민학교로 승격

1950. 11. 30. 6.25전쟁으로 교실 전소

1959. 4. 25. 전 교사 보수 공사

1991. 3. 1. 신광국민학교 동정분교로 격하

1995. 3. 1. 신광국민학교로 통폐합



학다리중앙초 1회 졸업사진

학다리중앙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학교면 백학길 100

1923년 개교한 학교공립보통학교는 학교면 내의 여러 초등학교의 모태가 된다. 학교공립보통학교는 금송간이학교, 금곡간이학교, 월송공립학교 등 3개의 학교를 관할하게 되는데, 이 학교들은 각각 학교남초등학교, 학교북초등학교, 월송초등학교가 되었다.

한편 학교공립보통학교는 학다리중앙초등학교로 개칭한 후, 학다리초등학교, 영창초등학교와 통합해 학다리중앙초등학교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학다리초등학교가 있었던 곳으로 학교를 옮겼다. 과거 학다리중앙초등학교는 현재 위치에서 3Km정도 떨어진 국도1호선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었다. 학다리중앙초등학교는 2016년 전라남도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됐고, 2017년에는 제15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연혁〉

1923. 8. 1. 학교공립보통학교 인가

1923. 11. 1. 학교공립보통학교 개교

1938. 3. 31. 학교동공립심상학교 개칭

1941. 4. 31. 학교동공립국민학교 개칭

1949. 3. 2. 학다리중앙공립국민학교 개칭

1950. 4. 1. 학다리중앙국민학교로 개칭

1984. 6. 8. 학다리중앙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1996. 3. 1. 학다리중앙초등학교로 개칭

2008. 9. 1. 학다리초등학교 통폐합

2009. 9. 1. 영창초등학교 통폐합

2009. 12. 18. 학다리중앙초등학교 신교사 준공식

2019. 2. 15. 제92회 졸업식 졸업생 : 19명(총 6,755명 배출)

2019. 3. 1. 제31대 교장 김병남 부임

통폐합 – 학다리초등학교금송분교장 (학교남초등학교)

〈소재지〉 중천포로 510

〈학적관리학교〉 학다리중앙초등학교

〈연혁〉

1938. 7. 1. 금송간이학교 설립인가

1944. 4. 1. 학교남공립학교로 개칭

1950. 6. 1. 학교남국민학교로 개칭

1984. 3. 3. 학교남병설유치원 인가

1989. 9. 1. 벽지학교 지정

1991. 2. 4. 급식학교 지정

1996. 3. 1. 학교남초등학교로 개칭

1997. 3. 1. 학다리초등학교금송분교장으로 격하(학다리초 편입)

2000. 3. 1. 학다리중앙초등학교금송분교장으로 개칭(학다리중앙초로 통폐합)



학교남초 교기

통폐합 – 학다리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학교면 백학길 100

〈학적관리학교〉 학다리중앙초등학교

〈연혁〉

1946. 6. 1. 학다리서공립학교 설립 인가

1946. 6. 4. 학교면 학교리 445번지에서 개교

1947. 5. 1. 학교면 사거리 467번지로 학교 위치 변경



학교명패

1949. 2. 15. 학다리중앙국민학교와 병합
1952. 5. 1. 학다리서국민학교로 재인가
1952. 6. 4. 학교면 학교리 585번지에 재 개교
1966. 1. 10. 학다리국민학교로 교명 개칭
1981. 3. 1. 학다리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인가
1981. 3. 10. 병설유치원 개원
1983. 3. 1. 특수학급 설치
1996. 3. 1. 학다리초등학교로 교명 개칭
2008. 9. 1. 학다리중앙초등학교로 통폐합



영창초등학교 교기

통폐합 – 영창초등학교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 182
〈학적관리학교〉 학다리중앙초등학교
〈연혁〉
1969. 3. 1. 학다리국민학교 영창분교 설립인가
1970. 3. 1. 영창국민학교 설립인가
1987. 3. 15. 영창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1992. 10. 25. 도 지정 과학교육 시범학교 발표회
1996. 3. 1. 영창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2004. 10. 31. 군 지정 소규모 협동교육 시범학교 발표회
2009. 3. 1. 제15대 교장 최봉초 부임
2009. 9. 1. 학다리중앙초등학교로 통폐합

통폐합 – 학다리중앙초등학교복천분교장 (학다리동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고막천로 804
〈학적관리학교〉 학다리중앙초등학교
〈연혁〉
1957. 4. 7. 학다리동공립학교 인가

1957. 6. 11. 학다리중앙국민학교로부터 1,2,3학년 3학급 인수
1958. 4. 1. 학다리중앙국민학교로부터 5,6학년 2학급 인수
1992. 9. 1. 학다리중앙국민학교 복천분교로 격하
1994. 3. 1. 학다리중앙국민학교로 통폐합



학다리동초 교기

통폐합 – 학다리중앙초등학교신성분교장

〈소재지〉 도로명주소 영산로 3925
〈학적관리학교〉 학다리중앙초등학교

음성 나환자 자녀들을 교육하는 특수 목적으로 1976년 개교했다가, 2003년 마지막 재학생 1명이 졸업하면서 폐교되었다.

〈연혁〉
1976. 3. 1. 학다리동국민학교 신성분교 개교
1992. 9. 1. 학다리중앙국민학교 신성분교 (학다리중앙초 편입)
1996. 3. 1. 학다리중앙초등학교신성분교장으로 명칭 변경 (학다리중앙초 편입)
2003. 2. 28. 학다리중앙초등학교로 통폐합

엄다초등학교


엄다초등학교 교문

〈소재지〉 함평군 엄다면 엄다길 35

학급편성이 가장 많았을 때는 1969년으로 28학급이 운영되었다. 점차 학생 수가 줄어 2019년 현재 전교생이 30명이다. 엄다초등학교 정문 옆에는 엄다중학교 설립자 동상이 서 있다. 엄다중학교가 폐교되면서 이곳에 옮겨진 동상이다.

〈연혁〉
1926. 9. 25. 엄다공립보통학교 개교(4년제)
1938. 3. 15. 엄다심상소학교로 개칭(6년제)
1941. 엄다공립국민학교로 개칭
1950. 4. 1. 엄다국민학교로 개칭

1981. 3. 1. 유치원 1학급 편성
1996. 3. 1. 엄다초등학교로 개칭
2018. 3. 1. 제29대 교장 최경애 부임
2019. 2. 15. 제90회 졸업(졸업생 총수 7,583명)



엄다남국민학교
20회 졸업기념사진
(1978. 2. 10.)

통폐합 – 엄다초등학교영흥분교장 (엄다남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엄다면 곤재로 856-7
〈학적관리학교〉 엄다초등학교
〈연혁〉
1955. 9. 20. 엄다국민학교 영흥분교 인가
1955. 11. 19. 분교장 1학급 개교
1956. 11. 9. 엄다남국민학교로 승격
1986. 엄다국민학교 영흥분교로 격하
1992. 3. 1. 엄다국민학교로 통폐합

대동향교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6-9

향교리는 함평향교가 자리하고 있어 불러진 지명이다. 전라남도유형문화제 제113호인 함평향교가 있고, 대동향교초등학교가 있다. 대동향교초등학교 앞에는 느티나무와 팽나무, 개서어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16년 '제16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공존상을 수상했다.

〈연혁〉
1945. 6. 1. 향교국민학교 설립 인가
1945. 9. 1. 향교국민학교 개교
1981. 9. 1. 향교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1996. 3. 1. 향교초등학교로 개칭
2006. 3. 1. '향교초등학교'에서 '대동향교초등학교'로 학교명 변경

2017. 9. 1. 제22대 교장 고영운 부임

2019. 2. 15. 69회 졸업식(졸업자: 12명, 졸업생 누계: 4,083명)



통폐합 – 대동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대동면 학동로 934

〈학적관리학교〉 대동향교초등학교

〈연혁〉

1932. 3. 25. 함평공립보통학교 용성간이학교 인가

1932. 6. 1. 함평공립보통학교 용성간이학교 개교

1943. 4. 1. 대동북공립국민학교 승격

1946. 4. 1. 대동북국민학교 교명 개칭

1950. 10. 15. 6.25동란으로 전교사 손실

1951. 6. 1. 대동남,북교 병합

1951. 6. 1. 대동국민학교 교명 개칭

1983. 3. 5. 대동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설립(1학급)

1996. 3. 1. 대동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1999. 2. 19 제53회 졸업장 수여식(3,742명)

1999. 9. 1. 향교초등학교로 통폐합

통폐합 – 한골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대동면 서호리

1982년 목포 상수원 대동댐이 완공되면서 은행정, 분매동, 수현, 수암, 호암 마을 등이 수몰되면서 한골초등학교도 함께 물에 잠겼다.

〈학적관리학교〉 대동향교초등학교

〈연혁〉

1963. 3. 1. 대동국민학교 연암분교 설립(인가)

1963. 7. 1. 대동국민학교 연암분교 개교(4학급 편성)

1964. 4. 1. 한골국민학교로 승격

1982. 3. 1. 수몰로 폐교

통폐합 – 대동초등학교서호분교장



대동초등학교서호분교장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서호리 243

1992년 폐교되고, 지금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운영중이다.

〈학적관리학교〉 대동향교초등학교

〈연혁〉

1982. 3. 1. 대동국민학교 서호분교로 격하

1992. 3. 1. 대동국민학교로 통폐합

통폐합 – 대동향교초등학교대신분교장 (대광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대동면 학동로 1215-64

대동초등학교와 신광초등학교에 취학하기에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대동과 신광

의 경계인 현 위치에 설립하게 됨. 대동의 '대'자와 신광의 '광'을 따서 '대광'이라고 지었으며 온 세상에 크게 빛나라는 뜻이다.

〈학적관리학교〉 대동향교초등학교

〈연혁〉

1967. 9. 9. 대동국민학교 대광분교로 개교

1968. 7. 23. 대광국민학교 설립인가(6학급)

1998. 2. 21. 제28회 최종졸업

1998. 3. 1. 대동초등국민학교대신분교장로 격하

1998. 6. 5. 대광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설립 인가(1학급)

1999. 9. 1. 향교초등학교대신분교장 (향교초 편입)

2008. 3. 1. 대동향교초등학교로 통폐합

통폐합 – 향교초등학교동암분교장 (월송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337

학다리중고등학교를 설립한 오원거씨가 기초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동암에 사재를 털어 월송공립국민학교를 세웠다. 해방 후 월송초등학교로 개칭되면서 국가에 헌납하였다. 1992년 폐교된 이후 함평학생의집으로 운영되었다.

〈학적관리학교〉 대동향교초등학교

〈연혁〉

1941. 6. 13. 월송공립국민학교 설립인가

1941. 6. 16. 월송공립국민학교 개교(1학급 편성)

1947. 4. 11. 교장관사 1동 신축

1984. 6. 23. 병설유치원(1학급) 개원

1991. 3. 1. 향교국민학교 동암분교로 격하

1992. 2. 18. 제45회 졸업식(졸업생 1,437명)

1992. 3. 1. 향교국민학교로 통폐합



월송초등학교 표창패
(1984. 2. 10.)

통폐합 – 향교초등학교금곡분교장 (철성초등학교)



나산초 학교신문 2002년

〈소재지〉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637

금곡 상옥리 학구민의 요청에 따라 1934년 4월 30일에 학교공립보통학교 금곡간이학교로 인가를 받아 1947년 3월 31일에 학교북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1973년 7월 1일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학교면에서 대동면으로 편입되었고 같은해 10월 10일자로 철성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학적관리학교〉 대동향교초등학교

〈연혁〉

1934. 4. 30. 학교공립보통학교 금곡간이학교 설립(인가)
1934. 7. 30. 학교공립보통학교 금곡간이학교 개교
1947. 3. 31. 학교북국민학교 승격
1967. 1. 10. 벽지학교 지정
1972. 12. 31. 벽지학교 해제
1973. 4. 5. 철성국민학교로 개칭
1989. 3. 1. 월송국민학교 금곡분교로 격하
1991. 3. 1. 향교국민학교 금곡분교 (향교국민학교로 편입)
1996. 2. 16. 제47회 졸업식(졸업생 1,176명)
1996. 3. 1. 향교초등학교로 통폐합

나산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나산면 함장로 2441-8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지만 지역에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없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함평군에서는 두 번째로 역사가 깊은 학교다.

〈연혁〉

1920. 9. 13. 나산공립보통학교 (4년제) 인가
1928. 4. 1. 나산공립보통학교 (6년제) 인가
1938. 6. 1. 나산동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
1940. 6. 10. 나산리에서 현 위치로 학교 이전
1941. 나산동공립초등학교로 개칭
1996. 3. 1. 나산초등학교로 개칭

2006. 10. 15. 다목적 강당 '나산관' 개관
2007. 10. 17. 도서관 '지혜의 샘터' 개관
2009. 3. 25. 나산영어체험교실 개관
2019. 2. 15. 제96회 졸업(총 졸업생 8,255명)
2019. 9. 1. 제29대 교장 김광식 부임

통폐합 – 나산초등학교송암분교장 (나산동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나산면 월암로 1421

마을 뒤에 송죽림이 무성하게 자라 두루미가 철따라 서식함으로써 '송학(松鶴)'이라고 불리었다가 이 철새가 떠나고 온 마을에 오죽(烏竹)이 무성하여 한때는 '죽천동(竹天洞)'이라 불리어지기도 했으며 '죽동', 도는 '죽리'로 불리어지다 지금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오죽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마을 입구에 1967년 나산동초등학교가 개교했으나, 학생수 감소로 1996년 폐교됐다.

〈학적관리학교〉 나산초등학교

〈연혁〉

1966. 11. 3. 송암분교 설립인가
1967. 나산동국민학교 개교
1989. 3. 1. 나산국민학교 송암분교로 격하
1995. 3. 1. 나산국민학교로 통폐합

통폐합 – 나산초등학교구산분교장 (나산서초등학교)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구산원선길 17

〈학적관리학교〉 나산초등학교

〈연혁〉

1961. 5. 8. 구산분교 설립인가
1963. 3. 15. 나산서국민학교 개교
1993. 나산국민학교 구산분교로 격하
1995. 3. 1. 나산국민학교로 통폐합

통폐합 – 나산북초등학교

〈소재지〉 나산면 초포리 377-2

〈학적관리학교〉 나산초등학교

〈연혁〉

1968. 5. 23. 나산국민학교 초포분교 개교

1969. 3. 1. 나산북국민학교 개교

1995. 3. 1. 나산국민학교로 통폐합

통폐합 – 이문초등학교



이문초등학교 전경

〈소재지〉 나산면 이문리 884

〈학적관리학교〉 나산초등학교

〈연혁〉

1934. 4. 15. 이문간이학교 인가

1946. 4. 15. 이문국민학교 인가

1996. 3. 1. 나산초등학교로 통폐합

해보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해보면 해삼로 313

해보면은 1919년 4월 8일 함평에서는 처음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지역이다. 지역민들이 뜻을 모아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했다.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까지 18회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1950년 12월 5일 공비 방화로 학교 건물이 모두 불에 타버리고 학적부가 소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2016년에는 전라남도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연혁〉

1927. 4. 1. 해보공립보통학교 설립(인가)

1930. 9. 5. 해보공립보통학교 개교

1950. 12. 5. 공비방화로 인한 전소

1969. 11. 15. 해보국민학교 중앙분교 설치
1981. 3. 10. 해보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1983. 3. 1. 특수학급 개설
1996. 3. 1. 해보초등학교로 개칭
2018. 2. 19. 제86회 졸업 (졸업생 총수 : 6,392명)
2018. 9. 1. 제33대 교장 박소영 부임

통폐합 – 해보중앙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148
〈학적관리학교〉 해보초등학교
〈연혁〉
1969. 3. 5. 해보국민학교 중앙분교로 설립
1969. 10. 25. 개교 6학급
1971. 3. 1. 해보중앙국민학교로 승격
1982. 3. 1. 병설유치원 설립 인가
1997. 3. 1. 해보초등학교에 통폐합

통폐합 – 해보초등학교오두분교장(해보서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해보면 대각리 538
615m 불갑산 밑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 1940년 4월 1일 간이학교가 개교 했다. 1949년 공비의 만행으로 교사가 전부 불에 타고 휴교했는데, 6년 만에 다시 복교하여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다.
〈학적관리학교〉 해보초등학교
〈연혁〉
1940. 4. 1. 오두간이학교 개교 인가
1945. 4. 1. 해보서국민학교 승격
1949. 10. 1. 공비방화로 인한 전소
1955. 3. 5. 복교 (6년 5개월만에 복교)

1961. 2. 10. 교실 신축 정상 수업
1991. 3. 1. 해보국민학교 오두분교로 격하
1993. 3. 1. 해보국민학교에 통폐합

월야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월야면 금석길 95

월야초등학교의 전신인 월야공립보통학교는 1925년 6월 월야리 평촌(현재 월야중, 전남보건고)마을에 설립되어 개교하였다. 그 이전에는 영광보통학교나 1920년에 설립된 나산보통학교로 통학하거나 서당교육을 받았다. 개학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각 마을 서당을 찾아다니며 학생들을 모집하러 다녔다고 한다. 인근에 있는 해보면은 월야보다 보통학교가 2년 후에 개교하였기 때문에 1회 졸업생은 해보출신이 많았다.

본래 학교가 위치했던 중학교자리에서는 22회를 마지막으로 졸업했다. 1950년 6·25가 나던 해에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불을 질러 교사가 전소되는 바람에 22회 이전 졸업생은 학적부가 없다. 그해 10월 말경에 1회 졸업생이 졸업 기념으로 심은 벚나무 30여 그루가 있었으나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한 채 고사하고 10여 그루만 현재 남아 있다.

그해 12월경, 전쟁의 잔해를 떨치고 지방에 있던 정병록 선생, 정상기 선생, 이은채선생, 정흥선 선생이 집에서 놀고 있던 학생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순촌과 독골(전하뒷산) 진주정씨 제실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교육했다.

1951년 10월 20일 현 위치에 집터를 잡고 산골에 있던 제실을 뜯어와 교실 세 칸을 지었다. 맨 바닥에 멍석을 깔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현 위치의 땅은 일제강점기 전남제사공장 잠실(蠶室)이 있어 뽕나무와 고구마를 심었든 곳으로 관리인이었던 이삼형(李三衡)씨가 기증했다. 그리고 평촌 학교 자리는 당시 개교를 서두르던 중학교에 넘겨 주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전쟁의 참화 속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동시에 탄생하게 되었다.

〈연혁〉

1925. 6. 3. 월야공립보통학교 인가
1925. 10. 20. 월야공립보통학교 개교
1941. 4. 1. 월야국민학교로 개칭

1951. 10. 20. 현 월야중학교 위치에서 현 위치로 이전
1981. 3. 5. 월야국민학교 병설 유치원 개원
1996. 3. 1. 월야초등학교, 월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개칭
2014. 7. 1. 전남혁신학교(무지개학교) 지정
2018. 3. 1. 제28대 교장 문광호 부임
2019. 2. 15. 제91회 졸업식 9명 졸업(8,553명)

통폐합 – 월야초등학교양정분교장 (월야남초등학교)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갈동길 29-9
〈학적관리학교〉 월야초등학교
〈연혁〉
1970. 7. 21. 월야국민학교 월야남분교 인가
1971. 3. 5. 월야국민학교 월야남분교 개교
1975. 3. 1. 월야남국민학교 승격
1994. 3. 1. 월야국민학교 양정분교로 격하
1996. 3. 1. 월야초등학교로 통폐합

통폐합 – 월야북초등학교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월계길 39

1933년에 월야공립보통학교 부설 대야간이학교(大也簡易學校)가 개교하였다. 이 학교의 특징은 취학 연령이 넘은 나이 많은 학생이 입학하여 2년을 수료한 후 본교로 적당한 학년에 편입하여 초등학교과정을 졸업한다는 것이었다. 해방 후에 6년제 월야북국민학교로 학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마을이 생기기 전에 골짜기에서 항상 방아 찧는 소리가 들려 부자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정착했다고 전해오는데, 마을 이름은 방아와는 거리가 먼 방하(方下, 1789년 호구총수 지명) 후에는 방하(芳荷, 1912면)로 표기되었다. 마을에는 '천수갓'으로 부르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학교가 개교하였다. 천수답 가(邊)라는 뜻에서 부르게 된 지명인데 학교가 들어서고 보니 천수가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부르게 됐지 않았나 여겨지고 있다.

〈학적관리학교〉 월야초등학교

〈연혁〉

1933. 3. 10. 월야공립보통학교부설대야간이학교 인가

1933. 6. 10. 월야공립보통학교부설대야간이학교 개교

1943. 4. 1. 월야공립심상소학교 부설 대야간이학교로 개칭

1949. 10. 1. 월야북국민학교 개칭

1996. 3. 1. 월야북초등학교로 개칭

1999. 9. 1. 월야초등학교로 통폐합

통폐합 – 월야초등학교광동분교장 (광동초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월야면 예동길 141

〈학적관리학교〉 월야초등학교

〈연혁〉

1971. 3. 1. 월야북국민학교 광동분교 개교

1976. 3. 1. 광동국민학교 승격

1994. 3. 1. 월야국민학교 광동분교로 격하

1996. 3. 1. 월야초등학교로 통폐합

기타〈1〉 – 광신학교, 신정학교, 오산학교, 평안학원

일제강점기 신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함평지역은 남아있는 기록이 많지 않다.

하나의 기록이 광신학교에 대한 기록이다.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6일자 기사에 따르면, 함평군 신광면 송계 광신학교는 경비가 군출하여 폐교의 처지에 이르렀더니, 이 마을에 거주하는 이진규씨가 재정을 전담하여 영원유지하기로 결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사의 근거해보면 1910년 당시 신광면에는 광신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하나의 기록은 신정학교에 대한 기록이다. 1920년 3월 26일 만세시위에 참여했던 김재문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는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20년 5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1922년 9월부터 1925년 11월까지 함평군 손불면 동암리에 건립된 사설 신정학교 교장으로 재임하며 후학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 군자금을 모금하는 등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고 한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오산학교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다. 나산면 이문리에는 이문간이학교가 있었고 증산사 강당자리에는 오산학교라고 하는 사립학교가 있었다. 두 학교는 반목과 질시가 심했었다. 간이학교는 일제가 정식으로 인가한 학교이고 오산학원은 겉으로는 일제에 순응하면서도 민족정신이 투철한 민족교육의 선구자인 김금남의 설립이념을 받들었기 때문이다.

학교면의 평안학원은 국가에서 정식인가를 받은 간이학교가 아니고, 1937년 노경수 선생이 사재로 세운 사설학원이다. 처음에는 청정마을에다 교실 2칸을 신축하여 개설하고 수업을 하다가 1940년경에 학다리 구 장터로 이전하여 경영하였다. 해방이 되고 일본인학교인 함평서국민학교(현재 함평골프고 자리)가 비우게 되자 그곳으로 이사해 수업을 하였다. 1946년 학다리서공립학교가 설립되면서 1947년 문을 닫았다.

기타〈2〉 – 기산학교, 함평남국민학교, 학교서공립국민학교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일부 학교가 있다. 1925년 4월 1일 함평공립보통학교 부설 기산학교가 분리 개교하는데 짧은 역사를 남기고 1928년 폐교된다.

현재 함평교육지원청 자리에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다니던 함평남국민학교가 있었는데 1949년 6월 20일 폐교되었고, 이 자리는 함평경찰서로 사용되다가 1955년 함평여자중학교가 세워지게 된다.

1940년 일본인학교로 학교서공립국민학교가 개교한다. 당시 위치는 현재 함평골프고등학교 자리였는데 해방이 되면서 학교가 자리를 비우자 이 자리에는 평안학원이 들어온다. 그리고 다시 1946년 6월 학다리서공립학교(학다리초등학교)가 개교하고, 1947년 5월 이 자리로 옮긴다.

함평의 중학교 현황



철거 전 함평중학교

함평중학교

〈소재지〉 함평군 함평읍 영수길 275

함평중학교는 1929년 공립농잠실수학교로 개교하여 함평중학교로 개칭하였고, 이후 함평중학교와 함평실업고등학교가 분리하였다. 원래는 현 함평학다리고등학교 자리에 있었다. 2017년 9월 1일 함평중학교, 학다리중학교, 나산중학교가 통합하여 함평중학교가 만들어지면서 현재 위치로 이설했다.

〈연혁〉

1929. 9. 25. 공립농잠실수학교 개교
1951. 9. 25. 함평중학교로 교명 변경
1994. 9. 1. 함평중, 함평실고 통합
1996. 9. 1. 함평중, 함평실고 분리
2017. 9. 1. 통합 함평중학교 개교(함평중, 학다리중, 나산중)
2018. 3. 1. 제28대 교장 권도현 부임
2019. 2. 15. 제89회 126명 졸업(총 졸업생수 15,637명)



나산중학교 1998년 전경

통폐합 – 나산중학교

〈소재지〉 함평군 나산면 함장로 2441-96

1961년 이곳에 나산고등공민학교가 개교했다. 적정규모학교 재배치사업에 따라 2014년 공립학교로 전환되었고, 2017년 함평중과 나산중, 학다리중 3개 학교가 통합하여 함평중으로 개교하였다. 이 자리에는 2018년 나산실용예술중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학적관리학교〉 함평중학교

〈연혁〉

1961. 4. 20. 나산중학교 개교·초대교장 김동식 선생 부임
1966. 11. 19. 학교법인 실림학원 설립인가·초대 이사장 나승옥 여사 부임
2014. 3. 1. 나산중학교 공립학교 전환
2017. 9. 1. 함평중학교 개교(함평중, 나산중, 학다리중 통합)

통폐합 – 학다리중학교

〈소재지〉 함평군 학교면 학교길 77

개교 당시 이 지역과 인근에는 초등학교만 있을 뿐 중학교가 없었으므로 중등학교 진학을 할 수가 없었다.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광주나 목포 등지의 도시로 유학시키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당시의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 일지라도 도시로 자식을 유학시킨다는 것은 집안 살림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많은 독지가들은 자식을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해도 진학시키지 못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서러움을 씻어주고, 이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의 동량을 양성하기 위한 중학교 설립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은 주민 모두가 사정에 따라 조금씩 재산을 헌납하여 이곳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뜻 있는 독지가들과 주인들이 앞 다투어 논과 밭을 제공하거나 곡식 등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1945년 12월 5일 학교 초급 중학교를 설립하여 개교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세운 진정한 민립(民立) 학교였던 것이다.

〈학적관리학교〉 함평중학교

〈연혁〉

1945. 12. 5. 학교 초급중학교 개교
1946. 9. 30. 학교 초급중학교 설립인가, 수학연한 3년
1947. 8. 18. 재단법인 학교의숙 설립인가
교명 및 학칙 변경 인가, 학다리중학교 수학연한 6년
1950. 5. 27. 학다리중학교 학칙 변경 인가, 수학연한 4년
1951. 8. 31. 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 개편
학다리중학교 6학급 편성, 수학연한 3년
2017. 3. 1 학다리중학교, 학다리고등학교 공립학교 전환
2017. 9. 1 함평중학교 개교(함평중, 나산중, 학다리중 통합)

통폐합 – 엄다중학교

〈소재지〉 함평군 엄다면 신송길 6

천보배 선생과 김만 여사는 1971년 4월 24일 이곳에 엄다중학교를 설립했다. 엄다면민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79년 엄다중학교에 설립자 동상을 세웠다. 하

지만 2002년 엄다중학교가 폐교되면서 학교는 물론 동상 또한 관리되지 않아 동상의 훼손이 심각해졌다. 폐교된 학교에 동상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안타까워 한 후손들이 지난 2006년 새롭게 제작해 인근 엄다초등학교에 동상을 새로 세웠다.

〈학적관리학교〉 함평중학교

〈연혁〉

1971. 4. 24. 학교법인 학산학원 설립 인가

1971. 12. 29. 엄다중학교 설립 인가(설립자 김만)

1972. 3. 6. 개교

2003. 3. 1. 폐교(학다리중학교로 통폐합)

함평여자중학교



2016년 전경

〈소재지〉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13-7

함평여중은 과거 일본인 학교였던 심상소학교 (현재 함평교육지원청)에서 1955년 개교했다. 일본인들이 다니던 함평남국민학교는 1949년 폐교되었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함평경찰서로 사용되었다. 1970년 12월 22일 정부의 중학교 평준화계획에 따라 학교를 확장 이전하기로 하여 현재 위치로 학교를 옮기고 난 후, 구 함평여중 부지는 1972년 11월 16일부터 함평교육지원청이 사용하고 있다. 함평여중은 현재 부지에 함평여고(여상)와 함께 있었으나, 함평여고가 함평학다리고로 통합 이전되면서 함평여중만이 남아있다.

〈연혁〉

1955. 10. 5. 함평여자중학교 개교(학년당 2학급, 계 6학급)

1979. 12. 28. 함평여자중학교 학급 개설(학년당 7학급, 계 21학급)

2018. 9. 1. 제25대 교장 이지현 부임

2019. 1. 9. 제64회 졸업생 26명(총 졸업생 수 11,053명)

함평월야중학교

〈소재지〉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 695

함평월야중학교가 세워지기 전 이곳에는 월야공립보통학교(월야초등학교)가 위

치해 있었다. 그런데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후퇴하면서 불을 질러 학교가 전소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월야초등학교는 1951년 현재 자리로 옮겼고, 1953년 월야중학교가 이곳에서 개교하였으며, 1973년 함평월야종합고등학교가 월야중학교 부지에 개교했다가, 1983년 현재 위치로 분리 독립해 나갔다. 함평월야중학교는 2015년부터 3년간 교육부 지정 농산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로 선정되어 학교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월야행복관악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로 성장하고 있다.



2019년 9월 21일 함평월야(동)중학교 10회 졸업생들이 학교를 찾아 동창 만남 행사를 가졌다.

〈연혁〉

1953. 4. 7. 월야중학교 인가
1953. 4. 15. 초대교장 김정수 부임 및 개교
1958. 3. 29. 함평동중학교 교명 변경
1971. 3. 1. 함평월야중학교 교명 변경
1983. 3. 1. 월야중, 월야고등학교 분리
2019. 2. 13. 제65회 19명 졸업(총8,993명)
2019. 9. 1. 제25대 교장 정은주 부임

함평손불중학교

〈소재지〉 함평군 손불면 손불중앙길 7-6

함평손불중학교가 위치한 곳은 손불면 대전리 소재마을이다. 원래는 바닷가 상류에 위치한 마을이었는데, 1933년 월천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완전 육지가 된 지역이다. 1920년 면사무소와 더불어 각 기관이 들어서고 상가가 형성되어 손불면의 중심지 구실을 하기 시작했다. 1960년 손불고등공민학교가 인가를 받았고, 1966년 함평서중학교가 개교한 이후 마을은 더욱 번창하고 있다. 1971년 함평손불중학교로 개칭했고, 2016년 제14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2017년
함평손불중학교 전경

〈연혁〉

1966. 12. 15. 함평서중학교 인가(6학급)
1967. 3. 20. 초대 서원삼 교장 부임
1971. 3. 15. 함평손불중학교로 교명 변경
2016. 3. 1. 제16대 교장 최현 부임
2019. 2. 13. 제50회 15명 졸업(총 6,665명 배출)



2016년 함평신광중 축제

함평신광중학교

〈소재지〉 함평군 신광면 덕일길 35

1971년 개교하여 1980년대에는 한해 7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녔지만, 학생 수가 급감하여 2019년 현재 9명이 재학 중이다. 적정규모학교 재배치사업 과정에서 투표를 실시했는데, 학부모와 지역민의 반대로 신광중학교는 적정규모 중학교 육성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8년에는 제7회 전라남도중학생토론대회 동상을 수상하는 등 작지만 큰 꿈을 키워가는 학교다.

〈연혁〉

1971. 1. 16. 함평신광중학교 설립 (9학급 인가)
1971. 3. 9. 개교
2018. 3. 1. 제17대 교장 이현녕 부임
2019. 1. 4. 제46회 졸업생 7명 배출(졸업생 총수 4,280명)

함평해보중학교

〈소재지〉 함평군 해보면 해삼로 298

함평해보중학교 뒤편에 자리 잡은 마을은 주현마을이라고 부른다. 마을 주위가 호수며 현재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떠 있는 배의 형국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매년 정월 보름에 당산제를 지내는데 수령 400년이 넘는 소나무를 할아버지 당산, 함평해보중학교가 있는 천재등의 고목을 할머니 당산이라 부르며 제를 모셨으나 지금은 할아버지 당산에만 제를 올린다. 함평해보중학교가 위치한 마을은 백토마을이라고 부르는데, 마을 뒤편 천재등에서 하얀색의 고령토가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천재등은 함평해보중학교가 있는 등성이로 배의 화물창고다. 또 '사제등'이라고도 부르는데 학교가 서고 보니 '사제등(師弟嶝)'과 맞아 떨어지는 지명이라고 한다.

함평해보중학교는 1971년 함평신광중학교와 함께 개교했다. 2018년 개교한 나산실용예술중학교와 월광기독학교를 제외하면 함평에서는 가장 뒤늦게 개교한 중학교다.

〈연혁〉

1971. 1. 16. 함평해보중학교 설립인가 (9학급)

1971. 2. 2. 초대 유윤 교장 부임
1971. 3. 9. 개교
2018. 3. 1. 제18대 교장 박영호 부임
2019. 2. 13 제46회 12명 졸업 (총 4,603명 배출)

나산실용예술중학교

〈소재지〉 함평군 나산면 함장로 2441-96

원래 이 자리는 1961년 나산중학교가 개교했던 곳이다. 적정규모학교 재배치사업에 따라 함평중학교와 학다리중학교, 나산중학교가 통합하여 2017년 9월 함평읍 영수교 인근에 통합 함평중학교가 새롭게 개교하면서 나산중학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8년 3월 이곳 나산중학교 부지에는 나산실용예술중학교가 개교했다.


나산실용예술중학교
학교 전경

〈연혁〉
2017. 12. 4. 설립인가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 1215호)
2018. 3. 1. 초대 교장 정유하 부임
2018. 3. 11. 나산실용예술중학교 개교
2018. 3. 11. 신입생 40명 입학
2019. 3. 3. 2019학년도 신입생 21명 입학

기타 – 광인중학교

해방이후 초등학교나 공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에게 중학교 과정을 교육하도록 하기 위해 세운 학교가 고등공민학교다. 함평 최초의 고등공민학교는 1952년 세워진 광인고등공민학교다. 함평읍교회가 설립했고, 초대교장은 김병두였다. 이후 광인중학교로 교명을 바꾸었고 1983년까지 27회, 1,7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함평의 고등학교 현황



2018년 학교전경

전남보건고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함평읍 영수길 275

전남보건고등학교는 1973년 함평월야종합고등학교로 개교했다. 개교 당시에는 바로 옆 함평월야중학교와 동일 교지 내에 있었다. 1953년 함평월야중학교가 세워진 그곳은 원래 월야공립보통학교(월야초등학교)가 위치했던 곳이다. 그곳에 1953년 월야중학교가 개교했고, 1983년 함평월야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분리하여 현 위치로 이전했고, 2009년 전남보건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꿨다.

〈연혁〉

1972. 12. 26. 함평월야종합고등학교 설립인가
1973. 3. 6. 함평월야종합고등학교 개교
1974. 3. 1. 함평월야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학급인가 6학급
1983. 3. 1. 중학교와 분리 독립 (현위치)
1993. 1. 7. 함평월야종합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2007. 9. 1. 학과개편 (보건간호과 6학급, 의료전자과 3학급)
2008. 9. 10.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2009. 3. 1. 전남보건고등학교 교명변경 (전국단위 특성화고등학교)
2019. 1. 9. 제44회 72명 졸업 (총 4,733명 배출)
2019. 3. 1. 제16대 교장 서승기 부임

함평골프고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학교면 학교길 77

옛날 이곳이 무안군 좌촌면에 속해있을 때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고, 무안군에서는 동쪽에 있는 창고라 하여 '동창'이라하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탐탁지 않게 여겨왔다. 그러던 중 작은 마을 뒷산에 줄줄이 바위산이 있다는 뜻의 이름인 '명암(銘巖)'으로 하였다. 이곳에는 인재양성을 위해 학다리중고등학교가 세워졌는데, 적정규모학교 재배치사업에따라 학다리고와 함평골프고가 부지를 맞바꾸면서 함평골프고가 이곳으로 이전했다.

〈연혁〉

1929. 9. 18. 공립 농잠실수학교 인가
1951. 9. 25. 함평중·농업고등학교로 교명변경
1991. 3. 1. 함평실업고등학교로 교명 및 학칙변경
1994. 9. 1. 중·고 통합
1996. 9. 1. 중·고 분리
2001. 7. 13.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 고시
2002. 3. 1. 함평골프고등학교로 교명 및 학칙변경
2015. 6. 23.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고시
2018. 2. 22. 제67회 28명 졸업(졸업생 총수 6,190명)
2019. 9. 1. 제29대 교장 김연수 부임

함평학다리고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함평읍 영수길 55

주민 모두가 사정에 따라 조금씩 재산을 헌납하여 1945년 12월 5일 학교 초급중학교를 설립하여 개교했다. 초대 이사장에는 지역주민이 뽑은 김태일(金太一) 선생이 추대되었고, 초대 교장은 오만식(吳萬植)선생이 부임하였다. 적정규모학교 재배치사업이 추진되면서 함평여고, 나산고, 학다리고가 통합하여 함평학다리고등학교로 새롭게 태어났다. 한편 함평학다리고등학교와 함평골프고가 부지를 맞바꾸어 지금의 자리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연혁〉

1945. 12. 5. 학교초급중학교 개교
1946. 9. 30. 학교초급중학교 설립 인가
1947. 8. 18. 학다리중학교로 개명
1947. 8. 18. 재단법인 학교의숙 설립 인가 초대 김태일 이사장 취임
1951. 8. 31. 학다리중학교 6학급, 학다리고등학교 6학급으로 분리
2012. 10. 24. 제20대 양한모 이사장 취임
2017. 3. 1. 학다리고등학교 공립 전환
2018. 3. 1. 함평학다리고등학교(학다리고·함평여고·나산고 통합) 새출발
2019. 1. 10. 제68회 166명 졸업 (총 13,474명)
2019. 9. 1. 제11대 교장 김선구 부임



통합 전 예전 학교 정문



학다리고등학교
(학다리중학교)
1회 졸업기념



구 함평여고

폐교 – 함평여자고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13-7

1967년 함평여자상업고등학교로 개교하였다가 1975년 함평여자고등학교로 학교명을 바꾸었다. 함평여자중학교와 동일 교지에 있었으나, 함평여자고등학교가 함평학다리고등학교로 통합되면서 그 자리에는 함평여중만이 남아있다.

〈연혁〉

1967. 3. 5. 함평여자상업고등학교 개교(3학급)
1975. 3. 1. 함평여자고등학교로 교명 변경(9학급)
1995. 3. 1. 함평여중·고등학교 병설 인가
1996. 3. 1. 함평여중·고등학교 분리
2018. 3. 1. 함평학다리고 개교(학다리고, 함평여고, 나산고 통합)



실림학원 설립50주년 기념비

폐교 – 나산고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나산면 함장로 2441-96

나산고등학교는 나산중학교와 동일 교지에 있었다. 나산고는 함평여고, 학다리고와 통합하여 함평학다리고등학교가 되었고, 나산중은 함평중과 통합했다. 나산중고가 자리잡고 있었던 이곳에는 2018년 나산실용예술중학교가 개교했다.

〈학적관리학교〉 함평학다리고등학교

〈연혁〉

1961. 4. 20. 나산중학교 개교 - 초대교장 김동식 부임
1966. 11. 19. 학교법인 실림학원 설립인가 - 초대 이사장 나승옥 여사 취임
1978. 2. 3. 제2대 이사장 김동균 선생 취임
1984. 11. 27. 나산고등학교 설립 인가
2016. 2. 29. 나산고등학교 폐교
2018. 3. 1. 함평학다리고 개교(학다리고, 함평여고, 나산고 통합)

함평고등학교

〈소재지〉 함평군 함평읍 함영로 1584-28

함평고등학교가 위치한 마을은 '화동'인데 원래는 '화표정'이라고 불렀다. 마을이 빛나는 곳이라 하여 불린 이름인데, 사람들이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해피재이'라고 부르는 등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했다. 그래서 '화동'이라 고쳐 부르자고 제안해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함평고등학교는 1985년 화동마을 북서쪽 구릉에 터를 잡고 개교했다.

학교 남서쪽에는 진양리 화동 고분군이 있다. 2001년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30호로 지정되었다. 고분은 산기슭의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해발 86m의 야산이 완경사를 이루며 남쪽으로 내려오는 곳으로 동쪽으로는 함평천 주변에 형성된 평지가 조망되고 서쪽으로는 서해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성 산지가 바라다 보이는 곳이다. 2기의 고분이 동서로 2~3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나란하게 있는데 함평영화학교 운동장이 조성되면서 분구 끝자락 일부가 훼손되었다. 1호분은 동쪽에 있는 대형고분인데 분구의 남쪽과 남동쪽 끝자락에 민묘가 조성되어 있다. 분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20m 내외, 높이 3.3m 내외이다. 2호분은 서쪽에 있는 소형고분으로 분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12~13m이다.

〈연혁〉

1984. 11. 27. 함평고등학교 설립인가
1985. 3. 2. 함평고등학교 개교 (남·여 공학 5학급)
1990. 4. 14. 초대 박상복 이사장 취임
2013. 12. 23. NAVI프로젝트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교육부)
2019. 2. 13. 제32회 졸업식 108명(총 졸업생수 4,877명)
2019. 3. 1. 제10대 교장 양훈 부임
2019. 3. 4. 2019학년도 입학식(89명 입학)



함평고등학교 1회 졸업생

함평의 특수학교 현황



함평교육사 삽화 공모작4
치열한 경쟁 e스포츠대회!
함평영화학교 1학년 **박진형**
지도교사 **강미숙**



함평교육사 삽화 공모작5
마을교육공동체,
행복한 벽화 그리기
함평영화학교 2학년 **김지은**
지도교사 **박선지**



학교 전경

함평영화학교

〈소재지〉 함평군 함평읍 한나리길 10-25

함평영화학교가 자리한 하느리 마을은 예전에는 중량과 대진, 두 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지금의 중량마을은 대진을 말하고 있다. 대진이란 이름은 배 형국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 큰나루에서 붙여진 이름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하느리라는 마을 이름도 큰나루(한나루)에서 변음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마을 앞에 있는 함평천이 지금은 좁은 여울이지만 옛날에는 넓었고 대동면 운교리까지 배가 왕래했다는 전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큰 나루터가 있었음직하다.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절대 부족하고, 복지 및 교육정책은 열악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이 근본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1980년대 우리나라 교육 환경을 보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장애인들의 생산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기본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호국애족(護國愛族)의 길이 될거라는 믿음으로 함평영화학교를 설립하였다.

〈연혁〉

1984. 3. 19. 학교법인 정양학원(正養學園) 설립인가
초대 전명남 이사장 취임
1984. 11. 5. 함평영화학교 설립인가
1985. 1. 12. 초등학교 인가
1985. 3. 16. 중학교 인가
1985. 3. 19. 함평영화학교 개교
1994. 3. 31. 고등학교 인가
1997. 3. 1. 재택순회학급 인가
1999. 5. 3. 유치원 인가
2012. 3. 1. 교육과학기술부 국립특수교육원 지정 장애학생스마트러닝수업모형 개발연구학교 운영
2015. 3. 1. 전승주 교장 부임
2017. 3. 1. 도 지정 SW교육 선도학교 운영/교육부 지정 직업교육중점 연구학교 운영(~2019. 2. 28.)
2017. 12. 20. 전공과 인가

2018. 3. 1. 도 지정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우수학교 선정(2018. 12.)
2019. 2. 15. 유치원 제19회 4명(총 91명), 초등학교 제29회 4명(총 244명), 중학교 제32회 8명(총 337명), 고등학교 제22회 15명(총 290명) 졸업, 전체 졸업생(962명)
2019. 3. 4. 유치원 제20회, 초등학교 제35회, 중학교 제35회, 고등학교 제25회, 전공과 2회 입학

함평의 각종학교 현황

월광기독학교

〈소재지〉 함평군 대동면 함장로 1750-37

2018년 대동면에 대안학교인 월광기독학교가 설립인가를 받고 첫 신입생을 모집했다. 기독교 교단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로, 2017년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중학교 과정을 인가받았다. 고등학교 과정은 비인가 대안학교로 운영 중인데, 2020년 3월 1일부터 학력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연혁〉

2006. 4. 월광대안학교준비위원회 발족
2013. 6. 학교법인 월광학원 설립 승인
2013. 11. 월광기독학교 광주캠퍼스 초등과정 설립 인가
2017. 11. 월광기독학교 함평캠퍼스 중등과정 설립 인가
2018. 8. 함평캠퍼스 중학교 1학년 입학

함평교육상 수상자 현황

함평교육지원청은 함평교육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교직원의 사기와 교육공동체의 교육 참여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함평교육상과 교육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2012년 제1회 함평교육대상은 해보초등학교 교사 김은지가 수상했다. 또한 함평초등학교 교사 조정숙, 대동향교초등학교 교사 이주예, 함평고등학교 교사 양정열, 학다리고등학교 교감 김갑수, 나산고등학교 교사 김미경, 엄다초등학교 주무관 여향희, 신광초등학교 주무관 이은희, 나산초등학교 교무행정사 김민정, 자애의원 원장 조기창 등이 함평교육상을 수상했다.

2013년 제2회 함평교육대상은 나산초등학교 교사 배정옥이 수상했다. 함평교육상은 함평중학교 교사 홍준희, 학다리고등학교 교사 김기태, 함평여자중학교 행정실장 김현아, 동건종합건설 대표 이흥재 등이 수상했다.

2014년 제3회 함평교육상은 함평초등학교 교사 이명철, 학다리중앙초등학교 교사 권태우, 전남보건고등학교 교사 이정현, 함평중학교 교무행정사 이애숙, (사)전국이통장연합회함평군지회장 이이범이 수상했다.

2015년 제4회 함평교육상은 함평초등학교 교사 여주영, 함평여자중학교 교사 고혜진, 나산고등학교 교사 정민섭, 함평월야중학교 행정실장 허행숙, 함평군번영회장 김성모가 수상했다.

2016년 제5회 함평교육상은 함평여자중학교 교사 윤영호, ㈜대명 대표 홍승희가 수상했다.

2017년 제6회 함평교육상은 함평골프고등학교 교사 방준수가 수상했다.

2018년 제7회 함평교육상은 월야초등학교 교사 안경희, 교육지원과 주무관 유경희, 군민 김차현이 수상했다.

2019년 제8회 함평교육상은 월야초등학교 교사 박홍수, 행정지원과 행정팀장 이인천, 손불서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석, 군민 김성미가 수상했다.



2019년도 함평교육상 수상자

咸平

7장
전국 최초 사립학교 기부채납으로 미래를 만들다

함평학다리고등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미래인재 육성

2012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함평지역 학교재배치 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농어촌 소규모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였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였지만, 함평은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학교 소규모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고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당시 교육현장에서는 교과교실제, 다양한 인성교육과 특기 적성 개발 교육 등이 화두로 등장했지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전남의 타 지역에서 거점고등학교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함평의 교육경쟁력이 더욱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었다. 전남에서는 해남고, 무안고, 나주고, 완도고, 고흥고, 보성고, 영광공고, 벌교상고, 도초고 등이 빠르게 거점고 육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다 함평은 중·고등학교가 같은 교지 내에 위치해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함평중학교와 함평골프고가 동일 교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산중학교과 나산고등학교, 학다리중학교와 학다리고등학교, 함평여자중학교와 함평여자고등학교가 함께 있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조심스럽게 재배치 사업 논의가 시작되었고, 거점고등학교 육성으로 양질의 선진화된 교육시스템을 갖춰 지역의 미래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작은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전국 최초의 사립학교 기부채납

논의가 시작되면서 함평여자고등학교와 학다리고등학교, 나산고등학교를 통합해 21학급 규모의 함평지역 거점고등학교로 육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최대 걸림돌은 학다리고등학교와 나산고등학교가 사립학교라는 점이었다.

학다리고등학교는 읍에서 떨어진 학교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1951년에 설립된 15학급 규모의 명문 사학이었다. 또한 나산고등학교 역시 1984년에 설립되어 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인재 육성에 힘쓴 명문사학이었다. 사립학교의 동의 없이 거점고등학교를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험난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2년 7월 10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함평교육 발전계획 교육감 설명회가 열렸다. 8월 16일에는 중학교 통폐합 및 함평여고 폐지안 등 중장기 방안이 도교육청에 제안됐다. 함평중과 함평여중, 함평신광중의 교육여건이 미흡하고 함평여고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이 내용이 9월에 열린 함평교육지원청 교육미래위원회에 보고되었다.

11월 7일, 전라남도교육감과 함평교육장, 학다리중고등학교 양한모 이사장, 교장 면담이 성사되었다. 학다리중·고등학교의 거점고 참여 관련 논의를 위해서였다. 이후 학다리중·고등학교가 재단을 해산하고 공립화를 통해 공립 거점고와 적정규모 중학교 육성 계획에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12월 3일에는 전라남도교육감과 함평교육장, 나산중·고등학교 김동균 이사장, 교장 면담이 이루어졌다. 나산중·고등학교도 뜻을 모아준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전국 최초의 사립학교 기부채납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 재배치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12월 함평교육지원청 교육미래위원회에 보고되었다. 당시 내용에는 함평여자고등학교와 학다리고등학교, 나산고등학교를 통합하여 거점고등학교로 추진하고, 함평중학교와 학다리중학교, 신광중학교를 통합하여 통합 중학교를 세운다는 것이었다.

2013년 1월에는 함평군의회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설명회가 열렸고, 2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75명의 추진위원이 참여하여 4개 소위를 출범시켰다. 2월 10일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홈페이지를 구축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5월 16일 함평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거점고등학교와 통합중학교 추진 계획, 거점고등학교 1차 선정 부지 등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거점고등학교 선정부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5월 30일과 6월 19일에는 학다리중·고등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추진위원회의 탄원이 있었다. 신설되는 거점고등학교를 학교면 사거리에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다.

통합을 넘어 학교 재배치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나 싶었던 거점고 육성 논의가 부지문제로 다시 한 번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면서 논의는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2013년 6월 19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부지 선정 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함평골프고등학교와 학다리고등학교 부지 교체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10월 2일 함평골프고 동문들은 교육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학

교 교환 반대 등을 표명했다. 교육청은 함평골프고 동문회와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꾸준한 대화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함평골프고 이설을 통해 체육계열 중점학교로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단순한 학교 통합, 혹은 적정규모 육성사업을 넘어, 학교 재배치를 통해 모든 학교를 인재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9월 12일 교육부 수시 3차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 통합중, 거점고, 함평골프고 이설 사업이 '적정' 통보를 받아 재배치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나산중·고등학교는 법인 해산 절차를 진행했다. 2013년 12월 2일 공립학교 전환 및 학교법인 해산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교육용 기본 재산 및 수익용 기본 재산이 전라남도교육감에게 귀속되었다. 교육청은 12월 27일 나산중·고등학교 공립학교 전환 계획을 접수하고 2014년 3월 1일 공립학교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함평의 고등학교 재배치 사업이 완료되었다. 함평여자고등학교, 나산고등학교, 학다리고등학교가 통합하여 21학급 규모의 함평학다리고등학교로 새롭게 태어났고, 학다리고등학교와 함평골프고등학교가 자리를 바꾸어 상생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9년 7월 18일, 함평학다리고등학교 이설 및 교명 변경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노진명 총동문회장, 정철희 함평군의회 의장, 양한모 전 학다리고등학교 이사장, 김동균 전 나산고등학교 이사장을 비롯, 동문과 재학생 등 600여명이 참석, 학교 이설과 교명 변경을 자축했다,

김갑수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의 시설들이 이제야 완공돼 오늘 새 출발을 알리는 기념식을 갖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1945년 개교 이래 터는 옮겨지고 교명은 바뀌었지만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 인재의 산실로 명성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함평중학교

함평중학교 이설 개교

중학교 재배치 사업은 당초에 2단계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었다. 공립학교인 함평중학교와 함평여자중학교, 사립학교인 나산중학교와 학다리중학교를 통합하여 남학교인 함평중학교와 여학교인 함평여자중학교로 분리 통합하는 것이 1단계 목표였다. 이때 함평중학교는 제3의 부지로 이설하고 함평여자중학교는 기존 부지를 활용해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었다. 함평중학교가 이설 개교하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신광중학교와 함평여자중학교를 다시 통합하여 남녀공학 학교로 개교하는 것이 2단계 계획이었다.

하지만 뜻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논의가 진행되던 2013년 4월 23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신광면 지역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 신광중학교를 통합해 적정규모 중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투표결과 신광중학교가 적정규모 중학교 육성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중학교 재배치 사업은 함평중학교와 나산중학교, 학다리중학교를 통합하여 새로운 함평중학교를 이설 개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나머지 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함평여자중학교는 기존 부지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좋은 여건을 갖추도록 했다.

모든 학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2017년 9월 1일 함평중학교가 적정규모 학교로 통합되어 이설 개교했다. 함평중학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부로부터 5년 동안 모두 1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과교실제 운영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특생교육 운영으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폐지교 학생 통학차량 및 통학비 지원으로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특색 교육프로그램 무상 운영으로 학부모 부담이 경감됐다.

또한 나산중·고등학교 부지에는 나산실용예술중학교가 들어섰다. 함평지역 적정규모 학교 재배치사업에 따라 학교가 통합되었지만, 사실상 방치된 부지는 단 한곳도 없는 셈이다.

나산중·고등학교 자리에는 나산실용예술중학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학다리중·고등학교 자리에는 함평골프고등학교가 골프 전문인력 육성의 요람으로 자리잡았다. 함평골프고등학교 자리는 함평학다리고등학교가 최고의 교육환경으로 탈바꿈하였고, 함평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서는 함평여자중학교가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편, 함평여자고등학교 자리에는 가칭 함평 유아놀이터 '꿈샘'이 들어 설 예정이다. 꿈샘은 정규 수업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유아들이 자유롭게 즐기며 놀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함평중학교 역시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춘 새로운 학교로 태어났다.



나산실용예술중학교

나산중·고등학교 부지에는 2018년 3월 11일 나산실용예술중학교가 들어섰다. 함평지역 적정규모 학교 재배치사업에 따라 학교가 통합되었지만, 사실상 방치된 부지는 단 한곳도 없는 셈이다.

8장 오늘의 함평교육, 언론에서 만나다

2011년

2010. 교육지원청 평가결과 함평, 담양, 신안교육지원청 영역별 최우수 선정

전남교육청은 2010학년도 교육지원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청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올해는 11개 지역청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한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가 실시되었다.

함평교육지원청은 2개 영역(주요시책 추진 성과, 교원역량 강화)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담양교육지원청(학생 능력 증진)과 신안교육지원청(교육복지 및 교육지원 체제)이 1개 영역에서 각각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함평고)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교육프로그램 개발

- 학력 중심 교육과정에서 진로 중심 교육과정으로

함평고등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새로운 공교육의 페러다임을 구축하는 사업인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교육프로그램'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과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받아 학력중심 교육과정에서 진로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학력과 인성이 조화로운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역량이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과학기술의 발달은 기존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개인의 능력과는 다른 자질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초학습 능력과 함께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타인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등 생애에 걸쳐 요구되는 역량이나 자질을 일컫는다.

함평고가 현재 방과후 교육 활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교육프로그램은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과목별 창의력과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수 내용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으로 슬럼프에 빠져있거나 삶의 에너지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음악과 미술, 체육 활동 등을 매개로 한 매체 테라피(thrapy) 활동을 함으로써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향상시켜 학교생활에서 활기를 찾도록 도와주고 있다.

(해보초) 사교육 없는 학교만들기 전념

해보초등학교는 교과부 지정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어 학생들에게 질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큰 꿈과 희망을 학부모에겐 감동과 행복을 교직원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주는 학교로 자리매김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영어, 한자, 독서논술, 음악줄넘기를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골프, 미술, POP, 컴퓨터부를 개설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교생에게 체계적인 한자교육을 실시하여 한자급수검정 자격증에 8급 25명, 7급 44명, 총 69명이 응시하여 전원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15명의 학생들이 협회장이 시상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함평학다리고) 영원한 모교 사랑, 아름다운 인연의 향기입니다

학다리중·고등학교 총동문회는 학교의 재정과 교육과정을 재단측과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문회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학교가 기숙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면서부터다.

과거 명문고로 명성을 떨치던 모교가 재정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처음 동문회에 전해진 것은 지난 2006년. 동문들은 모교 살리기에 나서기 시작했고 3억원의 기금을 모아 지난 2007년 재단에 기부했다. 이후 전국 각지 2만여 명의 동문들이 6억 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해마다 1억 5천만 원의 학력향상 제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동문들의 노력 덕분에 학다리고는 과거의 명성을 조금씩 되찾아 가고 있다.

동문들의 지원이 시작된 2007학년도 이후 4년간 상위권 대학 진학률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전국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함평, 무안, 목포지역 1위, 전남(과학고, 외국어고 포함)에서 8위를 차지할 정도로 명문 사립고로 도약했다. 이러한 결실 뒤에는 양한모 총동문회장의 많은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함평월야중) 농어촌 전원학교 신규 선정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 농어촌 전원학교 신규 공모 결과 전남 관내 중학교 6개교가 선정됐다.

선정된 학교는 무안청계중, 완도보길중, 장성남중, 창평중, 함평월야중, 현산중 6개 학교다. 이들 학교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아 자연친화적인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특기·적성교육 및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체험 학습 실시 등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전원학교는 농어촌 학교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줄임으로써 '돌아오는 농어촌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2009년부

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교과부는 농어촌 전원학교(중학교)를 확대하여 기숙형고등학교 등 지역 우수 고등학교와 연계함으로써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9개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30개의 학교를 신규 공모했고, 전남은 6개 학교가 선정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선정됐다.

(해보초) 고막원 똑다리를 아세요?



해보초등학교는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명소를 답사하며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에 살면서도 평소에 알지 못하고 가보지 못했던 유적지 중에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고막천 석교'는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함평 사람들은 이 다리를 '똑다리'로 부르기도 한다. 어릴 적 '고막원 똑다리에서 주워온 놈'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 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어 함평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아직도 보존이 잘 되어 오래 전 우리 조상들이 건너다녔을 다리를 건너보며 아이들은 즐겁기만 하다.

사진으로만 봐오던 월야에 자리 잡고 있는 고인돌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의 의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 옛날에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생각하다 보면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다. 상해 임시정부를 출범한 인물 중 한분인 김철 기념관, 4.8만세 운동의 초석이 된 문장 3.1만세탑, 자산서원 등 문화관광해설가들의 자세한 해설과 함께 이루어진 체험학습은 살아있는 역사 이야기를 통해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아이들이 꿈을 찾아 가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함평해보중학교) 방과후학교, 즐거움 UP, 행복 쑤~욱!

함평해보중학교는 수요일 오후시간에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이 펼쳐진다.

체험활동 위주로 펼쳐지는 방과 후 활동은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즐거운 시간이다. 방과후 활동은 크게 예술감성부, 실기기능부, 예절인성부, 창의탐구부, 체력증진부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예술감성부에는 그룹사운드부, 가야금부, 바이올린부가 개설되었고 실기기능부는 도자기부, 예절인성부는 다도부, 창의탐구부에는 과학아이디어 탐구반이 운영되며 체력증진부에는 축구부, 야구부, 그리고 탁구부가 번갈아 운영되고 있다.

예술감성부의 개설은 학생들이 음악교육을 통해 올바른 취미활동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심미적인 감각을 자극하여 행복하고 보람된 학교생활이 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7개부서 중 5개부서는 외부전문가

를 초빙하여 교내 교사가 다루기 어려운 전문적인 면까지 지도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특기 적성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도자기부에서는 단순한 흙으로부터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을 실제로 경험함으로서 선인들의 지혜와 도자기의 우수성을 느끼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하였고, 도자기의 장인(박영복 선생)이 직접 지도하고 학교와 현장을 오가며 배움으로서 현장감 있는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더불어 다도부(김재길 선생)에서는 직접 차를 만드는 제다(製茶)법부터 다도(茶道)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지도를 통해 우리민족 고유의 맛과 멋을 느끼도록 지도하고 인성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과학발명부를 편성했다. 조기에 발명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도록 지도하고 생활속에서 불편한 점을 발견하고 하기 위해서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발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과정을 이번 과학탐구반 운영을 통해 학생 스스로 느끼도록 지도하고 있다. 더불어 요즈음 학생들이 체격은 신장되었으나 체력이 약하다는 점을 보완하고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축구부, 야구부, 탁구부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움직이며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함평중) 역시! 함평중, 전국을 메치다

함평중학교는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레슬링 경기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3학년 김승규 선수가 그레꼬로만형 42kg과, 양시온 선수가 그레꼬로만형 46kg에서 금메달을, 2학년 양혜봉 선수가 50kg과, 나명길 선수가 54kg 그레꼬로만형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함으로서 홍준희 감독이 2007년부터 함평중학교 레슬링 팀을 지도한 이래 5년 연속 전국소년체전에서 금4, 은4, 동6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노양섭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은 김해체육관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함과 동시에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선수들을 격려하였으며, 함평군청에서도 학교를 방문하여 축하를 아끼지 않는 등 학교 운동부 활성화에 큰 기대를 모았다.

(함평중) 92년 뒤 다시 외친 독립만세

함평중학교는 애국지사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함평군 해보면에서 개최된 기미 4·8만세 추모식 및 재현행사에 학생회 임원 참여를 통해 내 고장 바로알기와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했다.

이날 추모식은 해보면사무소에서 문장 3·1만세탑까지 두루마기와 한복 등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복장을 갖추고 가두행진을 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추모행사 후에는 만세탑~문장 장터 구간에서 92년 전 독립만세운동 시위 재현에 참가해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새로이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함평공공도서관) 무박 2일간의 여행, 책의 향기에 빠지다

함평교육지원청은 함평공공도서관에서 학생, 학부모, 초·중 교직원, 교육지원청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여행'을 개최했다. 함평교육지원청은 좋은 책 돌려 읽기 운동, 작가초청 강연회, 문학기행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의 독서문화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작가초청 강연회는 '딱 한 가지 소원', '뭐가 다른데'의 작가 광주대 이성자 교수를 모시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독서 레크리에이션, 감정나누기, 감정분출을 돕는 연극공연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으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뒹굴며 책의 향기 속에 빠져들었다. 여명이 밝아오는 시간 가족과 손잡고 기산봉을 오르는 뒷모습에서 가족 사랑이 묻어났으며, 산상 독서토론으로 무박 2일 프로그램을 갈무리했다.

(함평여중) 글로벌 인재를 향한 실용 외국어 능력향상 프로그램

함평여자중학교는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노력중점인 '실용 외국어 활용 능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은 읽고 싶은 도서를 대여 받아 매일 아침 30분 동안 사제동행 독서 시간을 운영하며, 이후 10분간 영어듣기평가를 한다. 영어 듣기 학습의 경우 타 학교와 차별화된 점은 기출된 영어듣기 5문항 이외에 학교 원어민교사와 영어교사의 발음으로 녹음된 '금주의 생활영어'를 방송하여, 학생들이 방송을 듣고 따라서 말하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활영어는 누군가 'Let's 톡(Talk)'하고 상대방을 지목하면 지목받은 학생은 그 달의 생활영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매일 반복 학습과 함께 학습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에서 읽기·듣기·쓰기와 더불어 말하기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에 맞춰진 선진화된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 7월에 실시된 2011학년도 3학년 국가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함평여중은 국어, 영어, 과학 교과에 기초 미달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국어, 영어 교과의 경우 이러한 노력 중점 교육이 주효했던 결과로 분석된다.

(전남보건고) 신입생 경쟁률 2.04:1, 가고 싶은 학교로 자리매김

"우와!!!"

지난 11월 17일 오후, 전남보건고등학교 교무실은 또 한번 교직원들의 환호성으로 가득찼다. 조윤하 양(의료전자과 3년)의 행정안전부공무원(9급보건직) 1차 합격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지난 10월20일 김신

우 군(보건간호과 작년 졸업)의 지방공무원(9급보건직) 합격 소식으로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중앙공무원에 합격하는 낭보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전자과 학생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료전자기기기능사 자격시험에 전원 합격한 것을 시작으로, 보건 간호과의 간호조무사 시험도 전원 합격했다. 보건간호과 졸업예정자 46명 중 군입대 예정자 3명을 제외한 31명이 취업하여 100%에 달하는 높은 취업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12명이 4년제 대학에 합격했고, 의료전자과 졸업예정자 20명 중 13명이 우수 기업에 취업, 8명이 전남대학교 등에 합격함으로써 학생이 원하는 분야에 100% 도달하는 명실상부한 보건계열 명품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보건고는 1973년 함평월야종합고등학교로 문을 열어, 1981년 15학급으로 전성기를 맞기도 하였지만,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감소와 인근 도시로의 학생유출은 학교를 존폐의 위기로 몰았다.

이에 학교를 살려야 한다며 과감히 학과개편을 이끌어 낸 교직원들의 노력과 지역민의 뜻이 하나가 되면서 2007년 9월1일 보건간호과 6학급, 의료전자과 3학급으로 학과를 개편, 이듬해 보건계열 특성화고교로 지정, 전국단위 순수보건계열 특성화고 '전남보건고'로 출범했다.

(함평고) 제2회 교사의 창의적 수업사례 공모전 우수상, 제20회 눈높이 교육상 수상

전국의 역사교사들 사이에 장콩 선생으로 더 잘 알려진 장용준 선생이 '제20회 눈높이 교육상(대교문화재단)'과 '제2회 교사의 창의적 수업사례 공모전 우수상(한국교원대학교)'을 한꺼번에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이했다. 특히 '눈높이 교육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르침의 열정으로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교사에게 수여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상인데, 2011년 중등부분 수상자로 장교사가 선정됐다. 장용준 선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교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난 23년간 수업의 질 향상과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 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상금으로 주어지는 2천만 원 중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여 미래 세대들을 돕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함평교육장, 주민추천공모제로 임용

전남교육청은 2012학년도 3월 1일자 장흥·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주민추천공모제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를 위해 내년 1월 3일 부터 7일간 본청 및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응모자의 관련 서류를 도교육청에서 접수한다.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주민추천교육장공모심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 2차 심층면접을 통해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는 1차(서류심사), 2차(심층면접 및 상호토론)로 구분해 시행하며 심사 결과 2인을 무순위로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교육감은 최종 1인을 선정하여 2012년 3월 1일자로 해당 지역교육청 교육장으로 임용하게 된다.

이번 교육장 응모 자격은 교육장 공모일 기준 최근 3년 근무기간 중 2년 이상 전남에 실제 거주하는 자로 했는데 이는 고위직 공무원 임용 시 전남에 실제 거주한 자를 임용하겠다는 취지로, 앞으로 전남에 거주하지 않으면 고위직공무원 임용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함평교육지원청 최우수교육지원청 선정

전남 관내 22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역교육청 평가에서 함평과 담양 교육지원청이 최우수 교육지원청으로, 곡성, 광양, 화순, 보성의 4개 교육지원청이 우수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됐다.

함평교육지원청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부분에 최고점 ▲스포츠클럽 등록률 최고점 ▲청렴도 순위 도내 3위를 달성했고, ▲자율정책과제 실천 부분에서 교육지원과 '꿈나무들의 미래 나침반 진로독서'와 행정지원과 '창의적 업무관리로 직무능력 UP!'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남교육청은 교육행정 역량을 진단하고 교육행정의 질적 수준 제고와 우수사례의 발굴 및 일반화를 통한 지역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청 평가를 시행해 왔다. 3년 주기 그룹별로 시행했던 지역교육청 평가를 올해는 전체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교육행정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높였다. 또한, 평가준비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평가지표를 46개에서 16개로 축소한 정량평가 위주로 개선했으며, 교육정보 공시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자료 평가체제를 도입해 평가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예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평가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 지원 교육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단위 전화친절도, 청렴도, 교육만족도를 평가지표에 반영했다.

2012년

(함평고, 함평영화학교) 누구에게나 꿈을 가질 권리가 있다.

함평영화학교는 4월 20일 함평고등학교와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임을 알아 올바른 장애인관을 확립하도록 기획된 행사였다. 더불어 함평영화학교 학생들의 특기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누구에게나 꿈을 갖을 권리가 있음을, 그리고 그 꿈은 노력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시사해주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강당에서 이루어진 이날 행사에서는 서로 인사하고 선물을 증정할 때만해도 학생들은 어색해 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고 댄스공연, 밴드 및 노래공연, E-스포츠 대회가 진행될수록 공연을 함께 즐기며 친밀함을 더해갔다.

장애인의 날에 함평고등학교와 통합교육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비록 이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조그마한 '접촉'이 분명 그들의 마음에도 '작은 씨앗'이 될 것으로 모두들 기대하고 있다.

(함평공공도서관) 평생학습 수강생, 어른동화구연대회 수상

6월 11일, 광주 남구문예회관에서는 광주·전남 어른동화구연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함평공공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전라남도지사상 등 3개 기관 상을 수상하는 눈부신 성적을 거두었다.

이들은 함평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취득 프로그램 '동화구연실기지도사'를 수료한 수강생들이다. 수강생들은 직접 창작한 동화로 참가해 4명의 회원이 전라남도지사상(정소희), 무등일보사장상(김현희, 정소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상(서명옥)을 수상해 그 동안의 실력과 열정을 검증받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어른동화구연대회는 전래 동화 또는 창작동화 등 어린이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구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년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열띤 경연을 벌이고 있다.

함평교육지원청, 교무행정사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함평교육지원청은 7월 20일, 함평관내 초·중·고 교무행정사 27명과 함평교육지원청 직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무행정사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교육력을 향상하기 위해 교무행정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혁신학교인 경기도 성남의 상탑초등학교와 창곡여자중학교를 탐방해 정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첫 번째 방문지인 상탑초등학교에서는 교무행정실무사(교무행정사)의 역할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교사 업무 경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특히 교무실과 행정실을 통합하여 교무·행정실을 설치하는 등 교무실과 행정실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한 학교측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창곡여자중학교 역시 상탑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무행정실무사에게 고유 업무와 기안권을 부여해 자긍심을 높여주고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실천하고 있었다.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지나치게 많아 교실수업에 전념할 수 없었던 것을 교무행정사의 업무 분담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이번에 실시된 워크숍은 올해 새롭게 시작된 교무행정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우리 지역 교무행정사가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수업준비와 학생지도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었다.

(함평공공도서관) 지역출신 우수대학생 1:1 학습 멘토링

함평공공도서관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력 배양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학습참고서 코너와 대학생 1:1 멘토링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공공도서관은 농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참고서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법을 통해 창의성·사고력·종합적인 판단력 배양을 위해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시간의 제약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자료실 개방시간을 18시에서 22시까지 연장해 학습참고서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함평교육지원청은 방학기간동안 이 지역 출신의 우수 대학생 2명을 대학생 강사로 임용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의문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멘토링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1:1 멘토링은 효과적인 공부법, 학습노하우 공유 및 지도, 부모님과 친구들 간의 관계 조언, 고민 상담, 진로·진학·학교생활 상담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함평공공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습참고서 확보와 방학기간을 이용한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보초)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해보초등학교는 8월 16과 17일 이틀에 걸쳐 학습도움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실에서 '도예교실'을 운영했다. 도예교실은 여름방학을 맞아 함평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이루어졌다.

도예교실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은 방학동안 효율적인 시간 활용과 특기·적성계발로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또한 작품 활동으로 손의 근력을 강화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급우간의 친밀감을 높여주고, 성취감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함평영화학교) 스페셜올림픽을 아시나요?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경북 경산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2012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에서 함평영화학교 육상팀이 육상종목에서 금메달 3, 은메달 2개를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스페셜올림픽은 전 세계 2억여 명으로 추산되는 지적발달 장애인들에게 스포츠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 적응력을 높이고, 사회 일원으로서 존중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하계와 동계로 나눠 세계적으로는 4년마다, 국가별로는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전국 16개 도시에서 1,200여명의 지적장애인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 함평영화학교 학생들은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다.

육상종목에서 윤민우(고2) 학생이 금메달(400M)과 은메달(200M)을, 임범석(고2) 학생이 금메달 2개

(포환던지기, 소프트볼던지기)를, 김경한(고1) 학생이 은메달(소프트볼 던지기)을 획득하여 총 금 3개, 은 2개의 좋은 성적을 거두며 한국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를 마쳤다.

함평교육지원청, 교무행정전담팀 운영 효율화 방안 토론회 개최

함평교육지원청은 10월 24일 전남도내 학교장, 교사, 행정실장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무행정전담팀 운영 효율화'를 주제로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무행정전담팀 운영은 교원행정업무 경감 방안의 일환이며, 올해 4월 신규 채용된 173명을 비롯하여 도내 학교별로 1~2명씩 배치된 교무행정사가 주축이 되고 있다. 함평교육지원청은 교사가 수업과 인성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이 제도가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팀 구성, 구성원 상호간의 역할 이해 등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목포용호초 최성수 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교원의 행정업무경감 관련 정책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단위학교 교무행정전담팀 구성·운영은 경기도와 함께 선도적으로 도입한 전남교육청의 모델을 기초로 하여 학교규모와 교무행정사의 능력 등을 고려한 독자적인 모델을 구안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교무행정전담팀이 모든 교무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만큼 교사들도 수업과 생활지도에 피해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분량의 행정업무를 기꺼이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수 전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한병길 경기도 샛별중 교장은 "전담팀장을 맡은 교감이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교사들과 교무행정사의 업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주된 책임인 수업장학과 학생지도를 제대로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무행정사 대표로 나선 토론자들은 "교무행정전담팀 운영으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었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학교교육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구성원간 업무한계의 모호성과 교감의 업무가중" 등을 지적했다. 또한 나산초 김민정 교무행정사는 "학교단위 전담팀 업무메뉴얼 작성, 기안권한 부여, 시간외 수당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다리중·고등학교) 신임 양한모 이사장 취임식

학다리중·고등학교 제20대 양한모 이사장 취임식이 12월 6일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양한모 이사장 약력소개와 교사·학생 대표의 꽃다발 증정, 장만채 교육감과 안병호 함평군수의 축사, 양한모 이사장 취임사, 교가 제창과 2부 저녁 만찬 등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양한모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교사, 학부모, 동문, 학교법인 대표들로 미래 학교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다리중·고등학교의 발전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그 해법을 찾아 학교발전의 초석을 세우고자 하며 교육과정운영, 학업성적, 대학입학실적 등 학교경영 모든 부문에서 5년 내에 전국 100대 학교에, 그리고 10년 내에 50대 학교에 진입하고 OECD가 인정하는 명문학교를 기필코 만드는 등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함평공공도서관, 청소년자원봉사 우수터전 선정

목포공공도서관과 함평공공도서관은 11월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주관으로 개최된 '2012년 청소년자원봉사 우수터전 인증식'에서 자원봉사 활동 우수터전으로 선정됐다. 이날 인증식은 제13회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과 함께 전남지역 청소년자원봉사활동기관 316개 중 목포공공도서관과 함평공공도서관을 비롯해 20개 기관이 우수터전으로 선정됐다.

함평공공도서관은 기존의 도서대출, 정리, 환경정비 등의 단순한 자원봉사는 물론 다채로운 문화활동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를 통해 인간 존중 정신과 사회성 개방,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방법도 다양화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학다리중앙초) 2012. 전남수업우수교사 선정

학다리중앙초등학교 류혜영 교사가 2012. 전남수업우수교사로 선정됐다. 전남교육청은 수업 잘 하는 교사가 존경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전남수업우수교사(Jeonnam Excellent Teacher)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수업우수교사의 기본 자격 요건은 '학생 및 학부모, 동료교직원들로부터 인정받는 교사'다. 이를 위해 먼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주변에서 훌륭한 인품을 바탕으로 수업을 잘 하고 있는 교사를 자유롭게 추천하도록 했다.

추천받은 교사 중 소속 학교의 추천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고 본인이 평가에 동의한 57명을 대상으로 1차 현장실사와 2차 수업동영상 평가를 실시하고 1주일동안의 공개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37명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는 교원, 전문직, 지역교육미래위원, 학부모 등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지역(권역) 단위로 이루어진 1차 평가와 도 단위로 이루어진 2차 평가에 160여명의 평가위원이 참여했다.

전남교육청은 12월 28일 2012학년도 전남수업우수교사로 선정된 37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함평중·고) 양한모 이사장, 제32회 전남교육상 수상자 선정

제32회 전라남도교육상에 박석원 금천초 교장, 송병천 전남교육연수원장, 주영신 장성공공도서관장, 이성웅 광양시장, 양한모 학교법인 학교의숙 이사장이 선정됐다.

양한모 학교법인 학교의숙 이사장은 학다리중·고 총동문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호남 최초 CEO교장 초빙, 동문대상 학교발전기금 모금, 장학기금 확충, 공정하고 투명한 교사 채용, 학교 토론 문화 형성 등을 통해 학생 우선의 관점에서 학교의 발전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명문학교 만들기를 추진했다.

전남교육청은 12월 31일 대회의실에서 제32회 전라남도교육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2013년

함평, 공·사립고 통합 거점고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함평교육지원청은 2월 1일, 적정규모 중·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75명으로 구성된 지역단위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함평지역 일반계 고교는 공립 함평여고와 사립 학다리고, 나산고, 함평고의 4교로 학생수에 비해 고등학교 수가 많고, 그만큼 소규모화 되어 있어 고교교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할 수준이다. 또한, 공립 일반고인 함평여고는 학년당 학생수 50여 명의 소규모로 도교육청의 거점고 지정에서 제외되어 지역 고교 교육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점고 지정을 전제로 한 학다리고의 공립화 논의가 이뤄졌고, 이에 나산고가 참여하게 됐다.

이번 추진위원회에서는 함평여고, 학다리고, 나산고를 통합해 함평읍 인근에 기숙사와 교과교실 등을 갖춘 21학급 500명 규모의 거점고 신설 계획이 논의됐다.

또한 이번 추진위에서 중학교는 함평중, 함평여중, 신광중, 학다리중을 함평중과 함평여중의 2개교로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동안 함평 중등교육 약화 요인으로 여겨졌던 함평중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최고의 수준으로 개선하고, 향후 2년 내에 25명의 소규모화가 예상되는 신광중과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학다리중이 적정규모의 현대화된 중학교로 통합되어 교육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나산중은 전국단위 기숙형 특성화중학교로 개편 및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함평지역 거점고와 적정규모 중학교 추진 계획은 그동안 교육미래위원회 심의, 도교육청 협의, 지역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군의회 설명회 등을 거쳤으며, 특히 해당 사립학교에서는 이사회와 동창회 심의, 교직원 협의 등이 충분히 이뤄진 상태다.

추진위원회는 거점고 소위원회, 적정규모 중학교 소위원회, 부지선정 소위원회로 운영되며, 양규모 군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군의회, 군청, 지역사회 단체, 도교육청 등의 추천인사와 관련 학교 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동창회 대표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출범식을 마친 직후부터 소위원회별로 학교명칭, 부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추진위원회는 2월 중에 군민 대상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게 된다. 추진위원들은 거점고 등이 개교하는 2015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함평영화학교) 쇼핑몰 운영을 꿈꾸는 29살 초등학생

무안군 현경면의 한적한 시골마을. 한폭의 그림같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준대씨의 집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준대씨는 이 아름다운 바다를 마음껏 내다 보지 못한다.

중증장애로 하루 종일 누워있어야 하는 김준대(29세)씨. 지체장애 1급으로 무릎관절, 엉덩이관절, 양팔

의 경직으로 인해 휠체어도 이용할 수 없다. 학교는 물론 사회와 단절되어 26년을 살아오다가 지난 2009년 함평영화학교 재택순회학급에 입학해 늦은 나이에 초등학생이 된 준대씨가 9월 3일 서울에서 열린 '제11회 전국특수교육 정보화대회 및 제9회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에 출전했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구급차까지 동원해야 하는 힘든 여정이었다.

지난 2010년 학교에서 구입해 준 컴퓨터를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문서 한 장 작성하는데 이틀이 걸렸다. 지금은 두 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여름 흘렸던 땀의 결과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 준대씨는 땀띠로 고생했다. 헤드마우스 때문에 머리에 밴드를 차고 있어서 더욱 힘들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다시 출전해 보고 싶은가"를 물었더니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는 준대씨. 혼자서는 몸을 뒤집기도 힘든 준대씨에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지 짐작하게 했다.

준대씨가 이런 힘든 과정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목표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의 꿈은 쇼핑몰 운영.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깨, 파… 부모님이 재배하신 농산물을 판매할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그가 왜 쇼핑몰 운영을 마음 먹었는지 궁금했다. 그의 대답은 매우 간단했다.

"돈 벌고 싶어요,"

그가 쇼핑몰 운영을 꿈꾸게 된 것은 유환조 선생님의 영향이 컸다. "교사 입장에서 저의 욕심은 나이를 먹어가는 준대가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기는 어렵겠지만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필요한데, 누워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쇼핑몰 운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와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함평학다리고) 동문들이 앞장서 명문고 부활 꿈꾼다

학다리고등학교는 9월 6일 대강당에서 제10대 김갑수 교장과 최이규 교감의 부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호 함평교육장을 비롯해 함평군수와 도의원, 동문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부임식이 눈길을 끌었던 것은 신임 교장과 교감이 모두 학다리고 출신이기 때문. 김갑수 교장은 24회, 최이규 교감은 26회 졸업생이다. 지난해 말 18회 졸업생인 양한모씨가 이사장으로 선임된 데 이어, 교장과 교감 모두 동문들이 배치됐다.

명문학교 부활을 꿈꾸는 학다리고는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학교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학다리고는 지난 2006년까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큰 위기를 겪었다. 그러다 현 양한모 이사장이 동문회장으로 추대되면서 학교발전기금을 모으고,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갔다.

김갑수 교장은 부임사에서 "명문고 육성을 목표로 맞춤형 학력 프로그램과 명문학교 교육 시스템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거점고등학교 추진에 신명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학다리중·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3월 학다리고에 첫 부임한 후 30년간 학다리고에 교사로 근무했고,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함평군수 표창, 함평군교육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이규 교감은 1988년 3월 학다리고등학교에 부임해 25년간 근무했다.

(나산고) 김동균 이사장, 전남교육 수상자 선정

영암교육지원청 장동연 교육장, 삼호고등학교 이기봉 교장, 전라남도교육청 김복휴 총무과장, 정종득 목포시장, 학교법인 실림학원 김동균 이사장이 제33회 전라남도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라남도교육상은「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의 사표가 되고 전라남도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소속공무원과 사립교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5명 이내를 매년 수여하고 있다.

김동균 학교법인 실림학원 이사장은 나산장학회를 설립하여 매년 학생들의 학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독서교육의 반향을 일으켰으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명문학교 만들기를 추진했다.

시상식은 12월 30일 전남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함평영화학교) 스페셜올림픽 은메달

뉴캐슬과 호주에서 열린 2013 스페셜올림픽 아시아태평양지역 하계대회에 함평영화학교 3학년 임범석 학생이 출전해 은메달과 동메달을 수상했다. 스페셜올림픽 아시아태평양지역 하계대회는 32개국 2,500명의 선수단이 모여 9개의 종목(수영, 육상, 배드민턴, 농구, 보체, 크리켓, 축구, 탁구, 볼링)에서 경쟁을 펼쳤으며, 임범석 학생은 육상종목에 출전해 멀리뛰기에서 은메달을, 포환던지기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도교사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훈련, 합숙 훈련을 꾸준히 한 결과가 값진 결실을 가져왔다”면서 “지도교사들의 열정과 고된 연습을 참아가며 열심히 노력한 학생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이번 결실은 임범석 학생뿐만 아니라 지켜본 모든 학생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함평학다리고) 제5회 전국 고등학생 디베이트 대회 준우승



학다리고등학교 학생들이 12월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열린 제5회 전국 초·중·고 학생 디베이트 대회에 참가해 준우승의 쾌거를 거두었다.

이날 행사는 한국디베이트코치협회가 주최하고 투게더 디베이트클럽과 조선비즈가 공동주관했다.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어진 논제에 입안을 작성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응모한 후 예선을 통과한 학교 대표 18팀을 선별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4회전을 치른 후, 각 리그전의 합산성적을 가지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이날 대회는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한 찬반 대립토론 형식으로 치러졌다. 이날 논제는 우리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를 그대로 반영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쉽지 않는 주제이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2017년까지 고용율을 70%로 올리기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노동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번 대회에 진출한 학다리고 학생회장 박경준(2년)학생과 장해수(1년)학생은 학다리고 디베이트 동아리(지도교사 신혜숙)에서 활동한 학생으로 교내 디베이대회에서 우승, 함평교육지원청 주최 제2회 함평초·중·고 디베이트 대회에서 우승을 한 학생으로 전국대회에서도 숨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학다리고등학교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독서·토론수업의 활성화와 이해분석력과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더 나아가 도덕성을 배양하고 민주적 생활태도의 함양으로 토론 능력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다.

(함평고) NAVI 프로젝트, 교육부 인증



함평고등학교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인 'NAVI 프로젝트'가 교육부로부터 '2013. 인성교육 우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받았다.

'NAVI 프로젝트'는 함평고가 5년 전부터 동신대, 조선대, 대전대 인성교육 전문가 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농어촌지역 고등학생 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부 인증 심사에서 '지방학교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현장교사들의 노고에 경의와 찬사를 보낸다'라는 심사평을 받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잘 구성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부의 인증을 통해 함평고의 독자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서 'NAVI 프로젝트'가 그 효과를 직접 검증받은 셈이다.

2014년

(학다리고등학교) “함평교육 살리자” 학교 내놓은 사학재단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놓인 함평지역 사립학교들이 농촌교육을 살리기 위해 땅과 건물 등 기본재산을 전남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해 화제다.

전남도교육청과 함평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함평지역 3개 고교와 3개 중학교 통합 작업이 추진 중이다. 통폐합 대상 고교는 함평여고·학다리고·나산고다. 전남도교육청은 370억원을 투자해 이들 학교를 거점고인 함평학다리고(가칭)로 통합할 예정이다. 학다리고 부지에는 함평골프고를 이전해 300억원을 투입 명품 특성화고로 육성한다. 함평여중·고 건물은 리모델링해 함평여중으로 사용한다. 중학교는 함평중·학다리중·나산중을 합쳐 함평중학교(남학교)를 신설하고, 이들 세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들은 기존 함평여중으로 옮길 계획이다.

함평지역 학교 통폐합이 주목되는 것은 공립과 사립을 합쳐 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학재단인 학교의숙(학다리중·고)과 실림학원(나산중·고)이 학교 땅과 건물을 전남도교육청에 귀속하기로 했다.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지역과 학교 발전을 위해 교육청에 기부채납했다는 의미다.

실림학원 김동균 이사장은 “학교는 재단이 관리만 하는 것이지 설립자가 주체는 아니므로 ‘포기’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학교발전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좋은 것인지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김갑수 학다리고 교장은 “이농과 학령인구 감소로 농촌학교가 위기다. 학교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거점고 밖에 없다”며 “지역 학생들이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교육받아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나산중고의 경우 공립 전환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학다리중고도 같은 과정을 밟기로 이사회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통폐합의 걸림돌이었던 학교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함평골프고 이전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의회에도 관련 조례안이 상정돼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면 함평지역 학교 통폐합 사업이 본격화 된다. 김승호 함평교육장은 “시골 교육을 살리자는 데 사립학교 법인이 소중한 결심을 했고 지역민 여론도 하나로 모아졌다”며 “통폐합 계획이 중앙정부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1000억원의 예산이 함평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된다”고 밝혔다.

(함평영화학교) 특수학교 학생에서 특수교육 실무사로

“아직은 실무사라는 호칭이 어색해요”

함평영화학교 졸업과 동시에 모교에서 특수교육 실무사로 근무를 시작한 임범석(21)씨의 수줍은 첫 소감이다.

2008년 여름 이 곳 중학교에 전학 온 것으로 함평영화학교와 첫 연을 맺은 임씨는 특수교육대상자로는

이례적으로 특수교육 실무사로 채용돼 올 초 이 학교에 배치됐다.

"모교에서 특수교육 실무사로 근무하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사실은 많이 망설였어요. 오랫동안 학생 신분으로 다니던 학교에서 내가 학생이 아닌 선생님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고요. 하지만 함평영화학교를 다니면서 도전했던 많은 일들과 그것을 이뤄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자신감을 가졌죠. 주위 선생님들의 격려도 큰 힘이 됐습니다"

임범석 실무사는 재학시절 '제10회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 육상부문'과 '제4회 한국스페셜 롤러스케이트 부문'에 학교 대표로 출전하여 메달을 석권한 바 있다.

또한 호주에서 열린 '2013스페셜올림픽 아시아태평양지역 하계대회'에 대표로 선발돼 같은 부문에서 두 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노력을 통한 성취의 경험들이 더 큰 도전을 일궈가는 자양분이 됐다고 한다.

임 실무사는 작지만 웅골찬 꿈이 있다.

"불가능해 보이기만 했던 일들도, 열심히 노력하니 이룰 수 있었어요. 함평영화학교에서 꿈을 키웠으니 이제는 저도 후배들의 꿈을 키워주고 싶어요."

초등학교 2학년 학급에 배치된 임범석 실무사는 김대웅 학생(14, 뇌병변장애1급)의 도전을 앞두고 성실한 조력자이자 멘토가 되고 싶다고 한다. 김대웅 학생은 전국 장애학생 정보화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목표로 태블릿 PC를 통한 정보검색을 연습하고 있다.

(손불서초) 꼬마 시인들 시집 발간

손불서초등학교는 3월 10일 학생, 학부모, 교사 40명이 쓴 시를 묶은 시집'꽃들의 노래' 출판 기념식을 가졌다. 학생들은 시집 발간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등교 후 도서실에 모여 책읽기, 시 낭송하기, 시 창작 활동하기, 이야기 나누기 등을 통해 감성을 키웠다. 매주 화요일에는 운동장에서 야구나 축구를 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기도 했다.

시집을 손에 든 학생들은 자신들이 쓴 시가 책자로 발간된 것을 신기해하며 진짜 시인이 된 것 같다고 뿌듯해 했다. 한 학부모는 "내 아이가 쓴 시가 시집으로 만들어져 나와 우리 아이가 달라 보인다"며 "시집을 잘 간직해야 겠다"고 말했다. 정대성 교장은 "어린이가 하는 한마디 말, 한 줄의 글은 모두 시라고 생각한다"며 "시집에는 부족하고 서툴지만 깨끗한 어린이들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함평영화학교)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

함평영화학교는 졸업생들이 양질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학교가 단순한 교육서비스 제공과 졸업생 배출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졸업생이 지역사회 일자리 현장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함평영화학교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농어촌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지역 축제(나비축제, 국향대전)와 관련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실무 능력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또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을 마련해 주는 한편, 지역 사회와 연계한 평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해 재학 시절 교내 하우스 작업장에서 국화와 화훼 재배에 성실하게 참여해 온 이 학교 졸업생 백욱진(21·남)·최원철(21·남)씨가 함평영화학교에 정식 채용 될 예정이다. 두 졸업생은 일주일간의 사전훈련과 3주간의 현장훈련기간을 거친 뒤 계약직 근로자로 학교 내 하우스 작업장에서 국화 및 여러 화훼류의 재배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나산중·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원기 씨, 고향 함평서 재능기부 특강

1984년 LA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김원기(52) 씨가 4월 24일 고향인 함평을 방문, 나산중·고등학교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시련을 극복한 도전정신과 금메달의 삶'이라는 주제로 진로를 위한 재능기부 특강을 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원기 씨는 자신의 살아온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학생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스포츠 스타들도 꿈을 이루기 위해 고된 훈련을 이겨 내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며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어려움을 이겨 내고 꿈의 목적지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난했지만 꿈은 가난해서는 안된다"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평골프고) 재학생 3명, 프로골퍼 테스트 합격

7월 16일, 17일 나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에서 열린 2014년 제2차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준회원 선발전에서 함평골프고등학교 3학년 이주신, 신원준, 2학년 정대진 학생이 프로 골퍼 테스트에 합격했다. 프로골퍼 테스트에 통과하는 것은 일반학생들의 경우 고시에 합격하는 것과 같은 대단한 성과로 비교되고 있다. 특히 3학년 이주신(함평군 나산면), 2학년 정대진(함평군 대동면) 학생은 함평군 출신 학생으로 “지역의 후배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프로테스트 통과의 기쁨도 뒤로한 채, KPGA 투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뛰고 있다.

함평골프고는 지난 2002년 골프 전문학교로 개편한 이래 재학생이 3명이나 프로골퍼 테스트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체육계열로 학과를 개편하고 우수 코칭스태프를 구성하여 지도한 결과로 학교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함평골프고는 현재 골프 국가대표 2명(임은빈 여 2학년, 김영웅 남 1학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함평골프고는 2013년 체육계열로 학과를 개편했고 2014년 현재 골프전문 특수목적고 개편을 진행 중이다.

(함평고) 여우별밴드 현인가요제 동상 수상



함평고등학교 4인조 락그룹 여우별밴드(2학년 백유린, 이슬, 3학년 백채린, 김다슬)가 8월 2일과 3일 부산 송도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10회 부산 현인가요제'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국내 정상급 가요제인 현인가요제에 지난 10년 이래로 광주·전남지역에서 본선에 진출해 입상한 것은 여우별밴드가 처음이다.

악천후 속에 치러진 첫날 전야제에서 최종 본선에 오른 15개 팀 가운데 유일한 10대 그룹인 여우별밴드는 자작곡 '잘 클게요'로 출전하여 상위 '5개 팀'에 오르는 물오른 실력을 과시했다. 이튿날 본선이 치러진 부산 송도해수욕장의 3만여 관중 속에서 여우별밴드는 또 다시 최고의 실력을 보여줬다.

여우별밴드는 아쉽게 대상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동상과 함께 가수인증서 및 350만원의 부상을 받았다. 이들은 심사위원들의 많은 칭찬과 함께 곧바로 많은 방송사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가요제 다음날 서울 KBS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지난 6일에는 부산 MBC FM라디오 '정오의 희망곡' 생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또한 현인가요제에서 여우별이 경연했던 모습이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다.

여우별의 리더인 백채린 양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골의 열악한 음악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락밴드가 탄생하는 모습을 국민여러분들께 보여주겠다"며 강한 메시지와 함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제1회 전남교육사진공모전 장려상

화가 선생님과 아이들이 그린 벽화 / 손불서초 교장 정대성

2015년

꿈과 감성을 기르는 학생 난(蘭) 동아리

함평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생들에게 꿈과 감성을 기르는 학생 난(蘭) 동아리 체험활동을 2년째 실시하고 있다.

함평교육지원청이 학생 난 동아리 체험활동을 실시하게 된 것은 함평 지역이 한국춘란의 보고지로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식물을 기르면서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는 다양한 인성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관내 모든 초·중학교 19개 동아리(1교 1동아리) 317명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은 난 전문 체험학습장(농촌진흥청 지정 농촌교육농장)과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난기르기'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년 동안 4차례의 난 전문가 강의와 체험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꾸준한 자율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며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는 다양한 인성중심 체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광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교사와 전교생 33명 전체가 참여하고 있다. 나산중학교는 동아리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율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국어 시간과 연계해 난(蘭)과 관련된 시 짓기, 토론하기, 삼행시 짓기 등 다양한 수업을 전개하고 있다.

(함평여중)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함평여자중학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전남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 2명이 강사로 참여했다.

조영규 강사는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미국 시카고의 총파업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간단한 퍼즐퀴즈를 통해 "노동과 근로의 차이는 '능동적으로 일하느냐 수동적으로 일하느냐'에 있다"면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대가)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을 알고 올바른 근로계약서 쓰기 등을 통해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진경 교사는 "생후 첫 아르바이트와 노동세계를 접하게 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과 근로의 의미, 청소년노동법, 노동인권보호, 건전한 직업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산중) 할머니와 여중생의 이음



여름을 알리는 따가운 햇살이 운동장을 내리 쬐는 6월, 나산중학교에 할머니 한 분이 찾아 왔다. 나산면 구산리에 사는 78세의 서영림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2학년 이정선 학생에게 건네 달라며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무슨 사연이었을까? 그렇게 서영림 할머니와 이정선 학생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할머니와 정선이의 사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선이가 나산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는 독거노인들에게 편지쓰기 행사를 갖게 되었다. 정선이가 편지를 써야 할 어르신이 바로 서영림 할머니였던 것. 다른 학생들에게 편지쓰기는 귀찮은 숙제 정도였지만, 정선이는 달랐다. 정선이는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지만 그때부터 1주일에 한 번씩 꼭 편지를 보냈다. 시간이 날 때 마다 안부를 묻고 가족과 같은 정을 쌓아 온 지 올해로 4년째.

서 할머니는 편지에 담긴 정성어린 마음을 읽으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내온 할머니에게 정선이의 손 편지는 큰 위로가 됐다. 정선이에게도 편지는 큰 힘이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친척집에서 지내야 하는 정선이에게 할머니의 존재는 많은 위로가 됐다. 힘들 때나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는 또 한 명의 할머니가 생긴 것이었다.

할머니는 정선이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너무나 반가웠지만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글이 서툴러 답장 한 번 보내지 못한 할머니는 자신의 용돈을 모아 정선이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줘야겠다고 맘 먹었다. 그날 정선이에게 건넨 봉투에는 꼬깃꼬깃 모아 둔 15만 원이 담겨 있었다.

"편지 쓰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 줄 가족이 있는 것 같았고, 제 편지를 기다리는 할머니가 있다는 생각에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어요"라고 말하는 정선이는 사회복지사의 꿈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월야중)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 선정

교육부가 공모한 '2015년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에 전남의 8개 면지역 중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올해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로 선정된 8개 학교는 고성중(진도), 북평중(해남), 석곡중(곡성), 별량중(순천), 신북중(영암), 회덕중(장흥), 청람중(강진), 월야중(함평)으로 면단위 학생 수 60명 이상의 중학교들이다.

이번 선정된 중학교는 학생수에 비례해 학교당 2억 5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씩 3년간 약 63억 5천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열악한 농어촌 교육에 큰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전남은 전국 30개교 가운데 8개교가 선정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이

로써 전남교육청은 2013년 창평중(담양), 세지중(나주), 해제중(무안) 3개 중학교, 2014년 장성남중, 법성중(영광), 고금중(완도), 금산중(고흥), 율촌중(여수), 능주중(화순) 6개 중학교를 포함해 모두 17개의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를 운영하게 됐다.

거점별 우수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예·체능 교육, 농산어촌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및 학교별 특색프로그램 등 농어촌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각종 특별교실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할 수 있고, 원거리 학생들을 위해 통학 지원도 가능하다.

(손불서초) 조화로운 삶을 배운 숲속학교 '둘이 하나가 되어'

손불서초등학교는 장흥 물 과학관과 장흥댐, 우드랜드 숲에서 숲속학교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물고기들이 어떻게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배우고 물의 순환과정을 체험했다. 또, 숲속 생물 관찰하기, 나무를 분해하는 생물 찾아보기 등의 시간을 가졌고, '둘이 하나가 되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자연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됐다.

제2회 전남교육사진공모전 특상

아름다운 영산강에서 / 특상 함평초 김지원

구름은 어떻게 생길까? / 특상 손불서초 교장 정대성





2016년

함평교육지원청, 음치탈출 프로젝트

함평교육지원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1월 11일부터 '음치탈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모두 6회기에 걸쳐 진행되는 프포그램은 음악치료전문가인 윤선명 강사를 초빙해 열리고 있다.

이번 '음치탈출' 프로그램은 미흡한 음악적 감각에 대한 탈출이 아닌 'Stress, 음악치료로 탈출하자!'라는 부제를 가지고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지기반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음악을 이용한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숫자와 카드, 풍선을 이용한 음악게임, 리듬과 가사를 바꿔보는 Songwriting, 몸의 동작으로 느끼는 음악 감각, 음악과 함께하는 미술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음악치료의 큰 성과에 이어 초등학생들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심리적인 어려움을 표현하고, 마음에 쌓아둔 스트레스를 분출하고 있다.

(함평영화학교)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선정

교육부가 주관한 2016년도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에 함평영화학교가 선정됐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는 전국 특수학교 중 2015년 5개교, 2016년 5개교가 선정됐다. 대상 학교는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해 '진로와 직업'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함평영화학교는 이번 선정으로 각각 1억 3천만 원과 5천만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다. 사업비는 직업교육 시설·장비 확충 및 장애학생의 요구, 지역실정과 학교 여건을 고려한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된다.

함평교육지원청,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의 질 높인다

서툴지만 아름다운 첫걸음, 손불꿈나무들의 작은 음악회. 전남 스포츠클럽대회 해보초 방송댄스부 1위. 제7회 교육부 방과후학교 대상 지역 파트너 부문 최우수상 수상…

지난해 방과후학교를 위탁 운영한 함평지역의 성과다.

함평교육지원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적 기업 호남대랄랄라스쿨과 함께 함평 관내 초11교, 중5교, 총16교를 대상으로 농촌지역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사업을 하기로 하고, 지난 11일 방과후학교 업무담당교사 협의회를 가졌다.

방과후학교 위탁 사업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촌 지역의 우수 강사 확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가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자 추진된 전라남도교육청 지원 사업이다. 함평 지역은 지난해 13개 학교 10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올해는 16개 학교에서 136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날 협의회에는 위탁 업체인 호남대랄랄라스쿨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2016년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교 업무담당 교사들과 진솔한 의견을 나누었다.

협의회에 참석한 교사는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랄랄라 페스티벌’과 같은 자기표현의 기회를 갖게 되어 방과후학교 운영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면서 “일선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 교사들의 업무 경감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함평교육지원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탁 업체와 학교 간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프로그램 및 강사 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탁 운영과 함께 학교별 자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학교 교육 기능을 보완하는 또 다른 배움터, 전남 방과후학교’ 실현에 앞장 설 계획이다.

(함평신광중) 김철 선생을 찾아가는 통일 자전거 기행

함평신광중학교 전교생과 교직원 30명은 5월 27일 무지개학교 교과융합 프로젝트 수업으로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 선생을 찾아가는 통일 자전거 기행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고장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상해임시정부청사 견학을 통해 독립운동 역사를 이해하며, 통일 국토의 미래를 상상하며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사전활동으로 교과융합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하고 각 교과에서 역사와 통일에 관련해 교과연계 수업을 했다.

아침 독서시간을 활용해 ‘나는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도서를 읽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감상을 통해 분단과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미술시간에는 ‘우리 통일하고 손잡자’ 등 통일의 의미를 새긴 통일 깃발을 만들었으며, 음악시간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 통일관련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수학시간에는 학교에서 출발해 기념관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할 때, 한 시간에 몇 km 가는지 개인별 속력을 측정하는 문제들을 풀이해 봤고, 진로시간에는 통일 후 유망직업에 대해 생각해 봤다.

그리고 당일 아침 기술·가정 선생님 지도로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때 허기를 채우기 위해 먹었던 주먹밥 만들기를 재현하며 간식을 만들어 먹었다.

9시 30분, 참가자들은 ‘통일은 행복’이라고 구호를 외치고 학교를 출발해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까지 5Km를 이동했다. 함평경찰서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차로 호위를 해 주었다.

일강 김철 기념관에 도착한 일행은 문화해설사로부터 김철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를 그대로 재현한 건물에 전시된 각종 전시물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학교로 돌아와 5~6교시는 모둠별로 통일지도 그리기, 자전거 기행 UCC 만들기, 독립운동가의 생활상(또는 여성독립운동가) 조사 정리하기,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 홍보물을 제작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한 다음 결과물 발표대회를 가졌다. 7교시에는 역사와 통일 도전 골든벨을 통해 역사와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전남보건고)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간호대학 다닌다

전남보건고등학교는 7월과 9월 의료법인 목포새한성심병원과 화순고려병원과 현장취업실습을 파견하는 MOU체결을 통해 보건간호과에서도 취업과 진학을 병행하는 모델을 활성화했다.

이번 MOU체결은 '보건간호과 학생이 정규직 간호조무사로 취업한 후, 2017학년도 간호대학을 입학한 후에도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며 월 13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병원 내 생활관에서 숙박을 해결해주는 것은 물론 4대 보험과 퇴직금의 혜택까지 대우해 주는 조건이다.

이번 MOU 체결로 학생들은 주간에는 대학을 다니고 야간과 주말에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서 일을 하게 된다.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해 취업과 진학을 병행할 수 있게 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보건고 보건간호과 학생들은 졸업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각 병원에 취업하고 있지만, 실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와의 임금 및 대우는 현격히 달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간호사가 되기 위해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전남보건고는 간호조무사로서 취업을 하면서 동시에 대학에 진학해 간호사로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왔다.

3학년 권○○ 학생은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간호대학을 다니면서 간호조무사로 병원 근무를 하여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 씨도 "농업을 하면서 어려운 생계에 대학 학비 걱정을 덜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함평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설치 운영

함평공공도서관은 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능력 향상을 위해 장애인 독서보조기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2016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를 지원받아 휴대용 독서 확대기, 음성 독서기, 점자 프린터, 화면 확대 프로그램, 화면 낭독 프로그램, 특수 키보드, 전동 높낮이 조절책상 등 9종을 설치해 이달부터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심상미 관장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설치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독서보조기기는 1층 종합자료실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함평여중) 2016년 전남수업우수교사(JET) 인증

함평여자중학교 윤영호 교사가 '2016년 전남수업우수교사(JET)'로 인증 받았다.

2016년 전남수업우수교사로 선정된 교사는 모두 17명이다. 전남수업우수교사(Jeonnam Excellent Teacher)는 학생, 학부모, 동료 교직원, 전문직 등의 추천을 받고 학교추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수학습과정안과 수업동영상 1차 평가, 현장방문 2차 평가, 공개검증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 교

사에게는 인증서 및 기념배지가 수여되고, 해외 선진학교 탐방 기회가 제공된다. 또, 도교육청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다. '전남수업우수교사(Jeonnam Excellent Teacher) 인증제'는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존경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4명을 배출했다.

(전남보건고)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강원국 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전남보건고등학교는 12월 26일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인 강원국 작가를 초청해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의 주제는 '자기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기'였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병원 등 산업현장에 취업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사회 현장에 나가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을 통해 표현하는 소양을 향상시켜주고자 마련된 행사였다.

2시간가량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 강 작가는 말과 글을 쉽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로 쉽게 설명해 주었고, 작가 사인회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2학년 김○○ 학생은 "국어시간 글쓰기나 학교 행사 후 소감문을 쓰려면 너무나 막연했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싶어도 어려웠는데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말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학부모 이○○씨는 "우리 생활 자체가 말로써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반복된 일상인데 그동안 너무 어렵고 두려웠다. 오늘의 행사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 매우 뜻깊었다"고 말했다.

2016. 전남교육 사진 공모전 우수상

원예활동의 즐거움 / 함평영화학교 강희주



2017년

(대동향교초) 한국-아태지역 교사교류로 다문화 이해 높인다

전남교육청은 2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 전국 다문화가정 대상국가 초청교사 배치학교 교장, 협력교사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국제교사교류실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한해 사업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올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또 교사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관계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해 몽골과 필리핀에서 4명의 교사를 초청하고, 5명의 전남 교사들을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로 파견한 바 있다. 올해에는 함평 대동향교초등학교에 필리핀교사 2명을, 여수 웅천초등학교에 태국교사 2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초청교사들은 배치학교에서 한국 협력교사와 공동수업안을 개발하고 협력수업을 통해 다문화 교육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함평공공도서관) 배움을 나눔으로

함평공공도서관은 2월 21일 함평성애원을 방문해 어린이 독서동극 공연 봉사를 펼쳤다. 겨울방학 평생교육프로그램 '독서동극 놀이'를 수강한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배우고 익힌 '성냥팔이 소녀'를 어르신들에게 선보였다.

함평교육지원청, 2017년 연구동아리 발대식

함평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생을 우선하는 교육행정 정책대안을 위한 '2017년 연구동아리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연구동아리는 ▲교육공무직원 퇴직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소규모학교 행정을 통합운영하는 '학교행정 지원센터' 구축방안 ▲함평군 학교 재배치에 따른 에듀버스 효율적인 지원방안 ▲교육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등 모두 4팀으로 구성하게 된다.

교육공무직원 퇴직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주제로 연구동아리를 구성한 문성식 회장은 "이전 연구동아리의 구태의연한 형식에서 벗어나 회원 전체가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그동안 다소 소외되어 있던 교육공무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를 창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함평영화학교) 희망을 향해 쏴라

함평영화학교는 4월 12일 제10회 교내 정보화 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8년 제1회 교내정보화대회를 시작으로 어느덧 10년을 맞이한 이번 대회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변화 되었음을 알려 주었다. 정보화 대회는 정보경진대회와 e스포츠대회로 나누어 열렸다. 정보경진대회에서는 한글타자와 프로그래밍코딩 등의 종목이 진행됐고, e스포츠대회에서는 닌텐도를 이용한 볼링, 테니스, 양궁 등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 Xbox Kinect 댄스는 경쾌한 음악과 재미있는 동작으로 경기장 내 모든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학생들은 제11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등 각 종 대회 e스포츠 부문에 학교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나산중) 광주의 5월을 생각하며 달렸다

나산중학교는 5월 20일, 80년 5월의 의미를 부여한 5.18km코스 스포츠체험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광주의 5월을 생각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떠올리며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억했다. 또한 학생들은 스포츠체험의 날을 통해 기초체력 향상과 인내하는 도전정신을 배웠다.

이날 마라톤에 참가한 학부모 이명례 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마라톤에 참가했는데 아이들과 함께한 추억이 남다르고 즐거웠다"며 "힘은 들었지만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말했다.

대회를 준비한 전 올림픽 국가대표 마라토너이자 스포츠해설가인 김원식 진로상담 교사는 "운동이 신체적 건강을 넘어서 뇌 건강과 학습능력 그리고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며 "우리 모두가 5·18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그날을 기억하자"고 말을 맺었다.

함평교육지원청, 토요일마다 열리는 즐거운 직업체험

함평관내 중학생들이 토요일을 이용해 상시적으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5개의 상설직업 체험처가 문을 열었다. 함평나비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난 6월 24일 관내 중학생들이 바라스타, 뷰티, 네일, 연극, 뮤지컬 등 5개 분야에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상설직업 체험처를 개장했다고 밝혔다.

상설직업 체험은 오는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데, 함평읍 소재 소상공인이 진로멘토가 되어 학생들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샵에서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직업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날 바리스타 상설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투팽카페 이지향 대표는 " 학생 교육을 해 보지 않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는데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가슴 뿌듯하다"고 말했다. 예찬 빛바리기 뷰티샵 이경희 대표는 "직업은 개인적 성취감을 넘어 사회적으로 의미있어야 한다는 저의 직업관을 후배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바리스타와 뷰티 상설직업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내가 좋아하던 커피에 다양한 종류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고, 여러 가지 커피를 직접 만들어서 친구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다"고 말했다. 함평여중의 한 학생은 "같은 취향을 가진 다른 학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함평나비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는 "오늘 개장한 상설 직업체험처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군을 확대할 예정이며, 2학기에는 관공서에서부터 소상공업까지 실제 출근에서부터 퇴근까지 종일 체험을 하는 '함평나비 훨훨데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평월야중) 신나는 과학탐구실험캠프

함평월야중학교는 9월 4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과학탐구실험 캠프'를 개최했다.

'2017.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3년차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사이언스매직쇼와 다채로운 과학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사이언스 매직쇼는 과학마술을 이용해 신나고 재미난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과학공동체놀이인 베르누이풍선으로 구조물 만들기를 통해 학생들은 베르누이원리와 협동심, 효율적으로 활동하는 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온도가 변하면 색이 변하는 스티커를 이용한 나만의 시온컵 만들기와 미니드론 날리기 등 다양한 과학체험프로그램 이 이어졌다.

함평고, 학생회가 기획·운영한 자치 연수

함평고등학교는 9월 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5·18교육관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학생 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자치회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2017년 9월 1일부터 학생 자치회 활동을 시작하는 학생회 임원 28명이 참가했다. 함평고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상 3학년 초에 학생회를 출범시키면, 2학기에는 대입 준비로 학생회 활동 자체가 휴지기로 들어가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2학년 2학기부터 새롭게 출범한 학생회가 활동을 시작해 3학년 1학기까지 운영하고 있다.

연수 첫 날은 새롭게 편성한 부서들에서 각각 1년 계획안을 짜고 이를 전체가 참여한 자리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 계획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유 토론을 통해 실현가능성 여부를 타진한 이후 학생회 1년 살이를 확정했다. 둘째 날은 '장콩선생의 삶과 꿈'을 주제로 교장 선생님 특강이 있었다. 이후에는 학생회 회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화술 및 발성 전문가를 초빙해 2시간 동안 이론과 실습을 겸한 '스피치'와 '회의 진행법'을 교육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신임 학생회장 안○○ 학생은 "우리 스스로 기획해 학생회 1년 계획을 짠 것에 마음이 뿌듯하며, 임원진 전체의 토론 속에 확정된 계획들이 잘 실행되어 학생 복리 증진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은 자유 시간에 5·18교육관 옆에 있는 자유공원을 방문해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민주 인사들을 감금시킨 상무대 영창을 견학하며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직접 느끼기도 했다.

전국 최초 공·사립 통합 함평중, 새로운 출발



전국 최초로 공·사립학교 통·폐합을 통해 세워진 거점형 중학교인 함평중학교(교장 장영식)가 9월 1일 개교식을 갖고 수업에 들어갔다. 함평중은 총사업비 233억 원을 투입해 2016년 8월 착공해 2017년 8월 완공했다. 초현대식 건물에 다양한 최첨단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으며, 15학급 287명의 학생들이 꿈과 끼를 가꾸어나갈 수 있게 됐다.

당초, 함평지역은 매년 학생 수 감소와 교육여건 미비에 따른 외부학생 유입이 감소되고, 관내 학생 유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함평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와 사학재단, 함평군민이 힘을 모았다. 그리고 공립 함평중과 사립인 학다리중, 나산중을 통·폐합하는 적정규모중학교 육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강대영 교육장은 "통합 함평중학교의 개교로 함평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함평교육의 미래와 지역인재육성을 염원하는 학부모, 지역민의 뜻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함평교육천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공공도서관) 그림책에 놀이를 더하다

함평공공도서관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유아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그림책과 떠나는 미술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동아리 '엄마의 품'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엄마의 품'은 지난 상반기 진행했던 그림책교육지도사 과정을 수강한 어머니들의 모임이다. 회원들은 유아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만들기, 그리기 등 미술 활동을 더하여 책을 몸으로 느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운영된 이 프로그램에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고등학교와 연계해 운영한 진로독서체험프로그램에서 민간자격증인 그림책교육지도사 3급을 취득한 학생들이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다.

동아리 회원 최○○ 씨는 "새로운 그림책을 선정하고 미술놀이를 하면서 준비하는 우리가 더 즐거움을 느끼고 있고. 아이들이 책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긍심과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손불초, 학다리중앙초)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교육부가 주최하는 제15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손불초와 학다리중앙초 등 전남 도내 11

개교가 선정됐다.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는 교사역량 강화, 교실수업개선 확산, 학생 중심 학교 문화를 선도하는 학교로서 전남에서는 광양백운초, 손불초, 왕곡초, 죽림초, 학다리중앙초, 학산초, 여수웅천중, 남평중, 안좌중, 목포덕인고, 장성실업고 등 11개 학교가 선정됐다.

전남은 2014년 11개 학교가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선정된데 이어, 2015년 11개 학교, 2016년 10개 학교, 2017년 11개 학교가 선정되면서 4년 연속 두 자리 수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함평교육지원청,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이웃사랑

함평교육지원청은 12월 28일 함평지역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찾아 연탄과 쌀, 라면 등 생필품을 배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지역민 이○○ 어르신은 "가족이 없어 일년 내내 찾아오는 이가 없어 적적하고 외로웠는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와 말도 걸어주고 도움을 주어 고맙다" 며 연탄창고에 가득 쌓인 연탄을 어루만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강대영 교육장은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불초) 제15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선정

손불초등학교는 교육부가 주최한 '제15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공모전'에서 '콜라보로 배움을 즐기고 역량을 기르는 손불 STAR 교육 이야기' 라는 주제로 전국 우수학교에 선정됐다.

손불초는 생생지락(生生至樂) -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즐겁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행복한 학교를 꿈꾸고 있는데, 이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함평-광주를 포함하는 콜라보(collabo)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함께 어울려 배움을 즐기는 콜라보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총명, 감사, 재능, 멋을 높여줄 STAR 교육과정을 구현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슴에 별을 품을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역량을 기르는 참여형 수업으로 손불 브랜드수업인 Collabo 학습,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학습, 생태환경교육 프로젝트학습을 전개하여 미래핵심역량을 기르고 있다. '감성 ROAD로 시골아이들의 자존감 UP!'이라는 특색교육을 통해 자연 감성, 예술 감성, 인성 감성을 길러주는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아이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풍부한 감성과 자존감을 길러주고자 노력했다.

2017. 전남교육 사진공모전 은상

흩날리는 벚꽃잎의 추억 / 함평영화학교 정영신



2018년

'2018 함평나飛 Dream 행복교육축전'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숙)은 10월 26일 함평영화학교에서 농어촌 혁신교육의 눈부신 성과와 미래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혁신교육 성과발표회 '2018 함평나飛 Dream 행복교육축전'을 개최했다.

행복교육축전에서는 전남형 혁신학교인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성과발표회」를 열어 그동안 교육 혁신으로 이뤄낸 각종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공유했다. 야외 마당에서는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과 교직원, 지역민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험중심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력과 융복합 사고력을 키우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을 수 있는 교육박람회로 구성됐다.

박영숙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무지개학교 성과발표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이뤄낸 교육성과를 가감 없이 공개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학교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의지를 더욱 결집시켜 우리 아이들이 삶의 주인, 인격체로 바로 설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함평공공도서관) 그림책과 떠나는 미술나라

함평공공도서관은 1월 10일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책읽기의 즐거움을 전하는 '그림책과 떠나는 미술나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매달 두 번째 토요일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엄마의 품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들이 그림책교육지도사 3급 민간자격 과정을 수강하고, 그에 따른 재능기부 활동으로 진행된다. 수강료 및 재료비 무료이며, 매월 1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함평영화학교) 김근태와 5대륙 장애아동 전시 '들꽃처럼 별들처럼' 참여

함평영화학교 학생들은 3월 9일부터 3일간 강원도 일원에서 펼쳐진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회식과 경기를 관람하고 '김근태와 5대륙 장애아동 들꽃처럼 별들처럼' 전시회에도 참여했다.

함평영화학교 학생 28명과 교사 12명은 첫날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개회식과 알파인 스키 경기를 관람했다. 학생들은 장애를 극복하고 동계올림픽 무대에 선 선수들을 응원했다.

경기를 관람한 일행은 강릉으로 옮겨 패럴림픽 기간 동안 진행된 '김근태와 5대륙 장애아동 들꽃처럼 별들처럼' 전시회에 참여해 뜻깊은 문화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전시회에는 김 화백의 작품 40점을 비롯해 5대륙 장애아동 작품 70여점이 전시됐고, 영화학교 재학생 작품 2점도 함께 전시됐다.

장애아동 작품은 북한을 포함해 5대륙 아동들의 작품들인데, 이 가운데는 북한 장애아동 작품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시회를 관람한 학생들은 현장에 전시된 통일엽서를 통해 전 세계인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느끼며 통일을 기원했다.

함평영화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시설인 평창 패럴림픽 스타디움과 강릉 올림픽파크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공공장소에서의 관람 예절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함평공공도서관) 나비꿈 직장독서토론회 운영

함평공공도서관은 3월 15일 '나비꿈 직장독서토론회'를 운영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차례 운영한다.

토론회는 직원들이 책 1권씩을 추천해 모두 5권의 책을 선정하고, 각 추천자가 발제문을 작성해 발표한 뒤 토론을 이끌어 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도서 1권을 2회에 걸쳐 읽고 토론하며, '2018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지역으로 문학기행도 떠날 예정이다. 독서토론회 참여 직원에게는 상시학습 시간도 인정된다.

선정된 5권의 책은 '생각정리를 위한 프로세스의 기술 8단계(요지자와 준토쿠)', '불행피하기 기술(로프 도벨리,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김수현)',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법정스님)', '미움받을 용기(기시미이치로)' 이다.

(함평골프고) KPGA 프로·KLPGA 세미프로 배출

함평골프고등학교가 KPGA 프로 선발전과 KLPGA 준회원(세미프로) 선발전에서 각각 합격자를 배출했다. 4월 23일부터 3일간 충남 태안 골든베이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PGA 2018. 제1차 프로 선발전에서 함평골프고 3학년 김상원 학생과 졸업생 문범일, 강지현, 박연수 선수가 합격해 프로자격을 획득했다.

앞서 지난달 4~6일 군산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2018. 제1차 준회원 선발전에서도 3학년 이혜원, 김규리 학생과 졸업생인 주세연 선수가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대동향교초) 학생회 주관 아침 음악방송

대동향교초등학교는 4월부터 매일 아침 전교학생회가 주관하는 음악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1주일에 2차례 학교 주변 향교 숲 산책 및 아침 운동시간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학생회 다모임에서 아침활동 시간에 음악을 들으며 아침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음악방송이 시작됐다. 매일 아침 잔잔한 클래식 음악, 동요, 국악동요, 최신가요 등 다양한 음악이 학생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아침 음악 방송 담당자인 6학년 곽준규 학생은 “내가 골라주는 노래에 맞춰 친구들이 운동장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 즐겁다. 앞으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 신나는 피아노곡도 틀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6학년 박한별 학생은 “아침 시간에 음악이 나오니 정말 재미있고, 아침이 즐겁다”고 전했다.

한편 대동향교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회 중심의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함평영화학교)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 금4, 은1, 동1

장애학생들의 스포츠 경기대회인 스페셜올림픽에서 함평영화학교 학생들이 육상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선전했다. 함평영화학교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제14회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하계대회’ 육상 트랙종목에서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육상, 수영, 보체 등 12개 종목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함평영화학교는 육상 종목에서 금메달 4개(200M, 400M, 투포환, 멀리뛰기), 은메달1(투포환), 동메달 1개(멀리뛰기)를 얻었다. 이번 대회는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고 협동하며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으로 전국에서 선수와 지도자 2천200여 명이 참가했다.

(함평골프고) 미국 텍사스주 UIW와 MOU체결

함평골프고등학교는 9월 17일 미국 텍사스주 인카네이트워드대학(이하 UIW)과 골프교육 프로그램 공유와 진로·진학 및 학생연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1881년 설립된 UIW는 학생 수만 1만 명이

넘고, 산하에는 고등학교 2곳을 별도 운영하면서 세계 45개 국가, 145개 학교와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는 명문대학이다. 특히 4곳의 골프장을 소유하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선수 육성은 물론 골프 비즈니스과를 통해 다양한 진로를 개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골프고는 이번 MOU를 통해 선진 골프 운영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졸업생들의 진학과 장학금 혜택 및 장단기 학생연수, 그리고 동계전지훈련 장소 제공 등 향후 지속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함평공공도서관) 재봉틀 달인이 되어 볼까?

함평공공도서관은 2018년 가을학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야간에 재봉틀달인 초급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주 52시간 근무의 확대에 따라 여가시간이 많아진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개설돼 접수가 일찍 마감되며 인기를 끌었다. 한 신청자는 "일과 이후 시간에 별다른 문화 활동이 없는 함평 지역에서 도서관이 자신만의 옷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과정인 재봉틀 과정을 개설하여 일과시간 이후를 알차게 보내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야간에 개설하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류미현 관장은 "마을 학교인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프로그램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야간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영화학교) 마술로 장애에 대한 편견 극복

함평영화학교는 11월 9일 우석대학교 문화관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11회 콩나물 콘서트(구 장애학생 예능제)'에서 화려한 마술 무대를 선보여 대상을 수상했다. 콩나물 콘서트는 우석대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장애 학생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특수학교(급)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참가하여 난타, 댄스, 한국무용, 중창단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지는 대회다.

함평영화학교 고교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마술 팀은 대회에서 신기하고 화려한 마술 공연으로 끼와 재능을 펼쳐 관객 및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들은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마술을 익혀 지역사회 관공서 초청 공연 및 각종 대회에서 수차례 수상하는 등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함평여중) 우리 학교에는 몽골선생님도 있어요

"몽골에서는 아직도 교사 강의 중심의 주입식 교육인데 여기는 학생과 교사의 사이가 친밀하고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특히 다양한 종류의 체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 살아있는 교육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이번 함평여중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의 교육과정 편성이나 교실수업 개선 활동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계획이에요."

요즘 함평여자중학교에서는 낯선 언어가 심심찮게 들린다. 바로 발음이나 철자가 어렵기로 소문난 몽골어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체육대회에서는 전교생이 몽골노래를 합창하기도 했다.

함평여중은 지난 9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추진하는 '2018.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 교류 사업'에 공모하여 2명의 몽골교사를 배치 받았다. 이들 몽골교사는 3개월 동안 수업은 물론 교육과정설명회, 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께 하면서 양국 간의 문화를 교류하고 교육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몽골선생님들과의 만남에 학생들이나 교직원 모두 낯설고 서먹했지만 함께 한지 두어 달이 훌쩍 지난 요즘은 이제 곧 다가올 헤어질 순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쉬울 지경이다.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에 와서 몽골 선생님한테 말을 걸고 가는 임자영 학생(3년)은 "몽골 선생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지금까지 국제이해교육은 주로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다"면서 "나중에 교사가 되어서 꼭 몽골에 파견가고 싶다"고 전했다. 몽골 교사들도 함평여중에서 머무는 동안 교직원은 물론 학생들이 정말로 친절하고 편안하게 대해줘 남의 나라에 와있다는 느낌이 안들 정도라며 한국 생활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이지현 교장은 "우리 학교가 시골소규모학교여서 몽골교사들이 혹시 실망하지나 않을까 염려했는데 기우였다. 몽골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교사답게 자세도 훌륭하고 교육관도 투철하여 학생들이나 교직원 모두와 잘 지낼 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교육 및 문화 교류라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매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가급적 우리 나라의 문화와 교육을 두루 체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평교육지원청, 함평나飛 연합학생회 리더십캠프



함평교육지원청은 11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함평관내 초·중학교 학생회 임원 51명을 대상으로 함평나飛 연합학생회 리더십캠프를 가졌다. 학교별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캠프는 민주적 리더십강화 교육을 통해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학생 스스로 다양한 교육행사 기획과 추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이날 행사는 학생진로·진학 및 협업의 중요성을 샌드아트 공연을 통해 이해하는 시간으로 시작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샌드아트로 표현해보는 체험활동 시간도 가졌다. 연합학생회 임원들이 준비하고 진행한 '함평역사 골든벨'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제공했다. 또한 2019년 함평여자고등학교 부지에 설립예정인 가칭 '함평청소년 문화센터'의 명칭과 용도에 대한 열띤 토의도 열렸다.

고○○ 연합학생회 중등회장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함평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함평역사골든벨을 건의했다. 학생회 대표들의 의견이 교육활동에 반영되

어지는 것에 만족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함평교육지원청은 학생리더십캠프와 더불어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교사 역량강화 연수도 함께 실시했다. 리더십캠프의 회의 결과는 각급 학교에 피드백하여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함평공공도서관) 온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서관 축제

함평공공도서관은 12월 8일 '꿈과 미래를 만드는 행복한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학생 및 가족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함평공공도서관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한마당은 평생학습 작품 전시회를 시작으로 우수이용자 시상, 그림책과 떠나는 미술나라 프로그램 운영, 체험마당으로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행사 등 도서관에 관심 있는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도서관의 1년 성과를 만끽하는 장이 됐다.

함평도서관은 다독자, 동극 자원봉사자, 라이브러리 스타트북 우수자, 평생학습봉사자, 재능기부자, 도서관 공로자 등 총 21명을 우수 이용자로 시상했다. 우수 이용자는 1년 동안 대출권수를 15권으로 상향해 도서관 이용에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한 12월을 맞아 크리스마스트리,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등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뜻깊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함평교육지원청-함평군청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한 MOU 체결"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숙)은 12월 12일 함평군청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12월 13일 함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자체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한 연수를 개최했다.

함평교육청과 함평군청이 맺은 업무협약(MOU)은 양 기관이 함평지역 교육공동체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함평지역의 교육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협약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조항에서 시작하여 방과후 안전문제, 지역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서 사용한다는 내용 등 총 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3일 열린 연수에서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는 우리사회와 교육의 문제 속에서 마을교육공동체가 갖는 의의와 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하였고, 뒤이어 박현숙 강사는 시흥시의 사례를 들어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통해 어떤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를 생생히 전달했다.

박영숙 교육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통해 함평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위한 교육'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18. 전남교육 사진공모전 금상

신문지 비가 와요 / 함평초 김미라



2018. 전남교육 사진공모전 은상

자연이 주는 추억 / 함평영화학교 정영신



2019년

함평교육지원청, 마을학교 5개교 출범

함평교육지원청은 1월 23일 지원청내에서 함평형 마을학교 공모 심사 결과 5개의 함평 마을학교를 선정했다. 이번 출범한 마을학교는 함평교육지원청이 함평군 내 면단위별 마을교육공동체체를 구축하기 위해 마을주민과 함께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6개월간 준비해 왔다.

공모에 선정된 학교는 ▲마을형으로 해봄(해보면), 꿈자람터(손불면), 덕여촌(대동면)등 3개 학교를 비롯해 ▲학교주도형으로 한나리(영화학교-진양리) ▲센터형으로 꿈오라기(청소년문화의 집) 등 모두 5개 학교다.

마을형은 면단위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하면서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게 되며, 센터형은 읍단위에서 청소년의 창의적 놀이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학교주도형은 특수학생(영화학교)의 삶과 직업체험장이 마을이 되는 형태다.

함평 지역의 각기 특성에 맞게 마을학교가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은 함평교육지원청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습동아리를 구성해 매주 수요일 야간에 모여 학습하고 준비한 결과물이다.

함평교육지원청, 항일독립운동 발자취를 따라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숙)은 '일강 김철 선생의 후예들, 항일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다'는 주제로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4차례에 걸친 중국 상해, 가흥, 항주 일원 역사·문화체험교육을 마쳤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함평 역사·문화 국외체험교육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무위원을 역임한 호남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 선생의 후손인 함평지역 학생들이 항일독립정신을 기리고 역사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함평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함평월야중을 시작으로 함평여중까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3박 4일 일정으로 상해 임시정부청사, 윤봉길 의사의 유품이 전시된 홍구공원, 상해에서 활동한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묘가 있는 만국공묘, 가흥 김구 선생 피난처와 임시정부 요인 거주지, 김철 선생이 주로 활동한 항주임시정부청사 등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함평교육지원청의 상해 일원 역사·문화체험교육은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주제중심 융합수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전 교과에 걸쳐 역사·문화 국외체험과 연계한 주제탐구, 핸드북 제작 및 김철 기념관 탐방 등 사전활동을 실시하였고, 본 체험활동에서는 상해 홍구공원 내 윤봉길의사 기념관에 헌화하고 현장에서 느낀 한줄 소감을 목걸이를 엮어 흉상 앞에

헌정했다. 또한 상해사범대학 내 위안부역사박물관에서도 위안부할머니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은 소감 목걸이를 엮어 추념하였고, 박물관 관리를 위해 봉사하는 대학생들에게 감사하며 모금함에 성금했다. 귀국 후 체험을 통해 보고 느낀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주제별 동영상 제작 및 국외체험 로드맵을 작성하고 핸드북 제작 등 내실있는 사후활동도 계획했다.

(함평초등학교) 육상부,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다.

함평초등학교 육상부 이명준은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열린 '전남소년체육대회'에서 육상 80m 부문 2위를 차지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비록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하지는 못하였으나 전라남도 안에서 우수한 실력을 뽐내었으며, 학생 또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렸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학생종합체육대회'(전남소년체육대회 1차 평가전)에서는 김민지가 육상 80m 1위를, 정우주가 100m, 200m 두 종목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달리기 8종목 중 단위학교에서 3종목을 차지하는 성과로 선수들은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함평초등학교는 2019학년도부터 육상전문지도자(코치)가 없는 상황이지만 방과후학교 수업만으로 좋은 성과를 이뤄내어 많은 학교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함평학다리고등학교) 함평학다리고등학교 레슬링부 창단 및 김원기 체육관 개관식

함평학다리고등학교는 2019년 4월 26일 함평학다리고등학교 운동부(레슬링) 창단 및 김원기 체육관 개관식을 거행했다. 김원기 체육관은 1986년도에 현재 함평학다리고등학교 부지인 함평골프고등학교에 설치되었다가 2017년까지 지속적인 리모델링으로 김원기 체육관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함평 거점고등학교로 함평학다리고등학교가 개교하면서 2017년 7월에 함평학다리고등학교 레슬링장 신축이 결정되었다. 다음 해 2018년 3월 28일 시설공사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착공과 준공을 거쳐 2019년 1월 12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

이 날 함평학다리고등학교 레슬링부 창단 및 김원기 체육관 개관식은 창단식을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과 체육관 시찰로 마무리 되었다.

(함평초등학교) 테마가 있는 행복한 수학여행

2019학년도 함평초등학교 수학여행은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프로젝트형 수학여행이었다. 시행착오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매우 값지고 귀한 경험이 되었다.

첫날에는 모든 어린이들이 꿈꾸는 놀이동산 에버랜드에서 미션도 수행하고 무섭고 긴장감 넘치는 놀이기구를 타기도 하며 할로윈(Halloween)을 맞아 익살스러운 분장을 하고 여러 볼거리들을 구경하며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또 야간에는 에버랜드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퍼레이드와 불꽃놀이를 보며 피곤을 잊은 채 첫째 날 일정을 끝냈다.

둘째 날에는 각 반별로 서울 테마학습 계획을 세워 1반은 서대문형무소와 하늘정원을, 2반은 북촌한옥마을과 명동성당, 홍대거리를, 3반은 창덕궁, 동대문 및 광장시장을 체험하였다. 각 반별로 다른 코스로 체험을 하며 서울의 도시문화를 경험하고 역사적인 가치고 있는 유적지와 유물들을 보고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하루 이만보 이상을 걷게 되는 힘든 체험코스이다 보니 숙소로 돌아와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바로 잠에 빠졌었다.

마지막 날에는 수원화성과 천안에 있는 현충원 견학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었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행복했던 추억여행이 되었다고 말했다.

(함평학다리고등학교) 학교 이설(삼락관 개관) 및 교명 변경 기념식

함평학다리고등학교는 7월 18일 학교이설(삼락관 개관) 및 교명 변경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함평학다리고등학교는 지난 2012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와 함평지역 간담회와 협의회 과정을 거치면서 통합거점고 논의가 급진전되었고, 2016년 3월 1일 나산고와 함평여고가 1차 통합, 2018년 3월 1일 함평여고와 학다리고등학교가 통합하면서 명실상부한 거점고로 출범하였다. 그리고 이날 다목적 강당인 삼락관 개관에 맞추어 학교이설 및 교명 변경 기념식을 겸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 날, 함평학다리고등학교 삼락관에서 열린 '학교 이설 및 교명 변경 기념식'에는 기념 식수와 테이프 커팅으로 시작되었으며, 지역 사물놀이팀인 '나르다예술단'의 사물놀이 공연과 조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으로 사전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한 학부모는 '사립의 축적된 진학시스템과 공립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지역 명문고로써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평학다리고등학교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함평학다리고등학교) 레슬링부 전국소년체육대회 제패



함평학다리고등학교 레슬링부는 지난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치러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였다. 출전한 레슬링부 학생 중 10월 7

일 2학년 이건섭 학생이 그레코만형 51kg급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이건섭 학생은 서울대표 고척고등학교 유준식 선수를 무려 9:0으로 꺾고 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함평학다리고 레슬링부는 지난 4월에 창단해 윤동현 감독과 박근철 지도자의 전문적인 지도아래 연일 구슬땀을 흘리며 실력향상에 매진중이다. 그 결과 이번 금메달뿐만 아니라 올해만 해도 아시아 카뎃파견 선발대회에서 이건섭선수가 G51kg 1위, 제45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레슬링 대회에서 금메달, 제47회 문체부 장관기 전국학생 레슬링 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건섭 선수뿐만 아니라 1학년 선수들도 좋은 성적으로 실력발휘를 하고 있어 그동안의 선배들의 명성을 이어 명실공히 함평 레슬링의 메카로 나날이 성장 중이다. 특히 이번 쾌거는 올 4월에 전라남도교육청과 함평군의 지원 하에 최신식의 레슬링 전용구장 건립으로 우리 학생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훈련하여 맺은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매일 학생선수들과 함께하는 윤동현 감독과 박근철지도자 그리고 교직원, 학부모 모두의 지원과 격려가 있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이건섭 선수는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갖춘 학교에서 친구들과 훈련하는 것이 즐겁다. 앞으로 더욱 훈련에 매진하여 선배들의 영광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보건고) 경로당 의료봉사활동

전남보건고등학교 학생들은 4월 19일 월야면 금석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혈압과 혈당측정, 건강상담, 손마사지, 안마와 온열요법 등의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아이들을 맞이한 어르신들은 "손주같은 학생들이 정성껏 돌봐주니 몸도 마음도 다 치료가 된것 같다"며 만족했다. 전남보건고는 지역 어르신들이 학생들의 활동에 호응이 커 앞으로 봉사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함평공공도서관) 예향의 도시 목포로 문학기행

함평공공도서관은 4월 20일 예향과 항구의 도시, 목포에서 문학기행을 진행했다. 이번 문학기행에는 독서토론회 '책나무' 회원과 이용자 20명이 함께 했다. 주요 코스는 목포 근대역사 거리를 위주로 갓바위공원 - 목포문학관 - 근대역사거리(목포근대역사관, 노적봉) - 서산동 시화마을(연희네슈퍼 등)을 돌아보도록 구성했다. 독서토론회 문계주 회장은 "가까이 살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목포 여러 곳을 탐방했다"면서 "특히 목포문학관에서는 작가의 저술 활동을, 서산동 시화마을에서는 할머니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는 시를 볼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평중학교) 레슬링부 전국소년체육대회 제패

함평중학교 레슬링부가 5월 25일부터 전북 남원시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

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거둠으로써 레슬링 본 고장 함평의 명예를 다시 한 번 떨쳤다.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레슬링 그레고로만형 전남대표로 출전한 임재혁(함평중 3)선수 G80kg급 금메달, 이승한(함평중 3)선수 G92kg급 은메달, 김민(함평중 2)선수와 나종혁(함평중 2)선수가 각각 G110kg급과 G71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함평중학교 레슬링부는 홍준희 감독과 전경민 코치의 지도아래 다년간 다양한 전국 레슬링 대회에서 수많은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주장 정승한 선수를 비롯한 9명의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며 하루하루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함평교육지원청, 문화감수성 향상 놀이 체험 한마당

함평교육지원청은 6월 8일 함평군문화체육센터에서 관내 학생, 학부모, 지역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多같이 어우러져 多가치를 이해해요'라는 주제로 문화감수성 향상 놀이 체험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놀이 체험 한마당은 전라남도교육청과 함평군청의 지원으로 함평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함평 관내 경찰서, 보건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마을학교 및 전통놀이다문화교육연구소 등 23개 기관이 참여하여 여러 나라의 놀이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력과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준비하고 진행했다. 놀이 체험 한마당은 개회식 후 문화다양성 이해를 주제로 하는 샌드아트 공연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통놀이, 세계 여러 나라 놀이, 세계 전통 악기체험, 세계의상체험, 텀블러 및 태평소 만들기 등 30여개의 부스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후 모두가 참여하여 오방색 끈을 하나로 묶는 '농심줄 엮기' 활동을 마지막으로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함평교육청, 중학생 코딩교육 지원

함평교육지원청 함평나비진로체험지원센터는 7월 15일 해보중학교에서 1학년 13명을 대상으로 1학기 코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코딩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상상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뚜루봇을 활용한 언블로그드 활동, 핸드팔로잉, 카드코딩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됐다.

함평영재교육원, 고려대에서 창의공학캠프 개최

함평교육지원청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고려대학교에서 함평영재교육원 초등학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영재교육원 창의공학캠프'를 개최했다.

캠프는 멘토와 함께 6개 모둠으로 나뉘어 자신의 주변세계에서 느끼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논의하고 공학기술을 활용해 산출물로 발표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드론 제작하기, 아두이노로 코딩하기, 3D 프린터로 기획한 작품 발표하기, 과학·인문학적 지식을 퀴즈로 맞춰가는'도전 과학 골든벨' 등으로 진행됐다.

함평교육지원청, 마을학교전문적학습공동체 읍면단위 순회 첫 걸음

함평교육지원청은 8월 14일 함평군 해보면사무소에서 마을학교관계자 및 해보면민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학교전문적학습공동체 학습 모임을 진행했다.

함평지역 마을학교 대표자로 구성된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함평 마을학교가 출범한 3월부터 매월 자유로운 장소에서 자체 학습하며 역량을 강화해 왔다. 지자체 연계의 구심점이 되는 장소·주민 참여 방식의 열린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의 밑거름이라는 학습공동체 논의 결과 이번 달부터 운영방식을 면사무소와 주민 공개 토론으로 전환했다. 앞으로 9개 읍면 단위를 순회하여 진행되며 지자체와 견고한 협치 속 공개 학습·토론을 통해 주민 합의에 의한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교육청, '쉼표' 프로그램 호응

함평교육지원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추수상담군 및 희망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캔들 공예를 활용한 '쉼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함평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인 김고은(마름달 공방) 강사를 초빙해 캔들 공예 체험, 향수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했다.

함평교육청, 아래로부터의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함평교육지원청은 9월 6일 대회의실에서 지자체, 초·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유관기관 대표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교육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아래로부터의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이 협의회는 2018년 12월 함평군청과 함평교육지원청 간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MOU 체결 이후 설립된 6개 마을학교 운영의 내실화와 2020년 면단위 별 마을형 마을학교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이를 통해 함평 지역은 읍·면 단위의 기관 간 협치 속에서 지역교육생태계를 완성하고 교육자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영숙 교육장은 "현재 우리사회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운동적 차원을 넘어 문화로 정착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읍면 단위 별 아래로부터 민·관·학의 탄탄한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평교육지원청, 명화와 함께하는 미술치료

함평교육지원청은 9월 25일 함평군립미술관과 연계하여 기초학력향상특별프로그램인 '명화와 함께하는 미술치료'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미술 작품 감상과 미술치료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감을 강화하여 기초학력향상을 위해 계획됐다. 포켓 미술관, 명화를 활용한 고흐-별이 빛나는 밤에, 전통 민화를 활용한 포일아트 만들기 등 4회기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동향교초) 전국 이중언어대회 장려상

대동향교초등학교 이현민 군이 제6회 전국 이중언어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9월 28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대 본관 강당에서 열린 이중언어대회에서 대동향교초 2학년에 재학 중인 이현민 군이 중국 출신 어머니에게 배운 중국어와 중국 문화 등을 표현해 장려상과 50만 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이 군은 수상소감에서 "남들은 돈 주고도 잘 못하는 2개 국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어머니에게 중국어를 잘 배워 2개 국어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월야초) 다양한 언어로 글로벌 리더를 꿈꾸다

월야초등학교는 7월 5일 다문화 학생의 다양한 생각으로 꿈과 끼를 키우고 부모님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의사소통 능력 신장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에 한 발자국 내딛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실시했다.

참가 학생들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로 제한하여 영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가 가능하도록 했다. 참가 학생들은 다양한 내용으로 부모님의 모국어에 대해 조리있고 일관성 있게 내용을 구성하여 한국어와 부모님의 모국어 각각 3분씩 발표했다. 대회에 참여한 6학년 정무선 학생은 "어머니의 모국어인 베트남어를 발음과 억양을 잘 살려 정확하게 발표하려고 했는데 많이 떨린다"며 미소를 지었다.

함평교육지원청, 마을교육공동체 컨퍼런스 개최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숙)은 11월 19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지자체, 교원 및 학부모, 지역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교육공동체 컨퍼런스를 가졌다.

'함평천지,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컨퍼런스는 함평마을학교가 걸어온 길을 살피고, 함평마을교육공동체의 과제를 청중 포럼으로 공론화해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교원들의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토론을 이끌었던 박진영 광주대 교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유형을 '오산형', '시흥형' 등으로 구분하는데, 함평은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 활동가를 양성하고 마을학교를 일궈간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형태를 '함평형'이라 이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컨퍼런스는 1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마을학교별 마을의 기억 유산과 자원을 담은 지도(map), 19년 활동 성과물, 2020년 교육과정 및 학교 연계 제안서가 전시된 마을자원 박람회가 열렸다. 2부는 연합학부모회 '모둠북'으로 시작해 '함평마을학교가 걸어 온 길'과 2020함평마을학교 교육과정이 소개되고 주제 발제에 이어 패널 및 청중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성희 교육지원과장은 "2020년에는 읍면단위별 마을형마을학교를 세우고 지역교육협의체를 활성화해 지역 특성을 살리는 지역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마을이 인력과 재원을 분담해 함평마을교육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함평교육참여위원회 출범, 행복 동행 첫걸음 떼다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숙)은 지난 5월 1일 '전라남도함평교육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7일 위촉식 및 임시회를 개최했다.

전라남도함평교육참여위원회('이하 교육참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 위촉직 위원 2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촉직 위원은 학생대표 2명,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4명, 교직원 단체 4명, 함평군 관계 공무원 1명, 학계·교육계 5명,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4명, 함평군의회 추천 1명, 지역인사 7명으로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위촉되었다.

특히, 홍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등의 실질적홍보를 통해 많은 지역민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참여위원회에 지원하여, '함평군민의 열정과 자부심이 교육'이라는 명제를 확인시켜 주었다. 함평지역은 1923년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시작으로 1945년 민립학교인 구)학다리중학교를 건립하는 등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곳이다.

제1기 전라남도함평교육참여위원회 위원장으로 함평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는 학부모인 이봉철 위원이 선출되었다. 선출된 위원들은 집단 지성을 활용한 민주적 학교 교육 풍토 조성과 교육의 질적 변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함평교육 가치 실현과 교육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함평교육 정책 방향·중장기 교육 계획 수립·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함평교육지원청, 기록관리 기관평가 도내 교육지원청 유일 가등급!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숙)이 국가기록원에서 주관한 '2019년도 전국 공공기관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전남 도내 교육지원청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인'가'등급(98.2점)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획득한 점수는 교육지원청 평균(68.2점)과 전국 공공기관 평균(74.7점)보다도 월등히 높은 성적이다.

함평교육지원청은 2019년도 기록관리 전반에서 법령상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모두 이행하여 내실있게 운영했고, 특히 전체 학교 구성원 1인 이상이 포함된 학습연구동아리 배움터 발자국을 통해'문서고 품앗이 제도'운영으로 협업을 통한 기록물 참여모형을 구축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학교에서 부담을 느끼는 문서

고 정비를 이웃 학교 동료와 함께해 학교 기록물 관리 업무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했으며, 함평교육의 과거·현재·미래 100년을 연결한 학교별 연혁 정비 노력도 인정받았다.

또한, 함평교육지원청은 2020년 신 청사 이설에 맞춰 함평교육사 발간 및 교육 라키비움을 구축 중에 있다. 함평교육사 정리를 통해 학교 문화가 지역의 정신적 기준 및 공동체 의식 형성에 구심적 역할을 한 지역문화임을 공유하고 새로운 함평 교육 백년대계 로드맵을 완성할 예정이다.

함평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혁신모델 창출!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숙)은 2019년을 '현장에 감동을 주는 교육을 위한 행정 구현의 해'로 마무리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팀·과 구성원들 간 분장 사무, 직무에 대한 동기 부여를 바탕으로 협업을 이끌었고, 외부적으로는 탁상공론식 행정이 아닌 실제 적용 가능한 창의적 정책으로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했다.

경청올레를 통한 현장 요구는 즉각 반영을 원칙으로 교육자료 우체국 택배 배송 서비스 '함평 나르미'를 실시하여 학교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였고, 현장을 존중하는 밀착 행정지원으로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점검·환류형 컨설팅을 확대했다. 실제 효과를 내는 행정 컨설팅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보안업무·교육공무직원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운영하고, 학교에서 부담을 느끼는 문서고 정비는 학습연구동아리를 통해 이웃 학교 동료와 함께하는 문서고 품앗이로 학교 참여와 능률을 극대화했다. 또한, 월별 각 과 업무를 공유하던 월례회의를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변경해 2019 함평교육계획 중점과제 중심 연구를 실행하여 상호 소통이 활발한 조직문화를 조성 하였으며, 중간관리자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팀장·장학사 2주 1회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경직된 회의가 아닌 업무 공유형 토론 방식을 도입하였다. 특히, 함평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 공인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해 국민들께는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에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업무경감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박영숙 교육장은 "혁신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자산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직이 직원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견 교환이 활발할 때 혁신이 이루어지는 만큼 함평교육은 사람 중심 교육공동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록

연혁
학교현황
폐교현황

연혁

1409	함평현 재편·함풍현과 모평현 통합
조선초	함평향교 설립 (설립연대 미상) - 함평읍 외대화
1597	함평향교 소실 (정유재란)
1599	함평향교 중건
1616	자산서원 건립
1632	함평향교 대성전 명륜당 완공 - 대동면
1705	기산사(舊 유애사) 건립
1816	함평향교 화재
1862	농민항쟁
1868	서원철폐령
1901	광신학교 설립
1906	1. 1. 지남학교(현 함평초) 개교
1908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다 지남학교(현함평초) 폐교
1911	11. 3. 함평공립보통학교(현 함평초) 재개교
1919	4. 8. 문장4·8만세운동
1920	3. 26. 3·1운동 1주년 기념 만세운동(함평공립보통학교 졸업식) 7. 7. 함평청년회 창립 9. 13. 나산공립보통학교(현 나산초) 인가

1921 10. 25. 계천공립보통학교(현 신광초) 개교

1923 11. 1. 학교공립보통학교(현 학다리중앙초) 개교
12. 민립대학설립기성회 함평군부 결성

1925 10. 20. 월야공립보통학교(현 월야초) 개교

1926 9. 25. 엄다공립보통학교(현 엄다초) 개교

1927 4. 1. 해보공립보통학교(현 해보초) 설립 인가
4. 25. 손불공립보통학교(현 손불초) 개교

1928 5. 26. 월야면 주민 경찰과 충돌(월야면 국유림 환수운동)

1929 9. 25. 공립농잠실수학교(현 함평중학교, 골프고등학교) 개교

1932 6. 1. 함평공립보통학교용성간이학교 (구 대동초) 개교

1933 6. 10. 월야공립보통학교 부설 대야간이학교(구 월야북초) 개교

1934 4. 15. 이문간이학교(구 이문초) 인가
7. 30. 학교공립보통학교금곡간이학교(구 철성초) 개교

1936 4. 1. 함평공립보통학교 부설 성남간이학교(구 성남초) 개교

1938 7. 1. 금송간이학교(구 학교남초) 설립 인가

1939 6. 1. 신광공립보통학교 부설 간이학교(구 신광서초) 개소

1940 4. 1. 오두간이학교(구 해보서초) 개교 인가

1941 5. 12. 손불국민학교 부설 간이학교(현 손불서초) 개교
6. 16. 월송공립국민학교(구 월송초) 개교

1942 4. 1. 함평대화공립국민학교장년분교(구 함평서초) 설립 인가

1945 / 9. 1. 향교국민학교(현 대동향교초)개교
12. 5. 학교초급중학교(구 학다리중, 현 함평학다리고) 개교

1946 / 6. 4. 학다리서공립학교(구 학다리초) 개교
9. 24 김구 선생 함평국민학교 강연

1947 / 8. 18. 학교초급중학교 학다리중학교로개명

1949 / 12. 31. 교육법 공포

1951 / 6-3-3-4년제 단선형 학제 실시
8. 31. 학다리중학교, 학다리고등학교 분리
9. 25. 공립농잠실수학교 함평중학교, 농업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1952 / 6. 4. 함평군 교육구청 발족(법률 제86호)

1953 / 4. 15. 함평월야중학교 개교

1955 / 10. 5. 함평여자중학교 개교
11. 19. 엄다국민학교영흥분교(구 엄다남초)개교

1957 / 4. 7. 학다리동공립학교(구 학다리동초) 인가

1959 / 국민학교 의무교육 완성

1961 / 4. 20. 나산중학교 개교
5. 8. 나산국민학교구산분교(구 나산서초) 설립 인가

1963 / 7. 1. 대동국민학교연암분교(구 한골초) 개교
10. 10. 손불동국민학교 개교
12. 3. 함평국민학교영풍분교(구 함평북초) 개교

1964 / 함평국민학교 제10회 과학전람회 대통령상 수상
1. 1. 함평군교육청 발족 - 2과 구성(관리과, 학무과)
5. 6. 초대 교육장 박말감 부임
10. 10. 신광국민학교함정분교(구 신광북초) 개설

1966 / 함평국민학교 우정의 등불 비 건립
11. 3. 나산국민학교송암분교(구 나산동초) 설립 인가
12. 15. 함평서중학교(현함평손불중학교) 인가

1967 / 함평향교 복원
3. 5. 함평여자상업고등학교 개교
9. 9. 대동국민학교대광분교(구 대광초) 개교

1968 / 5. 23. 나산국민학교초포분교(구 나산북초) 개교
9. 18. 손불국민학교석산분교(구 손불남초) 개교
11. 5. 기산국민학교개교

1969 / 3. 1. 학다리국민학교영창분교(구영창초) 설립 인가
10. 25. 해보국민학교중앙분교(구 해보중앙초) 개교

1971 / 3. 1. 월야북국민학교광동분교(구 광동초) 개교
3. 5. 월야국민학교월야남분교(구 월야남초) 개교
3. 9. 함평신광중학교 개교
3. 9. 함평해보중학교 개교
6. 5. 함평서국민학교석성분교(구 석성초)설립 인가

1972 / 3. 6. 엄다중학교 개교

1973 / 3. 6. 함평월야종합고등학교(현 전남보건고) 개교

1975 / 3. 1. 함평여자상업고등학교 함평여자고등학교로 교명변경

1976 / 3. 1. 학다리동국민학교신성분교(구 학다리중앙초신성분교장) 개교

1977 / 함평농업고등학교 레슬링부 창설

1980 / 3. 1 대동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1982 / 3. 1. 한골국민학교 수몰로 폐교, 대동국민학교서호분교로 격하

1983 / 3. 1. 함평월야중학교, 함평월야종합고등학교 분리

1984 / 11. 5. 함평영화학교 설립 인가
11. 27. 나산고등학교 설립 인가

1985 3. 2. 함평고등학교개교

1988 자산서원 복원공사
2. 29. 함평공공도서관 설립
3. 1. 신광국민학교함정분교(구 신광북초) 신광국민학교로 통폐합

1991 3. 1. 함평농업고등학교 함평실업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3. 26. 전라남도함평교육청으로 명칭 변경

1992 3. 1. 대동국민학교서호분교장 대동국민학교로 통폐합
3. 1. 엄다국민학교영흥분교(구 엄다남초) 엄다국민학교로 통폐합
3. 1. 향교국민학교동암분교(구 월송초) 향교국민학교로 통폐합

1993 3. 1. 해보국민학교오두분교(구 해보서초) 해보국민학교로 통폐합

1994 3. 1. 학다리중앙국민학교복천분교(구 학다리동초) 학다리중앙국민학교로 통폐합
9. 1. 함평중학교, 함평실업고등학교 통합

1995 3. 1. 나산북국민학교 나산국민학교로 통폐합
3. 1. 나산국민학교구산분교(구 나산서초) 나산국민학교로 통폐합
3. 1. 나산국민학교송암분교(구 나산동초) 나산국민학교로 통폐합
3. 1. 신광국민학교동정분교로(구 신광서초) 신광국민학교로 통폐합
3. 1. 함평학생의 집 건립

1996 3. 1.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
3. 1. 월야초등학교광동분교(구 광동초) 월야초등학교로 통폐합
3. 1. 월야초등학교양정분교(구 월야남초) 월야초등학교로 통폐합
3. 1. 이문초등학교 나산초등학교로 통폐합
3. 1. 향교초등학교금곡분교(구 철성초) 향교초등학교로 통폐합
3. 1. 함평여자중학교, 함평여자고등학교분리
9. 1. 함평중학교, 함평실업고등학교분리

1997 3. 1. 함평북초등학교 함평초등학교로 통폐합
3. 1. 해보중앙초등학교 해보초등학교로 통폐합

1999 3. 1. 손불남초등학교 손불초등학교로 통폐합
9. 1. 대동초등학교 향교초등학교로 통폐합
9. 1. 석성초등학교 함평초등학교로 통폐합
9. 1. 월야북초등학교 월야초등학교로 통폐합

2000 지역교육청평가 전 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3. 1. 학다리중앙초등학교금송분교장(구 학교남초) 학다리중앙초등학교로 통폐합

2001 3. 10. 함평군 상설과학영재교실 운영

2002 3. 1. 함평실업고등학교 함평골프고등학교로 교명변경
3. 2. 성남초등학교 함평초등학교로 통폐합

2003 2. 28. 학다리중앙초등학교신성분교장 학다리중앙초등학교로 통폐합
3. 1. 엄다중학교 학다리중학교로 통폐합

2004 3. 1. 함평초등학교장년분교장(구 함평서초) 함평초등학교로 통폐합

2005 3. 1. 손불초등학교용암분교장(구 손불동초) 손불초등학교로 통폐합

2008 3. 1. 향교초등학교대신분교장(구 대광초) 대동향교초등학교로 통폐합
9. 1. 학다리초등학교 학다리중앙초등학교로 통폐합

2009 3. 1. 함평월야종합고등학교 전남보건고등학교 교명 변경
9. 1. 영창초등학교 학다리중앙초등학교로 통폐합

2010 9. 1.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

2011 Wee센터 개소
시범무지개학교 운영(함평신광중)
자율무지개학교 지정(손불초, 손불서초, 월야초, 함평해보중, 함평고)

2012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

2013 지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 출범

2014 청렴활동 최우수기관 선정
교육지원청 평가 우수기관 선정
2. 28. 학생의 집 폐교

2015 교육지원청 평가 우수기관 선정
영재교육기관 우수기관 선정
4. 8. 함평 나飛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협약 및 선포식

2016 제14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손불서초등학교, 함평손불중학교)

전라남도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함평초, 손불초, 학다리중앙초, 해보초)
교육지원청 평가 우수기관 선정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외부청렴도) 1위
전국 위(Wee)센터 평가(우수평가)
2. 29. 나산고등학교 폐교

2017
제15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우수학교 선정(학다리중앙초등학교, 손불초등학교)
청렴활동 인센티브제 기관 평가 1위
3. 1. 학다리중학교, 학다리고등학교 공립 전환
9. 1. (함평중학교, 학다리중학교, 나산중학교 통합) 함평중학교개교
11. 월광기독학교 함평캠퍼스 중등과정 설립 인가

2018
효율적 지방교육재정 운영 우수기관 선정
청렴활동 인센티브제 기관 평가 2위
3. 1. (학다리고등학교, 함평여자고등학교, 나산고등학교 통합)
함평학다리고등학교개교
3. 11. 나산실용예술중학교 개교
12.12. 함평교육지원청-함평군청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한 MOU체결

2019
2019년도 전국 공공기관 기록관리 기관평가 "가" 등급(98.2점)
1. 23. 마을학교 5개교 출범(해봄, 꿈자람터, 덕여촌, 한나리, 꿈오라기)
5. 1. 전라남도함평교육참여위원회 출범(당연직 2명, 위촉직 28명)
5. 25. 전국소년체육대회 레슬링 그레고로만형(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7. 18. (공·사립 통합) 함평학다리고등학교 이설 및 교명 변경 기념식

학교현황

2019년 10월 1일 기준



폐교현황


월야초등학교광동분교장
월야북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함정분교장
월야초등학교양정분교장
신광면
15
해보면
영창초등학교
해보중앙초등학교
월야면
해보초등학교오두분교장
신광초등학교동정분교장
이문초등학교
손불초등학교용암분교장
서해안고속도로
대동향교초등학교대신분교장
나산북초등학교
손불남초등학교
손불면
나산면
한골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서호분교장
나산초등학교송암분교장
나산중학교
나산고등학교
대동초등학교
나산초등학교구산분교장
함평초등학교장년분교장
23
석성초등학교
함평북초등학교
대동면
향교초등학교동암분교장
함평읍
함평여자고등학교
향교초등학교금곡분교장
학다리중앙초등학교복천분교장
24
성남초등학교
학다리중앙초등학교신성분교장
엄다면
학다리중학교
엄다중학교
학다리초등학교
엄다초등학교영흥분교장
학교면
학다리초등학교금송분교장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2015,『전남학교의 역사 Ⅰ·Ⅱ』, 전라남도교육청 용역보고서

학다리중앙초 80년사 발간위원회, 1999,『학다리중앙초등학교 80년사』, 학다리중앙초등학교

함평군사편찬위원회, 2010,『함평군사 1·2·3·4』, 함평군청

함평문화원, 2018,『함평군 설화, 호남가 첫고을 의향 함평』

함평군청, 2017,『함평 그때 그 시절』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2010,『함향 5호』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2017,『함향 12호』

함평교육지원청 산하기관(학교포함), 2000,『연혁지』

함평교육사

함평교육
우리 모두의 이야기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처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64
TEL. 061-320-6654 홈페이지 http://hped.jne.go.kr

발행인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숙

편집위원 김성희, 김정희, 김창훈, 고송주, 정호선, 안진우, 박애경, 김난의, 이인천, 오승리

함평교육사

함평교육 우리 모두의 이야기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